



일본군'위안부' 국제학술회의

일본군'위안부' 자료 발굴의 현재와 향후 과제

2018.8.22(수)

10:00 -18:00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프로그램

| 개최식 | 10:00-10:30

사회 :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개회사 :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환영사 : 김도형(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 제1부 | 10:30-13:00

한국, 일본, 미국, 태국 자료의 현황과 과제

사회 : 조윤수(동북아역사재단)

북한자료: 庵途 由香(리츠메이칸대)
일본자료: 김상규(고려대)
미국자료: 광귀병(광운대)
태국자료: Patporn phoothong(서울대 인권센터)

토론 :

공준환(서울대), 김윤미(부경대), 서현주(동북아역사재단), 최종길(동아대)

| 제2부 | 14:00-16:00

중국 일본군'위안부' 자료 현황과 과제

사회 : 김정현(동북아역사재단)

중국자료의 전반적인 개요: 윤명숙(역사연구가)
상하이 지역 일본군'위안소': 蘇智良(상하이사범대)
중앙당안관 자료: 李莉娜, 周玉文(중국 중앙당안관)
헤이룽장성당안관 자료: 聂博馨(헤이룽장성당안관)

토론 :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박정현(고려대), 이선이(경희대)

| 제3부 | 16:20-18:00

종합토론 : 재단의 일본군'위안부' 자료집 및 목록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 :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김종학(동북아역사재단), 윤지현(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하종문(한신대),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외 발표자 토론자

목차

개회사	6
환영사	8

1. 한국, 일본, 미국, 태국 자료의 현황과 과제

1-1.	북한 ‘위안소’ 관련 자료 - 유물 · 증언에 대한	
북한자료	문헌적 검증을 중심으로 15	
안자코 유카 庵迢 由香	北韓의 「慰安所」 関連資料－遺物・証言の文献的検証	29
Yuka Anzako	Materials on Comfort Facilities in North Korea	44
	朝鮮“慰安所”有关档案-通过文献验证遗物、证言	61

1-2.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일본자료의 현황과 과제	77
일본자료	Current Status of and Future Tasks for Japanese	
김상규 金尙圭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105
Kim Sang-gyu	关于日军“慰安妇”的日本档案之现状与课题	122

1-3.	미국 소재 ‘위안부’ 관련 자료의 현황과 과제	137
미국자료	The Resources Related to the “Comfort Women” Kept	
곽귀병 郭貴炳	in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148
KWAK, Kwi Byung	保存在美国的“慰安妇”档案与资料的现状与课题	161

1-4.	태국의 관점에서 본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역사적 자료:	
태국자료	1939-1945년 한국인 ‘위안부’의 체류 및 송환	173
팻폰푸통	Historical resources on Japanese military sexual	
Patporn phoothong	slavery from Thai perspective:	181
	文献、口述与研究：重建日军“慰安妇”的历史事实	189

	<토론문>	197
--	-------	-----

2. 중국 일본군‘위안부’ 자료 현황과 과제

2-1.	중국 당안관 자료 현황과 자료 해제	211
중국자료의 전반적인 개요		
윤명숙 尹明淑		
2-2.	문헌, 구술과 연구: 일본군‘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의 재건	229
상하이 지역 일본군‘위안소’	文献、口述与研究：重建日军“慰安妇”的历史事实	247
쑤즈량 蘇智良	Reconstruction of the Historical Facts of the	
Zhiliang Su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260
2-3.	중국 중앙당안관 소장 ‘위안부’ 문서 현황 소개	277
중앙당안관 자료	中国中央档案馆馆藏“慰安妇”档案情况介绍	283
리리나 李莉娜	Current State of Documents on Comfort Women	
Li Lina	Housed in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287
2-4.	중국 헤이룽장성 당안관 소장 ‘위안부’ 문서의 가치	295
헤이룽장성당안관 자료	中国黑龙江省档案馆馆藏“慰安妇”档案的价值	303
니에보신 聶博馨	The Value of Documents on Comfort women	
Nie Boxin	Housed by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China	309
	<토론문>	321

3. 종합토론 : 재단의 일본군‘위안부’ 자료집 및 록 사업을 중심으로

	<토론문>	333
--	--------------------	-----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 연구특별팀 팀장 도시환입니다.

오늘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군‘위안부’ 자료 발굴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와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중한 주제 발표를 위해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 오신 전문가 여러분께는 거듭 각별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단은 2006년 출범 이래 오늘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인 한국강제병합 108주년에 앞서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와 ‘2015년 한일협정 50년사’에서 일본이 주장해온 ‘식민지배합법론’과 ‘한일협정완결론’의 문제점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선도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 역사갈등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지책임의 규명에서 나아가 그로부터 파생된 반인도적 전쟁범죄로서 오늘날 국제사회 최대 인권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전후 70년 아베담화’는 일제식민지책임과 침략전쟁의 책임에 대한 부정에 더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의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같은 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 이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인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연행’과 ‘성노예’ 피해 사실 자체를 호도하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06년 설립 초기부터 일제식민지배하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해제를 통해 일본이 부정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진실을 규명해 왔습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재단은 금년 7월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의 출발로서 일본이 부인할 수 없는 일본군‘위안부’ 자료를 집대성하고 지금까지 수행해온 학술연구 네트워크를 더욱 종합적·체계적·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단 내 일본군‘위안부’ 연구특별팀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발굴한 자료의 공유를 위한

자료센터 및 국내외 공동연구의 중심축으로서 더욱 체계적으로 자료의 발굴·정리 및 학술연구에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희 일본군‘위안부’ 연구특별팀은 일제식민지배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라는 중첩적이지 중대한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해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인권, 정의, 평화를 향한 국제인권법의 정립과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국가주의’ 철학으로부터 인권중심 사고로의 전환을 비롯하여, 일제식민지배하의 반인도적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침해당한 인권에 대한 ‘응답가능성으로서의 정의’ 곧 법적 책임을 추구함으로써, 단순한 전쟁방지 차원이 아닌 오늘날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human rights)과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실현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의 정립을 통한 진정한 평화공동체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동북아 역사갈등의 최대 현안이자 국제사회 최대 인권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석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태국 등의 자료에 대한 현황을 종합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진정한 역사화해와 평화공동체의 토대 구축을 위한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전문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 연구 특별팀장 도 시 환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도형입니다.

올해는 일제에 빼앗긴 주권을 선조들의 선혈로 되찾은 광복 73주년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7년전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8월 14일을 국가기림일로 제정한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인 한국강제병합 10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오늘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군‘위안부’ 자료 발굴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와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리츠메이칸대학의 안자코 유카(庵途由香) 교수님, 상해사범대학의 쑤즈량(蘇智良) 교수님,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신 중국 중앙당안관의 리리나(李莉娜) 처장님과 헤이룽장성 당안관의 니에보신(聂博馨) 처장님을 비롯하여 귀중한 주제 발표를 위해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 오신 대표적인 연구자와 저명한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각별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단은 2006년 설립 초기부터 일제식민지배하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해제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실태를 밝히고 자료의 공유를 통한 연구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부정해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은 일본이 부인할 수 없는 일본군‘위안부’ 자료의 집대성에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연구가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재단은 2009년부터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중국 연변대에서 남·북한이 함께 참석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일본의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일본군‘위안부’ 웹지도 제작 등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역시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 이후에도 UN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인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연행’과 ‘성노예’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일본군‘위안부’ 자료 관련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학술 네트워크를 더욱 종합적·체계적·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 7월 일본군‘위안부’ 연구 특별팀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발굴한 자료의 공유와 협력 및 국내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료센터로서 더욱 체계적으로 자료의 발굴과 정리 작업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동북아 역사갈등의 최대 현안이자 세계 최대 인권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태국 관련 자료를 연구해온 전문가 여러분의 폭넓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북아의 진정한 역사화해와 평화공동체의 토대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어려운 주제에 대해 옥고를 집필해 주시고 고견을 들려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일본군‘위안부’ 전문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는 것으로 환영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도형



1

한국, 일본, 미국, 태국 자료의 현황과 과제

북한자료

庵送 由香(리츠메이칸대)

일본자료

김상규(고려대)

미국자료

곽귀병(광운대)

태국자료

Patporn phoothong
(서울대 인권센터)

1

1. 북한자료

안자코 유카 庵途 由香
(리츠메이칸대)

북한 ‘위안소’ 관련 자료 - 유물·증언에 대한 문헌적 검증을 중심으로

| 안자코 유카 庵澔由香 (리츠메이칸 대학)

1. 들어가며

최근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가장 주목된 정치적 현안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의 실태에 관한 실증적인 역사 연구는, 지난 20년간에 그 정치적 위상과 중요성에 대응할 만큼 심화와 확대가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사회적 관심의 크기에 비해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서, 주요 연구대상인 일본군이 일본 안에서조차 특수한 조직인 것을 들 수 있다. 일본군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직후에 폐지됐으므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군의 조직·편성은 전쟁 말기에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에, 자료 해석을 위한 기초 정보의 정리 자체가 힘든 작업이다. 전시 말기가 되면 자료 부족도 눈에 띈다. 최근에는 미국,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었으나, ‘위안부’ 연구는 생존자와 체험자·관계자 등의 증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위안소’와 ‘위안부’에 관해서 발견된 문헌자료들은 몇 가지 자료

집으로 한일 양국에서 간행되었다.¹⁾ 그러나 일부 역사연구자들의 논저를 제외하면, 이들 사료를 활용해서 ‘위안부’, ‘위안소’를 분석한 역사연구는 의외로 적다.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서는 더욱 그 상황이 현저하다. 대표적인 역사 연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외에 일본군 사료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나가이 카즈(永井和) 연구가 있다.²⁾ 나가이는 요시미 및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코바야시 요시노리, 후지오카 노부카츠 등) 사이에서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는 문서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에 주목하여, 이에 관련된 경찰 문서를 상세하게 분석했다. 분석은 각 문서의 작성 배경, 의도, 관련 사례까지 이르렀다. 나가이는 그 결과,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견해는 물론 요시미의 문서 해석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졌다. 즉, ‘위안소’는 장병의 성욕을 처리시키기 위해 군이 설치한 병참부속시설이며, ‘위안소’ 개설을 국가 방침으로서 ‘위안부’ 모집과 도항을 합법화했으나, 사회 통년적으로 ‘추업(醜業)’이었던 ‘위안소’와 군 및 국가 간의 관계는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미 10몇년 전에 공개된 문서를 깊이 분석 및 입증함으로써, 일본군이나 국가의 ‘위안부’, ‘위안소’에 대한 견해의 모순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이다.

사바이버들의 증언이나 업자 및 병사들의 증언은 공문서에 나타나지 않은, 혹은 연구자가 상상하지 못한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앞으로도 그 분석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들의 귀중한 증언을 더욱 객관적으로 검증할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나가이의 연구와 같은 사료 검증과 분석이 앞으로 더욱 더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에서는 함경북도 방진에서 발견된 ‘풍해루’와 ‘은월루’라는 성매매시설에 대해서, 관련 ‘증언’들을 새로운 자료조사를 포함해서 사료적으로 검증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풍해루’ 및 ‘은월루’는 민간 업자가 운영했다는 점에서 ‘유곽’이라고 보이며, 해군 병사들이 주로 사용했다는 증언이 있다. 한편으로 현재까지 방진이라는 지역의 성매매시설이나 ‘위안소’에 직접 언급한 문서나 문헌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 방진은 바닷가에 있는 한 산한 작은 농촌이며, ‘풍해루’ 및 ‘은월루’가 있었던 지역에 군시설이 있었다는 기록도 발견되지 못했다. 또한 전시기에 전쟁터가 된 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안소’로 규정

1) 吉見義明 편집/해설, 『從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1992년; (財)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①~⑥, 龍溪書舎, 1997년; 朱德蘭, 『台灣慰安婦關係史料集』, 不二出版, 2001년; 최덕수 / 변은진 / 안자코유카, “‘위안부’ 관련 문헌자료집” 1,2, 여성부, 2002.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輝,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 明石書店, 2006년; 세종대학교,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 1: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위안부문제 관련 자료를 번역 분석”, 황금알, 2018, 등이다.

2) 永井和, ‘陸軍慰安所の創設と慰安婦募集に関する一考察’, 『二十世紀研究』, 창간호, 2000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고자는 ‘풍해루’ 및 ‘은월루’는 전쟁터나 점령지에 있었던 ‘위안소’와 완전히 같이는 않더라고 조선의 다른 지역(경성, 부산 등)에 있던 ‘유곽’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성매매시설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들을 ‘식민지 위안소’로 분류할 것을 제기한 바 있다(상세한 설명은 다음 장을 참조).³⁾

북한에서도 1990년대부터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독자적 조사도 실시했다. 그러나 현지에서 발표된 것은 사바이버들이나 ‘위안소’관계자들의 증언이 거의 대부분이다.⁴⁾ 보고자가 북한 라남, 회령, 청진 등지에서 현지조사를 했을 때, 북한 당국은 조사에 앞서 각지 인민위원회에게 조사 협력을 의뢰했다. 현지에서는 담당자들이 건물터에 관한 사전조사나 경험자 면담을 수배해 줬으나, 보고자가 남아 있는 문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알고 있는 자는 없었다. 연구논문 등을 봐도 관련 공문서가 북한 내에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한 상태다. 이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본 보고에서는 일단 북한에 흔적이 남은 근대의 성매매 시설에 대해 현재 공개된 일본군 및 일본정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증언을 검증하도록 한다.

2. 일본군 ‘위안소’ 정의와 ‘식민지 위안소’

우선 ‘식민지 위안소’에 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한다. ‘위안소’의 정의에 관해서,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는 그 선구적인 연구에서 이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①군 직영의 군인·군속 전용의 위안소, ②형식 상 민간업자가 경영하지만, 군이 관리·통제한 군인·군속 전용의 ‘위안소’, ③일반인도 이용하지만 군이 지정하고 군이 이용하는데 군이 특별한 편의를 제공한 ‘위안소’이다.⁵⁾ 또, 실제로 군직영 ‘위안소’부터 민간 매춘소(売春宿)에 가까운 것까지, 다양한 중간 형태가 있었던 것도 지적하고 있다. 즉, 설치·경영·관리와 같은 측면에서, 일본군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

3) 金榮・庵途由香, 「咸鏡北道の軍都と『慰安所』・『遊廓』」, 宋連玉・金榮編著『軍隊と性暴力 朝鮮半島の20世紀』, 現代史料出版, 2012年.

4) 북한의 ‘위안소’에 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김영, ‘북한의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식민주의’, 송연옥 / 김귀옥 외 지음,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도서출판 선인, 2017년, 를 참조.

5) 吉見義明, 「第一章 日本軍慰安婦とはなにか」, 吉見義明・林博史編著, 『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 大月書店, 1995年, 6頁.

고 있었다는 것을 정의의 핵심으로 함으로써, ‘위안소’를 공창제도 하에서의 다양한 민간 성매매 시설과 구별해, 일본군, 나아가서는 천황 및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시도했다. 이 정의는, ‘위안소’ 제도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정의는, ‘위안소’는 실질적으로 주로 일본군의 전투 지역과 점령·주둔지에만 존재했다라는 암묵적인 인식을 낳았다. 생존자에 따르면, 부산과 북한의 나남 및 방진에서 ‘위안소’가 있었다는 증언⁶⁾이 나오면서, 전장·점령지 외에도 ‘위안소’가 존재하고 있었음이 제기되기 시작했다.⁷⁾ 증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전쟁터가 되지 않았던 조선⁸⁾과 대만에서는 점령지이나 전쟁터같이 군이 ‘위안소’를 관리했다는 명확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또 병사의 성적 위안에 민간의 성매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군이 직접 관리하는 것 같은 ‘위안소’의 존재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는, 공동 연구에서, ‘식민지’라는 군사적에 특수한 지배 지역에서는, 전장과 점령지 같은 지역에 만들어진 ‘위안소’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의 성매매 시설과는 분명히 다른 성매매 시설이 존재했으며, 이것을 ‘식민지 위안소’로 새롭게 분류할 것을 제기했다.⁹⁾ 조선에서는, 상주하고 있던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이 함경 남북도에 주둔했고, 나머지 1개 사단도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 다수를 배치하는 등 상당수가 중국·소련·조선의 국경 지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북한이 ‘위안소’가 있다고 발표한 나남은 전형적인 군사 도시였다. 또 발표자의 고찰에서는, 방진에 있던 성매매 시설은, 그 환경이나 처한 상황으로 생각하면, 군 전용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성매매 시설은, 일본군과의 관계성이 보다 농밀하다. 예를 들면 경성 및 기타 조선의 도시에 있었던 민간의 성매매 시설과는, 상황과 조건에서, 분명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요시미의 정의가 제기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위안소’에 비해 ‘중간 형태’의 ‘위안소’로 ‘식민지 위안소’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편,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1-2, 한울, 1993년, 1997년 등.

7) 「從軍慰安婦」·太平洋戦争被害者対策委員会, 「朝鮮・威鏡北堂清津の日本軍〈慰安所〉の実態」, 金富子・宋連玉, 『「慰安婦」・戰時性暴力の実態』第4巻, 2000年. 伊藤孝司, 『日本軍「慰安婦」・強制連行被害者の叫び 平壤からの告発』, 風媒社, 2001年 등.

8) 엄밀히 말하면 1945년 8월 9일 소련 점령에 따라 청진·회령 등 조선 국경 지역이 몇일 동안 극심한 전쟁터가 됐다.

9) 金榮·庵途, 앞의 논문.

‘엄밀한 의미에서의 위안소’와 민간의 성매매 시설과의 구별을 고집하는 이유는, 일본의 국가 책임을 부동의 것으로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업자의 성매매 시설과는 구별하여 일본군과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요시미의 정의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간의 성매매 시설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위안소’라고 단정해버리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1992년까지 일본 정부는 ‘위안부는 업자가 모았’기 때문에 ‘업자의 책임’이라고 공언했었다. 더욱이 일본의 우익 세력은 여전히 ‘위안부’를 ‘성매매 장사에 종사했다’라고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일본군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성매매 시설을 ‘위안소’라고 하는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식민지 위안소’라는 개념은 조선의 식민지 지배의 기반이 군사적 지배 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그것이 일본 및 식민지 조선의 성매매 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¹⁰⁾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엄격하게 일본군과의 관계성을 실증할 필요가 있지만, 공창제도와 같은 인신매매에 기초한 성매매 제도와 그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위안소’의 제도화 같은 발상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성의 성을 국가가 관리·상품화해서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공창 제도와 ‘위안부’제도는 동일 선상의 존재라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증언에 의한 방진 ‘위안소’의 실상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에서 차로 1시간만 가면 방진동이라는 곳이 있다. 북한 정부는 1998년에 여기에 ‘위안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¹¹⁾ 이것을 받아들여, 일본인 저널리스트 이토 타카시(伊藤孝司)가 1998년~2001년에, 김영과 안자코 유카(庵途由香)가 2003년에, 김영이 2008년에, 방진의 ‘위안소’라고 추측이 되는 ‘풍해루(豊海樓)’와 ‘은월루(銀

10) 예를 들면 공창제도와 ‘위안부’ 제도와의 관련에 관해서는, 宋連玉, 「公娼制度から『慰安婦』制度への歴史的展開」, 『日本軍性奴隷制度を裁く - 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 3, 緑風出版, 2000年. 또는 藤永壯, 「植民地公娼制と日本軍『慰安婦』制度」, 早川紀代編, 『戦争・暴力と女性3 植民地と戦争責任』, 吉川弘文館, 2005年 등. 또한 일본군 ‘위안부’ 나 한국인 ‘위안부’ 가 전쟁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시각도 중요하다. 宋連玉・金栄編著, 앞의 책의 서론을 참조.

11) 김영, 「북한의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식민주의」, 미공간원고, 2016년 공간 예정.

月樓)’의 건물 흔적을 조사하고,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¹²⁾ 이토 타카시는 해방전부터 방진에 살았던 주민 4명과, 당시 바로 옆에 살고 있어서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신락천씨(1930년생, 당시 해주 의학 대학에 근무)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김영·안자코는 신락천씨와 당시의 주민 1명을 인터뷰했다. 사료에 의한 검증을 하기 전에 먼저 ‘풍해루’ ‘은월루’에 관한 이러한 증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당시 방진은 150호 정도의 반농반어촌이었다. 그곳에는 경찰 주재소에 15~6명의 경관들, 헌병대의 방진분견대에 7~8명의 헌병들, 조선인특고 1명이 상주하고 있었다.
- 당시 이 건물은 헌병이 지키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았다. 건설시키는 ‘은월루’가 1936년 경, ‘풍해루’가 1938년 7~8월 경이었다.
- ‘은월루’의 경영자는 일본인 여성, ‘풍해루’는 윤두만(尹斗滿)이라는 관동군 군속이었던 조선인이다.
- 여기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은월루’에 상시 20명 정도, ‘풍해루’에 상시 15명 정도였다.
- 지상 근무 장병들은 매일 ‘풍해루’에 왔지만, 배에 타고 있는 장병은 수·금·일 요일에 방문했다. 방진 옆에 있는 유진항(楡津港)에서 상륙 한 병사들이 약 1km를 걸어왔다.
- ‘풍해루’ ‘은월루’ 안의 모습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해방 후에 거기에서 일하던 여성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증언 중에서, 특히 발표자가 중시하는 것은, ‘풍해루’ ‘은월루’를 이용한 것이 군인뿐이었다는 점을 검증하는 일이다. 이토 타카시는 ‘형태로는 민간인이 “경영”했지만, 해군이 관리·통제하는 군인·군속 전용의 ‘위안소’ 이었던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이 두군데는 분명히 ‘위안소’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김영·안자코도 요시미가 정의하는 것과 같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위안소’라고 정의하는 것은 보류하면서도, 한없이 검증에 가까운 회색이며, 이러한 형태를 ‘식민지 위안소’라고 부르는 것을 주장했다. 이 ‘군의 관여’에 대해, 논문 발표 당시에는 검토를 못했던 자료도 포함해서 좀 더 검증해보고자 한다.

12) 상세하게는, 伊藤孝司, 『残っていた日本軍『慰安所』』, 앞의 책 및, 金栄·庵澄, 앞의 책.

4. 자료에 의한 검증

‘풍해루’ ‘은월루’가 있었다는 방진은 식민지기 당시의 주소는 ‘함경북도 경흥군 풍해면 대유동 이리 방진’, 현재의 주소는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이다. 즉, 현재는 청진시에 속해 있으며, 행정 구역도 일제시기부터 그 명칭이 상당히 변했다. 이 방진의 한자는 ‘芳津’이지만, 조선 총독부의 행정 구역 명칭 일람 등에서는 ‘方津’로 표기되는 경우도 많았다. 군대 관련 자료에서는 ‘芳津’으로 표기되거나 ‘方津’으로 표기될 경우도 있어서 통일하게 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 제작 “오만분의 일 조선 지형도 집성”에서는 ‘芳津’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芳津’의 표기를 취하고 있다.

발표자는 2003년 10월에 방진의 ‘풍해루’ ‘은월루’의 현지 조사를 실시했지만, 현지에서 처음에 가졌던 인상은 ‘이런 곳에 ‘위안소’가 정말로 있었는가?’였다. 실제 현재의 위성사진에서 보아도, 집은 매우 드문드문하다. 주변은 언덕으로 큰 건물은 거의 없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여기저기에 숲과 밭이 드문드문 퍼져있고, 인구는 상당히 적다. 전철은 물론 버스와 같은 공공교통수단도 안보인다. 증언에서는 식민지기에는 방진의 전체 인구는 약 150호 정도라고 했다. 이러한 장소에, 증언에서는 상시 15~20명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당하고 있던 ‘위안소’가 2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성매매시설의 이용자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발표자가 현지 조사를 한 적이 있는 나남의 성매매시설의 경우는, 변화가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그래도 큰 성매매 시설이 즐지어 있는 지역이며, 게다가 도시의 끝에 있었다. 그 시설을 이용할 정도로 군인 인구도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방진은 정말 밭과 숲 밖에 없는 ‘시골’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방진이나 그 주변에서 ‘위안소’나 성매매 시설에 대해 작성된 공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주위에 ‘풍해루’ ‘은월루’를 이용할 정도의 군인 인구가 확인되면 위의 증언은 상당한 확률로 신빙성이 생긴다.

그러면 방진에는 군대의 주둔은 있었던 것일까? 이토 타카시는 ‘풍해루’ ‘은월루’는 해군의 ‘위안소’였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육군·해군의 쌍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지역에는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시설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육군의 경우인데, 행정 구역에서 보면 방진(경흥군)은 제19사단의 관할이다. 제 19사단 예하 연대들은 주둔지가 나남, 회령, 함흥, 평양이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방진에는 연대의 상주는 물론 없었고, 또 국경 수비대도 이 지역에는 주둔하지 않았다. 그런데 육군은 1936년이 되면 국경지대의 방위·경계를 목적으로 라진에 ‘라진요새지대’를 설치하고, 국방용 방어시설의 건

설에 착수한다.¹³⁾ ‘라진요새지대 설치에 관한 건’에 수록된 지대의 지도에 따르면, 연안부의 대상 지역은 북쪽은 두만강의 국경에서 남쪽은 사진만(沙津灣)까지로, 여기에는 방진도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라진요새지대 사령부는 신안동(新安洞)에 있었다.¹⁴⁾ 이곳은 계획적으로 도시 개발된 라진의 가장 큰 도시인 지경(地境)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인접해있었다.¹⁵⁾ 이 신안동에서 방진까지는 지도상 직선거리로도 20킬로미터 정도여서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도보로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또한 병사가 「오락」을 위해서 이동하려면, 도시의 지경과 신안동에 가는 편이 훨씬 간편했다고 추측된다.

한편, 해군 시설은 방진에서 1km 떨어진 ‘유진(楡津)’라는 지역에, 일찍이 1938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유진은 라진만(羅津灣)의 거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방진은 지도에서 반도의 반대편 바다를 마주하고 있지만, 반도의 움푹들어간 부분에서 육지를 통해서 가면 직선 거리로 단지 1 킬로미터 정도이다. 【그림 1】유진은 1899년에는 영국 동양 함대의 일부가 유진 앞바다에 나타나는 등 방진과 달리 군 사료에 일찍부터 지명이 등장한다.¹⁶⁾ 증언에서는 ‘유진에서 해군 병사들이 왔다’라고 하고 있고, 확실히 거리적으로는 충분히 도보로 올 수 있는 거리이다. 그러면 유진은 군사적으로는 어떤 곳일까?

유진의 해군시설에 대해 검토하기 전에 우선 일제시기 조선의 해군군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겠다. 일본 육군의 경우 일본 행정구획을 단위로 부대가 배치되었는데, 해군의 경우는 담당하는 곳이 주로 해역이기 때문에, 배치 담당 구획은 육군과 큰 차이가 있다. 해군은 일본의 ‘영토’를 크게 4개의 방어/ 경비 담당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에 군항과 요항(要港)을 두었다. 조선이 속하는 ‘제3해군구’는 군항으로 지정된 사세보(佐世保)에 진수부(鎮守府)를 두고, 그 밑에 요항으로 진해, 마공(대만 팽호도), 러순(旅順)에 요항부(要港部)(1941년 11월부터는 경비부)를 두었다. 진해경비부의 담당경비구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해역 및 이키(壱岐), 츠시마(對馬), 후일에는 관동주, 만주연해 구역도 포함되었다. 1943년 시점의 진해경비부(鎮海警備府) 담당해역은 【그림 2】와 같다. 라진, 청진, 웅

13) 「羅津要塞地帯設置に関する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1001371500, 陸軍省 - 大日記甲輯 - S11-4-17(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

14) 「56 羅津要塞司令部」(第2画像),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13021321500, 「イチ 20 第1期工事設計書 昭和17年11月」, 陸軍一般史料・防衛省防衛研究所.

15) 「要塞地帯内道路新設に関する件」(第7画像),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1002239300, 「大日記乙輯昭12年」, 陸軍省大日記・大日記乙輯・防衛省防衛研究所.

16) 「37. 英国東洋艦隊中ノ一艦韓国楡津近海ニ於テ沈没之件 明治三十二年」 「困難船及漂流民救助雜件/英国之部 第九卷」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12081656200, 外務省記録・3門通称・6類交通及通信・7項水難、外務省外交史料館, 등.

기, 성진은 ‘함북해면(咸北海面)’에 속하고 있다.¹⁷⁾

진해경비부 외에 조선에는 라진에만 ‘방비대(防備隊)’가 설치되었다. 방비대가 설치된 곳은 라진을 포함해서 3곳 뿐이었다. 방비대의 설치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방비대는 주로 해면방어를 담당하여 필요에 따라 구축함, 잠수함, 함정이나 선박이 부속했다고 한다.¹⁸⁾ ‘라진요새지대 내 해군시설 등에 관한 건’이라는 육군 자료는 1938년 4월의 라진요새지대(육군) 내의 ‘해군시설’에 관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구체적인 ‘부대명’은 없으나, ‘방비대 준사관’이라는 표기에서 이 ‘해군시설’이 라진방비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이 문서에 의하면 유진에는 ①공중청음기 1기, ②고각포(高角砲), 탐조등, 청음기가 설치되었으며, 또한 유진에는 방비대 준사관 이하 22명이 같은 해 3월 25일부로 배치되었으며, 조만간에 50명의 인원을 배치할 것이 기재되어 있다.

1941년 9월 1일에 해군은 대영미 개전을 전제로 하여 ‘소화16년도 제국해군전시편제’를 발동하면서, 해군부대를 외전부대(外戰部隊)(연합함대, 지나방면함대)와 내전부대(內戰部隊)(각 진수부, 요항부 부대)로 분류했다. 외전부대는 진공작전 및 함대결전을 담당하여, 내부부대는 본토방위, 본토 근해의 해상호위 등을 담당했다.²⁰⁾ 진해요항부(1941년 11월 20일부터 진해경비부)는 내전부대로 속했었다.

이어서 같은 해 10월 1일에 진해요항부 밑에 신설된 것이 라진근거지대(羅津根拠地隊)이다. 근거지대에는 특설(特設)근거지대와 특별(特別)근거지대 두 종류가 있는데, 특설 근거지대는 전진근거지에, 특별근거지대는 작전 기타 소요지에 각각 설치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라진근거지대는 이 특별근거지대 속에서도 내전부대로 소속하는 근거지대이며, 주로 라진 방면의 방비를 임무로 했다. 원래 진해경비부의 작전 임무로서, 본토와 대륙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지인 대마도해협 안전확보와 대소련 경계임무가 있었다. 라진근거지대는 이 중 대소련 감시/ 경계 임무를 담당했었다. 1941년 12월의 병력부서표에는 라진방비대는 라진근거지대 예하로 속하고 있다. 라진근거지대 편제와 각 예하부대의 임무는 【표 1】와 같다.

17) 防衛庁防衛研修所戰史室著, 『戰史叢書 50 本土方面海軍作戰』, 朝雲新聞社, 1975년, 付図第一「本土方面海軍作戰」에서 발취.

18) 앞의 책, 『戰史叢書 50 本土方面海軍作戰』, 19쪽.

19) 「羅津要塞地帯内海軍施設等に関する件 昭和十三年」 「芸予要塞および羅津要塞築城史」(防衛庁戰史資料室・文庫・柚-471).

20) 앞의 책, 『戰史叢書 50 本土方面海軍作戰』, 21~22쪽.

대영미 개전(1941년 12월 8일) 후 몇 개월 동안은 일본해군은 홍콩, 말레반도, 싱가포르 등 남방 각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들 방비와 외전부대로의 전력 제공을 목적으로, 1942년 4월에는 내전부대가 대폭 개편된다. 이에 따라 라진근거지대는 7개월 후인 1942년 5월에 라진방면특별근거지대(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로 개편되었다. 라진근거지대에서 라진방면특별근거지대로 개편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라진방비대라는 명칭이 그대로 라진방면특별근거지대로 바뀐 점이다. 라진방비대는 이후 다시는 설치되지 않았다.²¹⁾

이 라진방면특별근거지대의 1945년 5월 편제를 보면, 북선해면방비부대(北鮮海面防備部隊), 라진육상방비부대, 통신부대의 3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선해면방비부대의 주요 임무는 ①담당해면(북위 38도 이북의 진해경비부 담당해면)의 초계나 대 참수함 초토, 수로 계개(啓開), 선박의 단속 구조, ②소련 함선 항공기의 동정 탐지 경호이다. 라진육상방비부대는 ①육상경비, 대첩 방위, ②대공 감시 경계와 방공(防空), ③국경 부근의 대소련 감시 경계 등이었다.²²⁾ 육상방위부대는 육상에 고사포대 및 특설경비대를 배치하여, 해상방비부대는 특부정대(特務艇隊)와 방비위소(防備衛所)가 설치되었다.

‘라진방면특별근거지대 전시일지’를 보면, 라진방면특별근거지대 예하의 함선은 1945년 단계에 ‘북구환(北鷗丸)’ ‘제육황해환(第六黃海丸)’ ‘팔선환(八仙丸)’ ‘제11흥어환(第十一興漁丸)’ ‘묘를(苗栗丸)’ ‘제5휘환(第五輝丸)’ 의 6척과 예선인 ‘일예선(一曳船)’의 계 7척이 있었다. ‘일지’에 기재된 이들 선박의 한 달분의 ‘행동기록’에는, 매일 어느 선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기록되어 있다.²³⁾ 이를 자세히 보면, 거의 모든 선박이 한달의 대부분을 유진항에서 정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배가 ‘유진항 출발’ ‘유진항 도착’을 거듭하고 있으며, 아주 가끔 청진 등 다른 항구로 갈 때가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유진항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유진항은 라진방면특별근거지대 소속의 모든 선박의 정박 장소였다. 이러한 정박 상황은 1944년 6월의 ‘진해경비부 전시일지’에서도

21) 「昭和 17 年 5 月」, JACAR Ref.C12070162900, 海軍一般史料・法令・内令・昭和 17 年 4 月~6 月 内令 2 卷・防衛省防衛研究所.

22) 「昭和 20 年 5 月 1 日~昭和 20 年 5 月 31 日 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戰時日誌 (1)」 JACAR Ref. C08030283500, 海軍一般史料・④艦船・陸上部隊・戰闘詳報 戰時日誌・戰闘詳報 戰時日誌 (1-391).

23) 앞의 자료, 「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戰時日誌 自昭和 20 年 5 月 1 日~至昭和 20 年 5 月 31 日」(제 7~9 쪽).

확인할 수 있다.²⁴⁾ 시기는 다르지만 라진방비대의 ‘전시일지’(1941년 12월부터 1942년 4월)에서도 라진항이 소속 선박의 기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작전 명령에서 대기 장소로서 유진항이 지정되었으며, 임무를 마친 선박이 돌아가는 장소도 유진항였다.²⁵⁾

한편 라진방면근거지대 소속 병사들의 인원수는 얼마였을까. 【표 2】을 보면, 1945년 5월 현재 사관, 병사, 기타 합쳐서 1161명, 6월 현재 1234명이며, 한 부대만으로 1000명을 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자료로 보는 한, 유진은 조선 북부해역의 경비와 대 소련 활동의 거점이었던 라진의 군사적인 주요항구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라진방비대, 라진특별근거지대, 라진방면특별근거지대의 모든 기록에 거의 모든 선박이 평소는 유진항에 정박하거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유진에 상륙한 해군병사가 풍해루, 은월루를 찾아왔다’는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방진의 ‘풍해루’ ‘은월루’는 이른바 민간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시설인 가능성이 크지만, 주민들의 증언과 현지의 한산한 상황 및 지리적 위치로 볼 때, 방진의 주민은 여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못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다. 또 위의 사료에서 ‘풍해루’ ‘은월루’의 바로 주변에는 군사 시설이 없었지만, 걸어서 1km 정도에 있는 유진이 실은 해군 병사가 대부분 상주하고 있고 가기도 좋은 장소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군사료와 상황으로부터 고찰하면, ‘풍해루’ ‘은월루’는 거의 군인들이 이용하던 시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진에 관한 문서 자료도 아직 정리되지 않고, 또한 유진에 대해서도 군 시설의 자세한 실태와 다른 군인용의 위안부 시설과 성매매 시설이 있었을지도 포함해 앞으로 더 조사가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식민지 위안소’와 관련하여 특히 조선 내에서 군사적 요지였던 지역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성매매 시설을 하나하나

24) 「昭和19年6月1日～昭和19年6月30日 鎮海警備府戦時日誌(1)」, JACAR Ref.C08030516900, 海軍一般史料・④艦船・陸上部隊・戦闘詳報 戦時日誌・戦闘詳報 戦時日誌 (392-719).

25) 「昭和16年12月1日～昭和17年5月19日 羅津防備隊戦時日誌(1)」 JACAR Ref.C08030457800, 海軍一般史料・④艦船・陸上部隊・戦闘詳報 戦時日誌・戦闘詳報 戦時日誌 (392-719).

검증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일본 군인들의 회고록에서도 ‘위안소’ 이용에 관한 기술을 찾을 필요도 있다²⁶⁾.

일제시기 조선에 있었던 성매매 시설 중에도, 민간 경영 성매매시설과 분명히 다른 군인 전용 성매매시설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발표자는 이것을 ‘식민지위안소’라고 새로운 분류를 함으로써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제도가 짝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1 방진과 유진】



【그림2 진해경비부의 담당 해역】²⁷⁾



26) 해군에 소속한 어느 졸병이 분명한 위치는 불명하지만 유진과 가까운데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글이 있다 (金榮·庵迢, 앞의 논문 참조). 다만 이것은 저자가 ‘회고록 같이 쓴 소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으로 신빙성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27)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著, 『戦史叢書 50 本土方面海軍作戦』, 朝雲新聞社, 1975년, 付図第一「本土方面海軍作戦」에서 발취.

【표1 라진근거지대 주요임무】²⁸⁾

부대	주요임무	행동개요
라진육상방비대 (羅津陸上防備隊)	1. 방공(防空) 2. 육상경비	1. 대공(對空) 감시를 엄격히 하여 방공(防空)에 임한다 2. 육상경계대는 비상시 경계부서에 가서 경계한다. 3. 방화 방독(防火防毒)대 및 구호대는 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
직솔부대 라진해상방비대 (羅津海上防備隊)	1. 라진만구 방비 2. 적의 블라디오 방면 연해 및 러국 함병 항공대의 동정 경계 탐지 3. 일본해(동해) 북서부의 해상교통 보호에 관해 마이츄루 진수부〔舞鶴鎮守府〕부대에 협력	1. 방어해면을 초계하여 적 함정의 침입을 조지해 격추한다. 2. 중요 선박이 출입 전에 필요하면 수도초해를 실시하여 수로 향도(嚮導)에 임한다 3. 상황에 따라 초해(掃海)를 실시한다. 4. 특설감시정(特設監視艇)으로 또는 어선을 이용하여 부라디어 방면의 적의 연안 이용 및 러국함선 항공기의 동정을 탐지한다. 5. 필요에 따라 중요 선박의 직접 호위에 임하여 일본해(동해) 북서부의 해상 교통 보호에 관하여 특령에 의해 마이츄루 진수부〔舞鶴鎮守府〕부대에 협력한다
라진통신부대	통신연락 적정 탐지	1. 진해경비부 부대통신계획 소정의 통신연락 적정 탐지에 임한다. 2. 방위측정소는 러국의 선박 비행기의 방위 측정을 실시하기로 한다.

28) 「昭和 16 年 12 月 1 日~昭和 16 年 12 月 31 日 鎮海警備府戰時日誌(4)」 JACAR Ref. C08030513700、海軍一般史料・艦船・陸上部隊・戰闘詳報 戰時日誌・戰闘詳報 戰時日誌 (392-719) 에서 작성.

【그림3 라진방면특별근거지대 예하 함선부대의 행동】²⁹⁾

【표2 라진방면특별근거지대 총인원수】

종별	사관	특준	하사관	병	기타	합계
1945년 5월의 인원수	27	35	217	852	30	1161
1945년 6월의 인원수	33	39	216	916	30	1234

29) 「昭和 19年 6月 1日~昭和 19年 6月 30日 鎮海警備府戰時日誌 (1)」 JACAR Ref.C08030516900、海軍一般史料・④艦船・陸上部隊・戦闘詳報 戰時日誌・戦闘詳報 戰時日誌 (392-719) .

北韓の「慰安所」関連資料 —遺物・証言の文献的検証

| 庵道由香 (立命館大学)

1. はじめに

近年、日本軍「慰安婦」問題は日韓間で最も注目される政治的懸案の一つになっている。しかし、日本軍「慰安婦」の実態に関する実証的な歴史研究は、この20年間で、その政治的な位相と重要性に対応するだけの深化と拡大がなされているとは言えない。関心の大きさに比べて研究が進んでいない理由として、主な研究対象が、戦後直後に存在しなくなった日本軍という、日本の中でも特殊な組織であることが挙げられる。日本軍の組織・編成は戦時末期になるほど激しく変化し、資料解釈のための基礎情報の整理自体が大変な作業となる。また、戦時末期になるほど資料不足も目立つ。最近ではアメリカ、中国、オランダなどで新資料も続々発見されているものの、「慰安婦」研究は、サバイバーや体験者・関係者などの証言に大きく頼らざるをえないのが実情である。

一方で、これまで「慰安所」「慰安婦」に関して発見された文献史料の多くは、いくつかの資料集として日韓で刊行されている¹⁾。ところが、上記のような事情もあってか、一部の歴史研究者の論考を除き、これらの史料を活用して「慰安婦」「慰安所」を分析した歴史研究は意外に少ない。朝鮮人「慰安婦」に関しては、ことさらそれが顕著である。代表的な研究者である吉見義明以外に日本軍の史料研究を行ったものに、永井和の研究である²⁾。永井は、吉見義明と日本の小林よしのり、藤岡信勝など「歴史修正主義者」との間に解釈に関して論争となっている文書「軍慰安所従業婦等募集二関スル件」に注目し、これに関わる一連の警察文書を詳細に分析した。分析は各文書の作成背景、意図、関連事例にまでわたる。永井はその結果、「歴史修正主義者」の見解はもちろん吉見の文書解釈も批判しつつ、「慰安所とは将兵の性欲を処理させるために軍が設置した兵站付属施設」であり、慰安所開設を国家の方針として「慰安婦」の募集と渡航を合法化したが、社会通念的に「醜業」である慰安所と軍・国家の関係は隠蔽しようとした、と結論づけた。すでにかなり以前に公開された文書を深く分析・立証することで、軍や国家の「慰安婦」「慰安所」に対する見解の矛盾を実証的に明らかにしたのである。

サバイバーの証言や業者・兵士の証言は、文書に現れない、あるいは研究者が想像するに至らない事実を赤裸々に知ることができる点でも貴重な資料であり、今後その分析を深めるべきである。同時に、「慰安婦」「慰安所」の実像を明らかにしていく上で、それらの証言を、公的文書史料をもとに、より注意深く実証的に検証することが必要であろう。その基盤となる、永井のような史料検証と分析が、今後より求められてくると考える。

本報告では、咸鏡北道・芳津で発見された「豊海楼」と「銀月楼」という性売買施設について、その後の資料調査も含めて「証言」を史料的に検証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豊海楼」「銀月楼」は民間の業者が運営していた「遊郭」と言われ、海軍兵士たちが主に使用していたとの証言がある。一方で、現在の所、芳津

1) 吉見義明編集・解説『従軍慰安婦資料集』大月書店、1992年；(財)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従軍慰安婦 関係資料集成』①～⑥、龍溪書舎、1997年；朱徳蘭『台湾慰安婦関係史料集』不二出版、2001年；최덕수 / 변은진 / 안자코유카, “‘위안부’ 관련 문헌자료집” 1,2, 여성부, 2002.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編『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明石書店、2006年。세종대학교,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 1: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위안부문제 관련 자료를 번역 분석”, 황금알, 2018, 등이다.

2) 永井和「陸軍慰安所の創設と慰安婦募集に関する一考察」『二十世紀研究』創刊号、2000年。

という地域の性売買施設や「慰安所」に直接言及した文書・文献はまだ見つかっていない。芳津は閑散とした海沿いの小さな農村で、「豊海楼」「銀月楼」があった場所には、当時近所に軍の施設があったという記録もなく、またここが戦時期に戦場になっていたわけではない。そのため、これら二つを「慰安所」と規定しうることについては、慎重に検討を要する。結論から先に言えば、報告者は、「豊海楼」「銀月楼」は戦場や占領地のような「慰安所」と完全に同じではなくても、朝鮮の他地域にある「遊郭」とは一線を画する性売買施設で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おり、これらを「植民地慰安所」と分類することを提起したことがある³⁾。

北韓でも1990年代から「慰安婦」問題に大きな関心を寄せ、独自の調査も行ってきた。しかし、現地で発表されているのは、サバイバーや「慰安所」の関係者の証言がほとんどである⁴⁾。報告者が北韓の羅南、会寧、清津などの地方で現地調査をした時に、北韓当局は調査に先立ち各地の人民委員会に調査協力を依頼している。現地では担当者らが建物跡地の事前調査や体験者の手配はしてくれたが、文書について訪ねた所、知っているものはいなかった。研究論文などを見ても、関連する公文書が北韓内にあるのかどうかについても、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のが現状である。この点は、今後大きな課題として残されている。したがって本報告では、現在公開されている日本軍・日本政府資料をもとに、北韓に残る「慰安所」と言われているの二つの性売買施設に関する証言を検証することにする。

2. 日本軍「慰安所」定義と「植民地慰安所」

まず「植民地慰安所」について、いくつか説明しておきたい。「慰安所」の定義について、吉見義明はその先駆的な研究の中で、以下のように3つのタイプに分類した。①軍直営の軍人・軍属専用の慰安所、②形式上民間業者が経営するが、軍が管理・統制する軍人・軍属専用の慰安所、③一般人も利用するが軍が指定した軍

3) 金栄・庵途由香「咸鏡北道の軍都と『慰安所』・『遊廓』」、宋連玉・金栄編著『軍隊と性暴力 朝鮮半島の20世紀』現代史料出版、2012年。

4) 北韓の「慰安婦」問題の取組みに関しては、김영, '북한의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식민주의', 송연옥 / 김귀옥 외 지음,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도서출판 선인, 2017년, 를 참조.

利用の慰安所で、軍が特別の便宜を求める慰安所、である⁵⁾。また、実際には軍直営慰安所から民間の売春宿に近いものまで、多様な中間形態があったことも指摘している。すなわち、設置・経営・管理といった側面で、日本軍が直接的・間接的にある程度関わりを持っていることを定義の中核とすることで、「慰安所」を公娼制度下での様々な民間の性売買施設と区別し、日本軍、ひいては天皇や日本政府の「責任」を明確にすることを試みた。この定義は、「慰安婦」制度に対する日本の国家責任を明らかにする上で、非常に重要な定義である。

しかしこのことは、「慰安所」は実態として主に日本軍の戦闘地域や占領・駐屯先のみが存在した、という暗黙の認識を生み出した。サバイバーによって、釜山や北韓の羅南や芳津で「慰安所」があったという証言⁶⁾はでてきたことから、戦場・占領地以外にも「慰安所」が存在していたことが提起されはじめた⁷⁾。しかし証言にもかかわらず、ほとんどの地域が戦場とはならなかった朝鮮⁸⁾や台湾では、占領地や戦場のように軍が「慰安所」を管理したという明確な資料は発見されておらず、また兵士の性的慰安に民間の性売買施設を利用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という状況から、軍が直接管理するような「慰安所」の存在が実証的に検証されることがなかった。

これに対し報告者は、共同研究において、「植民地」という軍事的に特殊な支配地域では、戦場や占領地のような地域に作られた「慰安所」と同じ条件を備え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民間の性売買施設とは明らかに異なる性売買施設が存在することから、これを「植民地慰安所」として新たに分類することを提起した⁹⁾。朝鮮においては、常駐していた2個師団のうち1個師団が咸鏡南北道に駐屯し、また残りの1師団も中国との国境地帯に多くを配置するなど、相当数が中ソ朝の国境地帯

5) 吉見義明「第一章 日本軍慰安婦とはなにか」、吉見義明・林博史編著『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大月書店、1995年、6頁。

6) 韓国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편,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1-2, 한울, 1993년, 1997년; 등.

7) 「従軍慰安婦」・太平洋戦争被害者対策委員会「朝鮮・咸鏡北道清津の日本軍〈慰安所〉の実態」金富子・宋連玉『「慰安婦」・戦時性暴力の実態』第4巻、2000年。伊藤孝司『日本軍「慰安婦」・強制連行被害者の叫び 平壤からの告発』風媒社、2001年など。

8) 厳密には、1945年8月9日のソ連参戦により、清津・会寧など朝鮮国境地域が数日間激しい戦場となった。

9) 金栄・庵澄、前掲論文。

に集中していた。北韓が「慰安所」があると発表した羅南は典型的な軍事都市であった。また報告者らの考察では、特に芳津にあった性売買施設は、その環境や置かれた状況からも、軍専用であった可能性が非常に高い。これらの性売買施設は、日本軍との関係性がより濃密であり、例えば京城やその他の朝鮮の都市にあった民間の性売買施設とは、状況や条件からして、明らかに性格が異なると考えたのである。そのため、吉見定義が提起する「厳密な意味での慰安所」と比較して「中間形態」の「慰安所」として、「植民地慰安所」という概念を提起した。

「厳密な意味での慰安所」と民間の性売買施設との区別にこだわるのは、日本の国家責任を不動のものとする上で、民間業者の性売買施設とは区別して日本軍との関係性を重視する吉見の定義を厳守することは、非常に重要と考えるためである。民間の性売買施設を何の検証もなしに「慰安所」と言い切ってしまうと、様々な問題が生じてくる。特に1992年まで、日本政府は「慰安婦は業者が集めた」「業者の責任」と公言していた。さらに日本の右翼勢力は、いまだに「慰安婦」を「商売でやっていた」と印象づけようとしている。こうした状況の中では、明確に日本軍と一定の関わりを持つ性売買施設を「慰安所」とする定義は、非常に重要である。また「植民地慰安所」という概念は、朝鮮の植民地支配の基盤が軍事的支配であったという点を浮き彫りにするものでもある。

しかし一方で、日本軍「慰安婦」問題のもう一つの重要な側面として、それが日本や植民地朝鮮の性売買制度を基盤に形成されたという点がある¹⁰⁾。「責任」という点では、厳密に日本軍との関係性を実証する必要があるが、公娼制度のような人身売買に基づく性売買制度やそのネットワークがなければ、「慰安所」の制度化のような発想も生まれるはずはない。女性の性を国家が管理・商品化して日常的な暴力にさらすという点で、公娼制度と「慰安婦」制度は、同一線上の存在であるということは、留意すべきであろう。

10) 例えば公娼制度と「慰安婦」制度との関連については、宋連玉「公娼制度から『慰安婦』制度への歴史的展開」『日本軍性奴隷制度を裁くー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3、緑風出版、2000年。または藤永壮「植民地公娼制と日本軍『慰安婦』制度」早川紀代編『戦争・暴力と女性3 植民地と戦争責任』吉川弘文館、2005年など。

3. 証言による芳津「慰安所」の実像

北韓の咸鏡北道清津から車で1時間ばかり行った所に、芳津洞という所がある。北韓政府は1998年に、ここに「慰安所」が発見されたと発表した¹¹⁾。これを受けて、日本人ジャーナリストの伊藤孝司が1998年～2001年に、金栄と庵途由香が2003年に、金栄が2008年に、芳津の「慰安所」と思われる「豊海楼」および「銀月楼」の建物跡を調査し、関係者へのインタビューを行った¹²⁾。伊藤孝司は、戦前から芳津に住む住民4人および、当時すぐ隣に住んでおり、当時の様子を記憶しているという申楽天氏(1930年生まれ、当時海州医学大学に勤務)にインタビューを行った。金栄・庵途は、申楽天氏および当時の住民1名にインタビューを行っている。史料による検証を行う前に、まずは、「豊海楼」「銀月楼」に関するこれらの証言内容を簡単に整理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 当時の芳津は、150戸ほどの半農半漁村だった。そこに駐在所に15～6人の警官、憲兵隊の芳津分遣隊に7～8人の憲兵、朝鮮人特高1人が常駐していた。
- 当時、この建物は憲兵が見張っており、住民たちの接近は許されなかった。建設時期は、「銀月楼」が1936年頃、「豊海楼」が1938年7～8月頃だった。
- 「銀月楼」の経営者は日本人女性、「豊海楼」は尹斗満という関東軍軍属だった朝鮮人である。
- ここで働いていた女性たちは、「銀月楼」で常時20人ほど、「豊海楼」で常時15人ほどだった。
- 地上勤務の将兵は毎日「豊海楼」にやってきましたが、船に乗っている将兵は水・金・日に訪れていた。芳津の隣にある輪津港から上陸した兵士たちが、約1kmを歩いて来た。
- 「豊海楼」「銀月楼」の中の様子については、住民たちは解放後にそこで働いていた女性たちから話を聞いた。

こうした証言の中で、特に報告者が重視したのが、「豊海楼」「銀月楼」を利

11) 김영, '북한의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식민주의', 미공간원고, 2016년 공간 예정.

12) 詳細は、伊藤孝司「残っていた日本軍『慰安所』」、前掲書および、金栄・庵途、前掲書。

用したのが軍のみであったという点の検証である。伊藤孝司は「形としては民間人が『経営』したものの、海軍が管理・統制する軍人・軍属専用の『慰安所』だったのは確かである」とし、これら二つが明らかに「慰安所」であったと結論づけている。また、金栄・庵途も、「吉見が定義するような厳密な意味での『慰安所』」と定義することは保留しつつも、限りなく黒に近いグレーであり、こうした形態を「植民地慰安所」と呼ぶことを提唱した。この「軍の関与」について、もう少し検証してみたい。

4. 資料による検証

「豊海楼」「銀月楼」があった芳津は、植民地期当時の住所は「咸鏡北道慶興郡豊海面大楡洞二里芳津」、現在の住所は「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である。すなわち、現在では清津市に属しており、行政区画もその名称がかなり変更している。この芳津の漢字「芳津」であるが、朝鮮総督府の行政地区名称一覧などでは「方津」と表記されることも多い。軍関係の資料では、「芳津」と表記されたり、「方津」と表記されたり、統一されていない。しかし、朝鮮総督府作製『一万分の一朝鮮地形図集成』では、「芳津」と表記されているため、本稿でも「芳津」の表記を取っている。

報告者は2003年10月に芳津の「豊海楼」「銀月楼」の現地調査を行ったが、現地で最初に抱いた印象は、「こんな所に、『慰安所』が本当にあったのか？」であった。実際現在の衛生写真で見ても、家は大変まばらである。周囲は丘で、大きな建物はほとんどない。写真で見られるように、雑然と林や畑がまばらに広がっており、人口は相当少なそうである。証言では、植民地期には芳津の人口は約150戸ほどとある。このような場所に、証言では常時15~20人の女性達が性売買をさせられていた「慰安所」が2件も存在しうるのだろうか？ いったい、この性売買施設の利用者は、どこにいて、どこから来るのか？ 報告者がもう一つ現地調査をしたことがある羅南の性売買施設街の場合は、繁華街からははずれていたが、それでも大きな性売買施設がたち並ぶ地域で、しかも都市部の端であった。その施設を利用するだけの軍人人口が充分見込まれる。ところが芳津は、本当に畑と林しかない「田舎」なのである。結論から言うと、現在の所、芳津やその周辺で「慰安所」や性売

買施設について書かれた公文書は、まだ見つかっていない。しかし、その周辺に、この「豊海楼」「銀月楼」を利用するだけの軍人人口や施設が確認できれば、上記の証言は相当な確率で信憑性が出てくる。

では、芳津には軍隊の駐屯はあったのであろうか？これは、陸軍・海軍の双方から検討してみる必要がある。まずは陸軍だが、行政区域から言うと、芳津(慶興郡)は第19師団の管轄ということになる。第19師団隷下の連隊は、駐屯地が羅南、会寧、咸興、平壤という都市部であるため、芳津には連隊の常駐はもちろんなく、また国境守備隊もこの地域には駐屯していない。ところが、陸軍は1936年になると、国境地帯の防衛・警戒を目的に、羅津に「羅津要塞地帯」を設置し、国防用防禦施設の建設に着手する¹³⁾。「羅津要塞地帯設置に関する件」に収録された地帯の地図によると、沿岸部の対象地域は、北は豆満江の国境から南は沙津湾までで、これには芳津も含まれている。しかし、羅津要塞地帯司令部は、新安洞にある¹⁴⁾。ここは計画的に都市開発されて羅津の最も大きな都市部である「地境」と呼ばれる地域に隣接している¹⁵⁾。この新安洞から芳津までは、地図上の直線距離でも20kmほどあり、交通手段を使わなければならず、徒歩で行ける距離ではない。また、同じ「娯楽」でも、都市部の地境や新安洞に行く方がよほど手軽であったと推察される。

一方、海軍施設は、芳津から1km離れた「楡津」という地域に、早くは1938年から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楡津は、羅津湾のほぼ南端に位置している。芳津とは、地図上では半島の反対側の海に面しているが、半島のちょうどくびれた部分から陸地を通って行けば、直線距離でちょうど1kmほどである。楡津は1899年には英国東洋艦隊の一部が楡津近海に現れたこともあるなど、芳津と異なり、軍史料に早くから地名が登場する¹⁶⁾。証言では、「楡津から海軍兵士たちがやってきた」とい

13) 「羅津要塞地帯設置に関する件」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C01001371500、陸軍省 - 大日記甲輯 - S11-4-17(所蔵館：防衛省防衛研究所)。

14) 「56 羅津要塞司令部」(第2画像)、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C13021321500、「イチ20 第1期工事設計書 昭和17年11月」、陸軍一般史料・防衛省防衛研究所。

15) 「要塞地帯内道路新設に関する件」(第7画像)、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C01002239300、「大日記乙輯昭和12年」、陸軍省大日記・大日記乙輯・防衛省防衛研究所。

16) 「37. 英国東洋艦隊中ノ一艦韓国楡津近海ニ於テ沈没之件 明治三十二年」「困難船及漂流救助雑件/英国之部 第九巻」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B12081656200、外務省記録・3門通称・6類交通及通信・7項水難、外務省外交史料館、など。

うことになっているが、確かに距離的には充分徒歩で来られる近さである。ではこの楡津は、軍事的にはどういう所であろうか？

楡津の海軍施設について検討する前に、まずは朝鮮半島の海軍軍備について、簡単に確認しておきたい。陸軍の場合は日本の行政区画を単位として配備が行われているが、海軍の場合はその担当が主に海域であるため、配備担当区画がかなり異なっている。海軍は日本の「領土」を大きく4つの防御・警備の担当区域に分け、それぞれに軍港と要港を置いた。朝鮮半島の属する第三海軍区は、軍港と指定された佐世保に鎮守府が置かれ、その下位に要港として鎮海、馬公（台湾・澎湖島）、旅順に要港部（1941年11月からは警備府）が置かれた。鎮海警備府の担当警備区は、朝鮮半島をぐるりと囲む海域および壱岐、対馬、後には関東州、満州沿海も含まれた。1943年時点の鎮海警備府の担当海域は【図1】の通りで、羅津・清津・雄基・城津は「咸北海面」に入っている¹⁷⁾。

こうした鎮海警備府の他に、朝鮮には羅津にのみ「防備隊」が設置されている（防備隊が設置されたのは、羅津を含む3カ所のみ）。防備隊の設置年代はまだ不明であるが、主に海面防御を担当し、必要に応じて駆逐艦、潜水艦、艦艇や船舶が付属したという¹⁸⁾。「羅津要塞地帯内海軍施設等に関する件 昭和十三年」という陸軍資料は、1938年4月に羅津要塞地帯(陸軍)内の「海軍施設」についての文書であるが、文書に具体的な「部隊名」はないものの、「防備隊准士官」という表記からこの「海軍施設」が羅津防備隊であると推察される¹⁹⁾。同文書によると、楡津には①空中聴音機1基と②高角砲、探照燈、聴音機が設置され、さらに楡津に防備隊准士官以下22名が同年3月25日付けで配置され、ゆくゆくは50名の人員を配置することが記載されている。

1941年9月1日に、海軍は対欧米開戦を前提とし、「昭和16年度帝国海軍戦時編制」を発動して海軍部隊を外戦部隊(連合艦隊、支那方面艦隊)と内戦部隊(各鎮守府、要港部部隊)に分類した。外戦部隊は進攻作戦・艦隊決戦を担当し、内戦部隊

17)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著『戦史叢書 50 本土方面海軍作戦』朝雲新聞社、1975年、付図第一「本土方面海軍作戦」より抜粋。

18)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著『戦史叢書 50 本土方面海軍作戦』朝雲新聞社、1975年、19頁。

19) 「羅津要塞地帯内海軍施設等に関する件 昭和十三年」「芸予要塞および羅津要塞築城史」(防衛庁戦史資料室・文庫・袖-471)。

は本土防衛、本土近海の海上護衛などを担当する²⁰⁾。鎮海要港部(1941年11月20日から鎮海警備府)は内戦部隊に位置づけられた。

続いて同年10月1日に鎮海要港部の下に新設されたのが、羅津根拠地隊である。根拠地隊には特設根拠地隊と特別根拠地隊とがあり、特設根拠地隊は前進根拠地に、特別根拠地隊は作戦その他所要の地に置かれることになっていた。羅津根拠地隊はこの特別根拠地隊の中でも、内戦部隊に所属している根拠地隊で、主に羅津方面の防備が任務とされた。もともと鎮海警備府の作戦任務としては本土と大陸を結ぶ海上交通の要衝である対馬海峡の安全確保と対ソ警戒任務が与えられており、羅津根拠地隊はこのうち対ソ監視・警戒任務にあたっていた。1941年12月の兵力部署表では、羅津防備隊は羅津根拠地隊の隷下に属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羅津根拠地隊の編制と各隷下部隊の主要任務は、【表1】の通りである。

対英米開戦(1941年12月8日)後しばらく、日本海軍は香港・マレー半島・シンガポールなど南方各地域の占領に成功したため、これらの防備と外戦部隊への戦力提供を目的に、1942年4月には内戦部隊が大幅に改編される。これにともない、羅津根拠地隊は、7ヶ月後の1942年5月に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に改編された。羅津根拠地隊から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への改編にあたり、最も大きな変化は、羅津防備隊という名称がそのまま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に代えられたことである。羅津防備隊は以後、設置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²¹⁾。

この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の1945年5月の編成を見ると、北鮮海面防備部隊、羅津陸上防備部隊、通信部隊の3つで構成されていた。北鮮海面防備部隊の主要任務は担任海面(北緯38度線以北の鎮海警護府担任海面)の哨戒や対潜掃討、水路啓開、船舶の取締救難、②ソ連艦船航空機の動静探知警護である。羅津陸上防備部隊は①陸上警備、対謀防衛、②対空見張警戒と防空、③国境付近対ソ見張り警戒、であった²²⁾。陸上防衛部隊は陸上に高射砲台および特設見張所を配備し、海上防備部隊には特務艇隊と防備衛所が配置された。

20)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戦史叢書 50 本土方面海軍作戦』朝雲新聞社、1975年、21～22頁。

21) 「昭和17年5月」、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2070162900、海軍一般史料・法令・内令・昭和17年4月～6月内令2巻・防衛省防衛研究所。

22) 「昭和20年5月1日～昭和20年5月31日 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戦時日誌(1)」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8030283500、海軍一般史料・④艦船・陸上部隊・戦闘詳報戦時日誌・戦闘詳報 戦時日誌(1-391)。

「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戦時日誌」を見ると、羅津根方面特別拠地隊の隷下の艦船は、1945年の段階で、「北鷗丸」「第六黄海丸」「八仙丸」「第十一興漁丸」「苗栗丸」「第五輝丸」の6隻と「一曳船」曳船1隻の計7隻があった。「日誌」に掲載されているこれら船舶の1ヶ月分の毎日の「行動記録」²³⁾には、毎日どの船がいつ、どこにいたのかが記載されている。ほとんどの船が、1ヶ月の大部分を楡津港に停泊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すなわち、すべての船が「楡津港発」「楡津港着」を繰り返しており、ごくまれに清津など他の港に向向いても、最終的には楡津に戻っているのである。楡津港は、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所属のすべての船の停泊場所だっ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停泊状況は、1944年6月の「鎮海警備府戦時日誌」でも確認できる²⁴⁾。時期はさかのぼるが、羅津防備隊の1941年12月から1942年4月までの「戦時日誌」でも、楡津港が基点となっ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る(【図2】)。作戦命令における待機場所が楡津港であり、また任務を終えた船が戻る先も楡津港であったのである²⁵⁾。

一方、羅津方面根拠地隊の所属兵士の人数はどの程度であったのか。【表2】を見ると、1945年5月で士官、兵、その他併せて1161名、6月で1234名となっており、同部隊だけで1000人を超えていたことがわかる。

以上の資料から見る限り楡津は、朝鮮北部海域の警備と対ソ活動の拠点となっていた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の、主要港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羅津防備隊、羅津特別根拠地隊、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のどの記録にも、ほぼすべての船舶が通常は楡津港に停泊したり、拠点にしていたのである。そうした点で、「楡津に上陸した海軍兵士が豊海楼、銀月楼を訪れる」という証言は、相当高い信憑性を帯びているといえよう。

23) 前掲「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戦時日誌 自昭和20年5月1日～至昭和20年5月31日」(第7～9画像)。

24) 「昭和19年6月1日～昭和19年6月30日 鎮海警備府戦時日誌(1)」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8030516900、海軍一般史料・④艦船・陸上部隊・戦闘詳報 戦時日誌・戦闘詳報 戦時日誌(392-719)。

25) 「昭和16年12月1日～昭和17年5月19日 羅津防備隊戦時日誌(1)」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8030457800、海軍一般史料・④艦船・陸上部隊・戦闘詳報 戦時日誌・戦闘詳報 戦時日誌(392-719)。

5. おわりに

芳津の「豊海楼」「銀月楼」は、いわゆる民間人が経営する性売買施設であったが、住民の証言や現地の閑散とした状況や地理的位置から見て、芳津の住民はここを使用しなかった(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十分に説得力のある話である。また、上記の史料から、「豊海楼」「銀月楼」のすぐ周辺には軍事施設はなかったが、歩いて行ける1kmほどにある楡津が、実は海軍兵士がほとんど常駐しているところでもよい場所であっ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様々な史料や状況から考察すると、「豊海楼」「銀月楼」はほぼ軍人が利用していた施設であるとみなしうると考える。しかしながら、芳津に関する文書資料も未だに整理されておらず、また楡津についても、軍施設のさらに詳しい実態や、他に軍人用の慰安施設や性売買施設があったのかも含め、今後より調査が必要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無い。さらに、「植民地慰安所」と関連して、特に朝鮮内で軍事的要地だった地域では、似たような性格の性売買施設を一つ一つ検証していくことも、必要となっていくであろう。

【図1 芳津と楡津地図】



【図1 鎮海警備府の担当海域】



【表1 羅津根拠地隊主要任務²⁶⁾】

部隊	主要任務	行動概要
羅津陸上防備隊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防空 2. 陸上警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対空見張りを厳にし防空に任ず 2. 陸上警戒隊は非常時警戒部署に就き警戒す 3. 防火防毒隊及救護隊は速に配置就き得る如く待機す
直卒部隊 羅津海上防備隊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羅津湾口防備 2. 敵の浦塩方面沿岸利用並に露国艦艇航空隊の動静警戒探知 3. 日本海北西部の海上交通保護に関し舞鎮〔舞鶴鎮守府〕部隊に協力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防御海面を哨戒し敵艦艇の侵入を阻止撃墜す 2. 重要船舶出入港前要すれば水道掃海を行ひ且之か水路嚮導に任ず 3. 状況に依り・施掃海を行ふ 4. 特設監視艇を以て又漁船を利用し浦塩方面に於ける敵の沿岸利用並に露国艦船航空機の動静警戒探知に努む 5. 必要に応じ重要船舶の直接護衛に任じ日本海北西部の海上交通保護に関し特令に依り舞鶴鎮守府部隊に協力す
羅津通信部隊	通信連絡敵情探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鎮海警備府部隊通信計画所定の通信連絡敵情探知に任ず 2. 方位測定所は露国の船舶飛行機の方位測定を行ふものとす

26) 「昭和16年12月1日～昭和16年12月31日 鎮海警備府戦時日誌(4)」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C08030513700、海軍一般史料・艦船・陸上部隊・戦闘詳報 戦時日誌・戦闘詳報 戦時日誌(392-719)より作成。

【図2 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隷下の麾下艦船部隊の行動²⁷⁾】

【表3】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 総員数

種別	士官	特准	下士官	兵	その他	合計
1945年5月の員数	27	35	217	852	30	1161
1945年6月の員数	33	39	216	916	30	1234

27) 「昭和19年6月1日～昭和19年6月30日 鎮海警備府戦時日誌(1)」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8030516900、海軍一般史料・④艦船・陸上部隊・戦闘詳報 戦時日誌・戦闘詳報 戦時日誌 (392-719)。

Materials on Comfort Facilities in North Korea

Focusing on Verification of Literature on Artifacts and Testimonies

| Yuka Anzako (Ritsumeikan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has recently become one of the most high-profile political issues. However, it is hard to tell that the empirical historic research on the comfort women has not been deepened and expanded enough to match its political status and significance over the past 20 years. One of the reasons why research has not been proceeded compared to the degree of social interest is that the Japanese military, a key research subject, is a special organization even in Japan. The Japanese military no more exists as of this moment since it was abolished just after the Asia-Pacific War. It is also difficult to arrange basic information needed to interpret materials since the organization and formation of the military rapidly changed in the last period of the war. In addition, the lack of materials at the end of the war is evident. While new materials have been recently discovered in the U.S., China and the Netherlands, research on comfort women has no choice but to highly depend on testimonies of survivors, persons concerned and those who experienced the tragedy.

Discovered historical materials on comfort facilities and comfort women were published into several copies of sourcebooks in both Korea and Japan.¹⁾ Excluding dissertations by some historic researchers, unexpectedly few number of studies analyzed comfort women and comfort facilities with related materials. This is more evident in Joseon comfort women cases. Besides representative historian Yoshiaki Yoshimi, Kazu Nagai also published research results of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²⁾ Paying attention to “Document on Recruitment of Military Service Clubs,” involved in controversies among Yoshimi and Japanese historical revisionists (Yoshinori Kobayashi, Nobukatsu Huzioka, etc.), Nagai thoroughly analyzed related police documents. His analysis even covered the backgrounds and intention of those documents’ creation and related cases. Based of the findings, Nagai criticized not only historical revisionists’ views but also Yoshimi’s interpretations of documents and concluded as follows: service clubs were “facilities attached to military camps, which the military intentionally built to address soldiers’ sexual desire,” and the military was trying to legalize the recruitment and transfer of comfort women by establishing those facilities as a national policy, while hiding the military and the nation’s involvement in those facilities, which were considered “ugly projects” according to social norms. By thoroughly analyzing and verifying documents that were already released more than 10 years ago, Nagai empirically revealed discrepancy in opinions of Japan and its military on comfort women and comfort facilities.

Testimonies of survivors, brothel operators and soldiers are important materials in that they show naked facts that do not appear in public documents or cannot be imagined by researchers. Analyses of testimonies should be intensified in the future. And at the same time, it is significantly important to verify their precious testimonies in a more objective manner. The verification and

1) Compiled and interpreted by Yoshiaki Yoshimi, *Sourcebook on Comfort Women*, Otsukishoten, 1992; financed by Asian Women’s Fund, *Collection of Materials Related to Comfort Women* Vol. 1-6, Ryuukeishosha, 1997; Tokuran Shu, *Sourcebook on Comfort Women in Taiwan*, Fujishuppan, 2001; Choi Deok-su, Byeon Eun-jin, Yuka Anzako, *Written Sources Related to Comfort Women* Vol. 1-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02; compiled by Yuko Suzuki, Yone Yamashita, Masaru Tonomura, *Collected Materials on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Akashishoten, 2006, Sejong University, *Evidential Materials on Japan’s Comfort Women Issues 1: Translating and Analyzing Materials on Comfort Women Issues from 1937 to 1945*, Goldegg, 2018, etc.

2) Kazu Nagai, “Consid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Comfort Facilities and Comfort Women,” *Twentieth Century Studies*, 1st issue, 2000.

analysis of materials that could lay a foundation for research, like Nagai's, will be required more and more in the future.

This paper aims to verify historic materials including testimonies to and new studies of Punghaeru and Eunwolru, prostitution facilities discovered in Bangjin, North Hamgyeong Province. While the two facilities are considered commercial brothels in that they were operated by private operators, there are also testimonies that the facilities were usually used by navy soldiers. Documents or literature that directly mention prostitution or comfort facilities in the region of Bangjin have yet to be found. Bangjin is a small farming village near the coast, and no records have been discovered that show there were military facilities in the area in which Punghaeru and Eunwolru were located. The area was not the battlefield in wartime. Therefore it is needed to carefully verify whether the two can be defined as comfort facilities. To tell the conclusion first, this speaker believes that Punghaeru and Eunwolru were not exactly same as comfort facilities of battlefields and occupied areas, but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private brothels located in other areas of Joseon (Gyeongseong and Busan, etc.) and suggested classifying the two brothels as “colonial comfort facilities (for detailed explanations, see next section).³⁾

North Korea also paid great attention to the comfort women issue from the 1990s and conducted an individual research. However, almost all of the materials released in North Korea are testimonies of survivors or persons concerned with comfort facilities.⁴⁾ This speaker carried out a field survey in Ranam, Hoeryeong, and Cheongjin of North Korea, and ahead of the survey, the country asked people's committees to cooperate with the survey. Persons in charge of each region carried out presurvey of former building sites and arranged interviews with those who had experienced the war, but no one knew any documents left when this speaker asked. It is also uncertain to tell whether related public documents remain in North Korea despite examination of research papers. This remains as a task for the future. This paper verifies

3) Kim Yeong, Yuka Anzako, *The Province of North Hamgyeong and Comfort Facilities/Brothels*; compiled by Song Yeon-ok, Kim Yeong, *The Military and Sexual Violence: 20th Century of the Joseon Peninsula*, Gendai Shiryo shuppan, 2012.

4) For North Korea's attempts to address “comfort facility” issues, see Kim Yeong, “North Korea's ‘Comfort Facility’ Issues and the Japanese Colonialism” ; written by Song Yeon-ok, Kim Gwi-ok, et al., *Colonialism, War and Military Comfort Women*, Sunin Book, 2017.

testimonies on modern prostitution facilities whose traces are left in North Korea based on materials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government that have been made public.

2. Definition of Japanese military and colonial comfort facilities

First, this paper explains several things on colonial comfort facilities. Yoshiaki Yoshimi in his pioneering research defined comfort facilities as the following three: ① facilities directly operated by the military exclusively for soldiers and camp followers; ② facilities operated by civilians but controlled and managed by the military exclusively for soldiers and camp followers; ③ facilities not only accessible to ordinary people but also provided by the military with special benefits in order for the military to designate and use.⁵⁾ In addition, he pointed out that there were many intermediate forms between facilities directly operated by the military and commercial prostitute facilities. In other words, the key point of the definition lies in some degrees of direct/indirect involvement of the Japanese military in terms of installment, management and operation, through which Yoshimi attempted to distinguish comfort facilities from various commercial prostitution facilities under state-regulated prostitution system and clarify the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further, the Japanese Emperor and government. The definition is highly important in order to clarify Japan's responsibility as a nation for the comfort women system.

This definition, however, caused tacit recognition that comfort facilities were actually located only in battlefields and the occupied areas or areas in which the Japanese military was stationed. As survivors testified there were comfort facilities in Busan,⁶⁾ South Korea, and Nanam and Bangjin,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comfort facilities in areas other than battlefields and

5) Yoshiaki Yoshimi, "Chapter 1: What Are the Military Comfort Women," written and compiled by Yoshiaki Yoshimi, Hirofumi Hayashi, *Joint Research: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Otsukishoten, 1995, 6p.

6) Compiled by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mfort Women, *Collection of Testimonies: Forcibly Mobilized Korean Comfort Women* Vol. 1-2, Hanul, 1993, 1997, etc.

posts of the Japanese armed forces was raised.⁷⁾ Despite such testimonies, however, materials that obviously show the Japanese military managed comfort facilities in Joseon⁸⁾ and Taiwan, most areas of which did not become battlegrounds, though the countries were occupied by Japan. In addition, the existence of comfort facilities seemingly managed directly by the military has not been verified in an empirical way under the situation where private prostitution facilities were available to address soldiers' sexual comfort.

Upon this, this speaker argued in a joint research that in colonies, areas under militarily special control, there were prostitution facilities different from ones with commercial purpose, though they did not have the same conditions as comfort facilities set up in battlefields and occupied areas, and such facilities should be newly classified as "colonial comfort facilities."⁹⁾ Most of Japanese armed forces stationed in Joseon were concentrated in Joseon's border areas with China and Russia to the extent that one out of two divisions that permanently stayed in Joseon was in South and North Gyeong provinces and the other was deployed in the border area with China. Nanam, the city which North Korea announced had comfort facilities, was a typical military city. This speaker considers that given the environment and the situation of that time, the prostitution facilities in Bangjin were highly likely to be used exclusively for the military. Such prostitution facilities had closer relations with the Japanese military. That is why they were considered hav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commercial prostitution facilities located in Gyeongseong and other Joseon cities, in terms of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colonial comfort facilities" as an intermediate form, compared to comfort facilities in the strict sense, defined by Yoshimi.

This paper persistently distinguishes comfort facilities in the strict sense from commercial prostitution facilities because this speaker believes that in order to make sure Japan's responsibility as a nation is indisputable,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stick to Yoshimi's definition that lays stress

7) "Military Comfort Women," Commission on Countermeasures for Victims of the Pacific War; "The Actual Stat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Facilities in Cheongjin, North Hamgyeong Province of Joseon," Kim Bu-ja, Song Yeon-ok; Comfort Women: The True State of Sexual Violence in Wartime—Cries of Forcibly Mobilized Victims, Confession from Pyeongyang, Fubaisha, 2001, etc.

8) To put it strictly, Joseon's border areas including Cheongjin and Hoeryeong became fierce battlefields for several days as Russia took part in the war on August 9, 1945.

9) Kim Yeong, Yuka Anzako, Ibid.

on their relations with the Japanese military by drawing a line between comfort and commercial prostitution facilities. Concluding commercial prostitution facilities as comfort facilities without any verification could raise various problems. Until 1992, the Japanese government professed that private operators were responsible for comfort women since they recruited those women. In addition, Japanese right wing is still trying to make the public think those comfort women engaged in prostitution. Against these backdrops, it is significantly important to define comfort facilities as those that had obviously certain relations with the Japanese military. The term of colonial comfort facilities also highlights the Japan's colonial rule of Joseon was based on military ruling.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other important aspects in the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issues is that the comfort women system was based on the prostitution system of Japan and Joseon under colonial rule.¹⁰⁾ The relations between comfort facilities and the Japanese military should be strictly verified in terms of "responsibility," while the idea of institutionalizing comfort facilities was never be come up with, without the existing prostitution system and network based on human trafficking, lik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It is noted that state-regulated prostitution and the comfort women system are virtually equivalent to each other in that a state commercializes and manages the sex of women and exposes it to daily violence.

3. The true state of comfort facilities in Bangjin based on testimonies

Bangjin-dong is an hour's drive away from Cheongjin, North Hamgyeong Province of

10) For example, for th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and the comfort women system, see Song Yeon-ok, "Historical Development from th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to the Comfort Women System," *Judge the Sex Slave System of the Japanese Military—Records of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in 2000* Vol. 3, Ryokufu, 2000; or Takeshi Fujinaga, "State-regulated Prostitution in Colonies and the Comfort Women System of the Japanese Military," compiled by Kiyohide Hayakawa, *War, Violence and Women: Colonies and War Responsibility*, Yoshikawa Kobunkan, 2005, etc.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view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or Korean comfort women as a form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hat occurred by war. See the introduction of the abovementioned book written and compiled by Song Yeon-ok, Kim Yeong.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n 1998 that comfort facilities were discovered in this region.¹¹⁾ Upon the announcement, Japanese journalist Takashi Ito in 1998 to 2001, Kim Yeong and Yuka Anzako in 2003, and Kim Yeong in 2008 respectively visited the area to investigate the traces of Punghaeru and Eunwolru, which are assumed as comfort facilities in Bangjin, and interviewed persons in charge.¹²⁾ Takashi Ito interviewed four residents who lived in Bangjin before the independence and Shin Rak-cheon (born in 1930 and worked at Haeju Medical School at that time) who remembered the facilities since he had lived right next to them. Kim Yeong and Anzako interviewed Mr. Shin and other resident who also lived there ahead of the independence. Before verification by historical materials, this paper simply summarizes their testimonies to Punghaeru and Eunwolru as follows:

- At that time, Bangjin was a half farming and half fishing village with about 150 houses. In those facilities, 15-16 policemen resided in a police stand, and 7-8 military policemen and a Korean special higher policemen stayed in a military police detachment.
- At that time, those facilities were guarded by the military police, not accessible to residents. Eunwolru was constructed around 1936 and Punghaeru around July to August 1938.
- Eunwolru was operated by a Japanese woman, and Punghaeru by Yun Du-man, a Korean who belonged to the Kwandung Army.
- About 20 people were working at Eunwolru at every time, about 15 people at Punghaeru.
- Soldiers for ground service visited Punghaeru everyday, while soldiers on a ship visited on Wednesdays, Fridays and Sundays. Soldiers landed at Yujin Port near Bangjin and walked about one kilometer to visit the facility.
- After the independence, residents heard from women who had worked at Punghaeru and Eunwolru about inside stories

11) Kim Yeong, "North Korea's 'Comfort Women' Issues and Japanese Colonialism," unpublished manuscript,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2016.

12) To put it in detail, Takashi Ito, "Japanese Military Comfort Facilities That Have Left," *Ibid.*; Kim Yeong, Yuka Anzako, *Ibid.*

What this speaker especially puts emphasis on among those testimonies is to verify whether only soldiers used the facilities. Takashi Ito concluded that there was no doubt the two places were comfort facilities, arguing that on the surface, they were operated by civilians but certainly the ones controlled and managed by the Japanese navy only for soldiers and camp followers. Kim Yeong and Anzako suspended defining them as comfort facilities in the strict sense, just as defined by Yoshimi, but argued that they are in the grey but infinitely close to black zone, and such a form should be called “colonial comfort facilities.” This paper strives to further verify the “involvement of the military,” including the examination of materials that were not examined at the time of paper publication.

4. Verification by materials

The address of Punghaeru and Eunwolru in the colonial rule was Bangjin Iri, Daeyu-dong, Punghae-myeon, Gyeongheung-gun, North Hamgyeong Province, and the current address is Bangjin-dong, Cheongam-guyeok, Cheongjin, North Hamgyeong Province. The places now belong to the city of Cheongjin, and the name of administrative district has quite changed from that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Bangjin is written 芳津 in Chinese, but was not recorded in a united manner: for example, Bangjin was often written 方津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tabl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芳津 or 方津 in military-related materials. However, the Collection of Joseon Contour Maps with a scale of 1:50,000 cre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dopts 芳津, so this paper also uses 芳津.

This speaker conducted a field survey of Punghaeru and Eunwolru of Bangjin in October 2003, but first impression was, “Were there comfort facilities in a place like this?” In fact, even a satellite photograph alone displays houses are scattered, and the area is surrounded by hills with few large buildings. As seen in the photograph, forests and fields sparsely stretches here and there and the population seems quite small. No public transportation—neither subways nor buses—are seen. According to the testimonies, the total population of Bangji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consisted of about 150 households. Was it possible that in this area, as many as two comfort facilities really existed to sheltered 15-20 women at all time subject to

prostitution, as testified? From where on earth did the users of those facilities come and to where did they go? The prostitution facilities in Nanam, in which this speaker also carried out a field survey, were located in the area with large prostitution facilities lined up, though they were away from the downtown. In addition, they lied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There were enough military population to use the facilities in Nanam. Bangjin, however, was really a “rural” area only with fields and forests. To tell the conclusion first, no public documents written on comfort or prostitution facilities in Bangjin or its neighboring areas have yet to be discovered. However, if the military population enough to use Punghaeru and Eunwolru is confirmed in and around the area, the aforementioned testimonies become considerably reliable.

Then, were armed forces stationed in Bangjin? Takashi Ito concludes that Punghaeru and Eunwolru were comfort facilities for the navy, but examinations should be conducted from the aspects of both the army and the navy, since there were not only naval but also army facilities in this area. First, as for the army, Bangjin (Gyeongheung-gun) i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19th division of the army in term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Regiments under the 19th division were stationed in cities of Nanam, Heoryeong, Hamheung, and Pyeongyang, which signifies neither divisions nor border guards permanently stayed in Bangjin. The army, however, established the Rajin Fortified Zone and started constructing defense facilities in 1936 in order to defend and guard border areas.¹³⁾ A map contained in the “Docu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ajin Fortified Zone” shows coast troops were in charge of the areas, with the border of Duman River to the north and Sajin Bay to the south, which included Bangjin. However, the headquarters of the Rajin Fortified Zone resided in Sinan-dong.¹⁴⁾ This area adjoined Jigyeong, the biggest city of intentionally urbanized Rajin.¹⁵⁾ The linear distance on the map from Shinan-

13) “Docu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ajin Fortified Zone,”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JACAR), Ref.C01001371500, Department of the Army, Complete Records Vol. 1-S11-4-17 (housed in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14) “56 Headquarters of the Rajin Fortified Zone” (2nd photograph),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JACAR), Ref.C13021321500, “1-20. The 1st Construction Plan, November of Showa 17,” general historical materials of the Army,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15) “Document on the Construction of Roads in the Rajin Fortified Zone” (7th photograph),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JACAR), Ref.C01002239300, “Complete Records Vol. 2, Showa 12,” Complete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the Army, Complete Records Vol. 2,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dong to Bangjin is about 20 kilometers, which means one cannot go by foot without using any transportation. In addition, if any soldiers move for entertainment, it is assumed much easier for them to go to Jigyeong and Shinan-dong of the city.

Meanwhile, naval facilities were first identified early in 1938 in Yujin, about one kilometer away from Bangjin. Yujin lies in the nearly southernmost area of Rajin Bay. Bangjin on the map faces the opposite sea of the peninsula to Yujin, but the linear distance traversing the sunken area of the peninsula is only about one kilometer (Figure 1). Yujin, unlike Bangjin, appears in historical materials of the military earlier on: for example, it was mentioned when the British Eastern Fleet appeared off the shore of Yujin in 1899.¹⁶⁾ The testimonies say, “Naval soldiers came from Yujin,” and it is definitely within walking distance. Then what kind of place was Yujin from the military perspective?

Before exploring the naval facilities in Yujin, this paper summarizes Joseon’s naval armament under the Japanese rule. The Japanese army was deployed with Japanese administrative areas as a unit, but the navy, which was usually in charge of sea areas, had great difference from the army in terms of deployed areas of responsibility. The Japanese navy divided the entire Japanese “territory” into four defense/guard districts and assigned military ports and strategic ports in each area. The 3rd Naval District, to which Joseon belonged, established the Naval Affairs Agency in Sasebo and designated it as a military port, and held Jinhae, Magong (Penghu Island in Taiwan) and Lushunkou as Strategic Port Departments (renamed Guard Departments from November 1941) under the agency. The area guarded by the Jinhae Guard Department included all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ki, Tsushima, and later, the Kwantung Leased Territory and coastal waters of Manchuria. As of 1943, the waters guarded by the Jinhae Guard Department was as seen in Figure 2. Rajin, Cheongjin, Unggi and Seongjin belong to the Sea of North Hamgyeong.¹⁷⁾

16) “37. The Sinking of the British Eastern Fleet After Having Appeared on the Coast of Yujin, Meiji 32,” “Rescue of Persons Drifting from Sunken Vessels, Part: United Kingdom, Vol. 9,”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JACAR), Ref.B12081656200, Record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3 titles, 6 type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7 water disasters, the Diplomatic Arch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tc.

17) The War History Library at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of the Ministry of Defense, *A Series of War History 50: Naval Military Operations in the Mainland*, Asagumo Shimbun, 1975, an excerpt from Attached Map 1. “Naval Military Operations in the Mainland.” .

Along with the Jinhae Guard Department, the Defense Guard was established in Rajin, the only one in Joseon. There were only three areas in which the Defense Guard was set up, and one of them was Rajin. The period when the Defense Guards were established has not been undisclosed yet, but it is told that they were mostly in charge of defense on the surface of the sea and held destroyers, submarines, military vessels or boats, depending on necessity.¹⁸⁾ The “Document on naval facility in the Rajin Fortified Zone” written by the Japanese army covers a naval facility in the Rajin Fortified Zone (army) in April 1938. The name of the military unit was not specified in the document, but the expression of the “warrant office of the defense guard” implies that the “naval facility” is the Rajin Defense Guard.¹⁹⁾ The document records that in Yujin, ①one aerophone, ②antiaircraft guns, searchlights, and hydrophones were installed; 22 persons were deployed under the warrant office of the defense guard on March 25 of the same year; and a total of 50 persons would be allocated soon.

The Japanese Navy exercised the “Imperial Naval War Establishment of Showa 16” on September 1, 1941, upon the premise of breaking out a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classified its navy troops into overseas combat troops (combined fleets and fleets toward China) and in-country combat troops (each naval affairs agency and strategic port department). The former took charge of advance operations and fleet combats, while the latter assumed responsibility of defense of the main land and the maritime guard of the waters near the main land.²⁰⁾ The Jinhae Strategic Port Department (renamed Jinhae Guard Department from November 20, 1941) belonged to in-country combat troops.

On October 1 of the same year, the Rajin Base Force was newly established under the Jinhae Strategic Port Department. Base forces were divided into two types of specially established base forces and special base forces. It was decided that the former was installed in advance base forces and the latter in areas with operational and other requirements. The Rajin Base Force was one of

18) Ibid., *A Series of War History 50: Naval Military Operations in the Mainland*, 19p.

19) “Document on the Establishment of Naval Facilities in the Rajin Fortified Zone, Showa 30,” “The History of Geiyo Fortress and Rajin Fortress Establishment” (War History Reference Library of the Ministry of Defense, Library-yu-471).

20) Ibid., *A Series of War History 50: Naval Military Operations in the Mainland*, 21p.-22p.

the special base forces, especially belonging to in-country combat troops, and mainly defended areas around Rajin. The original tasks of the Jinhae Guard Department consisted of securing safety in the Tsushima Strait, an important maritime traffic hub that bridges the main land and the continent and conducting guarding missions against Russia. Among those tasks, the Rajin Base Force were responsible for surveillance and vigilance against Russia. The organization chart of military forces drafted in December 1941 shows that the Rajin Defense Force was under the Rajin Base Force. The organization of the Rajin Base Force and the tasks of its subordinate forces were seen in Table 1.

For several months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December 8, 1941), the Japanese Navy occupied different southern areas, including Hong Kong, the Malay Peninsula, and Singapore, so in order to defend those areas and provide military power to overseas combat troops, the in-country combat troops were extensively reorganized in April 1942. Accordingly, seven months later in May 1942, the Rajin Base Force was reformed to the Rajin Special Base Force. The biggest change in the shift from the Rajin Base Force to the Rajin Special Base Force was the name of the Rajin Defense Force was just changed to the Rajin Special Base Force. The Rajin Defense Force had never been established since then.²¹⁾

As of May 1945, the organization of the Rajin Special Base Force was composed of three units: the Unit for Northern Sea Defense, the Rajin Landguard Unit, and the Communications Unit. The main tasks of the Unit for Northern Sea Defense are ① patrolling the defense sea surface (the sea surface of 38 degrees or higher north defended by the Jinhae Guard Department) and scorching submarines, opening waterways, cramping down and rescuing vessels ② detecting and guarding the movements of Russia's vessels and aircraft. The Rajin Landguard Unit had key tasks including ① landguard and counterintelligence ② air surveillance and air defense ③ surveillance and guard against Russia around borders.²²⁾ The landguard unit deployed anti-aircraft batteries and specially-established defense corps on the ground, while the maritime

21) "May of Showa 17," JACAR Ref.C12070162900, general historical materials of the Navy, legislation, internal regulations, April-June of Showa 17, Internal Regulations Vol. 2,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22) "May 1 of Showa 20-May 31 of Showa 20, Wartime Daily Report of the Rajin Special Base Force (1)" JACAR Ref.C08030283500, general historical materials of the Navy ④ vessels, land forces, detailed combat reports and wartime daily reports, Detailed Combat Reports and Wartime Daily Reports (1-391).

defense guard installed the fleet with special assignments and defense stations.

In the “Wartime Daily Report of the Rajin Special Base Force,” as of 1945, the Rajin Special Base Force held a total of seven units of fleets, including six vessels—Ship Hokumaru, Ship Kokaimaru VI, Ship Hachisenmaru, Ship Kyoryomaru XI, Ship Naekurimaru, Ship Akiramaru—and one tug boat. Action logs of a month written in the daily records show where each ship was everyday.²³⁾ If examining this data closely, one can tell the fact that nearly every vessel anchored at Yujin Port for most of the month. In other words, all vessels repeatedly left and arrived the port, and rarely went to other ports such as Cheongjin before finally returning to Yujin Port again. Yujin Port was the anchorage of all vessels which belonged to the Rajin Special Base Force. Such an anchorage state can also be confirmed in the “Wartime Daily Report of the Jinhae Defense Department” of June 1944.²⁴⁾ Their time periods are different, but the “Wartime Daily Report of Rajin Defense Force (from December 1941 to April 1942) shows the Port Yujin was the starting point of all vessels of the force (see Figure 3). The port was also designated as a waiting location, and the place to which vessels that had completed missions returned to was also the port.²⁵⁾

Meanwhile, how many soldiers were there in the Rajin Base Force? As seen in Figure 2, there were a total of 1,161 in May 1945 with officers, soldiers and others all combined, and 1,234 in June 1945, which implies a troop consisted of more than 1,000 persons.

The abovementioned materials show that Yujin was an important military port of Rajin, the base for guarding northern waters of Joseon and activities against Russia. In all records of the Rajin Defense Force and the Rajin Special Base Force, nearly every vessel anchored at Yujin Port or used the port as a strategic point. Therefore, the testimony that navy soldiers who landed at Yujin Port visited Punghaeru and Eunwolru is quite reliable.

23) Ibid., “Wartime Daily Report of Rajin Special Base Force, from May 1 of Showa 20 to May 31 of Showa 20” (7p.-9p.).

24) “June 1 of Showa 19-June 30 Showa 19, Wartime Daily Reports of the Jinhae Defense Guard (1),” JACAR Ref.C08030516900, general historical materials of the Navy ④ vessels, land forces, detailed combat reports and wartime daily reports, Detailed Combat Reports and Wartime Daily Reports (392-719).

25) “September 1 of Showa 16-May 19 of Showa 17, Wartime Daily Reports of the Rajin Defense Force (1), JACAR Ref.C08030457800, general historical materials of the Navy ④ vessels, land forces, detailed combat reports and wartime daily reports, Detailed Combat Reports and Wartime Daily Reports (392-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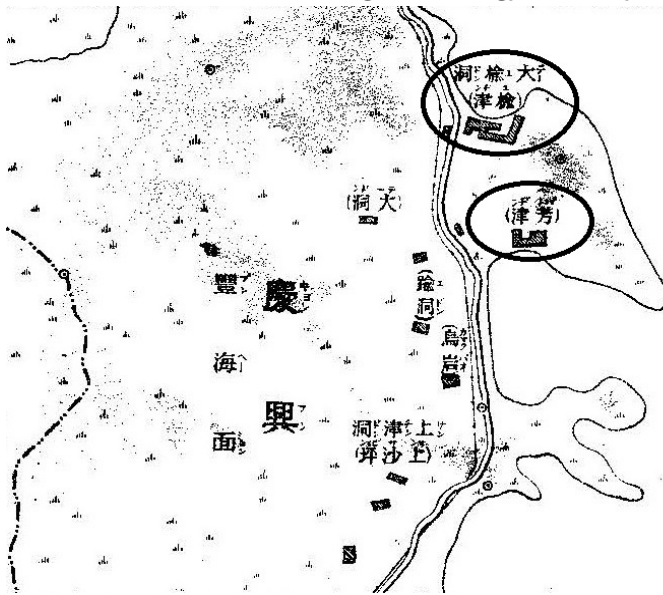
5. Conclusion

Though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Punghaeru and Eunwolru in Bangjin were prostitution facilities operated by civilians, it is quite persuasive that its residents did not (or could not) use the facilities considering their testimonies, its uncrowded environment, and its geographical location.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materials, there were no military facilities adjacent Punghaeru and Eunwolru, and it is evident that Yujin, about one kilometer away from Bangjin, was the area where most navy soldiers permanently stayed and soldiers there were easy to access to the facilities by foot. Given historical materials and situations, Punghaeru and Eunwolru can be regarded as facilities mostly used by soldiers. However, it is no matter of course that documents on Bangjin have not been organized, and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Yujin, including the detailed actual conditions of military facilities and the possible existence of other comfort and prostitution facilities for soldiers in the area. In addition, prostitution facilities that have a similar nature to colonial comfort facilities located in military strategic points of Joseon should be verified one by one. Records on the use of comfort facilities should also be sought from memoirs of Japanese soldiers.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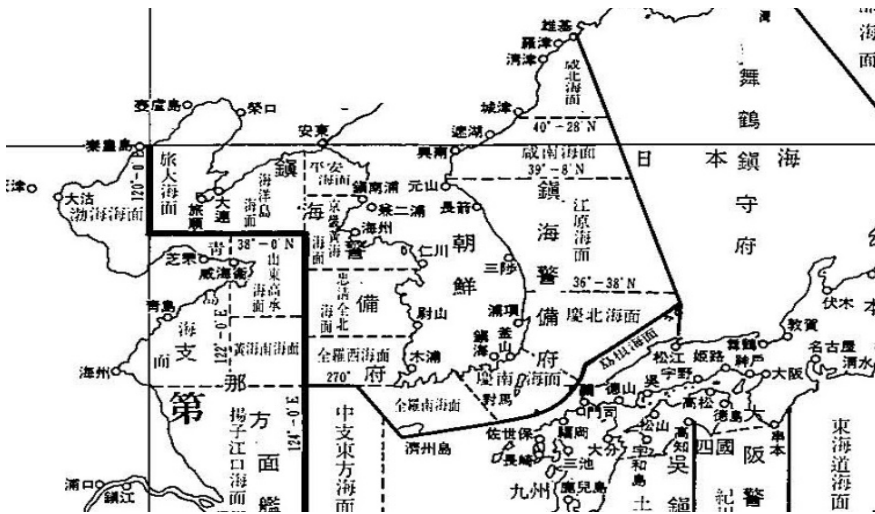
It is obvious that some prostitution facilities in Joseon existed exclusively for soldiers and were different from those operated by civilians. This speaker believes that by newly classifying this as “colonial comfort facilities,” it is possible to demonstrate there were close relations between the colonial rule and the comfort women system from a different angle.

26) There is a written document containing a navy soldier's comment that there were such facilities near Yujin, though the exact location was uncertain (Kim Yeong, Yuka Anzako, see abovementioned paper). However, the author explains it is a “novel written like a memoir,” so it still lacks reliability.

[Figure 1. Bangjin and Yujin]



[Figure 2. Waters guarded by the Jinhae Guard Department] ²⁷⁾



27) The War History Library at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of the Ministry of Defense, *A Series of War History 50: Naval Military Operations in the Mainland*, Asagumo Shimbun, 1975, an excerpt from Attached Map 1. "Naval Military Operations in the Mainland."

【Table 1. Main tasks of the Rajin Base Force】 ²⁸⁾

Unit name	Main tasks	Detailed acts
Rajin land defense forc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ir defense 2. Landguar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he force conducts thorough surveillance for air defense. 2. The Land Guard Unit mounts guards at its guard department in an emergency case. 3. Anti-fire, anti-gas and rescue units stand by in order to be rapidly deployed.
Directly-led Rajin maritime defense forc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efends entrance of Rajin Bay 2. Guards and detects enemies' use of coasts in Vladivostok as well as the movements of Russian vessels and air forces 3. joins forces with the Maitsuru Naval Affairs Agency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in northwestern area of the East Sea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he force detects the invasion of enemies' vessels in advance by patrolling defense sea areas. 2. The force may conduct mine-sweeping before the entrance of important vessels to guide seaways. 3. The force conducts mine-sweeping depending on situations. 4. Special patrollers detect enemies' use of coasts in Vladivostok and the movements of Russian vessels and air forces. 5. The force works with the Maitsuru Naval Affairs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Order for Maritime Transportation Protection in Northwestern Area of the East Sea, by directly conveying important vessels if necessary.
Rajin communications unit	Transmits communications and detects enemies' movement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he unit transmits communications and detects enemies' movements in accordance to the predetermined military communications plan of the Jinhae Guard Department. 2. The radio direction finding station measures the direction of Russian vessels and aircraft.

28) "December 1 of Showa 16 -December 31 of Showa 16, Wartime Daily Reports of the Jinhae Defense Guard (4)," JACAR Ref. C08030513700, general historical materials of the Navy, vessels, land forces, detailed combat reports and wartime daily reports, Detailed Combat Reports and Wartime Daily Reports (392-719).

【Figure 3. Behavior of the fleet of the Rajin Special Base Force】²⁹⁾

【Table 2. Total number of people in the Rajin Special Base Force】

Type	Officers	Special warrant officers	Non-commissioned officers	Soldiers	Others	Total
No. of May, 1945	27	35	217	852	30	1,161
No. of June, 1945	33	39	216	916	30	1,234

29) “June 1 of Showa 19-June 30 of Showa 19, Wartime Daily Reports of the Jinhae Defense Guard (1),” JACAR Ref.C08030516900, general historical materials of the Navy ④ vessels, land forces, detailed combat reports and wartime daily reports, Detailed Combat Reports and Wartime Daily Reports (392-719).

朝鲜“慰安所” 有关档案-通过文献验证遗物、证言

| 庵道由香 (立命馆大学)

1. 引言

最近,日军“慰安妇”问题成为韩日之间最受关注的政治悬案。近20年来,日军“慰安妇”问题在政治领域的重要性与地位日益突出,尽管如此,对日军“慰安妇”实情的实证研究并没有深入发展,也没有扩大研究范围。与社会关注度相比,日军“慰安妇”研究并没有得到相应的发展,其重要原因之一在于作为研究对象的日军是日本的特殊组织,在太平洋战争结束后,军队被解散,军事机构被撤销,而且在战争末期,日军的军事组织与编制迅速地发生变化,导致很难收集到基础信息并对其进行解释所需的归档资料,在战争末期,日军档案的数量也明显减少。最近,虽然在美国、中国、荷兰等国家发掘了新的档案,尽管如此,“慰安妇”研究在很大程度上依然依靠幸存者、经验者与有关人士的证言。

另一方面，到现在为止，韩日两国以几个资料集的形式出版了关于“慰安所”、“慰安妇”的档案资料¹⁾。然而，除了历史研究学者的论著外，积极利用这些资料分析“慰安妇”、“慰安所”的历史研究并不多，特别是朝鲜人“慰安妇”的研究则少之又少。除了吉见义明教授以外，永井和也发表了日军史料研究²⁾。永井和关注吉见义明与日本“历史修正主义者”（小林善范、藤冈信胜等）之间关于“募集军慰安所服务员之案”引发的争论，并深入分析可有关的警察档案，其研究范围涉及到档案的编写背景、目的和有关案例等。永井和同时批评“历史修正主义者”的看法与吉见义明教授的档案解释，并得出如下总结，“慰安所是以满足士兵性欲为目的由日军设置的兵站附属设施，日本政府将慰安所的设置作为政府方针，将募集‘慰安妇’与渡航合法化，但是日本政府刻意隐瞒被视为‘丑业’的慰安所与日军及政府之间的关联”。她深入研究与分析10年前公开的档案，以实证研究形式证明了日军与日本政府对“慰安妇”和“慰安所”持有的看法的矛盾。

幸存者、业者及士兵的证言是非常重要的资料，这些证言如实地反映了资料中没有记载的、超出研究者想象的历史真相，因此我们需要对此进行深入的研究，与此同时，也对这些珍贵的证言做出更加客观的、准确的验证。由此可见，像永井和研究成果般的史料验证与分析工作变得越来越重要。

本文的宗旨在于对在咸镜北道芳津发掘的“丰海楼”与“银月楼”卖淫设施、有关“证言”与新发掘资料，并以史料为基础进行验证。“丰海楼”与“银月楼”是由民间业者经营，它可能是“遊郭”，有些证言指出海军士兵曾来这里快活。到目前为止，尚未发掘出直接提出在芳津地区设置卖淫设施或“慰安所”的档案或文献。芳津位于海边，是人迹稀少的小农村，设置“丰海楼”或“银月楼”的地区设有军事设施的记录也尚未得到发掘，而且芳津在战时也没有沦为战场，因此，我们需要以谨慎的态度检验芳津地区的卖淫设施是不是“慰安所”。总而言之，本人认为虽然“丰海楼”与“银月楼”不是与战场或占领地的“慰安所”完全一样的设施，但是也不同于朝鲜京城或釜山地区的“遊郭”，所

1) 吉见义明编著 / 解说，《从军慰安妇资料集》，大月书店，1992年；(财)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从军慰安妇”关系资料集成》① - ⑥，龙溪书舍，1997年；朱德兰，《台湾慰安妇关系史料集》，不二出版，2001年；최덕수 / 변은진 / 庵途由香《“慰安妇”有关文献资料集》1、2，女性部，2002；铃木裕子、山下英爱、外村大编，《日本军“慰安妇”关系资料集成》，明石书店，2006年；世宗大学，《日本的慰安妇问题之证据资料集 1：对从1937年到1945年慰安妇问题有关资料进行翻译与分析》，黄金卵，2018等。

2) 永井和，《陸軍慰安所の創設と慰安婦募集に関する一考察》，21世界研究所，创刊号，2000年

以提出将它列为“殖民地慰安所”（具体的内容请参考下一章）³⁾

从上世纪90年代开始，朝鲜也开始高度关注“慰安妇”问题，并对此进行实情调查。然而，朝鲜发表的有关内容大部分是幸存者与“慰安所”有关人士的证言⁴⁾。本人对朝鲜罗南、会宁、清津等地进行实地调查，朝鲜政府也对各地人民委员会提出了提供协助的要求。在朝鲜进行实地调查时，有关负责人安排慰安所旧址的调查或经验者访谈日程，但是本人对遗留下来的档案进行提问时，他们都回答“不知道”。从研究论文来看，关于慰安妇与慰安所的公文是否保存在朝鲜也不是特别分明。这是摆在我们面前的课题。本文主要介绍以已经公开的日军和日本政府的档案资料为基础，对朝鲜遗留的卖淫设施的证言进行验证。

2. 日军“慰安所”的定义与“殖民地慰安所”

首先，先了解关于“殖民地慰安所”的几个定义，吉见义明在他的开创性研究上将“殖民地慰安所”分为三个类型：①受军队直接经营管理的军人·军属专用慰安所；②由民间业者经营，由军队管理监管的军人·军属专用慰安所；③除了军人以外，一般人可以利用，但是由军队指定的、为军人的利用提供便利的慰安所；此外，他指出还有一些类似于军队直接经营的慰安所与介于民间卖淫所等中间形式的慰安所⁵⁾。该定义的核心在于慰安所的设置、经营、监管等层面都直接或间接的与日军有关联，将“慰安所”区别于公娼制度下的各种民间卖淫设施，明确指出日本政府与日本天皇在慰安妇问题上需承担相应的“责任”。这对明确日本需要承担的国家责任祈祷非常重要的定义作用。

然而，该定义导致在人们的潜意识里认为主要在日军战场与占领地、驻屯地设有“慰

3) 金荣、庵途由香,「咸北道の軍都と『慰安所』・『遊廓』」、宋连玉・金荣編著『軍隊と性暴力 朝鮮半島の20世紀』, 现代史料出版, 2012年

4) 对朝鲜“慰安所”档案发掘的情况, 金荣《朝鲜的“慰安妇”问题与日本的殖民主义》; 송연옥 / 김귀옥 外 著, 《殖民主义, 战争, 军队“慰安妇”》, 图书出版 先人, 2017年

5) 吉见义明,《第一章 日本軍慰安婦とはなにか》, 吉见义明、林博史 编著《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 大明书店, 1995年6页

安所”。自从幸存者指证釜山与北朝鲜的罗南以及芳津地区也开设了“慰安所”以来⁶⁾，人们开始提出除了日军战场和占领地以外，其他地方也会有“慰安所”⁷⁾。尽管如此，⁸⁾朝鲜、台湾的大部分地区没有发掘直接指出在朝鲜与台湾设置由日军设置“慰安所”的档案，而且也存在军人为满足性欲可以利用民间卖淫设施的情况，由日军直接管理的“慰安所”的事实没有得到实证检验。

对此，本人在共同研究上指出在军队殖民统治的“殖民地”没有具备类似于战场、占领地“慰安所”的环境，但是这里一定会设置区别与民间卖淫设施的卖淫设施，该设施可以被列为“殖民地慰安所”⁹⁾。在朝鲜半岛，两个师团中一个师团驻屯在咸镜北道，另外一个师团驻屯在朝中边境地区，很多日军兵力集中在中国、苏联与朝鲜的边境地区。朝鲜发表存在慰安所的罗南地区是一个典型的军事地区。并且，通过考察分析，考虑到当时的环境与条件，芳津的卖淫设施是日军专用慰安所的可能性相当大。这些卖淫设施与日军有紧密的联系，它的性格与环境肯定与京城或其他朝鲜城市的民间卖淫设施完全不同。因此，我提出“中间形式”的“慰安所”——“殖民地慰安所”的概念，这与吉见义明的“严格意义上的慰安所”有所不同。

本人坚持“严格意义上的慰安所”区别于民间卖淫设施的立场，是因为在追究日本政府在慰安所的责任上尊重吉见义明的定义非常重要，他的定义核心在于区别与民间卖淫设施，强调慰安所与日军有关联。如果对民间卖淫设施没有进行检验而直接将它断定为“慰安所”，就会发生各种问题。尤其是，到1992年，日本政府表示“由业者募集慰安妇，这是民间业者承担的责任”，日本右翼主张“慰安妇从事卖淫”，在此情况下，明确规定与日军有关联的卖淫设施是“慰安所”的定义非常重要。“殖民地慰安所”概念也突出体现了朝鲜因军事侵略被沦为殖民地。

6) 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 / 韩国挺身队研究所 编《证言集：被强走的朝鲜人军队慰安妇》1-2, Han Wul, 1993年 1997年等

7) 《从军慰安妇》·太平洋战争受害者对策委员会，《朝鲜·咸镜北道清津的 の日本軍〈慰安所〉の実態》，金富子·宋连玉，《「慰安婦」・戦時性暴力の実態》，第四卷，2000年，伊藤考司，《日本軍「慰安婦」・強制連行被害者の叫び 平壤からの告発》，风媒社，2001年等

8) 从严格意义上来说，1945年8月9日，苏联参加战争之后，清津、会宁等朝鲜国境地区在数天之內演变成战场

9) 金荣、庵谿由香的论文

另外，日军“慰安妇”的另一个核心问题是以日本及殖民地朝鲜的卖淫制度为基础而诞生了慰安妇。¹⁰⁾从追究“责任”的观点出发，需要严格地对慰安妇与日军的关联性进行实证研究分析。但是，如果没有以人身贩卖来形成的卖淫制度与网络，如公娼制度，就不会出现“慰安所”制度化的想法。我们应该注意“女性之性”由国家管理并成为商品来交易，并处于性暴力地威胁之下，在这一点上，“慰安妇”制度和公娼制度可以相提并论。

3. 通过证言了解芳津“慰安所”的实情

从北朝鲜咸镜北道的清津坐车一个小时就可以到达芳津洞。北朝鲜政府在1998年发表了在芳津洞发现了“慰安所”旧址¹¹⁾。1998年到2001年间日本新闻工作者伊藤考司，2003年的金荣与庵途由香，以及2008年的金荣，分别对推测为芳津的“慰安所”——“丰海楼”与“银月楼”的旧址进行调查，并对有关人士进行采访¹²⁾，伊藤考司对韩半岛被解放之前一直生活在芳津的4名居民、当时生活在慰安所附近而能回忆起当时情况的申乐天（1930年出生，当时在海州医科大学工作）进行采访。金荣、庵途由香对当时芳津的一名居民进行采访。在进行史料验证之前，简单整理“丰海楼”与“银月楼”的证言内容如下。

- 当时，芳津是一个由150户组成的半农半渔的小村庄。警察驻在所里有15-16名的警官，宪兵队芳津分遣队有7-8名宪兵和1名朝鲜人特高。
- 当时，宪兵维护“丰海楼”与“银月楼”，禁止居民接近该楼。于1936年设置“银月楼”，并于1938年7-8月份设置“丰海楼”。
- “银月楼”由日本女性经营，“丰海楼”由关东军下属的朝鲜人尹斗满经营。
- “银月楼”有20名女性，“丰海楼”有15名女性。
- 地勤官兵（陆军）每天来“丰海楼”潇洒，船上官兵（海军）每周三、五、日来

10) 例如，公娼制度与“慰安妇”制度之间的关系，宋连玉，「公娼制度から『慰安婦』制度への歴史的展開」，『日本軍性奴隷制度を裁くー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3，绿风出版，2000年。或者藤永壮，「植民地公娼制と日本軍『慰安婦』制度」，早川紀代編，『戦争・暴力と女性3 植民地と戦争責任』，吉川弘文馆，2005年等。同时，我们应注意日军“慰安妇”或朝鲜人“慰安妇”都是战争造成的女性性暴力的受害者，这种观点非常重要，宋连玉、金荣 编著，请参考序言

11) 金荣，《朝鲜“慰安妇”问题玉日本殖民主义》，未公刊稿，计划2016年公刊

12) 伊藤考司，《残っていた日本軍『慰安所』》，金荣・庵途，前面提到的书

“丰海楼”潇洒，登陆在芳津旁边榆津港的公路的官兵走了1公里过来。

- 在韩半岛被解放之后，居民从在“丰海楼”与“银月楼”工作的女性那里获知“丰海楼”与“银月楼”的具体情况。

本人致力于检验“丰海楼”与“银月楼”的利用者限定为官兵。伊藤考司指出“从表面上看‘丰海楼’与‘银月楼’由民间经营，但是这是由海军管理、监管的军人军属专用‘慰安所’”；金荣与庵途由香指出“将丰海楼与银月楼定为吉见义明‘从严格意义上的慰安所’一事暂时可以‘搁置’，但是它之类似于慰安所就像接近于黑色的灰色一样，因此主张将它称为‘殖民地慰安所’”。关于“军队的介入”，本人要验证论文发表时没有研究分析的资料在内的有关档案。

4. 通过档案资料的验证

据说，芳津设置“丰海楼”与“银月楼”，当时地址为“咸镜北道庆兴郡丰海面大榆洞二里芳津”，现地址为“咸镜北道清津清岩地区芳津洞”，现在属于清津市，其行政区域从日本殖民统治时期开始有很多变化。芳津在朝鲜总督府的行政区域名称一览上被标记为“方津”，在有关军队档案上都存在“芳津”和“方津”的标记，没有统一。然而，朝鲜总督府的“五万分之一朝鲜地形图集成”以“芳津”标记，而本文以“芳津”标记。

在2003年10月对芳津的“丰海楼”与“银月楼”进行实地调查，当时我对芳津的第一个印象是“难道这里有‘慰安所’吗”。从卫星照片上看，芳津只有稀稀落落的人家，被丘陵环绕，没有大楼。如照片所示，到处都是林地与田地零散分布的，人口也很少，很难发现地铁与巴士等公共交通。据证言，在殖民统治时期，芳津一共150户。难道在小村庄设置两家慰安所，15-20名女性被强制从事卖淫？该设施利用者来自哪里？本人曾经对北朝鲜罗南的卖淫设施进行调查，罗南卖淫设施不在繁华地区，但它位于规模较大的卖淫设施云集的地区、以及城市的边缘，而且客人来源——军人——也不少，与此相比，芳津是只有田地与林地的“小村庄”。总而言之，到目前为止，关于芳津或附近的“慰安所”或卖淫设施的档案尚未得到发掘，然而，如果能够确认芳津的附近驻屯利用“丰海楼”与“银月

楼”的军队，居民证言的可信赖性就会提高。

那么，在芳津有没有军队驻屯呢？，伊藤考司确定“丰海楼”与“银月楼”是海军利用的“慰安所”，然而我们需要分析研究陆军与海军的情况，因为，在这里有海军和陆军设施。就陆军而言，在行政区域上，芳津（庆兴郡）属于第19师团管辖，第19师团属麾下联队的驻屯地为罗南、会宁、咸兴、平阳等，因此在芳津没有常驻联队，国境守备队也没有在此驻屯。然而，在1936年，陆军以国境地区的防卫与警戒为目的，在罗津设置“罗津要塞地带”，开始着手国防用的防御设施¹³⁾。“设置罗津要塞地带之件”所收录的这一地带的地图，沿岸部对象地区从北方的图们江到南方的沙津湾，芳津也包括在里面。但是，罗津要塞地带司令部位于新安洞¹⁴⁾。新安洞与规划城市罗津的最大城市地境地区邻接¹⁵⁾。从地图上，从新安洞到芳津的直线距离为20公里，不是步行能到达的地方，我们可以推测如果官兵以“娱乐”为目的，移动，去地境或新安洞更方便。

另外，从1938年开始，海军设施一直位于“榆津”，也就是离芳津一公里的地方。榆津位于罗津湾的最南端。在地图上，芳津也靠着半岛对面的大海，但是沿着陆地穿过半岛的凹陷部分，其直线距离就只有1公里。如《照片1》所示，在1899年，英国东阳舰队出现在榆津的前海，与芳津不同，榆津早就出现在军队史料上¹⁶⁾。据证言说，“海军士兵是从榆津过来的”，其距离是步行能够到达的，那么，榆津在军事上的位置如何？

在分析榆津的海军设施之前，先简单整理在日本殖民统治时期朝鲜海军军备情况。就日本陆军而言，以日本行政规划为单位配置部队，海军主要负责海域，在配置规划上海军与陆军有明显的差距。海军将日本的“领土”大分为4个防御/警备地区，在各地区配置军港与要港。朝鲜属于“第三海军区”，“第三海军区”在军港佐世保设置镇守府，在其属

13) 「羅津要塞地带設置に関する件」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1001371500，陸軍省 - 大日記甲輯 - S11-4-17(所蔵館：防衛省防衛研究所)。

14) 「5 6 羅津要塞司令部」(第2画像)，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13021321500，「イチ2 0 第1期工事設計書 昭和17年11月」，陸軍一般史料・防衛省防衛研究所。

15) 「要塞地带内道路新設に関する件」(第7画像)，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1002239300，「大日記乙輯昭和12年」、陸軍省大日記・大日記乙輯・防衛省防衛研究所。

16) 「3 7. 英国東洋艦隊中ノ一艦韓国榆津近海ニ於テ沈没之件 明治三十二年」「困難船及漂流救助雜件/英国之部 第九卷」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12081656200，外務省記録・3門通称・6類交通及通信・7項水難、外務省外交史料館等

下的要港镇海、马公（台湾澎湖岛）、旅顺设置要港部（自1941年11月起设置警备部）。镇海警备府所负责的范围涉及到环绕韩半岛的整个海域以及壹岐、对马，在其后还包括了关东州与满洲沿海等。在1943年，镇海警备府负责海域如《图二》所示。罗津、清津、雄基、城津都属于咸北海面。¹⁷⁾

除了镇海警备府以外，只在朝鲜罗津设置防备队，设置防备队的地区只有三处（包括罗津），虽然防备队设置时期何时尚未得到确认，防备队主要负责海面防御，有时因需求配置舰艇、驱逐舰、潜水舰等船舶¹⁸⁾。“关于罗津要塞地带内海军设施之件”陆军档案是1938年4月关于罗津要塞地带（陆军）内的“海军设施”有关档案。该档案没有标记具体的“部队名”，但是通过“防备队准士官”的标记可以了解该“海军设施”是罗津防备队¹⁹⁾。据该档案，在榆津配置①空中听音机一台、②高角砲、探照灯、听音器等。在同年3月25日，榆津还配置了防备队准士官以下的22名，还记载了计划安排50名人力。

1941年9月1日，海军以对英美开战为前提，发动“昭和16年度帝国海军战时编制”，将海军部队分为外战部队（联合舰队、支那方面舰队）与内战部队（各镇守府与要港部部队）。外战部队负责进攻作战与舰队决战，内部部队负责本土防御和本土近海海上护卫²⁰⁾。镇海要港部（1941年11月20日变更为镇海警备府）属于内战部队。

在同年10月1日，镇海要港部下属新设罗津根据地队（罗津根拠地队）。根据地队分为特设根据地队与特别根据地队等两种，按规定，特设根据地队与特别根据地队分别设置在前进根基地与其他作战需求地区。罗津根据地队是在特别根据地队中属于内战部队的根据地队，主要负责罗津方面的防备业务。这原来是镇海警备府的作战业务，确保在本土与大陆连接的海上交通枢纽对马岛海峡的安全与对苏联的警戒业务。罗津根据地队主要负责对苏联的监视、警戒业务。1941年12月兵力部署表显示罗津防备队属于罗津根据地队麾下，罗津根据地队编制与麾下部队的任务如《表一》所示。

17)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著、『戦史叢書 50 本土方面海軍作戦』，朝雲新聞社，1975年。从付図第一「本土方面海軍作戦」抽取

18) 『戦史叢書 50 本土方面海軍作戦』，19页

19) 「羅津要塞地带内海軍施設等に関する件 昭和十三年」『芸予要塞および羅津要塞築城史』（防衛庁戦史資料室・文庫・柚-471）。

20) 『戦史叢書 50 本土方面海軍作戦』，21-22页

在对英美开战（1941年12月8日）以后的几个月时间里，日本海军占领香港、马来半岛、新加坡等南方地区，在1942年4月，以日本海军的防备、为外战部队支撑战斗力，对内战部队进行大幅度改编，随之，罗津根据地队在7个月后的1942年5月被改编为罗津方面特别根据地队。从罗津根据地队改编为罗津方面特别根据地队最明显的变化是将罗津防备队的名称直接改为罗津方面特别根据地队。罗津防备队在那之后不复设置。²¹⁾

察看1945年5月罗津方面特别根据地队的编制，它由北鲜海面防备队、罗津陆上防备部队、通信部队等3个部队组成，北鲜海面防备部队的主要任务有：①在其所负责的海面（北纬38度以北的镇海警备府负责海面）的哨戒、潜水舰扫讨、水路开启、船舶的管制与救援；②维护对苏联舰艇、航空器动态监测活动等。罗津陆上防备部队的主要任务有：①陆上警备、对谍防备；②对空监视警戒与防空；③在国境附近监视与警戒苏联等²²⁾。陆上防卫部队在陆上安排高射砲台以及特设警备队，海上防备部队设置特务艇队与防备卫所。

“罗津方面特别根据地队的战时日记”记载了罗津方面特别根据地队麾下舰艇在1945年有“北鸥丸”、“第六黄海丸”、“八仙丸”、“第十一兴渔丸”、“苗栗丸”、“第五辉丸”等六艘与“一曳船”等总共7艘舰艇。在“日记”的船舶月份“行动记录”记载每天各艘船舶的位置²³⁾。详细察看该记录，整个船舶在整整一个月停泊在榆津港。就是说，所有的船舶都从“榆津港出发”并“到达榆津港”，偶尔前往清镇等其他港口，但是最后还是返回榆津港。榆津港是罗津方面特别根据地队所属的船舶“停车场”。在1944年6月“镇海警备府战时日记”上可以确认其停泊情况²⁴⁾。虽然时期不同，但是罗津防备队的“战时日记”（1941年12月到1942年4月）上显示罗津港是所属船舶的起点（如图三所示）。在作战命令上，榆津港被指定为等候区，各艘船舶完成任务后返回的地方也是榆津港²⁵⁾。

21) 「昭和17年5月」, JACAR Ref.C12070162900, 海軍一般史料・法令・内令・昭和17年4月～6月 内令2卷・防衛省防衛研究所

22) 「昭和20年5月1日～昭和20年5月31日 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戦時日誌(1)」 JACAR Ref.C08030283500, 海軍一般史料・④艦船・陸上部隊・戦闘詳報 戦時日誌・戦闘詳報 戦時日誌(1-391).

23) 前面資料, 「羅津方面特別根拠地隊戦時日誌 自昭和20年5月1日～至昭和20年5月31日」(7-9頁)

24) 「昭和19年6月1日～昭和19年6月30日 鎮海警備府戦時日誌(1)」, JACAR Ref.C08030516900, 海軍一般史料・④艦船・陸上部隊・戦闘詳報 戦時日誌・戦闘詳報 戦時日誌(392-719).

25) 「昭和16年12月1日～昭和17年5月19日 羅津防備隊戦時日誌(1)」 JACAR Ref.C08030457800, 海軍一般史料・④艦船・陸上部隊・戦闘詳報 戦時日誌・戦闘詳報 戦時日誌(392-719).

另外，罗津方面根据地队所属的士兵总共多少人？如《表二》显示，在1945年5月，士官、士兵、其他人总共1161名，6月份为1234名，一个部队的人员超过1000人。

通过上述的档案可以了解榆津是朝鲜北部海域的警备与对苏联活动的据点罗津的军事主要港口，罗津防备队、罗津特别根据地队、罗津方面特别根据地队的记录都记载所有的船舶平时停泊在榆津港，将榆津港作为据点。由此可见，“榆津的海军士兵来‘丰海楼’与‘银月楼’”的证言可信赖性相当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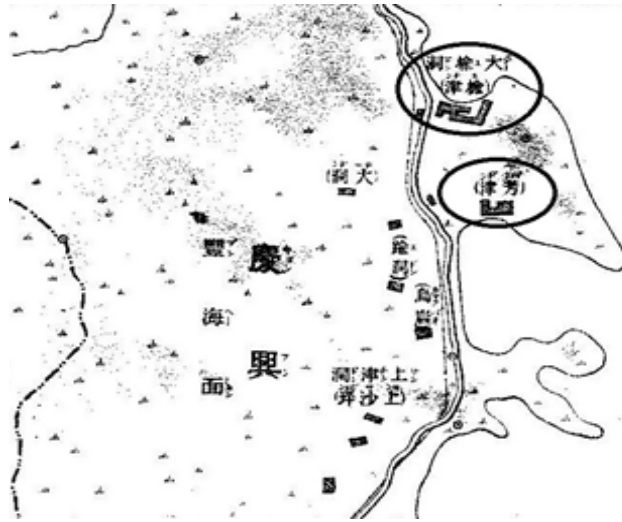
5. 总结

芳津的“丰海楼”与“银月楼”是由民间经营的卖淫设施的可能性很大，但是考虑到居民的证言、当地较为僻静的环境与地理位置，芳津居民没有使用（不能使用）这些设施的主张更有说服力。通过上述的史料可以确认“丰海楼”与“银月楼”的附近没有军事设施，但离这里走路一公里距离就有榆津，榆津有很多海军士兵常驻，海军士兵步行能够到达芳津。通过军队史料考察，可以推测“丰海楼”与“银月楼”是军人利用的设施。然而，关于芳津的档案尚未完全发掘与整理完毕，与此同时，对榆津的军队设施具体实情、军人专用慰安妇设施与卖淫设施的存在与否等需要更加深入的调查。就“殖民地慰安所”而言，对朝鲜的军事要地有没有类似于慰安所的卖淫设施需要逐个验证，此外，从日军回忆录上可以寻找关于利用“慰安所”的记录。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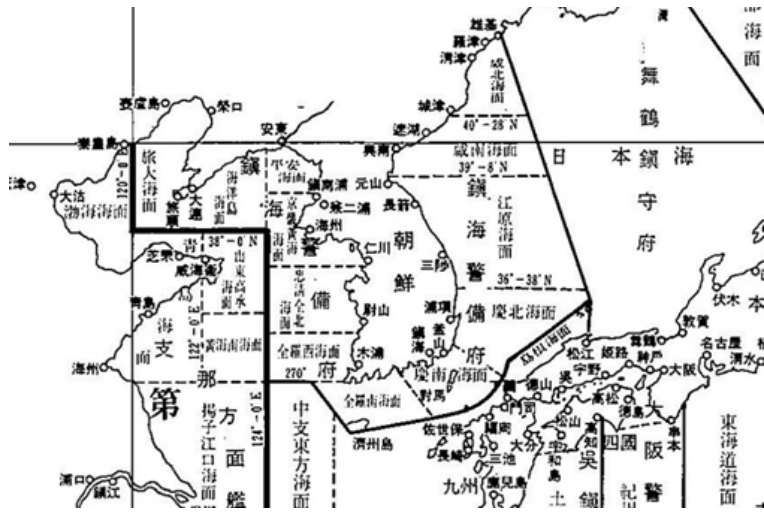
在日本殖民统治时期，朝鲜的卖淫设施中一定包括军人专用卖淫设施，这是区别于由民间经营的卖淫设施，这是不争的事实。本人认为将它列为“殖民地慰安所”，这从另外的角度证明殖民统治与“慰安妇”制度有紧密的关系。

26) 海军所属的士兵回顾“正确位置不太清楚，但是离榆津很近的地方就有类似的设施”（金荣、庵逾由香，请参考前面论文）

【图1 芳津与榆津】



【图2 由镇海警备府负责的海域】²⁷⁾



27)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著, 『戦史叢書 50 本土方面海軍作戦』, 朝雲新聞社, 1975年, 从付図第一「本土方面海軍作戦」抽取

【表2 罗津方面特别根据地队总人数】

种别	士官	特准	下士官	兵	其他	总计
1945年5月份人员总数	27	35	217	852	30	1161
1945年6月份人员总数	33	39	216	916	30	1234

1

2. 일본자료

김상규

(고려대)

일본군‘위안부’ 관련 일본자료의 현황과 과제¹⁾

| 김상규 (고려대)

1. 머리말

일본군‘위안부’ 이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관련 쟁점 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다. 그 중에서 1990년대 이후 공문서 등 자료의 발견과 공개는 관련 운동의 쟁점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1992년 요시미 요시아키의 일본군 관련 자료의 공개는 1992년 가토 장관의 인정, 1993년 고노담화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자료는 범위가 다양하다. 문서, 사진, 영상, 구술, 회고록, 언론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문서자료군 중 주로 일본의 공문서에 한정하여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일본의 폐전이 확정되자 일본정부와 일본군은 관련된 공문서를 조직적으로 폐기한 바 있다. 하지만 모든 문서가 폐기된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자료군이 남아있다.

1) 본 발표문은 2016년 역사학대회 발표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의 축적과 구성”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전후 일본 공문서의 상황은 크게 4개의 문서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²⁾ 1)폐기를 피해 숨겨진 자료군(육해군 문서³⁾와 행정문서) 2)연합군에 의해 몰수된 자료⁴⁾ 3)식민지, 점령지, 전투지역 등에 남아있던 자료⁵⁾ 4) 연합군에 의해 작성된 자료 로 구분할 수 있다.

1992년과 1993년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조사와 발표 이후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공개는 시민단체의 차원에 진행되고 있다.⁶⁾ 이 문제가 이슈화된지 20여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과거와 같이 운동, 논의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전환시킬 만한 자료발굴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생각한다.⁷⁾

이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료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발표자는 ‘새로운 사료’에 입각한 ‘새로운 사실’의 논증 보다는 오히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들의 분류와 구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료들의 맥락을 재구성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제까지 일본군 관련 ‘공문서’와 관련해 일본의 여러 문서군 중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찾아내는데 주목하였다면, 앞으로는 선행연구자 및 시민단체들이 찾은 문서를 역으로 분석하여 문서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⁸⁾

후술하겠지만, 현재 공간, 및 공개되어있는 자료들은 해당 자료군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사실을 추출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자료의 맥락이 사장되어있다는 점에서는 큰 한계

2) 여성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헌자료 현황」, “‘위안부’ 관련 이해를 위한 기초입문”, 2002, 3~6 쪽.

3) 군 관련 문서 중 大日記와 같은 일부 공문서들은 처분을 면한 바 있다. 또한 군 간부들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던 자료들도 존재하다. 처분을 피한 자료 중 일부는 전후 미군이 몰수하여 미국으로 가져갔으며 1958년 이후 일본으로 반환되었다. 이들은 방위성과 국립공문서관에 각각 구분되어 보관, 공개되고 있다.

4) 전쟁 중 연합군에 의해 몰수된 자료군을 의미한다. 대평양 제도, 필리핀, 오키나와, 버마 등에서 처분하지 못한 채 몰수된 것들이다.

5)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개되기 시작한 중국 측 문서가 이에 해당한다.

6) 아베내각은 각의결의에서 고노담화까지 발견된 공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시민단체인 전쟁책임자료센터, 강제연행진상규명네트워크, 일본의 여성들을 위한 평화 박물관 (W.A.M ; <http://wam-peace.org/>) 에서는 2015년 8월부터 고노담화 이후 발견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문서를 일본정부의 인정과 미인정으로 나누어 온라인 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7) 다만 최종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사료발굴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1992년 일본 국회의 요구로 문서들이 공개된 이후 정부차원의 조사는 시행되거나 혹은 공개된 바 없다. 또한 사료의 범위를 공문서 이외, 일본이외로 넓힌다면, 회고록과 같이 개인적인 성격의 자료,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소장되어 있는 사료들도 추후에 공개될 여지는 있다. (최종길, 「행정문서 재구성을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성립과 운용」, 『韓日關係史研究』 51.2016, 452 쪽.)

8) 이러한 시도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최종길의 행정문서 재구성을 통해 본 맥락적 이해가 시도되었으며, 최근 하중문의 경우 기 공개된 중국지역의 진중일지를 재구성하여 위안소의 설치, 이용실태를 구성하고 있다.

를 가지고 있다. 본 발표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일본 공문서의 공개 상황을 정리하고, 해당 자료군의 특성별로 남은 과제를 정리해 보려 한다.

1. 일본 소재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공개 이력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여성단체들이 1989년부터 제기하고 언론에 조명된 바 있다.⁹⁾ 이 전까지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견해를 발표한 바 없었다. 그러나 1990년 6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시미즈 츠타오(清水傳雄)국장이 ‘일본정부의 관여는 없었다’고 답변한 것처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만한 인사들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관여도 없었고, 책임도 없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따라서 그 전까지의 일본정부는 ‘정부의 관여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주지하듯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이 공개 증언을 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의 증가하였고, 1991년 12월 6일 김학순 등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피해자 스스로가 밝힌 증언은 사회적 파장을 가지고 왔다. 당시 일본 정부의 가토 관방장관은 1991년 12월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기관이 관여했다는 자료가 발견되고 있지 않아 대처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1992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 喜一) 일본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한일 언론상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연일 보도되었고,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일 아주국장회의시 일본정부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였다. 일본정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1991년 12월에 각 정부 성청에 자료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요시미 요시아키는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김학순의 발언 이후 이 자료를 찾아내어 1992년 1월 11일자 『아사히신문』에 공개하였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9) 1980년대 후반의 운동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최초의 증언이나 보도는 아니다. 이미 1970년대 오키나와의 배봉기에 관한 보도가 일본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큰 반향을 부르지 못했다.

인 12일에 가토 코이치 관방장관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13일에는 사죄 담화를 발표하였다.¹⁰⁾

이어서 1992년 7월 6일에 내각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아울러 「내각 관방장관 기자회견 발언」을 발표했다. 이 「발언」에서 관방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부의 관여가 있었음이 인정되었다”라고 표명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관여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 당시 인정한 정부의 관여로는 ①위안소의 설치, ②위안부 모집을 담당하는 자의 단속, ③위안시설의 축조·증강, ④위안소의 경영·감독, ⑤위안소·위안부의 위생관리, ⑥위안소 관계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등의 발급이었다.

이 시점에 일본정부는 조사 자료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1992년 7월 6일 일본 정부의 자료조사는 1991년 12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것으로 조사는 내각외정심의실이 각 관청 및 국가기관(경찰청, 방위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에 문헌조사를 의뢰하고, 미국 국립공문서관에 조사원을 파견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었다. 당시 발견된 자료는 방위청 70건, 외무성 52건, 문부성 1건, 후생성 4건의 총 127건이었다.¹¹⁾ 이후 일본정부의 자료조사 및 발표는 1993년 8월 내각관방장관의 발표 때 까지 이어진다. 한국정부는 1992년 1월 24일부터 외교부 아부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중간보고서¹²⁾를 낸 바 있다. 이 중간보고서에는 1992년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목록과 간략한 내용이 번역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미는 정부의 자료 조사 결과에 더하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1992년 11월 『從軍慰安婦資料集』¹³⁾(이하 요시미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어서 일본정부는 1993년 8월 4일에 2차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아울러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내각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했다. 여기서는 ①광범위한

10) 최종길, 앞의 글, 447 쪽.

11) 1997년 2월 10일, 『참의원예산위원회요구자료』, 1 쪽.

12)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1992. 하지만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의 보고서는 이때가 마지막이다. 이후 한국정부의 보고서에서는 1993년도이후 요시미의 자료, 일본정부가 1993년도 이후 추가적으로 공개한 자료 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

13) 吉見義明, 『從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1992.

지역에서의 위안소 설치와 수많은 위안부들의 존재, ②위안소의 설치, 관리, 이송에 있어서 일본군의 관여, ③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실시했다는 것, ④모집에 거짓과 강압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모집되었던 사례가 많다는 것, ⑤모집에서 官憲이 직접 가담했다는 것, ⑥위안소에서의 생활이 강제적 상황이었다는 것, ⑦한반도 출신 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등도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1993년 8월에 공개된 일본정부의 자료는 ‘소위 중군위안부문제에 대하여’라는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2차 문헌 조사는 1993년 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1차 문헌조사에 이어서 경찰청, 방위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미국국립공문서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3년 7월 26~30일 서울에서 피해자와 관련단체,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시기 이후로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에 관해서 조사를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¹⁴⁾

이후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후 국민기금)이 발족했다. 1997년 국민기금측은 일본정부가 조사한 자료를 모아 편철하여 政府調査 『「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 전5권(龍溪書店, 이하 ‘국민기금 자료집’)을 출간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주로 정부보다는 개별 연구자를 중심으로 자료집 및 자료의 공개가 진행되었다. 1999년에는 대만의 朱德蘭이 대만의 대만성문헌위원회에 소장된 ‘대만척식회사자료’를 기반으로 편집하여 『臺灣慰安婦調査と研究資料集』을 펴냈다. 朱德蘭은 이후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만총독부문서 중 공창관리관계자료, 대만척식주식회사문서 중 위안소·위안부 관계자료, 일본 외무성·방위청문서 중 대만위안부 관계 자료를 모아서 2001년 『臺灣慰安婦關係資料集』¹⁵⁾을 발간한다. 2006년에는 스키 유코, 야마시타 영애, 도노무라 마사루가 편집한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¹⁶⁾(이하 스키 자료집)이 출간되었다. ‘위안부 자료집’은 일본군‘위안부’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노무동원, 공창제 등 다른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14) 조사결과발표 당시에도 아직 방위청 자료의 추가조사, 조선, 대만에 관한 척무성, 내무성소장자료등과 같이 중요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荒井信一, 1993, 「創刊の辞」, 『季刊戦争責任研究』 창간호, 3쪽.) 또한 1997년 참의원 예산위원회요구자료에 의하면 「‘소위 중군위안부 문제의 조사결과에 대해서’(1993년 8월 발표후 발견본)’이라는 목록에서 33건(국립국회도서관 소장 ATIS 관계문서, 영국국립공문서관관계, 방위청관계, 경찰청관계, 후생성관계)의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15) 朱德蘭, 『臺灣慰安婦關係資料集』 1,2, 不二出版, 2001

16)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編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 全 2 卷、明石書店、2006.

2008년에는 ‘전지성폭력을 조사하는 회’가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모아서 『資料集 日本軍にみる性管理と性暴力』¹⁷⁾을 출판하였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리핀 방면 육군전사자료 중 성관리와 성폭력 보고를 모은 것이다. ‘진중일지’ ‘전투상보’ ‘업무상보’ ‘작명철’ 등 각 부대의 작전기록과 군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서 위안부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위안소, 성병대책, 성적 문제의 단속, 현지의 증언 4장으로 구성한 자료집이다. 2011년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제기된 일본군의 성폭력관련 자료를 모은 것을 요시미 요시아키가 감수한『東京裁判 性暴力関係資料』가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 자료집은 중국, 필리핀, 버마, 홍콩, 안다만제도, 네덜란드령인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성폭력 관련자료를 모아서 구성한 것이다.

한편 2014년에는 중국에서 공개되기 시작한 일본군 관련 자료들을 모은 『鐵證如山』¹⁸⁾이 발간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책임자료센터¹⁹⁾와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에서 꾸준히 자료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W.A.M에서는 2016년 11월 부터 고노담화 이후 공개된 공문서를 온라인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군‘위안부’ 관련된 자료는 크게 일본정부의 조사와 공개 이후로는 정부 차원이 아닌, 개인연구자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이어져 왔다.

2.기 공개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분류와 특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관련 운동과 그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면서 관련 자료역시 꾸준히 공개되었다. 각각의 자료들은 보고서 혹은 자료집²⁰⁾ 형태로 공개되었

17) 戦地性暴力を調査する会 『資料集 日本軍にみる性管理と性暴力 フィリピン 1941年～45年』 梨の木舎、2008.

18) 『鐵證如山』은 한국에서 『불멸의 증거』라는 이름으로 총 3권이 번역, 발간되었다.

19) 본 발표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전쟁책임자료센터는 계간 『戰爭責任研究』에 신규 발굴 자료들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 일본군인들의 회고록을 조사하여 그 안의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 종합적인 자료집은 아니지만 이미 1990년대 초반에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들이 일부 공간된 바 있다. 1990년에 不二出版에서는 군의관의 전장보고 의견집을 낸 바 있으며 1992년에는 군기·풍속에 관한 자료가 공간된 바 있다. 이후 공개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집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高崎隆治編『軍医官の戦場報告意見集』不二出版、1990; 纈纈厚編『解説、『軍紀・風紀に関する資料』不二出版、1992; 吉見義明、『従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1992;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編,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1~5, 龍溪書舎, 1997; 吉田裕・松野誠也編『十五年戦争期軍紀・風紀関係資料』

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공간된 자료집은 많지만 주요한 자료집은 요시미 자료집, 국민기금 자료집, 스텝키 자료집, WAM의 온라인 공개 자료, 일본의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자료집들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1) 吉見義明, 『從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1992

1992년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교수가 낸 『從軍慰安婦資料集』(이하 요시미 자료집)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종합한 최초의 자료집이다.²¹⁾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양의 자료를 확보하여 자료들을 탈초하고 영문은 번역(일역)하여 활자본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다만 활자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문의 내용과 비교하여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요시미 자료집은 크게 해설편과 자료편으로 나뉜다. 자료편의 경우 총 13부로 되어있는데 주제별 분류와 지역별 분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1부 전사-상해사변 이후, 2부 일본·조선·대만에서의 중군위안부의 징집과 도항(요시미는 이 안에서 중일 전쟁기,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중국 입국관계 통계로 다시 시기별 분류를 한다.), 3부 육군성의 군기유지·성병대책 12부 복원관계의 경우 주제별 분류로 볼 수 있다. 이밖의 4부 중국에서의 위안부·위안소, 5부 홍콩에서의 위안부·위안소, 6부 필리핀에서의 위안부·위안소, 7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의 위안부·위안소, 8부 인도네시아지역에서의 위안부·위안소, 9부 일본 본토에서의 위안부·위안소, 10부 오가사와라제도의 위안부·위안소, 11 오키나와에서의 위안부·위안소 13부 연합국군에 의한 조사보고, 지령

現代史料出版, 2001; 朱德蘭, 『臺灣慰安婦關係資料集』1,2, 不二出版, 2001;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編『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全2卷, 明石書店, 2006; 戦地性暴力を調査する会『資料集 日本軍にみる性管理と性暴力 フィリピン 1941年~45年』梨の木舎, 2008; 吉見義明 監修『東京裁判 性暴力關係資料』現代史料出版, 2011. 덧붙여 1992년과 1993년 일본정부가 발표한 자료의 경우 목록과 개요는 밝힌 바 있지만 원문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2002년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가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간행한 『위안부』 관련 문헌자료집』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과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각 주제를 세분화 하여 자료들을 재선별하였다. 주된 자료는 ‘요시미자료집’ 과 ‘자료집성’ 에 수록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자료를 선별하여 원문과 함께 번역하였다.

21) 이 자료집은 1993년 4월 김형호가 번역하여 서문당에서 번역판이 출간되었다. 하지만 요시미자료집을 완벽한 것이 아니며 일부 자료의 경우 자료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참고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들면 본문에 2장 자료의 비교에서 언급한 요시미 83번 자료(자료집성 4권 2-3 자료)의 경우 자료 말미의 매음시설에 관한 조사보고가 생략되어 있다. 또한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민정부장관부터 각 시설에 이르기까지 허가권, 감독권, 모집계약책임자, 유지책임자를 표시한 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시미 자료집의 경우 표전체가 표기되어있지만 서문당 번역집의 경우 아무런 표기도 없이 삭제되어 있다. (吉見義明 監修, 金滄鎬譯 『자료집 중군위안부』, 서문당, 1993)

(13부의 경우 포로심문보고49호와 심리전 심문보고 제2호를 제외하면 남태평양지역, 동남아시아·남태평양지역,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지역, 인도네시아지역, 오키나와로 다시 지역별로 분류된다.)의 경우 지역별로 분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시미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서 총 106건의 자료를 소개하고 책 뒤에 소장처와 출전을 명기하였다. 요시미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는 주로 1992년 일본정부에서 조사하여 1차로 공표한 자료, 요시미가 발견한 자료외에도 하야시히로후미(林博史) 가와다 후미코(川田文子), 일본 교토통신,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회, 마이니치 방송보도 등에서 공개하거나 요시미에게 제공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²²⁾

2)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編, 『政府調査「従軍慰安婦」 関係資料集成』 1~5, 龍溪書舎, 1997²³⁾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이하 국민기금 자료집)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관계 자료를 조사하여 1992년 7월과 1993년 8월에 공표한 것을 여성들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에서 모아 1998년에 발간한 것이다.(이하 국민기금 자료집) 각 성청(省廳)과 미국국립공문서관 등에서 발견된 자료를 기초로 삼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기금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는 1992년과 1993년 일본정부에서 각 성청에 지시하여 조사한 자료가 바탕이 되었다. 1992년과 93년 자료의 발표당시 일본정부의 자료구성이 주제에 따른 각 성청별 자료의 구성이었다면, 국민기금 자료집의 경우 문서의 소장처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1권의 경우 경찰청 관계 공표자료와 외무성관계 공표자료, 2, 3권은 방위청 관계 공표자료, 4권은 국립공문서관, 대영제국전쟁 박물관 소장자료 -하위의 자료분류를 「내각, 내무성관계」, 「군관계」로 나누고 있다), 후생성관계 공표자료, 5권에는 각권 자료의 개요소개와 미국국립공문서관, 국립국외도서관 소장

22) 요시미 자료집은 번역본이 1993년 출간되었다.(요시미요시아키 편집, 金淳鎬 역 『자료집 중군위안부』, 서문당, 1993) 다만 요시미 자료집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빼고 번역한 부분이 있다.

23) 국민기금 자료집 중 일본 공문서의 경우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목록화 및 체계적분류작업 과정에서 해제 및 번역하여 『e 역사관 (사료관리 DB) 입력 정보 중 중요자료 선별 및 원문 정보에 대한 번역 해제집』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8년 4월 호사가 유지는 국민기금 자료집의 1권을 중심으로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 1』로 자료를 선별 번역하여 번역집을 출간했다.

자료²⁴⁾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기금 자료집의 대상자료는 총 374건이다. 요시미 자료집과 자료집성은 모두 작성문서의 근거 혹은 참고가 되는 문서를 각 문서의 부속문서로 구분하였다. 때문에 요시미 자료집의 경우 자료의 번호는 106번까지이나 실제 문서수는 115건이다. 국민기금 자료집역시 실제문서건수는 374건에 달한다.

국민기금 자료집의 또 다른 특징은 앞의 요시미 자료집과 이후 경찰대학에서 나온 자료군 등 추가로 발굴한 자료들을 소장 기관별로 구분하고 가능한 한 원문 상태를 유지하여 만든 영인자료집이라는 점이다. 활자화된 자료집들이 문서의 수신 발신 과정에서 중요한 표지, 도장, 표식 등을 볼 수 없는 것에 비해 자료집성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민기금 자료집은 영인 자료집이라고 해도 원문 전체를 그대로 신지 않은 자료집이기 때문에 맥락이 사장되었다는 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昭和16年11月 陸軍軍人軍屬非行表(국민기금 자료집 119~125쪽) 자료의 경우 원 자료인 군사경찰현황 보고철 중 육군군인군속비행에 관한 사항을 첨부한 것이다. 국민기금 자료집의 경우 자료철의 증표지, 첩표지를 생략한 채 첨부문서인 군인군속비행표만 첨부하고 있다. 特別報告中軍人變死の件報告(국민기금 자료집 147~149)자료의 경우에도 문서철 및 문서표지를 생략한 채 본문만 신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언제 생산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보고된 문서인지는 사장되어 있다. 문서의 내용 자체로만 보면 일본군‘위안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좀 더 명확히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원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해설²⁵⁾등이 있어 독해에 주의를 요한다.

3)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編,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 1,2、明石書店、2006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이하 스즈키 자료집)은 2006년 12월 아카이시(明石)서점에서 발간된 ‘위안부’ 관계 자료집이다. 스즈키 유코(鈴木裕子), 야마시다 영애(山下

24) 하위 분류는 1. 연합군번역통역부국(ATIS) 관계문서, 2. 연합군동남아시아번역, 심문센터(SEATIC) 관계자료, 3. 전쟁정보국(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 관계자료, 4 사진자료로 나누고 있다.-

25) 이를테면 5 권 102 쪽 94 번 심문조사 해설 중, 군이 위안소를 경영했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언급이나, 적대행위가 종료하고 나서 즉시 중지했다. 등 해설은 해당 원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사항이다..

英愛),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세 연구자가 엮은 이 책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권 2권이다.

자료집의 구성은 요시미 자료집과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되어있다. 1권은 제1편 일본군‘위안부’, 노무‘위안부’ 관계자료(스즈키 유코), 제2편 조선공창제도(아마시다 영애)로 구성되어있으며, 2권은 제3편 동양부인아동매매실지조사단과 국제연맹의 부인아동문제(스즈키 유코), 제4편 식민지 조선의 여성과 전시동원(스즈키 유코), 제5편 전시여성노동동원과 여자근로정신대(도노무라 마사루)이고, 마지막 제6편은 각 편에 대한 해설편이다. 구성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자료집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뿐 아니라 전시여성동원, 공창제도와 관련된 자료까지 망라한 것이다.

기왕에 발간된 요시미 자료집과 국민기금 자료집에서 소개된 자료와 상당 수 겹치지만, 원문의 수는 요시미 자료집보다 많다. 또한 요시미 자료집처럼 일본어 원문을 식자하여 발간한 것도 특징이다. 군 관계자의 저서를 통해 병사들의 성병 문제, 풍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한 것이나 조선총독부 발간 문서를 정리했다. 다만 스즈키자료집의 경우 기타 자료집처럼 자료의 순서나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주제별로, 문서의 작성 시기별로 나누는 후에 성칭별로 구분하여 수록 특정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 W.A.M 공개 일본군‘위안부’ 관련 공문서

일본 소재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이하 WAM)에서는 2016년 11월 5일부터 일본소재 일본군‘위안부’관련 공문서의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WAM 공개 자료의 특징은 정부인정공문서와 정부 미인정공문서로 나누어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 인정자료는 1992년의 가토담화, 1993년의 고노담화와 고노담화 이후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고, 아직 일본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자료 (특히 미국, 호주, 네덜란드 자료, 중국 당안관 관련 자료, 전범재판관련 자료, 일본군 및 정부자료 일부, 대만자료 등)를 분리해서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 자료 등 국민기금 자료집 이외의 자료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온라인 공개 일본군‘위안부’관련 자료 중 가장 많은 자료가 있다. 또한 같은 철에 있는 자료라고 해도 날짜별로 분리해서 수록하고 있다.

하지만 WAM공개 자료 역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서를 추출하여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국민기금 자료와 동일한 한계를 갖는다. 국민기금 자료집과 동일하게 昭和16年11月 陸軍軍人軍属非行表(국민기금 자료집 119~125쪽) / 特別報告中軍人變死の件報告(국민

기금 자료집 147~149) 의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문서를 쪼개다 보니, 원 문서철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날짜의 경우에도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각 부대별 진중일지의 제목이 단순히 '진중일지'정도로만 되어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재판자료의 경우 화질이 열화되어있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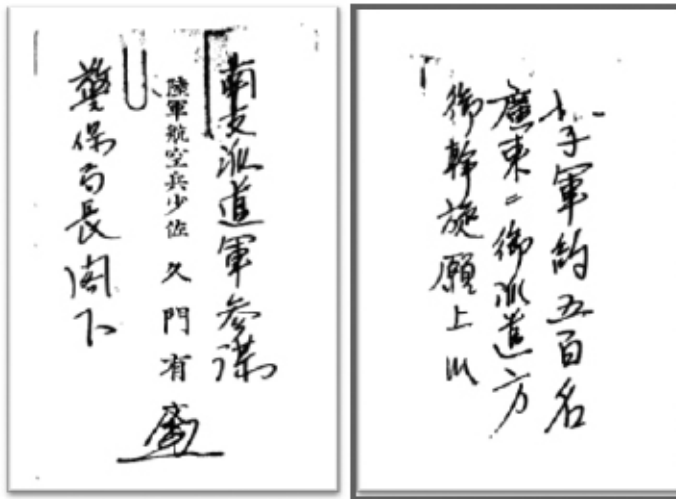
3. 각 자료군의 비교와 과제

이미 언급한대로 국민기금 자료집과 WAM의 공개자료는 원사료를 그대로 추출하여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요시미 자료집과 스키 자료집은 활자화해서 수록했다. 원문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활자화 한 부분이 유리하며, 원문의 맥락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원문역시 동시에 확인하는 작업역시 불가피하다. 결국 동일한 자료를 동시에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자료들을 비교하여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 번째로는 자료 명칭문제 및 수록 자료의 표기문제를 들 수있다. 자료의 비교검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동일한 자료가 동일한 제목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명에 자주 등장하는 회보, 전보조회, 일일 명령 등은 모두 진중일지의 내용에 포함된 문서들이다. 하지만 문서에 따라 이들 문서군들은 전보조회로, 진중일지로, 회보로 각기 다르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하기 쉽다. 『部隊復員』係資料「セレベス民政部第二復員班員復員に関する件報告」의 경우에는 (WAM문서번호 軍_266) 요시미 자료집에는 셀레베스 민정부 제2복원반원 복원에 관한 보고라고 되어있지만, 국민기금 자료집에는 후생성- 셀레베스 매음시설조서이다. 요시미 자료집의 문서가 하위 문서군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점이 다수 추출된다는 점이다. 모든 문서군에 포함되어있는 군인군속의 비행표의 경우에도 원 문서철은 중국지역의 군사경찰현황 보고철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첨부문서이다.

다음으로는 수록 원문이 자료군 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자료철에서 추출한 자료라고 해도 요시미, 스키, 국민기금 자료 모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副官會同席上 意見、質疑及び回答(追加)」(WAM, 軍_088, 軍_089 / 국민기금 자료집 3권 7~15쪽, 17~20쪽, 요시미 자료집 59번 269쪽, 스키 자료집372번 자료의 경우 동일 문서철에서 추출한 자료이지만 자료집마다 수록 자료가 상이하다.

마지막으로는 원문수록 및 편철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²⁶⁾ 사료의 비판적 검토는 역사학의 기본이다. 하지만 일부 자료집의 경우 원문이 누락되거나 편철과정에서 오류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식자 과정에서 이 오류를 그대로 답습한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支那渡航婦女に関する件」(국민기금 자료집 9-2 87쪽, WAM 警察_014, 요시미, 스텝키 자료집에는 미수록, JACAR A05032044800)²⁷⁾의 경우 자료의 말미에 남지파견군 참모, 육군항공병소좌인 구몬 아리후미의 명함의 첨부되어 있다. 국민기금 자료집과 WAM자료집의 경우 명함의 앞면만 수록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공개자료에는 명함의 뒷면이 수록되어 있다. “남자군 약 500명을 광둥으로 파견하도록 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언급이 있는 부분이다. 누락된 경위는 알 수 없다.



또한 「第一〇八師團第四野戰病院業務詳報[北警備隊](昭14. 6. 12)」(WAM軍_057, 스텝키 자료집 153쪽, JACAR C11112208300)의 경우 국민기금 자료집에는 보고의 내용쪽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이 오류는 WAM공개자료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다. 또한 일본어로 식자한 스텝키 자료집에도 동일하게 원문의 순서가 뒤바뀌어있다. 이외에도

26) 원문과 번역문의 누락은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e 역사관 (사료관리 DB) 입력 정보 중 중요자료 선별 및 원문 정보에 대한 번역 해제집』의 해제 및 번역 과정에서 강정숙, 박정애가 추출, 지적한 것이다.

27)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남지파견군(南支派遣軍) 古莊部隊 참모 육군항공병 소좌 (소령에 준함) 구몬 아리후미(久門有文) 및 육군성 징모과장(徵募課長) 으로부터 남지파견군의 위안소 설치에 필요한 추업(醜業, 성매매업) 을 목적으로 하는 작부 약 400 명을 도항시키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2월 23일 內務省發警 제 5호 통첩에 의거하여 이를 취급하기로 하고, (중략) 각 지방청 통첩으로 비밀리에 보내 인솔자를 선발하고 이들로 하여금 부녀를 모집하여 현지로 보내도록 하였으니 선처해주시시오.”

번역집에 수치가 오기되거나 자료집으로 식자하는 과정에서 수치의 오류도 존재한다.

결국 이 문서군들을 확인할 때는 현재 자료집을 참고하되 원 문서의 내용과 맥락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맥락을 확인하기 쉬운 방법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혹은 방위성 소장의 원본자료와 비교하여 보는 것이다. 주지하듯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자료는 자료의 맥락, 어떤 부대의 어떤 자료인지, 어떤 맥락에서 자료가 추출되었는지를 역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료집을 편철하는 가운데 생략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직접 관련이 아니더라도 해당부대나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앞서 지적한 대로 문서의 제목이 해당 추출문서로만 되어있거나, 일부만 추출하여 수록한 경우에는 문서의 비교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경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되고 있다. 이 경우 결국 이전 자료집에서 수록된 자료를 참고할 수 밖에 없다.²⁸⁾

결론

일본군‘위안부’ 관련 일본 공문서자료는 공개되면서 이제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존재증명과 이슈화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문서의 맥락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반영되어 이해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집, 공개자료는 많은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료의 구분방식, 선택과정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며 또한 소소하게 오류도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개별 자료의 정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또한 문서 자체의 접근방식을 진중일지, 대일기 등 원본문서의 맥락을 확인하며 할 필요가 있다.

28) 예를 들어 군 관련 문건 중 “검미성적에 관한 건”의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현재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는 표지만 공개되어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건은 아니지만 일부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편철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잔혹한 사진 등의 자료는 삭제되어 공개하고 있다.

| 첨부 : 각 자료집 별 중복사항 구분 예시 (군관련 자료만 추출)

연번	자료명	자료명 (한글)	작성 시기	WAM 구분번호	국민기금 자료집	요시미 자료집	스즈키 자료집
1	満州事変陸軍衛生史 第4巻	만주사변 육군위생사 제4권	19330801	軍_001	4권 P217-232		
2	北支那並満州国視察 報告	북중국 및 만주국 시찰 보고	193403	軍_002	4권 P233-240		015 P039
3	満州国及び中華民国 視察報告(昭和9年4月 14日)	만주국 및 중화민국 시찰 보고 (쇼와9년 4월 14일)	19340414	軍_003			
4	飛行第12聯隊長に与 ふる注意事項(昭和10 年7月17日)	비행 제12연대장에게 보낸 주의사항 (쇼와10년 7월 17일)	19350717	軍_004	4권 P241-246		016 P040
5	教育総監部編纂戦時 服務提要	교육총감부 편찬, 전시복무제요	19380525	軍_005	2권 P9-19	27 p161	040 P106
6	(研究論文)「戦場 に於ける特殊現象と 其の対策(昭和12年 11月-14年11月)」	(연구논문) '전쟁터에서의 특수현상과 그 대책 (쇼와 12년11월 - 14년11월)'	193906	軍_006	2권 P55-74	47 p224	078 P154
7	花柳病の積極的予防 法	화류병의 적극적 예방법	19390626	軍_007			079 P159
8	金原節三業務日誌摘 録前編その1のイ	긴바라 세츠조(金原節三) 업무일지 적록, 전편 1-가	19390405	軍_008			
9	金原節三業務日誌摘 録前編その3のハ	긴바라 세츠조(金原節三) 업무일지 적록, 전편 3-다	19410726	軍_009			192 P279
10	金原節三業務日誌摘 録後編その4のハ	긴바라 세츠조(金原節三) 업무일지 적록, 후편 4-다	19420812	軍_010			216 P308
11	金原節三業務日誌摘 録後編その5のイ	긴바라 세츠조(金原節三) 업무일지 적록, 후편 5-가	19420903	軍_011			216 P308
12	金原節三業務日誌摘 録後編その6のイ	긴바라 세츠조(金原節三) 업무일지 적록, 후편 6-나	19421222	軍_012			292 P396
13	金原節三業務日誌摘 録後編その6のロ	긴바라 세츠조(金原節三) 업무일지 적록, 후편 6-가	19430107	軍_013			292 P396
14	支那事変ノ経験ヨリ 觀タル軍紀振作対策	중일전쟁경험으로본군기 진작대책	19400919	軍_014	2권 P43-54	28 p164	166 P247
15	無形戦力軍紀関係資 料第5号 支那事変に 於ける軍紀風紀の見 地より觀察せる性病 について	무형 전력 군기 관계 자료 제5호 중일전쟁의 군기 풍 기 견지에서 관찰한 성병 에 대하여	1940010	軍_015			167 P251
16	軍慰安所従業員等の 募集に関する件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 에 관한 건	19380304	軍_016	2권 P3-7	6 p105	037 P103
17	大東亜戦争関係將兵 の性病処置に関する 件	태평양전쟁 관계 장병의 성병 처리에 관한 건	194206	軍_017	3권 P3-6	29 p171	257 P364

18	軍人軍隊の対住民行為に関する注意の件	군인 군대의 대 주민행위에 관한 주의의 건	19380627	軍_018		42 p209	041 P108
19	軍人軍隊の対住民行為に関する注意の件	군인군대의대주민행위에 관한주의의건	19380713	軍_019	2권 P27-36		
20	衛生業務旬報 混成第14旅団司令部	위생업무순보, 혼성 제14여단 사령부	193303021-19330331	軍_020	4권 P159-166		007 P028
21	衛生業務旬報 混成第14旅団司令部	위생업무순보, 혼성 제14여단 사령부	193304011-19330420	軍_021	4권 P167-172		008 P028
22	衛生業務旬報 混成第14旅団司令部	위생업무순보, 혼성 제14여단 사령부	193304021-19330430	軍_022	4권 P173-182		009 P029
23	衛生業務旬報 混成第14旅団司令部	위생업무순보, 혼성 제14여단 사령부	19330501-19330510	軍_023	4권 P183-196		010 P030
24	衛生業務旬報 混成第14旅団司令部	위생업무순보, 혼성 제14여단 사령부	19330701-19330710	軍_024	4권 P197-202		011 P033
25	衛生業務旬報 混成第14旅団司令部	위생업무순보, 혼성 제14여단 사령부	193307011-19330720	軍_025	4권 P203-210		012 P033
26	衛生業務旬報 混成第14旅団司令部	위생업무순보, 혼성 제14여단 사령부	193308011-19330820	軍_026	4권 P211-216		013 P034
27	狀況報告	상황보고	19380120	軍_027		39 p195	034 P099
28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80126	軍_028			035 P100
29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80201	軍_029		40-1 p197	036 P100
30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80224	軍_030		40-1 p197	036 P100
31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80227	軍_031		40-1 p197	036 P100
32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80303	軍_032		40-2 p199	036 P100
33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80311	軍_033		40-2 p199	036 P100
34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80314	軍_034		40-2 p199	036 P100
35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80316	軍_035		40-2 p199	036 P100
36	常州駐屯間内務規定	상주주둔간내무규정	19380316	軍_036		41 p2014	038 P104
37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80410	軍_037			039 P106
38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81108	軍_038			043 P110
39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90123	軍_039			070 P147

40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90513	軍_040			070 P147
41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90731	軍_041			070 P147
42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90811	軍_042			070 P147
43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80701	軍_043			042 P109
44	第2軍狀況概要(二) 外出、慰安	제2군상황개요(2)외출, 위안	19381210	軍_044		43 p212	044 P110
45	共産党の我軍隊に対する思想的瓦解工作の真相と之か防遏方策(昭和14年4月5日)	공산당의 우리 군대에 대한 사상적 와해 공작의 진상과 그 방지 방책 (쇼와14년 4월 5일)	19390405	軍_045			072 P148
46	日々命令	일일명령	19390107	軍_046			
47	慰安所利用日指定	위안소이용일지정	19390423	軍_047		45 p217	071 P148
48	陣中日誌	진중일지	19390607	軍_048		46-1 p219	074 P150
49	日々命令	일일명령	19390630	軍_049		46-3 p222	076 P152
50	森川部隊特種慰安業務二関スル規定	모리카와(森川)부대 특수 위안 업무에 관한 규정	19391114	軍_050			081 P171
51	日々命令	일일명령	19410409	軍_051		52 p256	189 P278
52	日々命令	일일명령	19410409	軍_052		52 p256	189 P278
53	恤兵金使用方の件	홀병금 사용 방법의 건	19390320	軍_053			
54	波集団司令部 戦時旬報 (後方關係)	나미(波)집단사령부전시 순보(후방관계)	193904	軍_054	2권 P37-41	44 p214	073 P150
55	渡航手続に関する件	도항 수속에 관한 건	19421112	軍_055			269 P382
56	渡航手続に関する件	도항 수속에 관한 건	19421118	軍_056			269 P382
57	第108師団第4野戦病院 業務詳報 昭和12、13、14年	제108사단 제4야전병원 업무 상보 쇼와 12권 P 13, 14년	19390612	軍_057			077 P153
58	昭和14年8月第2旬 衛生旬報	쇼와14년 8월 제2순 위생순보	193908	軍_058			080 P168
59	市内飲食店衛生巡視に関する件通牒	시내 음식점 위생 순시에 관한 건 통첩	19390815	軍_059			
60	呂集団特務部月報 昭和15年4月	여집단특무부월보 쇼와15년 4월	194004	軍_060		49 p240	165 P243
61	幹部に対する衛生教育順序	간부에 대한 위생교육 순서	194002	軍_061	2권 P337-346	48 p224	163 P239

62	第1病院支那事变 第8回功績概見表	제1병원중일전쟁제8회 공적개황표(概見表)	19401210	軍_062		50 p248	168 P251
63	遠藤兵団政務部 政務月報 (3号)	엔도(遠藤) 병단 정무부 정무월보(3호)	194102	軍_063		51 p253	187 P271
64	軍紀違反者の件特別報告	군기위반자의 건 특별보고	不明	軍_064			214 P305
65	昭和16年11月憲兵関与邦人(含台湾人)犯罪表	쇼와16년 11월 헌병관여 일본인(대만인 포함) 범죄표	194111	軍_065			194 P281
66	昭和16年11月陸軍軍人軍属非行表	쇼와16년 11월 육군군인 군속 비행표	19411100	軍_066	2권 P119-125		194 P281
67	昭和16年12月陸軍軍人軍属犯罪表	쇼와16년 12월 육군 군인 군속 범죄표	19411200	軍_067	2권 P131-133		215 P306
68	昭和16年12月陸軍軍人軍属非行表	쇼와16년 12월 육군 군인 군속 비행표	19411200	軍_068	2권 P135-138		215 P306
69	昭和16年12月憲兵関与邦人(含台鮮人)犯罪表	쇼와16년12월헌병관여일본인(대만,조선인포함)범죄표	19411200	軍_069	2권 P139-141		
70	特別報告中軍人變死の件報告	특별보고 중 군인 변사의 건 보고	19420321	軍_070	2권 P147-149		217 P310
71	軍紀違反事件詳報	군기위반사건 상보	19420330	軍_071	2권 P151-155		219 P313
72	軍紀違反事項に関する件報告	군기위반에 관한 건 보고	19420330	軍_072	2권 P157-159		220 P315
73	昭和17年1月陸軍軍人軍属犯罪表	쇼와17년 1월 육군 군인 군속 범죄표	19420100	軍_073	2권 P161-163		221 P316
74	昭和17年2月陸軍軍人軍属犯罪表	쇼와17년 2월 육군 군인 군속 범죄표	19420200	軍_074	2권 P165-167		221 P316
75	昭和17年2月陸軍軍人軍属非行表	쇼와17년 2월 육군 군인 군속 비행표	19420200	軍_075	2권 P169-173		221 P316
76	逃亡に関する報告	도망에 관한 보고	19420327	軍_076	2권 P175-180		218 P311
77	軍紀違反事項報告	군기위반사항 보고	19420408	軍_077	2권 P181-182		222 P318
78	陸軍軍事警察年報	육군군사경찰연보	19420503	軍_078	2권 P183-185		P224 P320
79	横領収賄被告事件 軍法會議判決	횡령 수뢰 피고사건 군법회의 판결	19420505	軍_079	2권 P195-197		223 P319
80	昭和17年4月陸軍軍人軍属非行表	쇼와17년 4월 육군 군인 군속 비행표	19420531	軍_080	2권 P191-193		226 P322
81	昭和17年4月陸軍軍人軍属犯罪表	쇼와17년 4월 육군 군인군속 범죄표	19420531	軍_081	2권 P187-190		226 P322
82	第39師団第1野戦病院陸軍一等兵による違反事項	제39사단 제1야전병원 육군 일등병에 의한 위반 사항	19420511	軍_082			

83	軍人の変死に関する件報告	군인의 변사에 관한 건 보고	19421107	軍_083	2권 P199-201		227 P325
84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10116	軍_084	2권 P357-364		
85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10503	軍_085	2권 P357-364		190 P278
86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10620	軍_086	2권 P357-364		191 P279
87	特務機関月報 第28号 (昭和17年2月)	특무기관월보 제28호 (쇼와17년 2월)	194202	軍_087			229 P326
88	副官会同席上意見、質疑及び回答 (追加)	부관 회동 석상 의견, 질의 및 회답 (추가)	19420900	軍_088	3권 P17-20	59 p269	
89	副官会同席上意見、質疑及び回答	부관 회동 석상 의견, 질의 및 회답	19421003	軍_089	3권 P7-15		264 P372
90	衛生業務要報 18年1月	18년 1월 위생업무요보	194301	軍_090	3권 P213-217	60 p273	276 P386
91	衛生業務要報 18年2月	18년 2월 위생업무요보	194302	軍_091	3권 P219-225	60 p273	276 P386
92	在准陰娼妓検梅成績表	재 준음(准陰) 창기 매독검사 성적표	194301	軍_092	3권 P209-211	61 p278	
93	在准陰娼妓検梅成績表	재 준음(准陰) 창기 매독검사 성적표	194304	軍_093	3권 P212	61 p278	
94	雪第三五二五部隊 日々命令	유키(雪) 제3525부대 일일명령	19431107	軍_094	3권 P261-262	63 p283	328 P429
95	軍人俱樂部利用規定	군인클럽 이용규정	194405	軍_095	3권 P331-339	64 p285	350 P458
96	防犯資料	방법자료	19430718	軍_096	3권 P237-242	62 p280	310 P412
97	營外施設規定	영외 시설 규정	19430000	軍_097			
98	外出及び軍人俱樂部に関する規定	외출 및 군인클럽에 관한 규정	1944	軍_098	3권 P277-283	65 p290	351 P460
99	陸軍軍事警察月報 (昭和20年8月4日)	육군군사경찰월보 (쇼와20년 8월 4일)	19450804	軍_099	4권 P247-280		383 P500
100	戦時月報実施の件	전시월보 실시의 건	19420400	軍_100	2권 P217-220	66 p295	248 P341
101	香港の警察並びに軍政実施に関する香港占領地総督第2遣支艦隊司令長官間協定覚書	홍콩 경비 및 군정 실시에 관한 홍콩점령지 총독 제2견지함대(遣支艦隊) 사령장관 간 협정각서	19420504	軍_101	2권 P221-224		249 P341
102	電報照会	전보조회	19420411	軍_102	2권 P391-398		241 P335
103	電報照会	전보조회	19420414	軍_103	2권 P391-398		241 P335

104	電報照会	전보조회	19420416	軍_104	2권 P391-398		241 P335
105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509	軍_105	2권 P399-402	86 p383	241 P336
106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512	軍_106	2권 P399-402	86 p383	241 P336
107	戰時日誌	전시일지	19440720	軍_107	3권 P341-345	85 p379	352 P462
108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0524	軍_108	3권 P305-318	87-1 p387	348 P455
109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0526	軍_109	3권 P305-318		348 P455
110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0527	軍_110	3권 P305-318	87-1 p387	348 P455
111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0531	軍_111	3권 P305-318		348 P455
112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0604	軍_112	3권 P319-325	87-2 p390	349 P457
113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0605	軍_113	3권 P319-325	87-2 p390	349 P457 P스즈 키 P추가
114	石兵団会報第54号	이시병단(石兵團) 회보 제54호	19440914	軍_114	3권 P347-350	92-1 p409	353 P463
115	石兵団会報第56号	이시병단(石兵團) 회보 제56호	19440917	軍_115	3권 P351-353	92-2 p410	353 P463
116	石兵団会報第57号	이시병단(石兵團) 회보 제57호	19440919	軍_116	3권 P355-	92-3 p411	353 P463
117	石兵団会報第58号	이시병단(石兵團) 회보 제58호	19440921	軍_117	3권 P357-359	92-4 p411	353 P463
118	石兵団会報第62号	이시병단(石兵團) 회보 제62호	19440928	軍_118	3권 P361-362	92-5 p413	353 P463
119	石兵団会報第64号	이시병단(石兵團) 회보 제64호	19441002	軍_119	3권 P363-364	92-6 p414	353 P463
120	石兵団会報第84号	이시병단(石兵團) 회보 제84호	19441112	軍_120	3권 P371-372	92-9 p416	353 P463
121	石兵団会報第90号	이시병단(石兵團) 회보 제90호	19441204	軍_121	3권 P373-374	92-10 p417	353 P463
122	石兵団会報第74号	이시병단(石兵團) 회보 제74호	19441019	軍_122	3권 P365-367	92-7 p414	353 P463
123	石兵団会報第79号	이시병단(石兵團) 회보 제79호	19441026	軍_123	3권 P369-370	92-8 p415	353 P463
124	石兵団会報第101号	이시병단(石兵團) 회보 제101호	19441228	軍_124	3권 P375-377	92-12 p419	353 P463

125	山第三四七五部隊 (歩兵第三十二連隊) 「内務規定」	야마(山) 제3475부대(보 병 제32연대) '내무규정'	19441200	軍_125			365 P479
126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107	軍_126	3권 P379-392	88 p394	362 P474
127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108	軍_127	3권 P379- 392	88 p394	362 P474
128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114	軍_128	3권 P379-392	88 p394	362 P474
129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213	軍_129	3권 P379-392	88 p394	362 P474
130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214	軍_130	3권 P379-392	88 p394	362 P474
131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216	軍_131	3권 P379-392	88 p394	362 P474
132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224	軍_132	3권 P433-444	89 p397	364 P477
133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225	軍_133	3권 P433-444	89 p397	364 P477
134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226	軍_134	3권 P433-444	89 p397	364 P477
135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228	軍_135	3권 P433-444	89 p397	364 P477
136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231	軍_136	3권 P433-444	89 p397	364 P477
137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004	軍_137	3권 P393-396	93-1 p421	354 P469
138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228	軍_138	3권 P407-414	93-2 p423	363 P475
139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231	軍_139	3권 P407-414	93-3 p425	363 P475
140	駐屯地会報における 示達事項	주둔지회보 시달사항	19450113	軍_140	3권 P445-450	94 p427	369 P488
141	軍並に旅団における 副官会同会報事項	군 및 여단에서의 부관회동회보사항	19450113	軍_141	3권 P445-450	95 p429	370 P489
142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104	軍_142	3권 P397-399		357 P470
143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109	軍_143	3권 P425-428		359 P472
144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107	軍_144	3권 P401-406		358 P471
145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115	軍_145	3권 P401-406		358 P471
146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117	軍_146	3권 P401-406		358 P471

147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126	軍_147	3권 P401-406		358 P471
148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124	軍_148	3권 P429-432		361 P473
149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41123	軍_149			360 P473
150	会報	회보	19450108	軍_150			367 P486
151	会報	회보	19450113- 19450126	軍_151			368 P487
152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50115	軍_152	3권 P461-463	90 p402	375 P492
153	佐作命第3号 第2大隊命令	사작명(佐作命) 제3호 제2대대 명령	19450114	軍_153			
154	佐作命第3号 第2大隊命令	사작명(佐作命) 제3호 제2대대 명령	19450114	軍_154	3권 P451-454	91-1 p404	371 P490
155	平作命第5号 (宇作命第6号) 平山隊命令	히라작명(平作命) 제5호 [우작명(宇作命) 제6호] 히라야마대(平山隊) 명령	19450114	軍_155	3권 P455-457	91-2 p405	372 P490
156	平山隊命令 (平作命第17号別紙)	히라야마대(平山隊)명령 [히라작명(平作命) 제17 호별지]	19450210	軍_156	3권 P458-459	91-4 p406	374 P491
157	中隊命令	중대 명령	19450115	軍_157	3권 P465-467	91-3 p406	373 P491
158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50224	軍_158	3권 P475-477		380 P496
159	参考情報第12号 沖繩本島の状況	참고정보 제12호, 오키나와 (沖繩) 본도의 상황	19460109	軍_159	4권 P341-342	96 p431	389 P508
160	檢査成績ノ件通報	매독검사 성적의 건 통보	19420512	軍_160	3권 P45-46	67-1 p599	
161	檢査成績ノ件通報	매독검사 성적의 건 통보	19420519	軍_161	3권 P47-48	67-2 p300	
162	慰安所規定送付の件	위안소 규정 송부의 건	19421122	軍_162	3권 P187- 193	70 p324	273 P383
163	パナイ島事業統制会	파나이 섬 사업통제회	194212	軍_163	3권 P201- 203	71 p328	275 P385
164	檢査成績の件通牒	매독검사 성적의 건 통첩	19420526	軍_164	3권 P49		253 P345
165	檢査成績の件報告	매독검사 성적의 건 보고	19420529	軍_165	3권 P50-51		253 P345
166	檢査成績の件	매독검사 성적의 건	19420609	軍_166	3권 P52-54	67-3 p302	253 P345
167	檢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615	軍_167	3권 P55-57		253 P345

168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623	軍_168	3권 P58-59		253 P345
169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629	軍_169	3권 P60-62		253 P345
170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707	軍_170	3권 P63-64		253 P345
171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713	軍_171	3권 P65-67		253 P345
172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720	軍_172	3권 P68-69		253 P345
173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728	軍_173	3권 P70-71		253 P345
174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805	軍_174	3권 P72-73		253 P345
175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811	軍_175	3권 P74-75		253 P345
176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818	軍_176	3권 P76-77		253 P345
177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825	軍_177	3권 P78-79		253 P345
178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901	軍_178	3권 P80-81		253 P345
179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910	軍_179	3권 P82-83		253 P345
180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922	軍_180	3권 P84-85		253 P345
181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0929	軍_181	3권 P86-87	67-4 p302	253 P345
182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1005	軍_182	3권 P88-89		253 P345
183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1013	軍_183	3권 P90-91		253 P345
184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1019	軍_184	3권 P92-93		253 P345
185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1027	軍_185	3권 P94-95		253 P345
186	検査成績に関する件	매독검사 성적에 관한 건	19421103	軍_186	3권 P96-97	67-5 p305	253 P345
187	通報 検査の成績左記の通り通報す	통보, 매독검사의 성적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19421110	軍_187	3권 P98-99		253 P345
188	通報 検査の成績左記の通り通報す	통보, 매독검사의 성적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19421127	軍_188	3권 P100-101		253 P345
189	通報 検査の成績左記の通り通報す	통보, 매독검사의 성적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19421227	軍_189	3권 P102-103		253 P345

190	イロイロ派遣憲兵隊 警務書類綴	이로이로 파견헌병대 경무서류철	19420625	軍_190	3권 P133-138		258 P365
191	第44停泊場イロイロ 出張所日記綴 (昭和 17.5.19-17.11)	제44정박장이로이로출장 소일기철 (1942.5.19-1942.11)	19420529	軍_191			
192	イロイロ憲兵分隊警 務書類綴1/2 (昭和17)	이로이로 헌병분대 경무서류철 1/2(1942)	19421012	軍_192			
193	イロイロ憲兵分隊作 命綴 (昭和17.12.26- 18.12.16)	이로이로헌병분대작명철 (1942.12.26-1943.12.16)	19430119	軍_193			
194	慰安所に関する規定	위안소에 관한 규정	19420606	軍_194	3권 P123-127	68-1 p308	254 P362
195	会報	회보	19420611	軍_195	3권 P123-127	68-1 p308	254 P362
196	情況報告 昭和17年6 月16日	정황보고 1942년 6월 16일	19420616	軍_196	3권 P129-131	68-2 p312	255 P363
197	戦時月報 (7月1日-7 月31日)	전시월보 (7월1일-7월31일)	19420731	軍_197	3권 P145-147	68-3 p313	359 P366
198	生田部隊日々命令	이쿠타(生田)부대 일일명령	19421005	軍_198	3권 P179-186	68-4 p314	265 P374
199	吉江部隊日々命令	요시에(吉江)부대 일일명령	19421005	軍_199	3권 P179-186	68-4 p314	265 P374
200	情報旬報 (昭和17年12月下旬)	정보순보 (쇼와17년 12월 하순)	19421201	軍_200	3권 P205-207	68-5 p317 (제목 오류)	266 P375
201	慰安所開業に伴う会報	위안소 개업에 따른 회보	19430213	軍_201	3권 P231-236	68-6 p319	306 P410
202	バヨンボン憲兵分隊 特務日誌	바욘봉 헌병분대 특무일지	19440322	軍_202			
203	バヨンボン憲兵分隊 ・ツゲカラオ憲兵分 遣隊陣中日誌 (昭和19.6.5-19.9.30)	자료명바욘봉 헌병분대, 투게가라오 헌병분견대 진중일지 (1944.6.5-1944.9.30)	19440926	軍_203			
204	バヨンボン憲兵分隊 警務関係起案綴	바욘봉 헌병분대 경무 관계 기안철	1944 10	軍_204	3권 P285		355 P469
205	バヨンボン憲兵分隊 警務関係起案綴	바욘봉 헌병분대 경무 관계 기안철	1944 11	軍_205	3권 P286		
206	第16師団第2野戦病 院業務詳報	제16사단 제2야전병원 업무 상보 (1943.1.1-1943.6.30)	1943	軍_206			
207	第16師団第2野戦病 院陣中日誌 (昭和18.1.1-18.6.30)	제16사단제2야전병원진 중일지 (1943.6.1-1943.6.30)	19430630	軍_207			

208	第16師団第2野戦病院陣中日誌 (昭和18.1.1-18.6.30)	제16사단제2야전병원진 증일지 (1943.6.1-1943.6.30)	19430831	軍_208			
209	第16師団第2野戦病院陣中日誌 (昭和18.9.1-18.9.30)	제16사단제2야전병원진 증일지 (1943.9.1-1943.9.30)	19430930	軍_209			
210	第16師団第2野戦病院業務詳報 (昭和19.1.1-19.6.30)	제16사단 제2야전병원 업무 상보 (쇼와19.1.1-19.6.30)	1944	軍_210			
211	ナガ野戦病院 (昭和18.7.1-18.12.31)	나가 야전병원 (1943.7.1-1943.12.31)	1943	軍_211			
212	ナガ野戦病院 (昭和19.1.1-19.2.16)	나가 야전병원 (1944.1.1-1944.6.30)	1944	軍_212			
213	「レガスピー」野戦 病院 (昭和18.7.1-18.12.31)	레가스비 야전병원 (1943.7.1-1943.12.31)	1943	軍_213			
214	左警備隊・警備日報 ・会報綴 (昭和17.10-18.11)	좌경비대, 경비일보, 회보철 (1942.10-1943.11)	19430130	軍_214			
215	ダグバン憲兵分隊 来翰警務書類綴 2/2 (昭和18.6-18.12)	다구판헌병분대내한경무 서류철2/2 (1943.6-1943.12)	1943	軍_215			
216	サンタクルース患者 療養所	산타크루스 환자 요양소	19440514	軍_216	3권 P299- 304	73 p335	346 P453
217	軍人俱樂部規定	군인클럽 규정	19420816	軍_217	3권 P149- 151	69 p321	261 P367
218	軍慰安並娯楽施設状 況調査の件 (通牒)	군위안및오락시설상황조 사의건 (통첩)	19430810	軍_218	3권 P245	72-1 p330	322 P425
219	軍慰安並娯楽施設状 況調査の件 (回答)	군위안및오락시설상황조 사의건 (회답)	19430814	軍_219	3권 P247-249	72-2 p332	323 P426
220	タクロバン憲兵分隊 発來翰綴	타클로반 헌병분대 발 내 한철	19421121	軍_220	3권 P199		271 P383
221	タクロバン憲兵分隊 発來翰綴	타클로반 헌병분대 발 내 한철	19421212	軍_221	3권 P 200		282 P383
222	慰安婦一の金銭紛失 に関する件報告	위안부 일의 금전 분실에 관한 건 보고	19430803	軍_222	3권 P 251-255		321 P424
223	タクロバン憲兵分隊 警務関係参考綴	타클로반 헌병분대 경무 관계 참고철	19431014	軍_223	3권 P 257-260		326 P428
224	タクロバン憲兵分隊 作命綴	타클로반 헌병분대 작명철	19440110	軍_224	3권 P 287-293		341 P450
225	タクロバン憲兵分隊 作命綴	타클로반 헌병분대 작명철	19440317	軍_225	3권 P293		344 P451
226	タクロバン憲兵分隊 関係資料綴 1/2 (昭和18)	타클로반헌병분대관계자 료철1/2 (1943)	194312015- 19440000	軍_226			

227	タクロバン憲兵分隊 警務書類	타클로반 헌병분대 경무 서류	19440512	軍_227			
228	パラワン憲兵分遣 隊 警務書類綴 (昭和 19.1.9-19.10.14)	팔라완헌병분견대경무 서류철 (1944.1.9-1944.10.14)	19440602	軍_228			
229	「列車警乗服務規 程」年末ヲ控ヘタル 「マニラ」市民ノ生 活実相ニ関スル報告 通牒	열차경승(警乘)복무규정' 연말을앞둔마닐라시민의 생활실상에관한보고통첩	19421211	軍_229			
230	第11獨立守備隊比島 討伐に関する書類其1 (昭和17.12-18.4)	제11독립수비대 필리핀 섬 토벌에 관한 서류 1 (쇼와17.12-18.4)	19421943	軍_230			
231	第十六師団命令綴(昭 和16.7.4-18.12)	제16사단 명령철 (쇼와16.7.4-18.12)	19431100	軍_231			
232	歩兵第33連隊關係 資料 (昭和18.1.10- 18.7.22)	보병 제33연대 관계 자료 (쇼와18.1.10-18.7.22)	19430000	軍_232			
233	比島全島第2期肅清 討伐業務詳報 (昭和 19.1.1-19.6.30)	필리핀 섬 전도(全島) 제2 기 숙청토벌 업무 상보 (쇼와19.1.1-19.6.30)	19440000	軍_233			
234	昭和19年度歩兵第33 連隊第3大隊報告綴	쇼와19년도 보병 제33연 대 제3대대 보고철	19440501	軍_234			
235	オルモック派遣隊現 狀報告	오르모크 파견대 현상 보고	19440527	軍_235	3권 P327-329	74 p338	347 P454
236	不明(陣中日誌と思わ れる)	없음 (진중일지로 추측됨)	19011026	軍_236			
237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320	軍_237	2권 P 365-371	75 342쪽	236 P330
238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327	軍_238	2권 P365-371		236 P330
239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403	軍_239	2권 P373-376	75 343쪽	239 P333
240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405	軍_240	2권 P373-376		237 P332
241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908	軍_241	3권 P175-177		238 P333
242	南警備隊会報	남경비대회보	19420323	軍_242	2권 P 381-384	76 p344	232 P328
243	南警備隊会報	남경비대회보	19420424	軍_243	2권 P 403-407	76 p344	233 P329
244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430	軍_244	2권 P409-413	79-1 p350	243 P336
245	独立自動車第42大隊 第1中隊行動詳報 (昭和17.5.1-6.30)	독립자동차 제42대대 제1중대 행동 상보 (쇼와17.5.1-6.30)	19420514	軍_245			244 P338

246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706	軍_246	3권 P139-143	79-2 p353	245 P338
247	会報	회보	19420824	軍_247	3권 P159-163	79-3 p355	246 P339
248	独立自動車第42大隊 第1中隊 行動詳報(昭和18.1.1-2.28)	독립자동차 제42대대 제1중대 행동 상보 (쇼와18.1.1-2.28)	19430113	軍_248	3권 P227-230		293 P398
249	クワラピラ・バハウ 駐留規定	쿠와라피라 바하우 주류 규정	19420425	軍_249	2권 P 415-418	78 p348	247 P340
250	歩兵第11連隊第7中 隊 陣中日誌 第6号昭和17年4月1-30日	보병 제11연대 제7중대 진중일지 제6호 (쇼와17.4.1-30)	19420403	軍_250	2권 P 381-384	77 346	234 P329
251	第25軍情報記録 (第68号)	제25군 정보기록(제68호)	19420825	軍_251	3권 P165-169	80 p357	260 P366
252	軍政規定集 昭和18年 11月11日 第3号馬來 軍政監部	군정규정집, 쇼와 18년 11월 11일 제3호, 말레이(馬來)군정감부	19431111	軍_252	3권 P 21-43		329 P430 330 P433
253	軍政月報 馬來軍政監 部	군정월보, 말레이(馬來) 군정감부	19440229	軍_253	3권 P295-298		343 P451
254	南方派遣渡航者に關 する件	남방 파견 도항자에 관한 건	19420316	軍_254	2권 P 205-206	19 -1 p144	230 P327
255	南方派遣渡航者に關 する件	남방 파견 도항자에 관한 건	19420312	軍_255	2권 P 203-204	19 -2 p144	230 P327
256	南方派遣渡航者に關 する件	남방 파견 도항자에 관한 건	19420613	軍_256	2권 P 207-208	20 p146	231 P328
257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403	軍_257	2권 P 385-388		
258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513	軍_258	3권 P 105-112	81 p361	240 P334
259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514	軍_259	2권 P 389-390		
260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516	軍_260	3권 P105-112		
261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529	軍_261	3권 P117-122		
262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530	軍_262	3권 P117- 122		250 P343
263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818	軍_263	3권 P153- 157		251 P343
264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824	軍_264	3권 P153- 157		351 P343
265	陣中日誌	진중일지	19420908	軍_265	3권 P171- 174		252 P344

266	部隊復員關係資料 「セレベス民政部第 二復員班員復員に關 する件報告」	부대복원 관계자료 '셀레베스 민정부 제2복원 반원 복원에 관한 건 보고'	19460620	軍_266	4권, P343-360	83 p365	390 P509
267	第48師團戰史資料並 びに終戰狀況	제48사단 전사자료 및 종 전 상황	19460705	軍_267	3권 P501-503	82 p363 (wam두락)	391 P515
268	マンガレー駐屯地司 令部「駐屯地慰安所 規定」	만달레이 주둔지 사령부 '주둔지 위안소 규정'	19430526	軍_268	4권 P281- 294		317 P418
269	第五野戰輸送司令部 「第五野戰輸送司令部 駐屯地業務規程」 (五輸防第28号)	제5야전 수송 사령부 '제5야전 수송 사령부 주둔지 업무규정' [오수방 (五輸防) 제28호]	19431031	軍_269	4권 P295- 304		327 P428
270	マンガレー駐屯地業 務規程 (五輸駐防第29号)	만달레이 주둔지 업무 규정 [오수주방(五輸駐 防) 제29호]	19431031	軍_270	4권 P305- 320		
271	マンガレー駐屯地勤 務規程 (マ駐安第54号)	만달레이 주둔지 업무 규정 [마주안(マ駐安) 제54호]	19450102	軍_271	4권 P321- 336		366 P484
272	駐屯地内務規定 兵第 10115部隊	주둔지 내무규정 병제 10115부대	19430923	軍_272			325 P427
273	林第3629部隊日日命令	하야시(林) 제3629부대 일일명령	19431211	軍_273	3권 P263- 266		331 P439
274	林第3629部隊日日命令	하야시(林) 제3629부대 일일명령	19431221	軍_274	3권 P267- 268		332 P440
275	林第3629部隊日日命令	하야시(林) 제3629부대 일일명령	19431225	軍_275	3권 P269		333 P440
276	林第3629部隊日日命令	하야시(林) 제3629부대 일일명령	19440101	軍_276	3권 P271- 274		338 P449
277	林第3629部隊日日命令	하야시(林) 제3629부대 일일명령	19440103	軍_277	3권 P275		339 P449
278	林第3629部隊日日命令	하야시(林) 제3629부대 일일명령	19440106	軍_278	3권 P276		340 P450
279	輜重第49連隊第1中 隊陣中日誌 (昭和20.2.1-2.28)	치중 제49연대 제1중대 진중일지 (쇼와20.2.1-2.28)	19450201	軍_279	3권 P469- 473		376 P492
280	歩兵第106連隊連隊 砲中隊陣中日誌 (昭和20.2.1-2.28)	보병 제106연대 연대포중 대 진중일지 (쇼와20.2.1-2.28)	19450223	軍_280	3권 P489-492		378 P494
281	第12根拠地隊司令部 海軍慰安所利用内規	제12근거지대사령부 해군위안소 이용내규	19450318	軍_281	3권 P479-482		381 P496
282	性病予防に関する件 通知	성병예방에 관한 건 통지	19450329	軍_282	3권 P483-488		382 P498
283	菅井部隊訓第1号	스가이(菅井) 부대 훈 제1호	194305	軍_283			316 P417

284	南西方面艦隊告示 (幕僚事務処理系統表及 び幕僚事務分担表) (昭和19年12月20日)	남서방면 함대 고시 (막료사무처리계통표 및 막료사무분담표) (쇼와19년 12월 20일)	19441220	軍_284			
285	金辺憲兵隊日誌 (昭和20.9.4-10.4)	가나베(金辺)헌병대일지 (쇼와20.9.4-10.4)	19450907	軍_285	3권 P493-496		385 P506
286	終連報甲第一五七八 号「×××等の記録 要求の件」	종연보갑(終連報甲) 제1578호 ‘×××× 등 기록 요구의 건’	19470109	軍_286	4권 P361-362	84 p376	392 P516
287	日本派遣南方軍最高 司令官宛連合軍指令 書第一号	일본 파견 남방군 최고사 령관 앞 연합국 지령서 제1호	19450907	軍_287	4권 P339-340		384 P506
288	復員並びに居留民船 船輸送情報第7号	복원 및 거류민 선박수송 정보 제7호, 선박 수송 정보철 (쇼와20년)	19450929	軍_288	3권 P498-499	97 p433 98 p436 (wam 누락)	386 P507

*요시미 자료집의 경우 요시미 요시아키가 구분한 자료번호로 구분

*스즈키 자료집은 자료집의 수록 순서대로 부여.

Current Status of and Future Tasks for Japanese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¹⁾

| Kim Sang-gyu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Introducti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 the most sensitive historical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discovery and release of public documents since the 1990s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erved as an important momentum for making an issue of related social movements. In particular, the disclosure of Yoshiaki Yoshimi’s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played a key role in drawing out the admission from Minister of State for Defense Koichi Kato in 1992 and the Kono Statement in 1993.

1) This script is a modified and supplemented version of the one presented in the National Conference of History in 2016 titled “The Accumulation and Composition of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ssume various such as documents, photographs, videos, oral statements, memoirs and news articles. Among these documents, this presentation mainly cover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public documents.

It is a matter of common knowledg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ilitary systematically destroyed related public documents when the country's defeat became certain. However, not all documents were scrapped, and some have remained undamaged. Public documents after the World War II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²⁾ 1) documents hidden to avoid being destroyed (documents of the army and the navy³⁾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2) materials confiscated by the Allied Forces⁴⁾ 3) documents left in colonies, occupied areas and battlegrounds⁵⁾ 4) materials written by the Allied Forces.

After the investigation and announce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on its military comfort women in 1992 and 1993, these materials have been unveiled mainly by civic groups.⁶⁾ At this time when some 20 years have passed since comfort women became an issue, this speaker believes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any materials could “decisively” change the direction of related movements and debates as they did in the past.⁷⁾

-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urrent State of Literature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troduction for the Understanding of Comfort Women, 2002, 3p.-6p.
 - 3) Among military documents, the Complete Records was not destroyed. In addition, there are some materials kept by military officials based on their individual judgement, instead of discarding them. Some of materials not destroyed were confiscated and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military to its country after the war and returned to Japan after 1958. The two materials are preserved and open to the public in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respectively.
 - 4) Those are materials confiscated by the Allied Forces during the war. They were forfeited without being destroyed in Pacific Islands, the Philippines, Okinawa and Myanmar.
 - 5) They include documents that have been made public by China over the past several years.
 - 6) The Abe administration announces opinions in the resolutions of the Cabinet based on public documents that had discovered before the Kono Statement. Accordingly, since August 2015, Japanese civic group Center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on Japan 's War Responsibility, the Network for Research on Forced Labor Mobilization, and the Women' 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WAM, <http://wam-peace.org>) have made public document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ich have been discovered since the Kono Statement, on the Internet by classifying them as those recognized and not recogniz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 7) However, as Choi Jong-gil mentioned,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materials are undiscovered, rather than not existing. In reality, since documents were disclosed in 1992 upon the request of the Japanese National Diet, no governme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r made public. In addition, if the range of materials is expanded to those other than public documents out of Japan, personal materials

Against this backdrop, what has to be done in the aspect of materials in regar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is speaker believes tha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classification and composition of previously released materials thoroughly and reconstruct and organize the context of those materials. In short, an emphasis has been so far put on discovering the existence of documents on comfort women from public document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and in the future,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of documents by analyzing those found by advanced researchers and civic groups will be needed.⁸⁾

As mentioned later, currently released and published materials are useful to extract facts related to the comfort women but have a significant limitation in that the context of the materials is buried. This presentation summarizes the state of the disclosure of public document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remaining tasks for the documents by characteristics.

1. History of the disclosure of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tored in Japa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brought up by women's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and the Korea Church Women United and received the media attention from 1989.⁹⁾ No opinions on the issue were officially annou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before. However, just as Tsutao Shimizu, the director-general of

like memoirs and materials stored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Southeastern nations may become open to the public. (Choi Jong-gil, "The examina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through reconstitution of administrative documents," Korea-Japan Historical Review No. 51, 2016, 452p.)

- 8) Such attempts have recently been made in succession. Choi Jong-gil attempted the contextual understanding of materials by reconstituting administrative documents, and Ha Jong-moon is trying to reconstruct released war diaries in Chinese regions to figure out the establishment and actual use of comfort facilities.
- 9) Media coverage on the movements of the 1980s and Kim Hak-sun's testimonies in 1991 were not the first of their kind. The story of Bae Bong-gi in Okinawa already made headlines in the 1970s on the Japanese media. However, the case did not strongly resonate for the Korean society.

the Employment Security Bureau of the Labor Ministry, answered at the budget committee of the Upper House in June 1990 that “There were no interventions of the Japanese government,” public figures in Japan deemed to represent the “government’s stance” had basically stated their views that there were no government interventions and therefore there was no responsibility. Before then, the Japanese government maintained a stance that there was no government intervention.

As everyone knows, Kim Hak-sun testified in public on August 14, 1991, drawing more public attention, and three persons including Kim went into headlines by filing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on December 6, 1991. The testimonies offered by victims themselves created a stir in society. Then Minister of Defense Kato expressed a stance at a press conference held in December 1991 that it was difficult to address those testimonies since no materials proving the intervention of Japanese government agencies had not been found.

Ahead of the visit of Japanese Prime Minister Kiichi Miyazawa in January 1992, the comfort women issue made headlines everyday in Korea and Japan.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officially bring up the issue and requested fact finding to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e Korea-Japan Foreign Ministry Director-general Meeting. It seems that in this context,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ordered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to investigate materials in December 1991.

Meanwhile, Yoshiaki Yoshimi, who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already knew the existence of comfort women-related materials housed in the library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of the Ministry of Defense and found and made public those materials in The Asahi Shimbun on January 11, 1992, after Kim Hak-sun’s testimonies. On January 12, just a day later, Minister of Defense Koichi Kato admitted the Japanese government’s intervention and issued a statement of apology on January 13.¹⁰⁾

On July 6, 1992, at a news conference for releasing the investigation results on comfort women,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issued the “Chief Cabinet Secretary Statement for a Press Conference.” In the statement, Kono directly admitted government interventions by saying, “Government interventions were recognized.” The interventions admitted at that time

10) Choi Jong-gil, *Ibid.*, 447p.

included ① establishing comfort facilities ② supervising persons in charge of recruitment of comfort women ③ constructing and expanding comfort facilities ④ managing and supervising comfort facilities ⑤ managing hygiene of comfort facilities and comfort women ⑥ issuing identification to persons concerned with comfort facilities.

At this point, the Japanese government published the interim report of investigation findings. The investigation whose results were released on July 6, 1992,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991 to June 1992, as the Cabinet Councilors' Office on External Affairs requested a literature investigation to each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organization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Ministry of Defens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he Ministry of Labor,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and the National Diet Library) as well as dispatched investigators to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At that time, a total of 127 documents were found, including 70 from the Ministry of Defense, 52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nd 4 from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¹¹⁾ The investigation and its publication continued until the statement of the Chief Cabinet Secretary was issued in August 1993. The Korean government organized the Task Force for Comfort Women l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January 24, 1992, and published an interim report.¹²⁾ This report includes the list of materials relea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1992 and their translated summaries.

In this situation, Yoshimi discovered material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cattered everywhere and combined them with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results to publish Sourcebook on Comfort Women¹³⁾ (hereinafter referred to as "Yoshimi Collection") in November 1992.

After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second investigation report on August

11) February 10, 1997, Requested Materials for the Budget Committee of the Upper House, 1p.

12) Task Force for Comfort Women, Interim Report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Military Comfort Women under the Japanese Rule, 1992. However, this was the last report of the task force. Rep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published since then do not mention materials disclosed by Yoshimi in 1993 and later and materials additionally made public by the Japanese government since 1993.

13) Yoshiaki Yoshimi, Sourcebook on Comfort Women, Otsukishoten, 1992.

4, 1993. It also issued the “Statement of the Chief Cabinet Secretary on the Announcement of Comfort Women-related Investigation Report.” In the statement, the government admitted ① the establishment of comfort facilities in extensive areas and the existence of a number of comfort women ② the interven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in constructing and managing comfort facilities and transporting women to those facilities ③ the recruitment of comfort women by operators upon the request of the Japanese military ④ a lot of cases of forcible mobilization of women against their will ⑤ the direct intervention of the authorities in recruitment ⑥ the oppressive environment of comfort facilities ⑦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and management of comfort women of the Korean Peninsula mostly against their will.

The materials of the Japanese government was published as a document titled “In Regard to So-called Military Comfort Women” in August 1993. The second literatur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until June 1993, as did the first research, target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Ministry of Defens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he Ministry of Labor,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and the National Diet Library, and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Interviews were also carried out in Seoul on June 26-30, 1993, with experts and persons at organizations related to victims. Since then, there has been no cases confirmed, i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officially conducted investigation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¹⁴⁾

In 1995, the Asian Women’s Fund (AWF) was established. The fund compiled materials investig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publish a total of five volumes of the Collected Materials on the Military Comfort Women Researc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Ryukeishot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WF Collection”).

14) At that time of the announcement of the survey results, criticism was raised that important materials such as additional investigation results of the Ministry of Defense’s data and materials on Joseon and Taiwan possessed by the Ministry of Colonial Affairs and the Home Ministry were not made public. (Shinichi Arai, 1993, “Celebrating the 1st Edition,” quarterly magazine Study on War Responsibility 1st edition, 3p.)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quested Materials for the Budget Committee of the Upper House in 1997, 33 documents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ATIS)-related documents housed by the National Diet Library, the National Archives United Kingdom, the Ministry of Defens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can be found in the list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on So-called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hich have been discovered since August 1993).

The sourcebooks and materials were disclosed mainly by individual researchers from the late of the 1990s, rather than by the government. In 1999, Taiwanese researcher Zhu Delan compiled materials of the Taiwanese colonization company housed in the Taiwan Historica to publish the Collected materials on Investigation and Research of Taiwanese Comfort Women. Based on these materials, Zhu then collected materials on th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management from document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Taiwan, materials on comfort facilities and comfort women from documents of the Taiwanese colonization company, and materials on Taiwanese comfort women from documents of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Defense to publish Collected Materials on Taiwanese Comfort Women¹⁵⁾ in 2001. In 2006, the Collected Materials on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¹⁶⁾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zuki Collection”) edited by Yuko Suzuki, Yone Yamashita, and Masaru Tonomura was published. The AWF Collection includes materials not only on comfort women but also on labor mobilization and state-regulated prostitution.

In 2008, the Society for the Investigation of Sexual Violence in Combat Areas gathered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from the Japanese army war historic data in the Philippines housed in the library of and published Collected Materials: Management of Sex and Sexual Violence in the Japanese Military.¹⁷⁾ This is a collection of reports on the management of sex and sexual abuse from the army’s historical materials in the Philippines, which are housed in the Library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of the Ministry of Defense. It is a collection of excerpts of comfort women-related materials from mission records of each military unit and documents issu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such as “Camp Diary,” “Detailed Combat Report,” “Detailed Duty Report,” and “List of Operation Orders. The book is compiled into four chapters of Comfort Facilities, Countermeasures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upervision of Sexual Problems, and Testimonies in the Field. In 2011,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Collected Materials on Sexual Violence, for

15) Zhu Delan, Collected Materials on Taiwanese Comfort Women Vol. 1-2, Fujishuppan, 2001.

16) Yuko Suzuki, Yone Yamashita, Masaru Tonomura (Eds.), Collected Materials on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Vol. 2, Akashishoten, 2006.

17) Society for the Investigation of Sexual Violence in Combat Areas, Collected Materials: Management of Sex and Sexual Violence in the Japanese Military from in the Philippines 1941 to 1945, nashinoki-sha, 2008.

which Yoshiaki Yoshiaki compiled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s sexual violence bought up in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was published. This book is a collection of materials on sexual assault committed in China, the Philippines, Myanmar, Hong Kong, the Andaman Islands, Dutch East Indies and French Indo-China.

In 2014, *Mountain-high Evidence*,¹⁸⁾ a collection of materials related to the Japanese armed forces that became open to the public in China, was published in 2014. In addition, as mentioned above, the Center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on Japan's War Responsibility¹⁹⁾ and the Network for Research on Forced Labor Mobilization continued requesting information disclosure, and since November 2016, the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WAM) has posted public documents released in the following of the Kono Statement on the Internet. In short, the disclosure of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s been led mostly by individual researchers and civic groups, not by the government, since the investigation and disclosure were conduc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2.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previously disclosed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s mentioned above, as social movement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consequent researches have progressed, related materials have also been made public consistently. Each material was published in the form of a report or a sourcebook²⁰⁾. Many

18) *Mountain-high Evidence*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Korean in three volumes under the title of *Immoral Evidence*.

19) Although not covered in this script, the Center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on Japan's War Responsibility has regularly introduced newly discovered materials in quarterly magazine *Study on War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the center has investigated the memoirs of Japanese soldiers and unveiled detail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se memoirs since 1993.

20) Some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ere already published in the early 1990s, though they were not comprehensive sourcebooks. Fujishuppan published collected opinions of military surgeons on battlefield reports in 1990 and materials on military discipline and custom in 1992. Collections of materials published later are as follows. Takasaki Ruji (Ed.), *Written Opinions of Military Surgeons on Battlefield Reports*, Fujishuppan, 1990; interpreted by Atsushi Koketsu (Ed.), *Materials on Military Discipline and Custom*, Fujishuppan, 1992; Yoshiaki Yoshimi, *Sourcebook on Comfort Women*,

sourcebooks on the comfort women issue were published, but major ones are the Yoshimi Collection, the AWF Collection, the Suzuki Collection, and the WAM materials posted online, and materials of the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They share some parts with each other and have some differences as well.

1) Yoshiaki Yoshimi, Sourcebook on Comfort Women, Otsukishoten, 1992

The Sourcebook on Comfort Women published in 1992 by Yoshiaki Yoshimi, a professor of Chuo University (Yoshimi Collection), is the first sourcebook that put together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²¹⁾ This book is characterized by its publication method that a fair copy was made by collecting a large quantity of materials from not only Japan but also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countries, and materials written in English were translated

Otsukishoten, 1992; Asian Women's Fund (Ed.), Collected Materials on the Military Comfort Women Researc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Vol. 1-5, Ryukeishoten, 1997; Yutaka Yoshida, Seiya Matsuno (Eds.), Military Records for 15 Years of War—Materials on Custom, Gendai Shiryo Shuppan, 2001; Zhu Dalin, Collected Materials on Taiwanese Comfort Women Vol. 1, 2, Fujishuppan, 2001; Yuko Suzuki, Yone Yamashita, Masaru Tonomura (Eds.), Collected Materials on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Vol. 1-2, Akashishoten, 2006; Society for the Investigation of Sexual Violence in Combat Areas, Collected Materials: Management of Sex and Sexual Violence in the Japanese Military from in the Philippines 1941 to 1945, Nashinoki-sha, 2008; Yoshiaki Yoshimi (Ed.),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Collected Materials on Sexual Violence, Gendai Shiryo Shuppan, 2011. In addition, as for materials relea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1992 and 1993, the list and outline were disclosed, but their original materials were not made public separately. The Collection of Literature on Comfort Women published in 2002 by the Center for Korean History of Korea University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sorted materials by subdivided topic by focusing on the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and the operation of comfort facilities. The book was based mainly on the Yoshimi Collection and included most of materials in the Yoshimi Collection and the AWF Collection, but sorted materials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with the original texts.

- 21) This sourcebook was translated in Korean by Kim Hyeong-ho and published by Seomoondang in April 1993. However, this is not a completely translated version of the Yoshimi Collection, and referring the book requires attention since some materials are omitted. For example, in the case of Material No. 83 in the Yoshimi Collection (Material No. 2 and 3 of the AWF Collection Vol. 4), mentioned in the Chapter 2 on the comparison of materials of the main text, an investigation report on prostitution facilities at the end of the material is omitted. On top of that, the same applies to the table showing permission, supervisory right, persons in charge of recruitment contracts, and persons in charge of maintenance, ranging from Deputy Military Governor to individual facilities, though it has a limitation that their names are deleted. The entire table is displayed in the Yoshimi Collection, while the table is deleted without any notation in the translated version of Seomoondang. (Yoshiaki Yoshimi (Ed.), Kim Hyeong-ho (Trans.), Sourcebook: Military Comfort Women, Seomoondang, 1993.)

into Japanese and published as a printed copy. This has a demerit, however, that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 printed texts with the original ones.

The Yoshimi Collection is largely divided into Commentary and Materials. The Materials consists of 13 parts, a mixture of those classified by theme and region. The parts categorized by theme may include Part 1: War history—after the Battle of Shanghai; Part 2: Recruitment and transportation of military comfort women from Japan, Joseon and Taiwan (Yoshimi again classified the part into three sections of the Sino-Japanese War, the Asia-Pacific War, and statistics on entrance to China); Part 3: Ministry of the Army's maintenance of discipline and measures against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Part 12: Relations in restoration. Parts classified by region are composed of Part 4: Comfort women and comfort facilities in China; Part 5: Comfort women and comfort facilities in Hong Kong, Part 6: Comfort women and comfort facilities in the Philippines; Part 7: Comfort women and comfort facilities Malaysia and Singapore; Part 8: Comfort women and comfort facilities in Indonesia; Part 9: Comfort women and comfort facilities in main land Japan; Part 10: Comfort women and comfort facilities in the Ogasawara Islands; Part 11: Comfort women and comfort facilities in Okinawa; and Part 13: Investigation Report by the Allied Forces (Part 13 is divided again by region into the Southwest Pacific, Southeast Asia and the South Pacific, French Indo-China, Indonesia and Okinawa, excluding “A Report on Prison of War Interrogations No. 49” and “An Interrogation Report of Psychological Warfare No. 2”).

Yoshimi introduced a total of 106 materials by this method and specified holding institutions and the sources of these materials in the back of the book. In addition to the materials first investigated and relea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1992 and materials discovered by Yoshimi himself, the Yoshimi Collection mainly contains materials made public or provided to Yoshimi by Hirofumi Hayashi, Fumiko Kawada, Kyodo News, the Society for Holding Japan Responsible for War, and Mainichi Broadcasting System.²²⁾

22) The translation of the Yoshimi Collection was published in 1993. (Yoshiaki Yoshimi (Ed.), Kim Hyeong-ho (Trans.), Sourcebook: Military Comfort Women, Seomoondang, 1993.) However, some terms were changed, and some materials were omitted arbitrarily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2) Asian Women's Fund (Ed.), Collected Materials on the Military Comfort Women Researc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Vol. 1-5, Ryukeishoten, 1997²³⁾

The Collected Materials on the Military Comfort Women Researc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was published in 1998 by the Asian Women's Fund after it had collected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relea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July 1992 and August 1993 (hereinafter referred to as "AWF Collec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is book is that it was based on materials discovered in ministries and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AWF Collection is based on materials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ordered ministries to investigate in 1992 and 1993. While the government's materials in 1992 and 1993 were organized by each ministry by theme, the AWF Collection was arranged by holding institution of materials. The 1st volume includes materials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2nd and 3rd volumes are composed of materials discovered in the Ministry of Defense, the 4th volume consists of materials from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and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s well as materials of the Imperial War Museums of the United Kingdom (these materials were subdivided into those of the Cabinet and the Home Ministry and those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the 5th volume includes outlines of each volume and materials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²⁴⁾.

23) The Center for Korean History of Korea University interpreted and translated the Japanese official documents contained in the AWF Collection in the process of compiling a list of and systematically categorizing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submitted a report titled "Selection of Important Materials from the HerMuseum (a Database for Historical Material Management) and a Translated and Interpreted Copy." In April 2018, Yushi Hosaka published a translated book, Evidence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ol. 1, by selecting and translating materials mostly from AWF Collection Vol. 1.

24) The subcategories consist of 1. ATIS-related documents; 2. materials related to the Southeast Asia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 (SEATIC); 3. materials related to the 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 and 4. photographs.

The AWF Collection contains a total of 374 materials. As for both the Yoshimi and the AWF Collections, supporting or reference documents are classified as annexes to each document. Therefore, the number of documents in the Yoshimi Collection is 106, but the actual number of documents is 115. Whereas the actual number of documents in the AWF Collection is as many as 374.

The AWF Collection also features a photoprint made by classifying the Yoshimi Collection and additionally discovered materials including those from a police university by holding institution and maintaining the original state of materials as much as possible. Whereas it becomes impossible to see important covers, stamps, and signs in the process of receiving and sending typeset sourcebooks, these can be identified in the AWF Collection

However, the AWF Collection has a limitation that the context disappears because it does not contain original texts as they are, even though it is a photoprint. For example, “List of Army Soldiers and Camp Followers’ Misdeeds in November 11 of Showa 16” (AWF Collection, 119p.-125p.) is an attachment of information on wrongdoings of army soldiers and camp followers, excerpted from the original material, “Report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Military Police.” The AWF Collection only includes the annex while omitting the middle cover and the document file. In addition, the “Special Report on Unnatural Deaths of Chinese Soldiers (AWF Collection, 147p.-149p.) contains only the body text and lost the document cover and file, so when the document was produced and through which process it was reported were erased. Documents themselves are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but they should be checked more precisely. Reading those materials also requires attention since commentaries sometimes have nothing to do with the body text²⁵⁾.

3) Yuko Suzuki, Yone Yamashita, Masaru Tonomura (Eds.), *Collected Materials on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Vol. 2*, Akaishishoten, 2006

The *Collected Materials on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zuki Collection”) is a sourcebook on comfort women published by Akaishishoten in

25) For example, in the commentary of Interrogation Report No. 94 in page 102 of the 5th volume, the mention that “It doesn’ t mean the military operated comfort facilities” or the interpretation that “It was stopped as soon as hostile acts were terminated” have no relations to the context at all.

December 2006. This book compiled by three researchers—Yuko Suzuki, Yone Yamashita, Masaru Tonomura—is composed of six chapters in two volumes.

It is arranged by theme, like the Yoshimi Collection. The 1st volume consists of Chapter 1: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by Yuko Suzuki) and Chapter 2: Th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system of Joseon (Yone Yamashita). The 2nd volume is made up of Chapter 3: Investigation team on the current state of trafficking of oriental women and children and women and children issues of the League of Nations (Yuko Suzuki), Chapter 4: Mobilization of women in colonized Joseon (Yuko Suzuki), Chapter 5: Mobilization of female labors during the war and the Women's Volunteer Corps (Masaru Tonomura), and lastly, Part 6: Commentaries for each chapter. As seen from the composition, this book covers not only material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but also materials on mobilization of women during the war and th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system.

Though the Suzuki Collection has many materials in common with the Yoshimi and AWF Collections, it has more original materials than the Yoshimi Collection. This is also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a typeset version of original texts in Japanese like the Yoshimi Collection. It contains sorted documents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and books written by persons concerned with the military to provide a look at soldiers' problems such a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morals. However, the Suzuki Collection has a limit that it is hard to find specific materials since it does not provide the contents or list of materials, unlike other sourcebooks, and it was divided by ministry after being sorted by theme and the date of document creation.

4) Public document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ade public by the WAM

From November 5, 2016, the original texts of official document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re open to the public in the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located in Japa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is that the WAM separately makes them public as those admitted and not admit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Material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are disclosed into materials in the Kato Statement in 1992, in the Kono

discourse in 1993, and after the Kono statement, while materials which has yet to be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especially materials of the United States, Australia, the Netherlands, materials related to the Central Archive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materials on war crime trials, and some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government materials, and materials of Taiwan) are separately open to the public. Therefore, the museum has the highest number of materials among those posted online in that original texts of materials other than the AWF Collection, including trials materials, are included. The museum also posts materials by date even though they are in the same file.

However, the WAM materials also has the same limitation as the AWF Collection in that they contain excerpts from document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y also have the same problems seen in the “List of Army Soldiers and Camp Followers’ Misdeeds in November 11 of Showa 16” (AWF Collection, 119p.-125p.) and the “Special Report on Unnatural Deaths of Chinese Soldiers (AWF Collection, 147p.-149p.). In addition, since documents are divided into pieces, the dates of some materials are recorded unknown, though they are actually identified in the original files, and in many cases, the names of each unit’s camp diaries are written as just “Camp Diaries.” Also, the resolution of many trial materials is degraded.

3. Comparison of Materials and Future Challenges

As already mentioned, in the AWF Collection and WAM materials, raw materials are just extracted as they are and made public. However, the Yoshimi and Suzuki Collections include typeset copies. It is better to use Fair copies in order to make original texts easier to read, while it is inevitable to confirm original texts as well as printed cop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e original tex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different copies of the same material at the same time. However, several things should be noted when comparing these materials.

The first problem is the naming of materials and the notation of recorded data. The biggest problem in comparing materials is that the same materials do not use a unified name. For instance, newsletters, telegram inquiries, and daily orders frequently appearing in the names of

documents are all included in camp diaries, but these names often lead to mistakes since they are sometimes written differently as telegram inquiries, camp diaries and newsletters according to documents. As for the “Materials on Discharging Soldiers: Report on the Discharge of the 2nd Discharge Team in the Civil Government Department in Celebes” (WAM Document No. Military_266), The Yoshimi Collection records the name as “Report on the Discharge of the 2nd Team Discharge Team,” while the AWF Collection documents it as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 Report on Prostitution Facilities in Cerebes.” This implies that the material of the Yoshimi Collection is a sub-document of that of the AWF Collection. The problem is that many cases like this are confirmed. Even in the flight schedule of soldiers and camp followers, which is included in all sourcebooks, the original document file is an annex, part of a report on the status of military police in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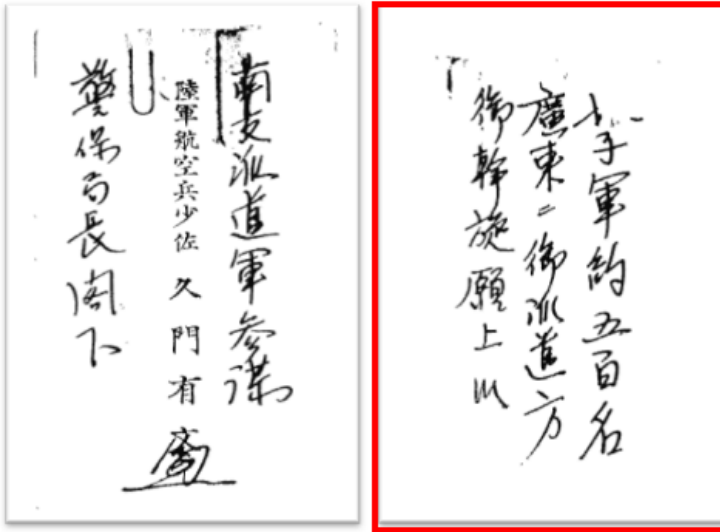
Next, there are differences in original texts contained in each sourcebook. Even if materials are extracted from the same file, the materials in the Yoshimi, Suzuki and AWF Collections may all be different. For instance, the “Meeting of Adjutants: Opinions and Q&A (added)” (WAM, Military_088, Military_089/AWF Collection Vol. 3, 7p.-15p., 17p.-20p.; Yoshimi Collection No. 59, 26p.; Suzuki Collection, No. 372) was extracted from the same document, but the material of each collection are different.

Finally, there are cases where omissions or errors occur in original documents or during the editing process.²⁶⁾ Critical review of historical materials is the basis of history. However, some sourcebooks omitted original texts or quoted errors as they were in the process of editing. They also repeated the errors intactly in the typeset version. For example, the „Document on Women Transported to China,” (National Fund Data 9-287, WAM Police_014; not included in the Yoshimi and Suzuki Collections, JACAR A05032044800)²⁷⁾ contains the business card of Major

26) Kang Jeong-suk and Park Jeong-ae extracted and pointed out the omissions of original texts and translations in the process of adding commentaries to and translating materials for the “Selection of Important Materials from the HerMuseum (a Database for Historical Material Management) and a Translated and Interpreted Copy” at the Center for Korean History of Korea.

27) The contents of the data are as follows. “Today, as having received the request from Major Kumon Arifumi, army aircraftman and advisor to the Furusho Unit of the Shanghai Expeditionary Army, and the Director of Recruitment and Mobilization, to transport about 400 hostesses for prostit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comfort facilities for and the Shanghai Expeditionary Army, we have decided to treat them in accordance with the Home Ministry Alert the 5th Issue on February 23 of this year … and sent secret notifications

Kumon Arifumi, army aircraftman and advisor to the Shanghai Expeditionary Army at the end of the material. The AWF Collection and the WAM sourcebook includes the front side of the card. But the material disclosed by the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shows its back side, on which a mention, “Please help us dispatch about 500-strong female corps to Canton,” is written. No body knows the reason behind the omission.



In addition, as for the “Detailed Report of the 4th Field Hospital of the 108th Division (North Guard Force) (June 12 of Showa 14)” (WAM Military_057; Suzuki Collection 153p.; JACAR C11112208300), the AWF Collection has different page numbers from others. The error is contained identically in the WAM material. In addition, a typeset version in Japanese, included in the Suzuki Collection, also has the page numbers reversed from those of the original texts. In addition, there are some numeric errors, with numbers wrongly written in a translated or typeset copy in sourcebook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contents and context of the original document when examining these sourcebooks. The easiest way to check the context is to compare materials with the original ones housed in the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or the Ministry of Defense. As all know, materials of the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allow readers to

to local government agencies to hire guides and let them recruit and transport women to the base. So please make favorable arrangements.”

calculate back their context, which unit has which materials, from which context these materials were extracted.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figure out omitted contents or understand military units or incidents, though they may have no direct relation with the comfort women issue. However, as noted above, if the name is only written as that of an extracted document, or if only part of a document is extracted, it is not easy to compare them. In addition, the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does not disclose data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due to the influence of the recent privacy law. In this case, one cannot help referencing materials contained in previous sourcebooks.²⁸⁾

Conclusion

It is true that the disclosure of Japanese official document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s greatly contributed to proving the existence and making an issue of the comfort women. However, the context of these released documents seems not to be well reflected in and understood by Korean society. As mentioned above, the sourcebooks and materials that have been unveiled so far have great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to some degree as well. Differences were made in the way of sorting and selecting materials, and some minor errors were also caused.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fully review each material in the future. It is also needed to select approaches to documents by confirming the context of original documents, for example, whether the document is the Camp Diary or the Complete Records.

28) For example, as for the “Document on Syphilis Checkup” in military-related documents, only the cover is currently available in the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due to private information issue. Also, some materials such as violent photographs were omitted or deleted when the center edited or compiled materials before their release, though they are not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关于日军“慰安妇” 的日本档案之现状与课题¹⁾

| 金尚圭 (高丽大学韩国史学系)

序言

日军“慰安妇”话题是在韩日两国之间历史争议中最为敏感的问题。从上世纪90年代以来，关于慰安妇的公文等档案被发掘与公开成为“慰安妇”问题再次升温的契机，其意义十分深远。尤其是，关于慰安妇公文对在1992年吉见义明公开日军有关档案、1992年官方长官加藤纮一承认“慰安妇”问题和1993年日本发表“河野谈话”做出很大的贡献。

关于日军“慰安妇”的档案范围广泛，涉及到档案、照片、影像、口述、回忆录、新闻报道等多种形式。本文以日本公文为主介绍日军“慰安妇”档案的特点。

众所周知，在日军战败已成定局后，日本政府与日本军队就有计划的销毁了大量档案，但是日本政府未及销毁的档案与档案分类则遗留下来。战后日本公文的情况大致分为

1) 本发表稿是修改与补充 2016 年历史学大会发言稿“关于日军慰安妇的史料之累计与构成”

4个档案分类²⁾: 1) 不被销毁而隐秘保留下来的档案(陆海军档案³⁾与行政档案); 2) 被联合国缴获的档案⁴⁾; 3) 殖民地、占领地、战场等地区未及销毁而留下的档案⁵⁾; 4) 由联合国编写的档案等。

在1992年与1993年, 日本政府对日军“慰安妇”实情进行调查和发表有关内容, 从此以后, 关于日军“慰安妇”档案的公开则由市民团体等民间组织进行⁶⁾。日军“慰安妇”问题成为热门话题已经过了20多年的时间, 今天我们很难期待发掘“决定性”的档案资料, 给有关慰安妇问题运动和研究方向带来转机。⁷⁾

在此情况下, 为解决日军“慰安妇”问题, 以档案为基础需要的研究课题有哪些? 本人认为我们需要详细地研究分析已有的档案资料之分类, 需要重新构成并整理档案的脉络, 而不应执着于基于“新发掘史料”的“新发掘事实”的论证。迄今为止, 我们一直关注从日本遗留下来的档案分类中发掘日军“慰安妇”有关信息, 而今后我们需要反向分析先行研究员以及市民团体发掘的档案, 重新掌握日军“慰安妇”有关档案的脉络与逻辑, 这是非常重要的。⁸⁾

在有关档案分类上, 现有公开的档案有助于寻找证明日军“慰安妇”的事实, 但是这些档案因缺乏脉络而面临很大的限制。本文的宗旨在于整理关于日军“慰安妇”的日本公文之公开情况, 并根据有关档案分类的特点提出今后的研究课题。

2) 女性部《日军“慰安妇”有关档案资料之现状》, 了解“慰安妇”的基础入门, 2002, 3-6页

3) 在军队有关档案中, 大日记等局部档案被免销毁, 并且军队高层自己的判断而不予销毁遗留下来的档案也存在, 被免销毁的档案中有局部档案在战后由美军缴获而带到美国, 于1958年以后返还给日本, 这些档案分别在防卫省与国立公文书馆保存和公开。

4) 是在战时被联合国缴获的档案, 主要来自于太平洋诸岛、菲律宾、冲绳于缅甸等地。

5) 比如, 近几年来开始被公开的中国档案

6) 对河野谈话发表之前被发掘的公文, 安倍以内阁决议的形式发表谈话。日本市民团体战争责任资料中心、查明强制征用真相市民联合会、日本的战争与和平中的妇女资料馆(W.A.M <http://wam-peace.org/>)从2015年8月开始在网站上公开“河野谈话”以后发掘的日军“慰安妇”档案, 将其分为日本政府承认与不予承认。

7) 据崔钟吉说话, 史料应该被视为“尚未发掘”的对象, 而不是不存在的对象。在1992年, 日本国会要求空开档案以后, 没有由日本政府进行调查或公开。如果史料的范围从公文或日本地区的已有范围逐步扩大, 可以涉及到回忆录等个人性资料以及美国、澳大利亚、东南亚等很多国家保存的档案, 这些档案会得到公开。(崔钟吉, 《通过重新构成行政档案察看日军“慰安妇”制度的成立和运营》, 朝日关系研究所, 51. 2016, 452页)

8) 这些努力坚持到现在。通过崔钟吉的行政档案重新构成, 努力了解脉络关系。最近, 荷宗文对以公开的中国地区阵中日记进行重新构成, 整理慰安所的设置、利用情况等。

1. 保存在日本的日军“慰安妇”档案的公开沿革

韩国女性团体联合、韩国教会女性联合会等妇女团体从1989年开始提出日军“慰安妇”问题，舆论媒体也给予关注和集中报道⁹⁾。之前，日本政府没有正式发表过对“慰安妇”问题的政府立场。于1990年6月，在日本参议员预算委员会上，清水传雄局长回答“日本政府与慰安妇没有关联”，所谓代表“日本政府立场”的官方人士坚持“日本政府与慰安妇没有关联，也没有需要承担的责任”的立场，因此，日本政府一直采取“日本政府与慰安妇没有关联”的态度。

众所周之，在1991年8月14日，韩国金学顺奶奶首次指证慰安妇真相，也把“慰安妇”问题推向国际舆论的风口浪尖，在1991年12月6日，金学顺奶奶等3位受害者向日本政府提起诉讼，要求日本政府正式道歉和提供赔偿，舆论媒体争先恐后的报道相关内容。受害者站出来指证的历史真相引起轩然大波。在1991年12月记者招待会上，日本政府的官方长官加藤纮一表示“没有档案证明慰安妇问题牵涉到日本政府，因此日本政府很难采取相应的措施”。

在1992年1月日本总理宫泽喜访韩之际，韩日舆论媒体纷纷报道日军“慰安妇”问题，韩国政府决定向日本政府要求查明日军“慰安妇”之真相而在亚洲局长会议上正式要求日本政府查明真相，日本政府也在1991年12月下令政府官方省厅进行有关慰安妇的档案调查。

当时，在美国的吉见义明早已得知在防卫厅防卫研究所图书馆馆藏着日军“慰安妇”档案。在金学顺奶奶的指证以后，他寻找了有关日军“慰安妇”档案并在1992年1月11日朝日新闻公开有关内容，在第二天，也就是12日，日本政府官方长官加藤纮一承认了日本政府介入慰安所的开设、经营和监管，在13日发表谈话，对慰安妇问题表示道歉。¹⁰⁾

紧接着在1992年7月6日，内阁官方长官公布对慰安妇实情的第一轮调查结果，同时发表

9) 上世纪80年代后期的慰安妇运动和舆论媒体报道、1991年金学顺奶奶的指证并不是第一次揭露日军“慰安妇”真相的证言与报道。从上世纪70年代，日本媒体曾经报道过冲绳的裴风琪奶奶信息，然而当时该报道没有引起韩国社会的反响。

10) 崔钟吉，《通过重新构成行政档案察看日军“慰安妇”制度的成立和运营》，447页

“内阁官方长官的记者招待会发言”，官方长官的发言明确表示“承认日本政府介入慰安所的开设、经营与监督”，直接承认日本政府牵涉到慰安妇。当时官方长官承认的政府介入有：①慰安所的开设；②监管募集慰安妇的业者；③建设与增加慰安设施；④慰安所经营与监督；⑤慰安所与慰安妇的卫生管理；⑥开具身份证等。

这时，日本政府公布对慰安妇实情的第一轮调查结果，日本政府的实情调查是从1991年12月到1992年6月间进行的，内阁外政审议室委托各家官厅以及国家机构（警察厅、防卫厅、法务省、外务省、文部省、厚生省、劳动省、国立公文署馆、国立国会图书馆）对档案与文献进行调查，向美国国家档案馆派遣调查人员对慰安妇真相进行调查。当时被发掘的档案总共127件，防卫厅为70件、外务省为52件、文部省为1件、厚生省为4件等¹¹⁾。直到1993年8月内阁官方长官的发表之前，日本政府对慰安妇实情的调查与发表持续下去。从1992年1月24日开始，韩国政府组织由外交部亚太副局长率领的挺身队问题实务对策班，发表中间报告书¹²⁾。该中间报告书载有1992年日本政府公开的档案目录与摘要笔译。

在此情况下，吉见义明以政府调查结果为基础继续发掘分散于各个地方的日军“慰安妇”档案，并在1992年11月出版《从军慰安妇资料集》¹³⁾（以下简称“吉见义明资料集”）。

在1993年8月4日，日本政府公布对慰安妇实情的第二轮调查结果与“关于慰安妇问题调查结果的谈话”。该谈话承认：①日本在很长一段时间，在很多地方设置了慰安所，在那里有很多慰安妇；②慰安所是那时的军事当局要求筹建的，原日本军参与了慰安所的设置、管理以及慰安妇的运送；③慰安妇的招募，主要是由军方委托进行的；④但也有经过花言巧语和高压而违反本人意愿的许多事例；⑤也有一些是官吏直接支持的；⑥慰安所内的生活处在强制状态下，非常痛苦；⑦在朝鲜人慰安妇的征集、运送、管理等方面，采用哄骗、强制等手段，总体上违反了本人的意志。

11) 1997年2月10日，参议院预算委员会要求资料，1页

12) 挺身队问题实务对策班，在日本殖民统治之下的军队慰安妇实情中间报告书，1992。挺身队问题实务对策班的报告书是最后编写的，这是令人遗憾的。以后，韩国政府报告书没有提到1993年以后吉见义明的资料、日本政府公开的1993年以后资料。

13) 吉见义明，《从军慰安妇资料集》，大月书店，1992

在1993年8月公开的日本政府调查资料是“关于所谓从军慰安妇问题”，第二轮文献调查坚持到1993年6月为止，其调查范围涉及到警察厅、防卫厅、外务省、文部省、厚生省、劳动省、国立公文书馆、国立国会图书团、美国国家档案馆等。在1993年7月26日至30日，日本政府在首尔针对受害者、有关团体、专家进行访谈活动。从此以后，日本政府再次没有正式进行关于日军“慰安妇”问题的调查。¹⁴⁾

在1995年，日本政府成立了“亚洲和平女性基金会”（以下简称“国民基金”）。在1997年，国民基金收集与编撰日本政府调查的资料而出版“政府调查《从军慰安妇关系资料集集成》全5册（龙溪书店，以下简称“国民基金资料集”）。

从上世纪90年代后期开始，由研究员为中心发表资料集和公开资料。在1999年，朱德兰以“台湾殖会社资料”（由台湾省文献委员会收藏）为基础出版了《台湾慰安妇调查的研究资料集》。朱德兰以此为基础坚持收集台湾总督府档案中有关公娼管理的档案与台湾殖支柱式会社档案中有关慰安妇、慰安所的资料和日本外务省、防卫厅档案中有关台湾慰安妇的资料，并于2001年出版了《台湾慰安妇关系资料集》¹⁵⁾。在2006年，由鈴木宏子、山下英愛、外村大主编的《日本军“慰安妇”关系资料集集成》¹⁶⁾（以下简称“鈴木资料集”）出版。慰安妇资料集不仅包括了日军“慰安妇”有关档案，而且还包括了劳务动员与公娼制等其他档案。

在2008年，“调查战时性暴力之会”收集保存在菲律宾的日军“慰安妇”档案，出版《资料集日本军にみる性管理と性暴力》¹⁷⁾，这是日本防卫省防卫研究所图书馆馆藏的菲律宾方面陆军战事资料中有关性管理与性暴力的报告。“阵中日记”、“战斗详报”、“业务详报”、“作战命令綴（文件夹）”等各部队的作战记录与日军编写的档案中取出慰安妇资料，以此为基础，由慰安所、性病对策、监管性问题、当地证言等四章组成的资料

14) 在调查结果被发表的时候，防卫厅档案的追加调查、关于朝鲜、台湾的托务省、内务省保存资料等重要资料没有公开一事遭到很多批评（荒井信以，1993，《创刊の辞》，李刊战争责任研究，创刊号，3页）。据1997年参议院预算委员会要求资料，《关于所谓从军慰安妇问题的调查结果（1993年8月发表后发掘的内容）》目录上可以确认33件的档案（国立国会图书馆馆藏 ATIS 档案，英国国家档案馆、防卫厅、警察厅、厚生省有关档案）

15) 朱德兰，台湾慰安妇关系资料集 1、2，不仁出版，2001

16)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编《日本军“慰安妇”关系资料集集成》全2卷，明石书店，2006

17) 战地性暴力を調査する会《资料集 日本军にみる性管理と性暴力 フィリピン 1941年～45年》梨の木舎、2008.

集。在2011年，《东京裁判，性暴力关系资料》出版，这是由吉见义明负责编审、收集整理远东国际军事审判中被提到的日军性暴力资料，该资料集由中国、菲律宾、缅甸、香港、安达曼群岛、荷属印度、法属印度支那的性暴力有关资料组成。

另外，在2014年，中国出版了《铁证如山》¹⁸⁾，收集了在中国公开的日军有关档案。战争责任资料中心¹⁹⁾与强制动员真相查明之网络坚持要求公开资料，W.A.M从2016年11月开始在线提供河野谈话来发表以后被公开的档案。总的来说，日军“慰安妇”档案大分为两种，第一，日本政府对日军“慰安妇”实情进行调查后发表的；第二，由研究员和市民团体进行发掘与发表而不是由政府进行发掘的日军“慰安妇”档案。

2. 已公开的日军“慰安妇”有关资料的分类与特点

如上述所强调，随着日军“慰安妇”运动和相关研究活动得到发展，关于日军“慰安妇”档案也不断被发掘和公开，每个档案以报告书或资料集形式公开²⁰⁾。关于日军“慰安妇”问题的资料集很多，其中最主要的资料集有吉见义明资料集、国民基金资料集、鈴木资料集、WAM在线公开的资料、日本亚州历史资料中心的资料。各资料集包括重复的信息，也有不同之处。

18) 铁证如山在韩国以“不灭之证据”的书名，3卷出版

19) 本发表稿没有提到过，战争责任资料中心通过季刊“战争责任研究”介绍新发掘的档案资料，尤其是，从1993年开始调查日军回忆录，介绍关于日军“慰安妇”的内容。

20) 在上世纪90年代初期，关于日军“慰安妇”的档案资料（不是综合性的资料集形式）得以出版，如在1990年不二出版社出版军医馆的战场报告意见集，在1992年出版军机与风俗的资料。从此以后，空开的日军“慰安妇”有关资料集如下：高崎隆治編『軍医官の戦場報告意見集』不二出版、1990；瀨瀬厚編・解説、『軍紀・風紀に関する資料』不二出版、1992；吉見義明、『從軍慰安婦資料集』，大月書店，1992；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編、『政府調査「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1-5，龍溪書舎，1997；吉田裕・松野誠也編『十五年戦争期軍紀・風紀關係資料』現代史料出版、2001；朱德蘭、『臺灣慰安婦關係資料集』1,2，不二出版，2001；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編『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全2卷、明石書店、2006；戦地性暴力を調査する会『資料集 日本軍にみる性管理と性暴力 フィリピン 1941年～45年』梨の木舎、2008；吉見義明 監修『東京裁判 性暴力關係資料』現代史料出版、2011。1992年与1993年日本政府发表档案，但是只提供目录与摘要，没有公开原始档案。在2002年高丽大学韩国史研究所在女性部的支援下发行关于“慰安妇”的文献资料集，将焦点放在日军“慰安妇”被强制动员与运营，细分主题，重新选别资料，主要资料都收录于“吉见义明资料集”与“资料集成”，对资料进行选别，提供原始档案与笔译。

1) 吉见义明《从军慰安妇资料集》，大月书店，1992

在1992年，日本中央大学教授吉见义明编写的《从军慰安妇资料集》（以下简称“吉见义明资料集”）是第一个日军“慰安妇”档案的综合性资料集²¹⁾。他不仅在日本，还在美国等其他国家获取了大量慰安妇有关档案，对此进行脱草与翻译（英日翻译），以活字版本出版，但是因活字版的限制而很难对原始档案进行比较。

吉见义明资料集分为解释篇和资料篇。资料篇由13部组成，按主题与地区的分类混在一起，如第一部：战事-上海事变以后；第二部：在日本、朝鲜、台湾等地区征集从军慰安妇与渡航（吉见义明教授按照时期进行分类，如中日战争期、太平洋战争期、中国入境关系统计等）；第三部：陆军省维护军纪、性病对策等。第十二部的复原关系是根据主题分类的。第四部：中国的慰安妇与慰安所；第五部：香港的慰安妇与慰安所；第六部：菲律宾的慰安妇与慰安所；第七部：马来西亚的慰安妇与慰安所；第八部：印度尼西亚地区的慰安妇与慰安所；第九部：日本的慰安妇与慰安所；第十部：小笠原群岛的慰安妇与慰安所；第十一部：冲绳的慰安妇与慰安所；第十三部：联合军的调查报告。地属（第十三部的俘虏询问报告49号与心里战询问报告第2号以外，又分为西南太平洋地区、东南亚及南太平洋地区、法属印度支那地区、印度尼西亚地区、冲绳地区）按地区进行分类。

吉见义明通过这些分类方式，介绍了106件档案，在资料集的后面记载了收藏地点与来源。吉见义明资料集所收录的档案主要涉及到1992年日本政府发表的第一轮调查结果、吉见义明教授发掘的档案、林博史与川田文字、日本京都通信、确认日本战后责任之会、每日新闻广播报道等渠道公开或提供给吉见义明的档案资料。²²⁾

21) 该资料集是在1993年4月金炯浩笔译，由瑞文堂出版翻译版本，但是该资料集不是对吉见义明资料集全部内容进行笔译，局部资料的内容被省略，请注意参考。如本发表稿所提到的第二章比较部分所提到的吉见义明83号资料（资料集成4卷2-3资料）而言，资料尾段省略卖淫设施的调查报告；名字被删除的问题，如记载民政府长官、各设施许可证、监督证、募集合同负责人、维护负责人的标记之表。就吉见义明资料集而言，表上有全部标记，但是瑞文堂的翻译版本没有标记而被删除。（吉见义明编，金淳镐译，《资料集从军慰安妇》，瑞文堂，1993）

22) 吉见义明资料集的翻译版本在1993年出版（吉见义明编者，金淳镐译，《资料集从军慰安妇》，瑞文堂，1993）在对吉见义明资料集进行笔译的过程中，出现任意变更生词、任意省略资料的情况）

2) 亚洲和平女性基金会编，政府调查《从军慰安妇》关系资料集成 1-5，龙溪书舍，1997年²³⁾

政府调查《从军慰安妇》关系资料集成（以下简称“国民基金资料集”）是将日本政府对日军“慰安妇”实情进行调查后在1992年7月与1993年8月间发表的内容，由亚洲和平女性国民基金(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进行收集整理，并在1998年出版的（以下简称“国民基金资料集”）资料集。该资料集的特点是以各省厅与美国国家档案馆发掘的档案为基础。

国民基金资料集所收录的资料以1992年与1993年日本政府下令各省厅进行调查的资料为基础。1992年与1993年有关调查结果公开的时候，其资料是按主题分类的各省厅资料，而国民基金资料集以档案的收藏地点为中心。第一卷为有关警察厅的公布资料与外务省公布资料；第二、第三卷为有关防卫厅公布资料；第四卷为国立公文书馆、大英帝国战争博物馆馆藏资料（下游资料分为“内阁、内务省关系、军关系）和厚生省公布资料；第五卷由介绍各个资料的摘要、美国国立公文书馆、国立国会图书馆馆藏的档案组成²⁴⁾。

国民基金资料集的对象档案总共374件。吉见义明资料集和资料集成将档案的依据或可参考的档案列为各档案附属文件，因此吉见义明资料集的资料编码总共106个，但是实际收藏的档案总共115件。实际上，国民基金资料集的档案多达374件。

国民基金资料集的另一个特点是影印的资料集，即按照收藏机构区分吉见义明资料集、警察大学的档案分类等追加发掘的档案，尽量保存原始档案。相对于活字版本的资料集，资料集成能够确认以档案的往来过程中的重要标示、印记、标记等。

国民基金资料集是影印资料集，尽管如此，它没有收录原始档案全文，因此也有缺乏

23) 高丽大学韩国史研究所进行日军慰安妇档案的目录工作与系统性分类工作时，对国民基金资料集中日本公文进行解题与笔译，提交《e 历史馆（史料管理 DB）输入信息中重要资料选别以及原文信息的翻译解题集》报告书。在 2018 年 4 月，保坂祐二从国民基金资料集 1 卷中选别资料和笔译，出版《日军慰安妇问题证据资料集 1》翻译版本。

24) 下游分类为 1. 联合国翻译口译部局（ATIS）有关资料；2. 联合国东南亚翻译、询问中心（SEATIC）有关资料；3. 战争情报局（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有关资料；4. 照片资料

脉络的限制，如昭和16年11月陆军军人军属非行表（载有国民基金资料集119-125页）资料，附有军事警察现状报告缀（文件夹）原始档案中陆军军人军属非行的有关事项。国民基金资料集的文件夹只收录附件军人军属非行表，省略重标示与文件夹标示。特别报告中军人变死件的报告（特别报告中军人变死の件報告，载有国民基金资料集147-149页）只收录正文，省略文件夹与档案标志，因此很难掌握有关档案的特征（编写时间，通过什么渠道进行报告等）。虽然档案内容牵涉到日军“慰安妇”制度，但是还需要详细分析。除此之外，有些地方提供与原始档案无关联的解释²⁵⁾，因此应该注意解读。

3) 铃木裕子、山下英爱、外村大编《日军‘慰安妇’关系资料集成》1、2，明石书店，2006

《日军“慰安妇”关系资料集成》（以下简称“铃木资料集”）是于2006年12月明石书店出版的“慰安妇”关系资料集。铃木裕子、山下英爱、外村大三位研究员共同编著的“铃木资料集”由六篇组成，共上下两册。

资料集的结构与吉见义明资料集一样，按主题分类，第一卷为第一篇日军“慰安妇”、劳务“慰安妇”关系资料（铃木裕子）、第二篇朝鲜公娼制度（山下英爱）；第二卷第三篇为东洋夫人儿童买卖实地调查团与国际联盟夫人儿童问题（铃木裕子）、第四篇为殖民地朝鲜的女性与战时动员（铃木裕子）、第五篇为战时女性劳务动员与女子勤劳挺身队（外村大）、第六篇为解释篇。就结构来看，该资料集涉及到日军“慰安妇”有关档案、战时女性动员、公娼制度等档案。

国民基金资料集的特点如下，它与吉见义明资料集之间有很多重复的部分，但是收录的原始档案数量远超过吉见义明资料集；对日语原始档案进行植字工作也是主要特点（吉见义明资料集也一样）；通过军队有关人士的著作，了解士兵的性病问题、风气问题，并整理朝鲜总督府的档案。但是，铃木资料集也有限制，与其他资料集不同，该资料集没有提供目录或顺序，而按主题和档案编写时期分类，又以各省厅区分，导致很难确认特定的档案资料。

25) 例如，第5卷102页94号询问调书解释中，“军队没有经营慰安所”或“结束地队行为后立即停止”等解释与原始档案的内容没有关联。

4) WAM 公开的关于日军“慰安妇”公文

日本的女性战争和平纪念馆（以下简称“W.A.M”）从2016年11月5日开始在线公开保存在日本的关于日军“慰安妇”公文的原始档案。W.A.M 公开的资料之特点是分为政府承认的公文与政府不予承认的公文，政府承认资料又分为1992年加藤谈话、1993年河野谈话与河野谈话以后的两个时期，政府不予承认的资料（尤其是美国、澳大利亚、荷兰、中国档案馆资料、战犯审判资料、日军和政府的局部资料、台湾资料等）列为另外分类并公开的原始档案。它收录审判资料等国民基金资料集不提供的资料原文，在线公开的日军“慰安妇”资料中最多，并且将同一个文件夹的资料按日期收录。

但是，W.A.M公开的资料也是日军“慰安妇”档案中的局部内容，这与国民基金资料集一样有缺乏脉络的限制，如昭和16年11月陆军军人军属非行表（载有国民基金资料集119-125页）资料/特别报告中军人变死件的报告（特別報告中軍人変死の件報告，载有国民基金资料集147-149页）。将档案分开后发现，在原始文件夹中可以确认的日期被处理为“不明”，或是各部队的阵中日记题目只能以“阵中日记”来标记的情况也不少；审判资料的画质受损的情况也不少。

3. 各资料分类的比较与课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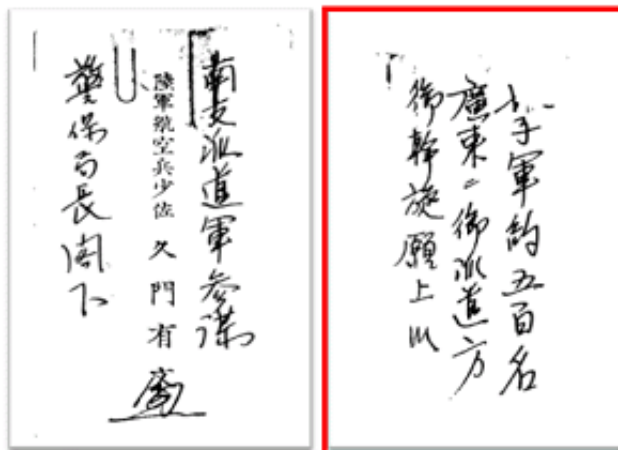
国民基金资料集与W.A.M公开资料直接取出原始档案而公开，但是吉见义明资料集与铃木资料集以活字版本形式出版，活字版本有助于解读原始档案，这时分析原始档案的脉络需要同时确认原始档案。就是说，同时比较分析同一个资料是非常重要的，但是比较这些资料需要注意几点事项。

第一，档案名称问题以及收录档案的标记问题。对资料进行比较分析时，最严重的问题是同一个档案，不同的题目。如资料名称经常出现的汇报、传报查询、日日命令等都被包括在阵中日记中，然而根据档案的内容，这些档案分类以传报查询、阵中日记、汇报等名称收录，这难免引起误会。《部队复员关系资料「セレベス民政部第二復員班員復員に関する件報告」（W.A.M 档案编号 军_266）在吉见义明资料集上，命名为厚生省-塞莉比四

卖淫设施调书。吉见义明资料集的档案是下游档案分类。令人忧虑的是，这种错误不少。所有档案分类所包括的军人军属非行表的原始文件夹也被包括在中国地区的军事警察现状报告文件夹中。

第二，收录的原始资料因档案分类而不同。虽然原始档案的来源是一样的，但是吉见义明资料集、铃木资料集和国民基金资料集所示的内容有所不同。如《副官会同席上意见、質疑及び回答(追加)》(W.A.M, 軍_088, 軍_089/国民基金资料集3卷7-15页, 17-20页, 吉见义明资料集59号269页, 铃木资料集372号资料都来自于同一个文件夹, 但是各资料集收录的资料不一样。

最后，收录原始资料和编辑的过程中难免出现遗漏或错误的问题²⁶⁾。批判性分析史料是历史学的基本态度，但是有些资料集的原始档案出现遗漏的问题，或编撰过程中直接援引错误的部分，甚至在植字的过程没有修改而直接收录的情况也有出现。如《支那渡航婦女に關する件》(国民基金资料集9-287页, WAM 警察_014, 吉见义明资料集与铃木资料集没有收录, JACAR A05032044800)²⁷⁾，其尾段附有南支派遣军参谋、陆军航空兵小左久门有文的名片，而国民基金资料集与W.A.M资料集只收录名片的前面，亚洲历史资料中心公开资料只收录名片的背面，即“请帮助南支军约500名派遣到广东”的部分，目前很难掌握被遗漏的具体情况。



26) 在《e 历史馆 (史料管理 DB) 输入信息中重要资料选别以及原文信息的翻译解题集》的解题与翻译的过程中，姜真淑与朴真爱发现和指责原始档案与翻译本的遗漏问题。

27) 档案的具体内容如下，“今天南支派遣军古荘部队参谋陆军航空兵小佐（等于小令）久门有文和陆军省征募科长下令要求让女性服务员约 400 名渡航，以在南支派遣军设置慰安所。按照今年 2 月 23 日内务省发警第 5 号通牒，决定履行该业务，(省略) 秘密地向各地方厅发出通牒（书面通知），选拔领队，让领队负责募集妇女和运送，请谅解”

另外,《第一〇八师团第四野战病院业务详报<北警备队>(昭14.6.12)》(W.A.M军_057,铃木资料集153页,JACAR C11112208300),它在国民基金资料集上的报告页数不同,W.A.M公开的资料也直接收录该错误,在用日文植字的铃木资料集上原始档案的顺序也被颠倒过来,除此之外,翻译集的数字有错误,在植字的过程中也存在数字错误。

总而言之,我们确认这些档案分类时,参考上述的资料集,但还需要同步确认原始档案的内容与脉络。与亚洲历史资料中心或防卫省收藏的原始档案进行比较是最值得的方法。众所周知,通过亚洲历史资料中心的资料可以了解的信息如下:档案的脉络;是哪个部队的档案与什么样的内容;从什么脉络出发获取了资料;掌握在资料集编撰过程中被省略的档案内容;获知虽然与其没有直接的关联但是也可以了解有关部队或有关事件的信息。然而,综上所述的问题中,如档案的题目仅用于获取的档案或者将局部内容收录的档案,很难进行比较。亚洲历史资料中心因个人信息保护法的限制,与个人信息有关的内容不得公开,这时,只能参考其他资料集收录的档案。²⁸⁾

总结

关于日军“慰安妇”的日本公文的空间在证明日军“慰安妇”的历史真相、引起世界的关注方面做出了很多贡献。但是本人认为在韩国社会尚未充分研究与分析已公开的档案之脉络。上述介绍的资料集和公开资料有着深远的意义,但也面临着一些限制,并且在档案的分类方式、选定过程中档案集之间难免出现距离,有时也会出现一些错误。

由此可见,今后我们迫切需要详细的、全面的分析每个档案,同时,在接触档案时,需要确认阵中日记、大日记等原始档案的脉络。

28) 例如,日军档案中“检举成绩之件”设计个人信息,而目前亚洲历史资料只公开标志,此外,亚洲历史资料中心编辑的过程中被遗漏的、残忍的照片(不是与日军“慰安妇”有关的)等资料被删除后公开。

1

3. 미국자료

곽귀병
(광운대)

미국 소재 ‘위안부’ 관련 자료의 현황과 과제¹⁾

| 광귀병 (광운대)

1. 들어가며: 자료물신주의와 자료 연구의 공백

한국에서 8월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는 달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열광적 관심은 역설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학술적 연구조차도 가로막았던 2015년 12년 28일 한일 간의 합의 이후에 훨씬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민관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기획되고, 주요 방송과 언론들에서도 ‘위안부’와 관련된 기획과 특집을 제작하고 내보낸다.

새로운 ‘위안부’ 자료에 대한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7년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이 조선인 ‘위안부’가 피사체로 포착된 영상을 발표한 이후, 자료에 대한 관심의 범위는 문서와 사진을 넘어 영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열광적 관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기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새로운 자료가 일본이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이

1) 완성도가 떨어지는 발표용 원고이므로 인용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다. 아베 수상을 위시로 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제기하는 강제연행 프레임 하에서도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굴될 것이라는 강렬한 기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새로운 자료 발굴이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미국 소재 연합군 ‘위안부’ 자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열광 속에서 정작 ‘위안부’ 자료에 기반에 둔 연구들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특히 미국 소재 연합군 자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연합군 자료들의 전체적인 특성들이 면밀히 연구되지 않았고, 개별 자료에 대해서 조선인 ‘위안부’에 관계된 자료인지, 새롭게 발굴된 자료인지, 일본의 법적 책임을 입증할 증거인지에 대한 획일적 질문들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군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연구가 가능할지, ‘위안부’들의 동원과 피해 실태 외에 연합군 자료들을 활용하여 ‘위안부’ 연구의 지평을 어떻게 확대시킬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정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성격과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위안부’ 자료에 대한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축적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축적되기 시작한 ‘위안부’ 자료들의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 발굴 및 연구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목록사업(이하 목록사업)을 통해 파악된 미국 소재 연합군 자료들의 현황과 성격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미국 소재 연합군 자료 목록 정리 방법

‘위안부’ 자료란 자료상에서 ‘위안부’ 혹은 위안소의 존재가 언급된 자료들을 말한다. 목록사업에서는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에서 웹으로 제공하는 일본정부 인정자료 및 미인정자료 중에서 영어로 작성된 연합군 자료들과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에서 2018년에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I 권, II 권, III 권, 국

별일자마다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항목으로 분리하였다

국가 지명은 현재의 국가 지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세부항목의 경우 문서가 포함하고 있는 대목차를 정리했으며, ‘위안부’ 관계 내용이 포함된 목차가 어디인지 표시해두었다. 해제내용에서 comfort girl, prostitute 등 ‘위안부’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모두 ‘위안부’로 번역하였고, brothel, consolation house 등 위안소를 지칭하는 표현들도 모두 위안소로 번역하여 작성하였다. 기관에 대한 약어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표1〉 약어표 일람

약어	원어	번역어
ACTC	American Co-ordinated Translation Center	미국공동번역센터
ATIS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연합군번역통역부
CBI	China-Burma-India	중국·버마·인도
CIC	Combat Intelligence Center	전투첩보센터
CINCPAC	Commander in Chief Pacific Fleet	태평양함대사령관
CINCPOA	Commander in Chief Pacific Ocean Area	태평양지역사령관
CPMB	Captured Personnel and Material Branch	포로 및 노획물과
CSDIC	Combined Services Detailed Interrogation Centre	합동심문센터
JIC	Joint Intelligence Center	합동첩보센터
JICA	Joint Intelligence Collection Agency	합동첩보수집기관
JICPOA	Joint Intelligence Center Pacific Ocean Area	태평양지역 합동첩보센터
MID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군사정보부
MIS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군사정보국
MISLS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Language School	군사정보국 언어학교
ONI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해군첩보국
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	전략첩보국
OWI	Office of War Information	전시정보국
PWB	Prisoner of War Branch	전쟁포로과
PWB	Psychological Warfare Branch	심리전과
PWT	Psychological Warfare Team	심리전팀
RNN	Royal Netherlands Naval	왕립 네덜란드 해군
SEA	South East Asia	동남아시아
SEATIC	South East Asia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	동남아시아번역심문센터
SINTIC	Sino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	중국번역심문센터
SOPAC	South Pacific Command	남태평양군
SWPA	South West Pacific Area	남서태평양전구

3. 미국 소재 연합군 자료들의 출처별 특성

앞서 밝힌 대로 목록사업에서 정리한 연합군 자료들은 크게 세 가지 출처로 구별할 수 있으며, 각 출처별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서의 목록 활용을 위해 특기할만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이하 WAM)에서 제공하는 '위안부' 관계 자료는 총 88건이다(다른 출처에서의 중복자료 포함)²⁾.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내용이지만, WAM을 위시로 한 일본에서 정리한 자료집 내지 아카이브의 중요한 특성이자 문제점은 이들이 '위안부' 관계 문서를 원문 그대로 전부 수록하지 않고 '위안부' 관련 정보가 포함된 목차 부분만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부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서의 전체목차가 원본 문서에서는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WAM이나 기타 일본에서 출간된 자료집에서는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재 목록에서는 아래에서 서술한 『일본군'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I, II, III이나 『남서태평양지역 충사령부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문서』 1, 2, 3에 수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악 가능한 목차만 정리되어 있다. 또한, 소장처의 출처 정보(NARA의 경우 문서군, 시리즈, 박스를 포함한 로케이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활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문서 작성 기관으로 살펴보면 NEFIS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ATIS 자료가 26건, SEATIC이 5건 등이다.

2) 『일본군 '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I, II, III³⁾

『일본군'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I, II, III(이하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 자료집)의 경우 문서 82건, 사진 30건, 영상 3건 등 총 116건의 항목으로 정리하였다(다른 출처에서의 중복자료 포함). 서울대 자료집의 경우 가장 큰 특성은 미국 NARA의 문서 분류 체계에 따라 문서들이 수록되고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문서의 경우 I 권은 RG 165, II 권은

2) 자료 제공 링크는 <http://wam-peace.org/ianfu-koubunsho/>

3) 정진성 편, 2018, 『일본군 '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I, 선인; 정진성 편, 2018, 『일본군 '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III, 선인; 정진성 편, 2018, 『일본군 '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III, 선인

RG 208, 3권은 RG 493의 주요 ‘위안부’ 관계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다. 사진과 영상의 경우 전량 모두 Ⅲ권에 수록되어 있고, RG 80, RG 111, RG 127, RG 208, RG 313 등이다. 일본에서 출판된 자료집이나 WAM에 수록된 일본 자료들과 비교하면, ‘위안부’ 관계 문서의 전문이 원문 그대로 수록되었으며, 자료의 원소장처 로케이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요 문서에 대해서는 전문이 번역되어 있고, 그 이외의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주로 시작 부분)과 ‘위안부’ 및 위안소 관련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내 목차 부분이 번역되어 있다. 자료집 전체 해제에는 연구팀의 2015년에서 2017년에 걸친 자료 수집 연혁이 제시되어 추후 ‘위안부’ 관계 자료 발굴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 RG-시리즈별 해제 및 각 문서별 해제도 제공하고 있다.

〈표 2〉 일본군‘위안부’ 관계 주요 문서군(RG)

38 해군작전부장실	80 해군부
111 통신감실	125 해군법무감실
127 미해병대	153 군법무감실
165 전쟁부 일반/특수 참모부	208 전시정보국
226 전략첩보국	313 해군작전대
319 육군참모부	331 2차대전기 연합작전 및 작전사령부
389 헌병감실	407 부관부
457 국가안보국/중앙안보단	493 중국, 버마, 인도 전구의 미육군
496 남서태평양총사령부	554 극동군사령부·연합군총사령부
3(맥아더아카이브) 남서태평양총사령부	

I 권에 수록된 RG 165가 육군부 일반/특수 참모부 내의 자료들을 수록하다보니 MID/MIS, ATIS, SEATIC, CSDIC 등 당시 연합군 내 주요 첩보조직이 생산했거나 공람했던 문서들을 다양하게 망라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II 권의 경우, 심리전 49호 외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 했던 OWI가 생산했던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OWI의 포로 심문 및 심리전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인식되었는지, 어떠한 활용가능성을 고민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III 권의 경우, 미중연합군인 Y군(Y Force)이 누강 작전(Salween Campaign) 와중에 생산한 작전일지와 주간보고를 주로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학살의 정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

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혹은 잘못 알려진) ‘위안부’ 사진 및 영상을 거의 대부분 수록하고 있다. 생산기관으로 보면 OWI가 생산한 자료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Y군이 생산한 자료가 16건, MIS가 생산한 자료가 7건 등이다.

3) 『남서태평양지역 총사령부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문서』 1, 2, 3

『남서태평양지역 총사령부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문서』 1, 2, 3(이하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집)의 경우 ATIS에서 생산한 연구보고서(Research Report)와 심문보고서(Interrogation Report) 시리즈 중에 ‘위안부’ 혹은 위안소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들을 담고 있다.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의 자료집과 마찬가지로 문서 전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소장처 로케이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록된 원문 전체에 대한 전문번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해제를 통해 ATIS 기관의 특성과 활동 내역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고, ‘위안부’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종합적인 보고서인 ATIS 연구보고서 120호(ATIS Research Report no.120)의 두 가지 판본과 두 가지 판본이 공개된 경과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담고 있다. 또한, 심문보고서들에 대한 자세한 해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심문보고서들 중에 ‘위안부’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가 몇 건인지, 언제부터 ‘위안부’ 및 위안소 관련 정보가 어떤 항목에서 다루고 지고 있는지, 시기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고서의 배포선에서는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ATIS가 1943년까지는 심리전의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후에는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은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총 45건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 중 WAM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는 총 22건이다.

4. 미국 소재 연합군 자료들의 전체적인 특성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의 경우 서울시의 지원 하에 수집한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에 있고, 2018년에 수집한 자료들의 현황 내역이 아직 정리 중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 목록사업 하에 작성된 연합군 자료들의 목록은 다시 한 번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8년 8월 현재의 목록 작업 하에서도 연구와 향후 추가적인 발굴에 고려할만한 몇 가지 특징들은 나타나고 있다.

1) 이중적 희박함

‘위안부’ 혹은 위안소를 다루고 있는 연합군 문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문서군(RG)에 산재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해당 문서군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즉, 2차 세계 대전 시기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생산하고 배포 받은 문서들의 총량을 고려할 때, ‘위안부’ 관계 문서의 양은 매우 희박하다. 일례로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 자료집에 수록된 RG 165의 Entry NM 84 177(Interrogation Reports, Directives, and Other Records Relating to Captured Personnel and Material 1940–1946)의 경우, 총 24박스 분량 중에 ‘위안부’ 문서는 14건, 쪽수로는 149쪽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위안부’ 문서가 발견된 다른 엔트리와 비교해봤을 때, 결코 적은 비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위안부’ 문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엔트리는 지금까지 발견된 바 없으며(지금까지의 발굴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 박스 내의 하나의 폴더를 구성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는 첩보기관 중에서도 OWI와 OSS를 제외하면 ‘위안부’를 심리전의 주제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준비했던 기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안부’ 자료는 연합군이 생산한 전체 자료 중에서 희박할 뿐만 아니라 문서 안에서도 그 내용이 희박하다. ‘위안부’ 혹은 업자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한 심문보고서(SEATIC Interrogation Bulletin No.2, OWI Psychological Warfare No.49, HQ I Corps G-2 163rd Language Detachment Combined Enemy Alien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s⁴⁾, OSS China Theater “Attached memorandum “Korean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⁵⁾)나 일본군의 편의시설 중에 위안소를 비중 있게 다룬 ATIS Research Report No.120 정도를 제외하면, ‘위안부’ 혹은 위안소에 관한 언급은 보통 한 문단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4) 필리핀 지역 ‘위안부’였던 김소란에 대한 심문보고서

5) 1945년 5월 6일자 OSS 중국 쿤밍지역 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서로 당시 사령부에서 억류했던 위안소 업자와 박영심 등 조선인 ‘위안부’ 23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흔히 쿤밍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2) 첩보기관 생산 자료 중심의 수집

문서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 161건의 자료 중에 총 129건의 자료가 ATIS, OSS, OWI, SEATIC, CSDIC(I) 등 첩보기관이 생산한 문서들이다. 앞에서 언급한 ‘위안부’ 주제의 몇몇 문서들을 제외하면, 해당 기관들이 포로로 잡은 일본군이나 일본군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연합군 포로들을 심문하면서 얻은 정보 중에 ‘위안부’ 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주지하다시피 ‘위안부’ 문제는 전범재판과 관련하여 아주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전쟁 중에 심리전과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수집한 정보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자료 발굴 과정을 고려할 때도, 첩보기관의 자료들의 접근이 다른 기관 자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일례로 NEFIS의 경우, 총 36건의 문서 중 1건을 제외하면, X III. General 항목에서만 ‘위안부’ 및 위안소 관련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 기관의 특성으로 봐도, ATIS의 경우에도 맥아더가 지휘했던 남서태평양(SWPA) 사령부 소속 기관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3) 해군 및 해병대 생산자료의 부족

목록사업으로 정리한 현재까지의 연합군 자료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시노하라 재판 자료나 트럭섬 ‘위안부’ 사진 정도를 제외하면 해군 및 해병대에서 생산한 ‘위안부’ 자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연합군 문서를 수집하는 주요한 통로인 NARA의 해군 및 해병대 관계 자료가 육군 자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정리 또한 훨씬 더 연구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조선인 포로들에 대한 특별심문의 대답인 MIS CPMB Extract of Interrogation 1538 Composite Report on Three Korean Navy Civilians, List No. 78, Dated 28 Mar 45, Re “Special Questions on Koreans”의 경우, 해군 쪽 첩보기관인 RG 38에서도 동일한 문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육군부 문서군(RG 165) 문서가 요약본 번호에 따라 정리되어 있는 것에 반해, 해군부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 시리즈 외의 다른 문서들 사이에 이 문서가 섞여 있다. 또한, 해군의 첩보기관에 일본계 미국인 2세(NISEI)들이 요원으로 거의 파견되지 않은 점 또한, 일본군 포로 심문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되지 않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해군 및 해병대가 작전을 벌였던

남태평양 섬들에서의 ‘위안부’ 혹은 위안소 정보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연합군 문서상에서 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5. ‘위안부’ 관련 연합군 자료 발굴 및 향후 연구 발전을 위한 과제들

목록사업을 통해 파악된 연합군 관련 ‘위안부’ 자료들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할 때, 다음의 과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새로운 자료들의 발굴과 공개에 맞춰서 목록 정리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도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과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새로운 ‘위안부’ 자료들을 아카이브와 자료집 등의 형태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합군이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고유한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의 존재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한 증거로서만 연합군 자료를 바라보는 기존의 태도는 연합군 자료를 통한 다면적인 연구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사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수많은 증언과 기존에 발굴된 여러 가지 공문서들을 통해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극소수의 주장이나 ‘위안부’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일본 우익의 공격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연합군 자료를 한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연합군이 ‘위안부’와 관련된 자료를 어떤 맥락에서 왜 생산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위안부’의 존재나 피해상황만큼이나 연합군의 자료가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연합군의 인식과 활동이다.

셋째, 위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연합군 자료의 생산기관 및 실무자들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ATIS나 NEFIS 정도를 제외하면 ‘위안부’ 관련 연합군 첩보기관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위안부’ 관련 심리전 기획을 고민했던 OSS나 OWI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첩보기관에서 ‘위안부’ 문제를 접했던 실무자들, 특히 미국계 일본인 2세(NISEI)들에 대한 연구 및 추가적인 자료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계 일본인 2세 이외에도 맥아더가 지휘한 연합군최고사령부(SCAP)의 정치고문이었던 에머슨(John K. Emerson)의 경우, OWI의 ‘위안부’ 관계 심문보고서의 작성자로 등장하고 있다.

넷째, 새로운 자료 발굴과 관련하여 특히 NARA 자료의 경우 자료의 원소장처 정보

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자료 원본을 검증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NARA의 문서분류가 우선적으로는 생산기관, 그 하위 분류에서는 주제, 지역, 일시 등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의 확장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위안부’ 자료의 이중적 희박함을 고려하면, ‘위안부’ 관계 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생산되는 맥락 속에서 같이 생산된 자료들을 파악하고 수집할 때, ‘위안부’ 자료의 의미와 맥락을 한층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은 연구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대로 지금까지는 발굴이 미진한 해군 및 해병대 문서군에 대한 발굴 작업이 더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잘 알려진 첩보기관들 이외에 각 지역방면군의 하부 첩보조직에 대한 접근 및 자료 발굴을 시도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심리전과 전범재판 이외의 주제에서 ‘위안부’ 자료가 발굴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다섯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및 각 국 자료들과의 교차 분석 및 관계 분석을 더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장 흥미로운 작업 중 하나는 한국에서 축적된 방대한 양의 증언들과 연합군 자료들을 교차해보는 것이다.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의 경우,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두 권의 사례집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⁶⁾ 또한, 이는 이러한 교차분석은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도 열어준다. 일례로 OSS에서 작성한 심리전 전단의 경우, 일본군이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갈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지역에서 수집한 소문(Rumor)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연합군 자료를 ‘위안부’의 존재와 일본의 잔학함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만 본다면 이 자료의 가치는 무한히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양한 자료와 연구를 통해 일본이 중국 지역에서 수많은 위안소들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이를 연합군의 인식과 실천을 보여주는 자료로 파악한다면, 그래서 기존 자료들과의 교차 및 관계 분석을 통해 이들의 심리전 계획 및 방침들의 경과, 의미, 효과 등을 분석한다면 연구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

6)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 2018,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1, 푸른역사;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 2018,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2, 푸른역사

The Resources Related to the “Comfort Women” Kept in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¹⁾

| KWAK, Kwi Byung

1. Introduction: Data Fetishism and Gaps in Data Studies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August is the month when people’s attention to the “Comfort Women” issue is higher than ever. Ironically, the interest to this issue is becoming increasingly enthusiastic ever since the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was signed on December 28, 2015, which hampered even academic research on the “comfort women” issue.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August hold a variety of events, and major broadcast and press agencies produce and release special programs and reports in commemoration of the “Comfort Women” Day.

1) Please refrain from referencing this paper as it is intended for a presentation and is not fully complete.

At the same time, an unprecedented level of expectation is building up on new “comfort women” resources as well. In particular, since the research team led by professor Chung Chin Su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7 released a footage showing Korean (Joseon) “comfort women,” the attention on “comfort women”-related records started to go beyond documents and photographs toward videos. It seems that there is a common expectation in the enthusiastic interest surrounding the resources, that is, new data will serve as evidence to leave Japan with no choice but to accept legal liability for the “comfort women.” There seems to be a huge expectation that new evidential data to prove forced mobilization will be discovered even under the framework promoted by Japanese historical revisionists with the leadership of Prime Minister Abe. While various political conditions make it difficult to find new resources in Japan or China, interest and expectations are growing on the “comfort women” materials from the Allied Powers kept in the United States to which access is relatively easier.

The public’s interest in the “comfort women” issue is of course welcomed, however, it is problematic that studies based upon the records relating to the “comfort women” have not been really active. In particular, there are few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Allies’ data kept in the United States.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little attention on how to make use of the data from the Allies to expand horizons of the “comfort women” research in addition to the mobilization and sufferings of the victims and to identify what could be studied from the resources, while only indistinctive questions are being raised on each individual record whether it is related to Korean “comfort women” or it is newly discovered information, or it is a proof to hold Japan legally responsible for without analyzing overall attributes of the resources in a thorough manner.

If it can be agreed that academic research on the “comfort women” issue is essential to enhance political and social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nd in consideration of the issue’s historical and multi-dimensional nature, multi-faceted and in depth studies on the “comfort women” data need to be built up continuously. Further, for such studies to be accumulated and advanced, a broader map must be drawn to encompass all of the “comfort women” resources that have been collected since the 1990s. Based on this map, the possibility of new data findings and research should be explored as a priority.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llies’ resources kept in the United States that have

been identified so far through the Archiving Project carried out by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ereinafter the “Archiving Project“), and to suggest tasks to be fulfilled in the future.

2. How the Allies’ Data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Archived

The “comfort women” data refers to the materials which mention the existence of the “comfort women” or comfort stations. The Archiving Project has developed a list of: resources of the Allies written in English among the records recognized or not recogniz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vailable online at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The Resource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United States I, II, III* published in 2018 by the research team led by professor Chung Chin Su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ords of the Allies related to the “comfort women” held at the National Archives of Records Administration (NARA), which are contained in *The General Headquarters Southwest Pacific Area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ATIS) Documents 1, 2, 3* published in 2017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n this process, it was validated and recorded whether the resources in the list had been published in the data books of the Japanese People’s Fund or Yoshimi Yoshiaki. Key categories that are organized per item include the name of material, sub-item, date, month and year of creation, author, recipient, geographical name 1 (country), geographical name 2 (region), annotation, document fil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original owner), owner, policy implications, notes and document type.

<Figure > An example of the list

문서번호	제목	연도	작성자	수신자	지명 1	지명 2	주요내용	문서파일	소유권자	정책적 함의	비고	문서종류
1000000001	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Psychological Warfare Team Attached to US army forces india-burma theater/Japanese Prisoner of War Information Report 100-10	1944	USA, War Rel. Admin.	USA, War Rel. Admin.	USA	USA	1944년 10월 10일, 미국 전쟁 정보국(OWI)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인도-버마 전역에 있는 일본 포로들의 현황과 처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포로들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그리고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포로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100-10-1001	미국 전쟁 정보국(OWI)	미국 전쟁 정보국(OWI)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인도-버마 전역에 있는 일본 포로들의 현황과 처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포로들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그리고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포로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
1000000002	100-100000	100-100000	1944	USA, War Rel. Admin.	USA	USA	1944년 10월 10일, 미국 전쟁 정보국(OWI)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인도-버마 전역에 있는 일본 포로들의 현황과 처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포로들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그리고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포로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100-100000-1001	미국 전쟁 정보국(OWI)	미국 전쟁 정보국(OWI)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인도-버마 전역에 있는 일본 포로들의 현황과 처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포로들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그리고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포로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
1000000003	100-100000	100-100000	1944	USA, War Rel. Admin.	USA	USA	1944년 10월 10일, 미국 전쟁 정보국(OWI)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인도-버마 전역에 있는 일본 포로들의 현황과 처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포로들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그리고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포로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100-100000-1001	미국 전쟁 정보국(OWI)	미국 전쟁 정보국(OWI)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인도-버마 전역에 있는 일본 포로들의 현황과 처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포로들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그리고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포로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
1000000004	100-100000	100-100000	1944	USA, War Rel. Admin.	USA	USA	1944년 10월 10일, 미국 전쟁 정보국(OWI)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인도-버마 전역에 있는 일본 포로들의 현황과 처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포로들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그리고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포로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100-100000-1001	미국 전쟁 정보국(OWI)	미국 전쟁 정보국(OWI)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인도-버마 전역에 있는 일본 포로들의 현황과 처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포로들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그리고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포로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
1000000005	100-100000	100-100000	1944	USA, War Rel. Admin.	USA	USA	1944년 10월 10일, 미국 전쟁 정보국(OWI)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인도-버마 전역에 있는 일본 포로들의 현황과 처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포로들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그리고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포로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100-100000-1001	미국 전쟁 정보국(OWI)	미국 전쟁 정보국(OWI)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인도-버마 전역에 있는 일본 포로들의 현황과 처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포로들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그리고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포로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

This list includes a total of 197 items. Any material that has multiple different authors, date of creation and subject of interrogation within itself is classified as separate items, even if they were treated as a single item in its source. For instance, in case of interrogation reports, different interrogation reports are sometimes compiled into a single document. If the information acquired by these reports is not divided per subject, but compiled as one source of data for the “comfort women,” it is treated as one item (e.g. Compilation of NEFIS Interrogation Reports Nos. 295, 330 and 334). However, if an individual report exists per subject of the interrogation and these reports are organized into an integrated report, each report is regarded as an independent item. For example, the outpost report from the United States Office of Wartime Information (OWI), WDC-289 (OWI Outpost WDC-289) is simply a bound document of the interrogation reports of Jameson Saw and Saw Hla Maung, with each report categorized as an individual item as they contain different information on the “comfort women” and comfort stations. The operations log is also just a result of binding individual logs with each log classified as a single item due to differences in the information and nature among the logs.

The current geographical names of countries have been used. The sub-items correspond to the document’s general contents and the parts where “comfort women”-related information is mentioned are marked. In the annotation, all terms referring to the “comfort women,” including comfort girls and prostitutes, are translated as “comfort women,” while all words indicating comfort stations such as brothels and consolation houses are translated as comfort stations. Please see the table below for acronyms of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able > List of Acronyms

Acronym	Source Language	Translation
ACTC	American Co-ordinated Translation Center	미국공동번역센터
ATIS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연합군번역통역부
CBI	China-Burma-India	중국·버마·인도
CIC	Combat Intelligence Center	전투첩보센터
CINCPAC	Commander in Chief Pacific Fleet	태평양함대사령관
CINCPOA	Commander in Chief Pacific Ocean Area	태평양지역사령관
CPMB	Captured Personnel and Material Branch	포로 및 노획물과
CSDIC	Combined Services Detailed Interrogation Centre	합동심문센터
JIC	Joint Intelligence Center	합동첩보센터
JICA	Joint Intelligence Collection Agency	합동첩보수집기관

JICPOA	Joint Intelligence Center Pacific Ocean Area	태평양지역 합동첩보 센터
MID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군사정보부
MIS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군사정보국
MISLS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Language School	군사정보국 언어학교
ONI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해군첩보국
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	전략첩보국
OWI	Office of War Information	전시정보국
PWB	Prisoner of War Branch	전쟁포로과
PWB	Psychological Warfare Branch	심리전과
PWT	Psychological Warfare Team	심리전팀
RNN	Royal Netherlands Naval	왕립 네덜란드 해군
SEA	South East Asia	동남아시아
SEATIC	South East Asia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	동남아시아번역심문센터
SINTIC	Sino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	중국번역심문센터
SOPAC	South Pacific Command	남태평양군
SWPA	South West Pacific Area	남서태평양전구

3. Source-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from the Allies in the United States

As stated above, the resources from the Allies compiled by the Archiving Project may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sources, and the resources have slightly different properties depending on their source. The following paragraphs provide considerations to be made in utilizing these records for research purposes.

1)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A total of 88 materials (including those redundant with other sources) related to the “comfort women” are from the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hereinafter WAM).²⁾ It has already been pointed out for several times, but an important attribute and issue of the archives

2) Available at <http://wam-peace.org/ianfu-koubunsho/>

or references produced by Japan under the leadership of WAM is that they do not contain the original full texts of the documents, but include extracts of the documents focusing on the parts that provid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mfort women.” As a consequence, even though the original documents contain the full set of contents, publications from WAM or other Japanese sources do not sometimes cover the entire contents of the documents. In this regard, the current list shows only the contents that can be viewed except for those included in the *The Resource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United States I , II and III or The General Headquarters Southwest Pacific Area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ATIS) Documents 1, 2 and 3*. Further, no information is provided on where the documents are kept (in case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location information, including document file, series and box data), which causes various restrictions in utilizing the materials for research. In terms of the number of documents created per organization, the Netherlands Forces Intelligence Service (NEFIS) has created the greatest number of records, 36 titles, followed by 26 from ATIS and 5 from the Southeast Asia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 (SEATIC).

2) *The Resource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United States I , II and III* 3)

The Resource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United States I , II and III (hereinafter the US data book published by the research team of professor Chung Chin Su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ins a total of 116 items, including 82 documents, 30 photos and three video clips (including those redundant with other sources). The primary characteristic of this book is that it has compiled the records in accordance with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NARA of the United States. As for documents, volumes I , II and III provide major documents relating to the “comfort women” from RG 165, RG 208 and RH 493, respectively.

3) Chung Chin Sung (Ed.) (2018), Ilbongun “wianbu” gwangye Miguk jaryo (일본군 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 The resource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United States) I , Seonin; Chung Chin Sung (Ed.) (2018), Ilbongun “wianbu” gwangye Miguk jaryo (일본군 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 The resource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United States) III , Seonin.

All of the photos and video clips, which correspond to RG 80, RG 111, RG 127, RG 208 and RG 313, can be found in volume III. Compared to other data books published in Japan or WAM's materials, this book has its main significance in the fact that it offers the full texts of the original documents and provides information on the records' original owners (location information). Major documents are translated in full, while only the contents that include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mfort women" and comfort stations and the parts which provide information requir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cument (beginning part of the document in most cases) are translated in other documents. This book's general annotation provides the history of data collection by the research team from 2015 through 2017 to serve as a guide in discovering resources relating to the "comfort women" together with an annotation for each RG-series and document.

<Table 1> Key record groups (RG)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38 Office of Chief of Naval Operations	80 Department of the Navy
111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125 Naval Judge Advocate General
127 United States Marine Corps	153 Judge Advocate General
165 War Department General/Special Staff	208 Office of War Information
226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313 Naval Operations Regiment
319 Army Staff	331 Allied Operational and Occupation Headquarters, World War II
389 Office of the Provost Marshal General	407 Adjutant General's Department
457 National Security Agency/Central Security Agency	493 United States Army in China- Burma- India Theater
496 General Headquarters Southwest Pacific Area	554 Far East Command/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 for the Allied Powers
3(MacArthur Archive) General Headquarters Southwest Pacific Area	

As RG 165 in volume I includes records from the Department of the Army General/Special Staff, it encompasses a variety of documents produced or circulated by major intelligence agencies of the Allied Powers, including MID/MIS, ATIS, SEATIC and CSDIC. Volume

Ⅱ contains materials produced by the OWI, which have not been of significant interest exclusive of the Psychological Warfare Team's record no. 49. Therefore, volume Ⅱ is very useful for understanding how the OWI perceived the "comfort women" issue in the process of interrogating and conducting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prisoners, and for learning potential use of the issue that the OWI considered. Volume Ⅲ mainly offers operations logs and weekly reports developed while the combined force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Y-Force, was conducting the Salween Campaign, which are important resources that show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Japanese Military's massacre of the "comfort women." Further, volume Ⅲ also includes most of the photos and video clips related to the "comfort women" that have been known (or misknown) so far. The OWI has produced the largest number of records, 29 items, followed by 16 from Y-Force and 7 from the MIS.

3) *The General Headquarters Southwest Pacific Area Allied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ction (ATIS) Documents 1, 2, 3*

The General Headquarters Southwest Pacific Area Allied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ction (ATIS) Documents 1, 2, 3 (hereinafter, data book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contains documents providing information in regards to the "comfort women" and comfort stations from research and interrogation reports produced by ATIS. Similar to the book published by professor Chung's research team, this book offers the full texts of the documents with information on where the records are kept, thus providing important resources for future studies. The fact that all the documents contained in this book are translated in full is also a huge advantage.

The book's annotation describes ATIS'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in detail as well as providing a thorough explanation regarding ATIS Research Report No. 120, the most comprehensive report for the "comfort women" system, on the report's two editions and on how the two editions have been made available. The book also includes a detailed annotation of the interrogation reports to show how many of the entire interrogation reports contain data relating to the "comfort women," from when the "comfort women" and comfort stations-related information started to appear in which categories, how this has changed over time,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channel in a thorough manner. In particular, the book points out that ATIS seems to have had an intention to use the issue for its psychological warfare until 1943 and started to lose interest from then, which is a critical analysis that requires more research in the future. A total of 45 items are contained in this book, 22 of which are not included in WAM.

4.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Allies' Resources in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team of professor Chung Chin Sung is planning to release a digital archive of the materials collected with the sponsorship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sidering that the resources collected in 2018 are still being compiled, the list of the Allies' materials organized by the Archiving Project needs to be supplemented once again. However, the outcome of the Project that is readily available as of August 2018 reveals a number of attributes worth considering for future research and findings.

1) Double Scarcity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 of the Allies' documents addressing the "comfort women" or comfort stations is that they are scattered in multiple record groups (RG). Documents regarding the "comfort women" are very scarc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se record groups, that is, taking account of the sheer amount of the documents produced and received by major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during World War II. For example, Entry NM 84 177 (Interrogation Reports, Directives, and Other Records Relating to Captured Personnel and Material 1940-1946) in RG 165 contained in the book from professor Chung's team shows only 14 documents of 149 pages related to the "comfort women" out of 24 boxes of records. This, however, could never be regarded as a small proportion compared to other entries where "comfort women" documents have been found. Any entry mainly composed of documents about the "comfort women" has not been found so far (it is highly likely that such entry does not exist

considering the progress of data discovery to date), and there are few cases where records relating to the “comfort women” constitute a folder in the box. This is because almost none of the agencies had plans to use the “comfort women” as a topic in their psychological warfare.

The “comfort women” data is scarce not only when compared to the entire documents produced by the Allies, but also when compared within these documents. Exclusive of the interrogation reports directly involving “comfort women” or operators of comfort stations as the subject of interrogation (SEATIC Interrogation Bulletin No. 2, OWI Psychological Warfare No. 49, HQ I Corps G-2 163rd Language Detachment Combined Enemy Alien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s⁴⁾, OSS China Theater “Attached memorandum “Korean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⁵⁾) or ATIS Research Report No. 120 which deals with comfort stations as a significant part of the Japanese military’s convenience facilities, reference to the “comfort women” or comfort stations in other documents in general is not longer than a paragraph.

2) Data Collection Focused on Resources Produced by Intelligence Agencies

Among the 161 documents, a total of 129 are from intelligence agencies such as ATIS, OSS, OWI, SEATIC, CSDIC(I). This is because exclusive of several documents on the “comfort women” mentioned above, most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comfort women” was collected in the course of interrogating Japanese soldiers who were captured as prisoners by the agencies or Allied soldiers who were detained and then released by the Japanese military. As you are aware of, the “comfort women” issue has not been addressed in war crime trials except for a very limited number of cases,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argest amount of information out there will be fragmented data collected during the war as part of psychological warfare. Also, in consideration of the data discovery process, records produced by the intelligence agencies are easier to access compared to information from other sources. For example, in case of NEFIS, the “comfort

4) An interrogation report for Kim, So-ran who was a “comfort woman” in the Philippines.

5) A report created by the OSS Headquarters in Kunming, China on 6 May 1945 which mentions 23 Korean “comfort women,” including Bak Yeong-sim, and comfort station operators who were detained by the Headquarters. It is commonly known as the Kunming Report.

women” and comfort stations are mentioned only in “X III. General” in 35 documents out of 36 documents in total. The resources produced by ATIS drew attention in various aspects as ATIS was affiliated to the General Headquarters South West Pacific Area led by MacArthur.

3) Lack of Resources Produced by the Navy and the Marine Corps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Allies’ resources that have been compiled so far under the Project is that there are few “comfort women” data produced by the Navy and the Marine Corps except for those related with the Shinohara trial and photographs of the “comfort women” taken in Chuck Island. This is because the Navy and the Marine Corps’ materials owned by NARA, the main channel of the Allies’ documents, are smaller than that of the Army, and the records are organized in a way that makes it difficult for researchers to understand. For instance, the answer to a special interrogation of Korean captives, MIS CPMB Extract of Interrogation 1538 Composite Report on Three Korean Navy Civilians, List No. 78, Dated 28 Mar 45, Re „Special Questions on Koreans,“ can also be found in RG 38, which is a Naval intelligence agency. While the Army’s records group (RG 165) is organized according to the abridgement numbers, the document series relevant to this issue is combined with other records in the Navy’s documents. Further, the fact that few second generation of Japanese Americans (NISEI) were dispatched as agents of the Navy’s intelligence agencies is considered to be a reason why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data was produced from interrogating Japanese soldiers. As a consequence, information in regards to the “comfort women” and comfort stations generated in South Pacific islands where the Navy and Marine Corps conducted their operations is not very visible in the Allies’ resources that have been disclosed so far.

5. Tasks for Future Findings and Advanced Research of the Allies’ Resources Relating to the “Comfort Women”

The following tasks should be considered taking account of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 resources related to the “comfort women” from the Allies that have been identified by the Archiving Project. First, continued archiving and research are needed in line with the discovery and release

of new resources. The research team of professor Chung Chin Sung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ppear to have plans to release new data as an archive and books in 2019.

Second, the Allies' unique perspective of the "comfort women" issue needs to be understood. The conventional approach that sees the Allies' records only as evidence to the existence of the "comfort women" or forced mobilization is fundamentally blocking potential multi-faceted research based on the records. In fact, Japan's legal liability for the issue is clearly revealed by various official documents and numerous testimonies by the "comfort women" victims. Therefore, the Allies' records should no longer be viewed merely as a defense tool against the small minority's denial of the very existence of the "comfort women" or the offensive argument of Japanese rightists that the "comfort women" victims lived a luxurious life. Instead, research should now advance further to understand why and in which context the Allies have produced such resources in regards to the "comfort women." What the resources reveal to us as much as the existence and sufferings of the "comfort women" is the Allies' perception and activities.

Third, considering the above, more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about the agencies and personnel who produced the Allies' materials. Besides ATIS or NEFIS, it is hard to say that any comprehensive research has been performed for the Allies' intelligence agencies in relation to the "comfort women." In particular, the OSS and the OWI require more research as they had considered planning psychological warfare involving the "comfort women" issue. Also, stronger efforts should be made to study and find more resources regarding the working level officials, in particular, the second generation of Japanese Americans (NISEI) who faced the issue at these intelligence agencies. In addition to the second generation of Japanese Americans, John K. Emmerson, who was a political advisor to the Supreme Command for the Allied Powers (SCAP) led by MacArthur, also appears as an author of the OWI's interrogation reports relating to the "comfort women."

Fourth, for new materials and particularly for NARA's records,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original owners of the resources. This is critical not only for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the records, but also for securing expandability of research considering that NARA's records are classified first by producers and then by theme, region, date and others in the lower categories. In consideration of the double scarcity of the "comfort women" data, more in depth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and context of the resources and advanced research will become available when researchers collect and interpret the "comfort women" resources together with other records that

were created in the same context. Also, as mentioned earlier, record groups from the Navy and the Marine Corps, which have not been sufficient, need to be discovered further. In addition to the well known intelligence agencies, other smaller organizations in each regional forces have to be accessed and studied as well to find new information. Further, it should be explored whether there is any possibility of finding data relating to the “comfort women” under other themes than the psychological warfare and war crime trials.

Fifth, cross and relational analyses on the testimonies of the victims and country-specific resources should be promoted. One of the most interesting work would be to cross analyze the massive testimonies accumulated in Korea and the resources from the Allies. The research team of professor Chu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part of this work, has already released two case books.⁶⁾ Such cross analysis opens possibilities for new research. For instance, flyers for psychological warfare produced by the OSS argue that the Japanese military will take young women as “comfort women,” of which grounds were rumors from around the area. As mentioned before, the value of the Allies’ records will drop indefinitely if they are regarded merely as evidence to prove Japan’s atrocities and the existence of the “comfort women.” Various data and research have already revealed to us that Japan operated numerous comfort stations in China. Thus, limitless possibilities for future research will unfold if these materials are understood as a demonstration of the Allied Power’s perception and actions, and the progress, implications and effects of their plans and policies for the psychological warfare are identified by cross and relational analyses with existing resources.

6) The Research Team of Professor Chung Chin Su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Kkeullyeogada, beoryeojida, uri ape seoda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 Dragged, abandoned and stood before us) 1, Pureun yeoksa; The Research Team of Professor Chung Chin Su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Kkeullyeogada, beoryeojida, uri ape seoda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 Dragged, abandoned and stood before us) 2, Pureun yeoksa.

保存在美国的“慰安妇” 档案与资料的现状与课题¹⁾

| 郭贵炳 (上海师范大学)

1. 前言：资料物神主义与资料研究的空白

在韩国，每到8月份，人们对“慰安妇”问题的关注度就会超过以往任何时期。以2015年12月28日韩日之间达成的阻碍有关“慰安妇”的学术研究活动的“慰安妇”协议为分界线，对“慰安妇”的关注达到历史空前的热度。在“慰安妇”纪念日之际，官方与民间积极组织开展各种纪念活动，主要电视与舆论媒体争先恐后地制作与播出“慰安妇”特辑节目。

人们对新发掘的“慰安妇”资料的期待超过以往任何时期。在2017年，首尔大学郑镇星教授率领的研究小组公开了朝鲜人“慰安妇”的黑白影像，从此以后，人们所关注的有关慰安妇的资料，从档案与照片，逐步扩展到影像资料的范围。对慰安妇影像资料的关注持续高涨都有共同的期待，即新发掘的资料会成为日本无可反驳的证据，让日本承认“慰安妇”历史，承担相应的法律责任。面对日本安倍首相以及日本历史修订主义者提出的逻辑与主张，很多人急切盼望证明“强征”慰安妇的新证据之出现。特别是，由于日本和中国新档案发掘工作正在面临各种政治因素的限制，人们更加关注保存在美国的“慰安妇”档案，因为美国的档案相对于其他国家而言更加容易接触。

1) 本文是发言稿，缺乏完美，请不要援引。

人们对“慰安妇”问题给予高度关注是值得欢迎的，尽管如此，以“慰安妇”资料为基础的研究发展则不尽如人意，如对保存在美国的联合军资料之特点与内容几乎不存在任何研究，联合军资料的特点尚未得到详细研究，并且对联合军资料的研究与分析都是千篇一律的，只能停留在是否与“慰安妇”有关、是不是新发掘的、是不是能够证明日本需承担法律上责任的证据等。我们根本没有深入思考以联合军资料为基础的研究方向如何，对于除了解强制动员“慰安妇”与受害情况以外，应该如何利用联合军资料进一步扩大“慰安妇”研究的范围与水平等内容也毫无关注与准备。

如果能够认同有关“慰安妇”问题的学术研究是政府与市民社会的政治、社会力量进一步提高之需，同时考虑到“慰安妇”问题的历史性与多面性特征，我们就会了解为什么迫切需要坚持多边的、深入的研究“慰安妇”资料。慰安妇资料的研究与发展需要以从上世纪90年代积累的“慰安妇”资料为基础绘制“慰安妇”资料之地图，并以此为基础发掘新资料与寻找新研究方向。本文的宗旨在于通过东北亚历史财团的目录工作（以下简称“目录工作”）所掌握的保存在美国的联合军资料之现状与性格进行摘要整理，并提出今后研究课题与研究方向。

2. 保存在美国的联合军资料归档整理方法

“慰安妇”档案是指提到“慰安妇”或慰安所的资料。目录工作范围涉及到从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战争与和平中的妇女资料馆）网站提供的日本政府承认以及否认的资料中用英文撰写的联合军资料、首尔大学郑镇星教授研究小组于2018年出版的《有关日军“慰安妇”的美国资料》I、II、III 和国史编撰委员会于2017年出版的《西南太平洋地区总司令部联合军笔译口译部（ATIS）档案》1、2、3的美国国家档案与文件署（NARA）的联合军“慰安妇”有关资料。与此同时，我们对目录工作之资料是否收录于日本国民基金资料集或吉见义明教授资料集进行了确认与整理。各项目的范畴(category)有资料名、细项、编写年月日、编写人、收信人、地名1（国家）、地名2（地区）、解题、文件夹（原来收藏位置（Location）），收藏位置，政策上含义、备注与档案类型等。

<图二> 归档整理例子

以197个项目 (Item) 为主整理资料。某一个档案在原来收录的资料集上被列为一个项目, 但是如果编写机构、编写日期、询问对象不同, 就会将它列为另外的项目; 有些询问报告书由几件询问报告书合编在一起, 不是根据询问对象而分类, 而是作为合订本提供“慰安妇”信息, 它被列为一个项目 (如荷兰东印度军情报局询问报告合编第295、330、334号 (Compilation of NEFIS Interrogation Reports Nos. 295, 330, 334)); 每个询问对象都有个人询问报告书, 但是它被列为合编报告书, 对此我们将个别报告书以个别项目分类, 如战时新闻处 (OWI) 的前哨基地报告书 WDC-289(OWI Outpost WDC-289), Jameson Saw询问报告书与Saw Hla Maung询问报告书合编在一起, 但是因两个询问报告书提供的“慰安妇”与慰安所信息不同, 我们将它分类为个别项目; 作战日记也是个别报告书的合订本, 但每个日期的信息特征不同, 因此把它列为个别项目来整理。

国家地名以现有的国家地名为准, 在各细项上, 对档案所包括的大目录进行整理, 对包括“慰安妇”内容的目录位置进行标记; 在解题内容上, 将comfort girl、prostitute等代表“慰安妇”的词汇都翻译成“慰安妇”; 将brothel、consolation house等代表慰安所的词汇都翻译成慰安所。各机构的简称如图所示。

<表 2> 简称一览表

简称	原文	译文
ACTC	American Co-ordinated Translation Center	美国共同翻译中心
ATIS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联合军笔译口译部
CBI	China-Burma-India	中国、缅甸、印度
CIC	Combat Intelligence Center	战斗情报中心
CINCPAC	Commander in Chief Pacific Fleet	太平洋舰队司令官
CINCPOA	Commander in Chief Pacific Ocean Area	太平洋地区司令官
CPMB	Captured Personnel and Material Branch	俘虏与被俘获物处
CSDIC	Combined Services Detailed Interrogation Centre	联合询问中心
JIC	Joint Intelligence Center	联合情报中心
JICA	Joint Intelligence Collection Agency	联合情报收集机构
JICPOA	Joint Intelligence Center Pacific Ocean Area	太平洋地区联合情报中心
MID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军事情报部
MIS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军事情报局
MISLS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Language School	军事情报局语言学校
ONI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海军情报局

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	战略情报局
OWI	Office of War Information	战时情报局
PWB	Prisoner of War Branch	战争俘虏处
PWB	Psychological Warfare Branch	心里战处
PWT	Psychological Warfare Team	心里战小组
RNN	Royal Netherlands Naval	荷兰皇家海军
SEA	South East Asia	东南亚
SEATIC	South East Asia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	东南亚翻译询问中心
SINTIC	Sino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	中国翻译询问中心
SOPAC	South Pacific Command	南太平洋军
SWPA	South West Pacific Area	西南太平洋战区

3. 保存在美国的联合军资料来源之特点

目录工作所整理的联合军资料来源大概分为三类，每个来源都有不同特点，在研究的过程中利用目录的时候需要注意如下内容。

1)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以下简称WAM, 战争与和平中的妇女资料馆)提供的“慰安妇”资料总共88件(包括其他来源的重复资料)²⁾。以WAM为首的日本资料集与存档的特点与问题是它们不是直接收录“慰安妇”有关原始档案,而是只能发掘包括“慰安妇”信息的目录和局部收录,这一问题一直受到指责,尽管从原始档案中可以确认整个目录,但是不能从WAM或日本出版的资料集中了解慰安妇的内容。考虑到这一点,我们的目录工作整理好可掌握的目录,但下面所提到的《有关日军“慰安妇”的美国资料》I、II、III和国史编撰委员会于2017年出版的《西南太平洋地区总司令部联合军笔译口译部(ATIS)档案》1、2、3除外。另外,WAM不提供收藏地点来源信息(就NARA而言,指档案类、系列、箱子等收藏地点信息),作为研究参考资料有很多限制,就信息来源提供出处而言,NEFIS为36件位列第一,ATISA为26件,SEATIC为5件。

2) 资料相关网站 <http://wam-peace.org/ianfu-koubunsho/>

2) 《有关日军“慰安妇”的美国资料》 I、II、III³⁾

《有关日军“慰安妇”的美国资料》I、II、III（以下称为“首尔大学郑镇星研究小组资料集”）以档案82件、照片30件、影像3件等116个项目进行整理（包括其他来源的重复资料）。首尔大学资料集的主要特点是根据美国NARA的档案分类体系收录与整理档案。就档案而言，第一卷 RG165、第二卷 RG208、第三卷 RG 493 收录主要“慰安妇”档案；照片与影像都收录在第三卷，如RG 80、RG 111、RG 127、RG 208、RG 313等。与日本出版的资料集与WAM 的日本资料相比，首尔大学资料集直接收录有关“慰安妇”原始档案，并提供资料的原收藏处信息，其意义深远；对主要档案提供全文翻译；对一般档案提供必须掌握的信息（主要集中在开头部分）；给“慰安妇”及慰安所有关档案的目录提供翻译；就资料集解题，提供研究小组从2015年到2017年的资料收集历史沿革，这为今后发掘慰安妇资料指明方向；对每个RG-系列与各件档案提供解题。

<表 1> 日军“慰安妇”有关主要档案类别 (RG)

38 海军作战部长室	80 海军部
111 通信监室	125 海军法务监室
127 美海军	153 军法务监室
165 战争部普通/特殊参谋部	208 战时情报局
226 战略情报局	313 海军作战队
319 陆军参谋部	331 第二次世界大战联合作战及作战司令部
389 宪兵监室	407 副官部
457 国家安保局/中安安保局	493 中国、缅甸、印度战区美陆军
496 西南太平洋总司令部	554 远东军事司令部·联合军总司令部
3 (麦克阿瑟存档) 西南太平洋总司令部	

卷 I 的 RG 165 主要收录陆军部普通/特殊参谋部的资料，MID/MIS、ATIS、SEATIC、CSDIC等当时联合军内部主要情报组织编写的或阅览的档案门类齐全；卷 II 收录了除心里战49号以外没有得到关注的OWI编写的资料，因此可以了解到OWI在俘虏询问以及心里战的过程中对“慰安妇”问题的认识、对慰安妇信息的可用性思

3) 郑镇星 编, 2018, 《有关日军“慰安妇”的美国资料》I 先人出版社 (音译); 郑镇星 编, 2018, 《有关日军“慰安妇”的美国资料》II 先人出版社 (音译); 郑镇星 编, 2018, 《有关日军“慰安妇”的美国资料》III, 先人出版社 (音译)

考等；卷Ⅲ收录美中联合军人Y军（Y Force）在怒江战役(Salween Campaign)的过程中编写的作战日记与周间报告，这反映了日军屠杀“慰安妇”的情况，是非常重要的资料，并且收录至今为止被公开的（或者被误传的）“慰安妇”照片与影像；就编写机构而言，OWI的资料最多，为29件，Y军的为16件，MIS为7件。

3) 《西南太平洋地区总司令部联合军笔译口译部（ATIS）档案》1、2、3

《西南太平洋地区总司令部联合军笔译口译部（ATIS）档案》1、2、3（以下简称“国史编撰委员会资料集”）主要收录了ATIS编写的研究报告书(Research Report)与询问报告书(Interrogation Report)系列中关于“慰安妇”及慰安所的档案。国史编撰委员会资料集与首尔大学郑镇星研究小组资料集相同，都收录了档案全文并提供了收藏地点信息，为今后的研究提供了重要信息，并且对收录的原始档案提供专门翻译，这也是该资料集的优点。

解题详细介绍ATIS机构的特点与活动内容；对“慰安妇”制度的综合性报告书之ATIS研究报告书120号(ATIS Research Report no.120)的两个版本得到公开的过程提供详细的解释；对询问报告书提供详细的解题，如主要分析询问报告书中包括“慰安妇”信息的档案有几件；慰安妇与慰安所信息出现的时期与分类；随着时间的推移，这些信息有什么样的变化；报告书的发布有什么特点等。尤其是该资料集提出“在1943年之前，ATIS有意将慰安妇与慰安所作为心里战的手段来利用，但是1943年以后，对慰安妇与慰安所信息的关注度就开始下降”，这种思考告诉我们应该深入研究有关慰安妇与慰安所。该资料集总共收录了45件，其中没有收录进W.A.M的有22件。

4. 保存在美国的联合军资料的特点

首尔大学郑镇星研究小组在首尔市的支持下成功收集了很多资料，计划以数字存档的形式公开，考虑到正在整理的2018年收集的资料，在目前目录项目里的联合军资

料目录需要进行补充与完善。尽管如此，通过目前的目录工作，仍可以发现一些关于研究以及今后新发掘时值得考虑的特点。

1) 双重稀缺性

关于“慰安妇”及慰安所的联合军档案之最重要特点是其分散于很多档案分类(RG),考虑到有关RG的特点,即二次世界大战时期美国的主要机构编写与发布的档案总量,关于慰安妇的档案数量则很少。如首尔大学郑镇星研究小组资料集收录的RG 165 Entry NM 84 177(Interrogation Reports, Directives, and Other Records Relating to Captured Personnel and Material 1940-1946),总共24个箱子,其中关于“慰安妇”的档案只有14件,页数仅为149页,而且与“慰安妇”档案被发现的其他entry相比,这不算是很少的比重。以“慰安妇”档案为中心构成的entry尚未被发现(考虑到至今为止的发掘情况,实际上不存在的可能性更高),而且连以文件夹的形式保存在箱子里的情况也没有。这是因为除了OWI与OSS以外,几乎没有情报机构准备利用“慰安妇”作为心里战的材料。

此外,“慰安妇”资料在联合军编写的整个资料中微乎其微,在档案里的有关内容也很少。除了以慰安妇或业者为对象的询问报告书(SEATIC Interrogation Bulletin No.2, OWI Psychological Warfare No.49, HQ I Corps G-2 163rd Language Detachment Combined Enemy Alien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s⁴⁾, OSS China Theater “Attached memorandum “Korean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⁵⁾)或日军便利设施中主要介绍慰安所的 ATIS Research Report No.120以外,提到“慰安妇”或慰安所的内容都不超过一个段落的分量。

2) 以情报机构生产资料为中心的收集

总共161件档案资料中有129件是由ATIS、OSS、OWI、SEATIC、CSDIC(I)等情报机构编写的。据估计,除了以“慰安妇”为主题的几件档案以外,有关机构对日军俘

4) 菲律宾地区“慰安妇”金邵兰(音译)询问报告书

5) 1945年5月6日OSS中国昆明地区司令部编写的报告书,提到当时在司令部拘留的慰安所业者与朴永心等朝鲜人慰安妇2名,被广泛称为昆明报告书。

虏、被日军拘禁的联合军俘虏询问的过程中获得的信息中会包括有关“慰安妇”的信息。众所周知，除了战犯审判等少数案例以外，几乎没有提到“慰安妇”问题。在战争期间，因心里战的需要而收集有关慰安妇的简单信息占比最多，这种可能性不可排除在外。考虑到档案发掘过程，接触情报机构资料相对于其他机构的资料更为容易，以NEFIS为例，总共36件档案中除了1件以外，仅在X III. General项目中提到“慰安妇”与慰安所的内容。ATIS属于麦克阿瑟率领的西南太平洋（SWPA）司令部，因其所属机构的特性，引起多方面的高度关注。

3) 海军以及海兵编写的资料不足

至今为止的目录工作中联合军资料的主要特点是除了筱原审判资料或翡翠岛“慰安妇”照片以外，几乎没有海军以及海兵陆战队编写的“慰安妇”资料。这是因为收集联合军档案的主要渠道之NARA的海军以及海兵陆战队有关资料远远少于陆军资料，其整理方式让研究人员很难掌握，就朝鲜人俘虏的特别询问内容 MIS CPMB Extract of Interrogation 1538 Composite Report on Three Korean Navy Civilians, List No. 78, Dated 28 Mar 45, Re “Special Questions on Koreans”而言，在海军情报机构RG38上可以发现同样的档案。陆军部档案分类（RG165）的档案按照摘要号码整理，与此相比，海军部档案与其它档案则混在一起，而不被列为有关档案系列；第二代日裔美国人（NISEI）没有被派遣到海军情报机构也是海军情报机构的日军俘虏询问资料较少的主要原因之一，而从至今公开的联合军档案中很难发现海军及海兵陆战队作战的南太平洋岛屿的“慰安妇”和慰安所的信息。

5. 关于“慰安妇”的联合军资料发掘以及今后研究发展所需的课题

通过目录项目掌握的联合军“慰安妇”有关资料之特点与现状，我们可以对如下课题进行研究。首先，我们根据新资料的发掘与公开，同步进行归档整理与研究。在2019年，首尔大学郑镇星研究小组与国史编撰委员会计划以存档与资料集的形式去公开新发掘的“慰安妇”资料。

第二，需要了解联合军在对待与接触“慰安妇”问题上的观点。将联合军资料作为证明“慰安妇”与强制动员等证据的消极态度阻碍了利用联合军资料的多边研究。事实上，“慰安妇”幸存者的证言与已发掘的公文清楚地反映了日本需要承担法律上责任这一点。因此，我们需要先摆脱消极的态度，如利用联合军资料反驳否认“慰安妇”的主张或日本右翼关于“慰安妇享受奢侈生活”的主张，而需要研究分析联合军所编写的慰安妇资料的基本脉络与目的。联合军资料充分显示联合军的认识与活动，这种信息的重要性不亚于“慰安妇”的存在与受害情况。

第三，考虑到上述的两点，关于联合军资料的编写机构与编写人的研究需要进一步发展，除了ATIS或NEFIS以外，对其他“慰安妇”有关联合军情报机构的研究尚未得到全面发展，特别是需要深入研究OSS或OWI的资料，因为这两家机构曾经考虑过将“慰安妇”用于心里战。不仅如此，对接触“慰安妇”问题的情报机构操作人，尤其是第二代日裔美国人(NISEI)的信息需要进一步发掘，另外，麦克阿瑟指挥的联合军最高司令部(SCAP)的政治顾问(John K. Emmerson)是OWI关于“慰安妇”的询问报告书编写人，对他的研究也是值得考虑的。

第四，我们需要更加关注新资料的发掘，尤其是NARA资料的原始收藏地点。这不仅对原始档案的检验非常重要，而且考虑到NARA的档案分类根据编写机构、主题、地区、日期等，对进一步扩大研究范围也非常重要。尤其是，考虑到“慰安妇”资料的双重稀缺性，我们根据同一个基本脉络所编写的慰安妇资料和其他资料，可以深入了解“慰安妇”资料的意义与脉络，促进研究活动向更好的方向发展。此外，需要努力发掘海军以及海兵陆战队资料等发掘欠缺的档案；除了广为人知的情报机构以外，还要对各地区方面军下属情报机构的资料进行发掘；需要深入思考除了心里战与战犯审判以外的其他领域能不能扩大发掘慰安妇资料。

第五，需要进一步发掘“慰安妇”受害者证言以及扩大保存在各国档案之间进行相互交叉分析与关系分析。将韩国所收集的大量证言与联合军资料互相比较也是值得考虑的。首尔大学郑镇星研究小组已经出版了实例集两册。通过交叉分析会发现新的研究可能性，如OSS的心里战传单内容中有“日军强征年轻女性充当‘慰安妇’”，该信息来源于当地传闻(Rumor)。如果将联合军资料简单地视为证明“慰安妇”与日

军的残忍行为的资料，该资料的价值大大缩水。我们已经通过大量资料与研究确认日本在中国大陆设置与管理很多慰安所，如果我们从另外的角度出发，将该资料视为反映联合军的认识与实践的资料，与已有发掘的资料进行交叉分析、关系分析，进一步研究分析心里战计划以及方针制定的过程、意义、效果，那么研究的发展将会有无穷无尽的可能性。

4. 태국자료

Patporn phoothong

(서울대 인권센터)

태국의 관점에서 본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역사적 자료:

1939-1945년 한국인 ‘위안부’의 체류 및 송환¹⁾

| 팟폰푸통 (서울대 인권센터)

태국 내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역사적 자료와 증거는 수십 년 동안 간과되어 왔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국의 상황에 대한 오해가 이러한 현상에 한몫을 하고 있다. 동시에 태국은 역사 교과서, 역사 수업 또는 박물관과 같은 공적인 공간을 통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태국이 했던 역할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많은 이들은 태국이 중립국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식의 부재는 전쟁기간 및 전후 상황에 대한 연구, 의문 또는 비판에 대한 침묵과 무지를 낳기도 했다.

태국의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대한 자료는 1) 태국 최고사령부 (Thailand Supreme Command Headquarters), 2) 물리적 증거, 3) 현지 정보원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서울대학교 정진성 교수 연구팀이 2015년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와 자료를 기록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수집되었다.”

** 前 서울대학교 정진성 교수 연구팀 연구원 (서울시가 후원한 일본 ‘위안부’ 관련 자료 기록 프로젝트에 참여)

- 1) 태국 최고사령부의 문헌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국에 주둔하던 일본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일한 공식적 정보의 출처다. 자료에는 대만 관료와 일본군 관계자 간의 대화 녹취본, 회의록과 명령서가 포함되어 있다. 최고사령부의 문헌에는 여러 지역에서 일본군이 보인 행동과 움직임, 대만 여성들에게 자행한 폭력에 대한 기록, 그리고 태국 위안부, 아시아 위안부 및 태국 소재 위안소와 관련한 기타 신뢰할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에 발생한 사건들이 상술되어 있다. 주로 송환 전에 수용소에 머물렀던 한국과 대만의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이 자료에는 이들의 이름과 함께 연합군이 태국에 주둔하던 기간에 발생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최고사령부 자료는 태국 국가기록보관소 (National Archives of Thailand)에 보관되어 있으며 최근에서야 공개되었다. 군사 문건인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며, 연구자들은 글을 쓰거나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읽고 기록할 수는 있으나 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어떠한 형식의 사본도 만들 수 없다.

- 2) 물리적 증거의 경우 일본군이 주거구역 또는 군영으로 사용한 공간까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지만, 태국 최고사령부의 문헌에 위안소로 사용되었다고 언급된 바 있는 건물들이 아직 남아있다. 방콕, 깐짜나부리 및 푸껫주에 이러한 건물들이 위치해 있다.

- 3) 현지 정보원은 대부분 일본군이 주둔했던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현지인으로서 일본군의 거동 및 행태와 일본군이 사무용이나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장소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아시아 여성들이 특정 건물 또는 군영으로 일본 군인을 따라가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모습을 봤다고 회상했고, 또 일부는 종전 후 남아있던 ‘위안소’를 목격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태국과 제2차 세계 대전

태국 위안부에 대해 태국 사회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태국은 논란이 될만한 역할을 담당했다. 태국은 일본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 중립을 선언했다. 1940년대에 이르러 태국은 추축국이 유럽에서 승전하고 일본이 인도차이나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확보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즉 태국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점에 달한 것은 태국이 1942년 1월 25일 미국과 그레이트 브리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을 때였다.

태국은 태국만을 따라 위치한 지역으로 일본군이 파병된 1941년 12월 8일을 기점으로 제2차 세계 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일본은 태국을 점령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으나 태국을 통해 버마, 말레이시아 및 인도로 이동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힘이 없었던 태국은 일본 정부와 휴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맹관계를 구축했다.

2주가 지난 1941년 12월 21일, 삐불 (Pibul)이 이끄는 태국 정부는 일본과 또 하나의 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을 통해 태국과 일본은 자주권 및 독립의 문제와 관련한 상호존중 원칙에 합의하고 서로를 정치적,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로 다시 한번 약속했다. 또한 다른 국가와 전쟁이 발발한 경우 독자적으로 어떠한 정전 또는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조약에는 태국이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전쟁을 지원한다면 태국이 영국까지 영토를 수복하는 과정을 일본이 돕기로 합의한 내용의 기밀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태국은 일본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보유한 유일한 동남아시아 국가였다. 태국 정부는 일본을 '위대한 동맹'으로 선포하고 모든 태국인들에게 일본군에 협조하고 도움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군에 반하거나 일본군을 공격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었고 사형이 집행된 경우도 있었다.

1940년 12월 21일에 체결한 태국-일본 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15만명 이상의 일본군이 태국으로 파병되었다. 방콕과 주요 지역에 일본군 본부가 수립되었고,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태국 전역에 군영이 설치되었다. 또한 일본군은 병력, 식량 및 무기를 버마로 수송하기 위해 태국을 가로지르는 철도 건설에 대한 허가를 얻었다. 두 개의 철도가 태국-버마의 변경지역인 라농과 깐짜나부리에 구축되었다.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드러내는 바는 무엇인가?

이러한 자료는 태국 내 위안소 제도와 위안부의 존재를 증명함과 동시에 위안부 피

해자들이 처했던 상황이나 환경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료를 해석하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태국 최고사령부의 문헌은 7,894권, 247,309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1926-1968년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다.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1권: 태국 최고사령부 기록 (Series No. 1: Thailand Supreme Command Headquarters' Affairs), 2권: 동맹조정부 (Series No. 2: Department of Ally Coordination), 3권: 평화행정과 (Series No. 3: The Peace Administration Unit)에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 여성들의 이동과 이주에 대한 정보

태국군의 자료에 따르면 15만명 이상의 일본군이 태국에 파병되었다. 일본군의 본부는 방콕과 주요 지역에 건립되었고, 군영 또한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태국 전역에 설치되었다. 기록을 보면 일본군 중 일부는 태국 도착 후 태국에만 주둔한 것이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와 같은 이웃국가로도 파견되었다. 또한 일본군은 병력, 식량 및 무기를 버마로 운반하기 위해 태국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도 했다. 태국-버마의 변경지역인 라농과 깐짜나부리에 두 개의 철도가 건설되었다.

아시아 여성들이 어떻게 태국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군이 춤폰에서 보인 움직임에 대한 보고서의 한 단락에는 춤폰으로 향하는 일본군 열차에 아시아 여성들이 탑승해 있었고, 깐짜부리로 이동하는 일본군을 따라가는 아시아 여성들을 랏차부리에서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군은 태국 전역에 주둔했으나 군사 문헌과 현지 정보원들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에 위안소와 아시아 여성들이 있었다. 방콕, 깐짜나부리, 랏차부리, 우본라차타니, 춤폰, 푸켓 송클라 및 라농주에 위안소가 위치했던 것이다.

위안소 목록

번호	위치/상황	유형	출처	현장작업 결과
	방콕			
1	일본군이 군 매춘소 ‘뜨루 리 야’ 로 사용한 와이어리스 로드예 국왕의 조모가 거주한다 . 와이어리스 로드예 위치한 이 주택은 24 번 집 근처에 있다 .	군 매춘소	2.6.5/23, 2.6.5/97	장소를 발견했다
2	쭈랑롱곤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매춘소	군 매춘소	2.8/137	장소를 발견했다
3	수리왕 로드예 위치한 루에움롱씨의 자택	유흥지	2.6.5/97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4	씨프랴야, 차럼데 다리에 위치한 사냐 로아하카엔씨의 자택	군 매춘소	2.6.5/97	장소를 발견했다
5	‘게이사’ 건물이 불탔다	매춘소	2.7.3/121	
6	수리왕 로드, 하구운소	식당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7	수리왕 로드, 니가구소	식당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8	짜루엔그롱 로드, 푸이킷짜	술집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9	짜루엔그롱 로드, 난영	술집 및 클럽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10	친와류	일반병사용 클럽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11	위트유 로드, 수루야	식당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12	사톤 로드, 니구구	클럽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13	수리프라야 로드, 타케노야	클럽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14	수리왕 로드, 매눔 호텔	호텔	2.7/234	장소를 발견했다
15	수리왕 로드, 초와류	호텔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16	수리프라야 로드, 시뉴사	클럽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17	수리프라야 로드, 푸타바	클럽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18	파야타이 로드, 야요이	클럽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19	씨프랴야에 위치한 주택이 군 매춘소로 사용되었는데, 이 집은 일본인의 감독 하에 태국인이 운영하던 매춘소였다 .	군 매춘소	2.6.5/97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20	사톤지구, 타일랜드 호텔	호텔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21	수리왕 로드, 하구운소	식당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22	수리프라야 로드, 기린 비어홀	술집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23	수리프라야 로드, 사포로 비어홀	술집	2.7/234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24	수리왕 로드, 트로가데로	여성을 부를 수 있는 호텔	2.7/234	
25	파야타이 로드 730 번 주택	군 매춘소	2.8/137	장소를 발견했다
26	누군가 ‘게이사’ 건물에 불을 붙여 니아 쿤솜삿씨의 자택을 불태웠다 .	‘게이사’ 건물	2.7.3/121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깐짜부리		2.7.3/27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27	반누에, 팍프락 로드, n.46-47	식당	2.7.3/27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번호	위치/상황	유형	출처	현장작업 결과
28	간짜나부리에서 일본 '성매매 종사자' 발견		2.7.3/27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29	반누에, 팍프락 로드, 45	군 매춘소	1.13/60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30	반타이, 18 번 도로, n. 8	군 매춘소	1.13/60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31	n. 164 (반누에, 퀘야이강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맞은편)	군 매춘소	1.13/60	장소를 발견했다
32	반누에, 팍프락 로드, n. 4-5-6	커피숍	1.13/60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츄폰			
33	태국과 일본 군인들이 츄폰에 위치한 매춘소에서 싸웠다	매춘소	2.7.3.2/47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랏차부리			
34	일본군이 랏차부리에서 '성매매 종사자' 를 상대로 경범죄를 자행했다	매춘소	2.7.3/31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35	반풍지구	매춘소	1.13/69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송클라			
36	중니안와타나 호텔과 2 층 건물	군 매춘소	2.5.2/8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푸켓			
37	해군 클럽으로 사용하던 그라비 로드의 코너에 위치한 3 층 규모의 호텔건물을 일본군이 임대했다	군인 클럽	2.5/7	장소를 발견했다
	라농			
38	현지인들이 라농, 그라부리 지구, 마무 소관구에 위치한 일본 군영에서 아시아 여성들을 목격했다.	군영	현지인	장소를 발견했다

태국 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처한 환경

태국 소재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처했던 환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나, 필자는 이들이 경험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공격성을 파악하기 위해 태국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태국은 일본의 동맹국이었으며, 일본과 태국의 관계로 인해 태국의 일본군은 최전방이나 점령국에 주둔하던 군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둘째, 태국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다수가 철도 건설과 자원 조달을 담당했고 동남아 지역 (특히, 버마, 인도차이나 및 말레이반도) 의 핵심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셋째, 일본군의 다수가 부대 밖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한편 태국은 일본군을 위해 ‘휴식 및 유흥구역’을 제공했다. 자료를 보면 일본과 태국의 민간인들이 운영하던 여러 개의 클럽, 나이트클럽, 식당, 술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군이 태국의 도지사들에게 ‘성매매 종사자’로서 일본군을 위해 봉사할 태국 현지 여성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군인 대비 ‘여성’의 비율이 최전방이나 전장에 위치한 위안소에 비해 적지 않았고, 군영을 벗어나 외부로 자유롭게 나가는 등 일본군이 아시아 여성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했을 가능성도 경우에 따라 존재했을 것이다.

송환

제2차 세계 대전 중 아시아 여성들이 태국에 입국한 과정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이들의 본국 송환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풍부하다. 이러한 정보에는 명부, 인원, 아시아 여성들이 수용소로 보내지기 전에 거주했던 지역, 아시아인 민간인들을 자국으로 실어 보낸 선박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이 막을 내리면서 연합지상군 (영국군이 지휘)의 감독 하에 태국군은 아우타야도에 위치한 군기지 안에 수용소를 건립했다. 주로 한국과 대만의 민간인들이 이 수용소로 보내졌고 일본군과 일본의 민간인들은 다른 지역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한 공문에 ‘위안 부녀 (comfort girls)’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이 해방되었을 때 시암의 연합지상군 (Allied Land Force)이 보낸 서신에는 ‘위안 부녀 (태국어로 ‘Nang Bum Rer’로 표기되어 있다), 간호사 또는 군 관계자인 한국인과 대만인들을 아우타야 수용소로 모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순수한 민간인이든, 위안 부녀든, 간호사든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일본군과 관계된 자이든 한국인 및 대만인 여성은 전원 아우타야 수용소로 보낼 것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태국어로 작성되어 있다, 비고: 원본은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군 인력이 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한국인 및 대만인 여성들과 이들의 자녀에 대한 명부에서도 중요한 정보가 드러난다. 이 명부에는 직위, 성명, 연령, 국적, 소속, 수용소 도착일 및 비고사항 (탈출일자), 성별 (아동에만 해당)과 연령이 기록되어 있다. 명부에 따르면 수용소에 아동 18명, 한국인 여성 291명, 태국인 여성 10명이 거주했고, 네 명의 아동이 수용소에서 태어났다. 모든 여성들은 일본 의무여단 (Japanese Medical Battalion)의 보조 간호사로 기록되어 있고, 여성 7명이 수용소에서 탈출했다. 이들 전원은 1946년 5월 11일에 방콕에 도착할 예정인 SS 사라바셰호 (SS SARAH BACHE)를 통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결론

태국 내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자료는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존재를 증명하는 근거이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일본군이 위안부라는 제도를 만들고 유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자료를 통해 위안부에 대한 지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구조적 및 문화적 폭력과 일본군이 여성에게 보인 행동을 무엇이 이끌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상황과 비교하여 태국에 파병된 일본군의 역할과 책임사항을 더욱 심화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고 군의 영역에서 성적 서비스를 위해 여성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Historical resources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from Thai perspective:

The Sojourns and Repatriation of Korean, Comfort Women' during 1939-1945¹⁾

| Patporn Phoothong

Former research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 Chinsung Research Team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ponsored project of archiving documents related to the Japanese “comfort women”)

The misperception on the status on Thailand during World War II contributes to historical resource and evidenc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ailand has been overlooked for decades. At the same time, Thailand does not genuinely discuss its role in relation to World War II in historical textbooks, historical classes or the public space e.g., museum. Many believe Thailand was a neutral country. The lack of knowledge is also led to the silence and ignorant in

1) “Materials used in this research were collected as the result of projects for archiving documents and resources relate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ich were conduc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 Chinsung Research Team with the sponsorship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in 2015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om 2016 to 2018.”

criticism or questions or studying the impact during and after the wartime.

In Thailand, the historical resources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can be divided into three components 1) confidential documents from the Thailand Supreme Command Headquarters 2) physical evidence and 3) local informants.

1) The Thailand Supreme Command Headquarters' documents are the only official primary sources that provide informa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tationed in Thailand during World War II. These materials include meeting minutes, written orders, and conversations recorded between Thai officials and Japanese military personnel. The documents include reports on the behavior and the movements of Japanese military in various areas, documentation of violence against Thai women, and other reliable information related to Thai comfort women, Asian comfort women and Thailand-based comfort stations. These documents included descriptions of incident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This mainly refers to Korean and Taiwanese military and civilians in detention camps before deportation; their names are recorded as well as incident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of Allied armies being stationed in Thailand. The Supreme Command documents are kept at the National Archives of Thailand and have only recently been made public. There is a restriction in using these military documents, the researchers are allowed to read and record as writing or typing but not allowed to do any form of copy e.g., photocopy or taking the picture.

2) Physical evidence, even the areas that were used by the Japanese army for residential areas or military camps have left the war far behind. However, there are still the buildings which are mentioned in the Thailand Supreme Command Headquarters' documents that used to be the comfort station. These building can be found in Bangkok, Kanchanaburi and Phuket province.

3) Local informants, most of the senior local people live in the areas where Japanese military used to stationed have clear memories regard the behavior and performance of Japanese military, the building and location where the military used for office or residents. Some

of them recall they saw Asian women followed the military or lived in the particular building or military camp. Some of them saw the remained 'comfort station' after the wartime.

Thailand and World War II

To understand the prevailing silence in Thai society about Thai comfort women, one must first consider the historical context of that time.

Thailand played a controversial role during World War II. At the beginning of World War II, Thailand declared neutrality with respect to the war even though Thailand had a strong relationship with Japan. Later in 1940, Thailand was convinced that the Axis would win the war in Europe and Japan would gain more power in Indochina. Hence Thailand believed it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expand its influence over Indochina. The relationship between Thailand and Japan reach its peak when Thailand declared war against the United State and Great Britain on 25 January 1942.

Thailand was officially involved in World War II when Japanese troops were sent to provinces along Thailand's gulf on 8 December 1941. Japan declared it did not want to occupy Thailand but demanded a path through Thailand to Burma, Malaysia and India. Given Thailand's lack of capacity to resist, Thailand signed a ceasefire agreement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creating an alliance with Japan.

Two weeks later, on 21 December 1941, the government under the leadership of Pibul signed another defense pact with Japan. In the latter agreement, Thailand and Japan agreed upon mutual respect with regard to the issues of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The defense pact further iterated that the two nations would support each other politically, militarily, and economically. In the case of war with other states, the signatories agreed not to sign any ceasefire or peace agreement independently. This pact also included confidential protocols in which Japan agreed to support Thailand in recovering territories to Great Britain, provided that Thailand supported the Japanese war against the Allies.

Thailand was the only country in Southeast Asia that was in close alliance with Japan. The Thai Government declared Japan a "Great Ally" and it required all Thais to cooperate and

support the Japanese army. All activities against or offensive to the Japanese army would be punished; some by execution.

According to the Thai-Japanese mutual defense pact signed on 21 December 1940, more than 150,000 Japanese troops were to be sent to Thailand. Their headquarters were established at Bangkok and in the major provinces. Military camps were also established across Thailand, especially in the bordering provinces. The Japanese army also received permission to construct a railway through Thailand in order to transport troops, foodstuffs and armaments to Burma. Two railways were constructed at the Thai – Burma frontier provinces of Ranong and Kanchanaburi.

What the historical resources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reveal?

The historical resources confirm the existence of the comfort station system and comfort women in Thailand. At the same time, the resources illustrate and reflect on the situation or condition former comfort women have been through. The resources, therefore, shall be rea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to gain the precise information.

The Thailand Supreme Command Headquarters' documents cover the period from 1926-1968, consist with 7,894 titles in 247,309 pages. Mostly, information related to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 in the Series No. 1: Thailand Supreme Command Headquarters' Affairs, Series No. 2: Department of Ally Coordination and the Series No. 3: The Peace Administration Unit.

Information on transportation and relocation of Asian women

According to the Thai military document, more than 150,000 Japanese troops were sent to Thailand. Their headquarters were established at Bangkok and in the major provinces and the military camps were also established across Thailand, especially in the bordering provinces. The records reveal that, after arrival, some of the Japanese military did not station only in Thailand. They were deployed to neighboring countries e.g., Myanmar, Laos, Cambodia, Vietnam and Malaysia. The Japanese army also received permission to construct a railway through Thailand to transport troops, foodstuffs and armaments to Burma. Two railways were constructed at the

Thai – Burma frontier provinces of Ranong and Kanchanaburi.

There is a few information found in the military document on how Asian women had come to Thailand. One paragraph in the report on the movement of the Japanese military in Chumpon states that it found Asian women in the Japanese military train to Chumpon, the Asian women also found in Ratchaburi following the Japanese military to Kanchaburi province.

While Japanese military stationed across the country, the military document and the local informant state the comfort station and the Asian women in the area. The comfort station system was found in Bangkok, Kanchanaburi, Ratchaburi, Ubon Ratchathani, Chumphon, Phuket Songkhla and Ranong province.

Table of comfort station

No	Location/ Situation	Type Remark	Source	Result of Field Work
	Bangkok			
1	King's grandmother located at Wireless Road which Japanese military used as military brothel "Tru Ri Ya". This house located at Wireless Road near the house no. 24	Military brothel	2.6.5/23, 2.6.5/97	Location was found
2	Brothel in located inside the campus of Chulalongkorn University	Military brothel	2.8/137	Location was found
3	Mr. Visit Lue-umrung's house at Suriwong Road	recreation place	2.6.5/97	Location was not found
4	Mr. Sa-nga Loa-hakaen's house at Cha Lerm Dej Bridge, Si Phraya	Military brothel	2.6.5/97	Location was found
5	the ,geisha' building were burnt out	Brothel	2.7.3/121	
6	Ha gu un so, Suriwong Road	Restaurant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7	Ni ga gu so, Suriwong Road	Restaurant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8	Fu Yee Kit Cha, Charuengrung Road	Beer pub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9	Nan Eng, Charuengrung Road	Beer pub and club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10	Chin Wa Riew	rank and file club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11	Su ru ya, Withyu Road	Restaurant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12	Ni gu gu, Sathorn Road	Club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13	Ta ke no ya, Sri Phraya Road	Club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14	Mae Num Hotel, Suriwong Road	Hotel	2.7/234	Location was found
15	Cho Wa Riew, Suriwong Road	Hotel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16	Shi Ngu Sa, Sri Phraya Road	Club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17	Fu Ta Ba, Sri Phraya Road	Club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18	Ya Yo Ei, Payathai Road	Club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No	Location/ Situation	Type Remark	Source	Result of Field Work
19	a house at Si Phraya was a military brothel, this house was a brothel operated by Thai people under Japanese supervision	Military brothel	2.6.5/97	Location was not found
20	Thailand Hotel, Satorn district	Hotel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21	Ha gu un so, Suriwong Road	Restaurant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22	Kirin Beer Hall, Sri Phraya Road	Beer pub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23	Supporo Beer Hall, Sri Phraya Road	Beer pub	2.7/234	Location was not found
24	Tro Ga De Ro, Suriwong Raod	Hotel with women were available	2.7/234	-
25	House no. 730 Payathai Road	Military Brothel	2.8/137	Location was found
26	Someone dropped the scraps fire on the ,geisha' building and burnt the Miss Nia Khunsombat's house	,geisha' building	2.7.3/121	Location was not found
	Kanchaburi		2.7.3/27	Location was not found
27	n.46-47 Pak Prak Road, Ban Nue	Restaurant	2.7.3/27	Location was not found
28	Found Japanese ,sex worker' at Kanchana-buri		2.7.3/27	Location was not found
29	n.45 Pak Park Road, Ban Nue	Military brothel	1.13/60	Location was not found
30	n.8 . Road Number 18, Ban Tai.	Military brothel	1.13/60	Location was not found
31	n. 164 (opposite the road lead to Kwae Yai river, Ban nue)	Military brothel	1.13/60	Location was found
32	n. 4-5-6 Pak Prak Road, Ban Nue	Coffee Shop	1.13/60	Location was not found
	Chumphon			
33	Thai and Japanese military fought at the brothel, Chumphon Province	Brothel	2.7.3.2/47	Location was not found
	Ratchaburi			
34	Japanese military committed minor crime against ,sex worker' at Ratchaburi	Brothel	2.7.3/31	Location was not found
35	Ban Pong District	Brothel	1.13/69	Location was not found
	Songkhla			
36	Jung Ngian Wattana Hotel and two stories building	Military Brothel	2.5.2/8	Location was not found
	Phuket			
37	Japanese military rent a three stories hotel building at the corner of Krabi Road to be used as a navy club	Military club	2.5/7	Location was found
	Ranong			

No	Location/ Situation	Type Remark	Source	Result of Field Work
38	Local people witness the Asian women in the Japanese military camp located at the Mamu Sub-district, Kraburi District, Ranong	Military Camp	Local people	Location was found

The condi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ailand

Even though there is no precise information on the condi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ailand, I argue to study Japanese army mission in Thailand to assess their stress, depression and aggressiveness. First Thailand was an alliance of Japan, their relationship with Thailand contributed to their life of military were not complicated and in a precarious state compared to the military in the frontline or the occupied countries. Second, many of Japanese military stationed in Thailand were responsible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mobilization of resources and in charge as the focal point for Southeast Asia Region (particular Burma, Indochina and Malaya) and third, many of Japanese military were allowed to enjoy their private life outside the military stations.

At the same time, Thailand also provided ‘rest and recreation area’ for them, the documents reveal number of the club, nightclub, restaurant, beer pub operated by Japanese and Thai civilians. There are also cases that Japanese military asked the provincial governors whatever they can help them to recruit local women to serve Japanese military as ‘sex worker’. The proportion of military and ‘women’ therefore is not limited compared with the stations in frontline or on the battlefield. The Japanese military, thus, in some cases were possibility treated Asian women in different ways such as more freedom to move outside the camp.

The repatriation

While information on the arrival of Asian women during the World War II to Thailand is limit, there is quite a plenty of information on repatriation. This information includes the name list, number, the provinces that Asian women were located before sending to the refugee camp and the name of the ship which carried the Asian civilians back to their home country.

At the end of the war, Thai military under the supervision of Allied Land Force (in charged by British Army) established the refugee camp inside the military station in Ayutthaya province.

Mainly, Korean and Taiwanese civilians were sent to this camp, while the Japanese military and civilian were kept in other loc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here that there was using the word “comfort girls” in the official document. The letters from Allied Land Force, Siam on the separation of Korean and Formosa stated that “Korean and Formosan Nationals or as **comfort girls (written in Thai as Nang Bum Rer)** or as a nurse or connected to military should be gathered at Ayuthaya Camp” and **ALL KOREAN and Formosan females whether bonafide civilians comfort girls nurse or otherwise connected with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will be sent to AYUTHAYA camp (written in Thai, Note: original copy is English and translated into Thai by Military personnel).

The record on the name list of Korean and Taiwanese women and their children also reveals the important information. The list concludes /position/ name/ age/nationality/ affiliation/ the date arriving to camp and remark (the day they escape), gender (children only) and age. According to the list, there were 18 children, 291 Korean female and 10 Taiwanese women. Four children were recorded as born in the camp. All women name were recorded as nurse assistance for Japanese Medical Battalion. There were 7 women escape from the camp. All of them were sent to their original countries on the SS SARAH BACHE which is due to arrive at BANGKOK on May 11, 1946.

Conclusion

The resources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ailand is relevance and important source as it confirms the existenc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 system. The resources also reflect the fact that the Japanese military created and maintained this system. In addition, the resources can also expand the horizon of knowledge related to comfort women.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Japanese military in Thailand is needed to examine further in comparison with military in other countr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and the driving force of military to behave with women. This will help to prevent the gender base violence again women and protection of exploitation of women for sexual service in the military arena.

从泰国的观点来看的有关日军性奴隶的历史档案

: 1939-1945年朝鲜人“慰安妇”的滞留与遣送¹⁾

| Patporn Phoothong

首尔大学郑镇星教授研究小组前任研究员
(参加由首尔市支持的有关日军“慰安妇”的档案记录项目)

近数十年来，保存在泰国的有关日军性奴隶的历史档案与证据一直遭到忽视，而且人们对泰国在第二次世界大战期间所处的环境之误会也造成泰国有关日军性奴隶的档案受到冷漠。不仅如此，泰国尚未通过历史教科书、历史课程、博物馆等渠道，对泰国在第二次世界大战的角色进行深入的研究与分析。很多人认为泰国是中立国家。对历史知识的缺失导致人们对战争期间、战后情况的研究、疑问、批判保持沉默和无知。

保存在泰国的有关日军性奴隶制度的档案分为三个类型：1) 泰国最高司令部(Thailand Supreme Command Headquarters); 物证; 当地情报员。

- 1) 泰国最高司令部的文献包括在第二次世界大战期间，驻屯在泰国的日军信息，是唯一的正式信息来源，它所包括的信息有：泰国政府高层与日军有关人士之间的对话录取本、会议录与命令书；日军在各地区的动态与态度；对泰国妇女的暴行记录；泰国慰安妇、亚洲慰安妇和在泰国的慰安所等可信赖的信息；介绍世界大

1) “本研究使用的资料是首尔大学郑镇星教授研究小组分别在 2015 年和 2016 年到 2018 年获得首尔大学人权中心与首尔市的支持的，有关日军”慰安妇“档案与资料之项目的研究资料之一。

战结束后发生的事情等；被遣送之前停留在收容所的朝鲜军人与泰国军人、一般民间人的姓名；联合国驻屯在泰国的期间发生的事情。最高司令部的文献保存在泰国国家档案馆(National Archives of Thailand)，现在终于得以公开。该文献被列为军事档案类，而其利用受到限制，研究员以手写、打字等方式阅览与记载了这份档案，但是不许制成任何拷贝和拍摄等形式的副本。

- 2) 以物证为例，日军的居住地区或军营的空间早就已消失，但是泰国最高司令部文献指出的“慰安所”设施仍然遗留下来。曼谷、北碧府（Kanchanaburi）和普吉府等地开设“慰安所”建筑。
- 3) 当地情报员大部分是生活在日军驻屯地的当地老人，他们都明确记得日军的行动、动态与日军办公、居住的楼与地点。有些人回顾亲眼目睹亚洲妇女随日军进入特定建筑物或军营，有些人还留有对战争结束后遗留的“慰安所”的记忆。

泰国与第二次世界大战

为了了解泰国社会为何对泰国慰安妇问题置之不理，先需要了解当时泰国所面临的历史背景。

泰国在第二次世界大战中扮演的角色难免引起激烈的争论。虽然泰国与日本保持紧密的关系，但是泰国在第二次世界大战初期宣布中立。然而，到上世纪40年代，泰国相信轴心国在欧洲战胜，日本将在印度支那地区确保更加强有力的力量与影响力。泰国认为本国有机会进一步提升在印度支那地区的影响力。1942年1月25日，泰国向美国与英国宣战，这时泰国与日本之间的关系达到前所未有的高峰。

泰国南部临着国湾，属于太平洋。以日军被派遣到泰国的1941年12月8日为转机，泰国正式参加第二次世界大战。日本宣布不愿占领泰国，但是要求泰国允许让日军经过泰国到达缅甸、马来西亚、印度等地。当时泰国不能拒绝日本的要求，而与日本政府签署休战协定，建立同盟关系。

两个星期后的1941年12月21日，由Pibul领导的泰国政府又与日本签订了“日泰同盟条约”。根据条约，泰国与日本在自主权、独立问题上遵守互相尊重的原则，在政治、

军事、经济方面互相提供支持；如果对方国与其他国家之间发生战争，不允许任何一方与有关国家签署停战或和平协定。日泰同盟条约还包括保密条款，该条款记载如果泰国支持日本对联合国的开战，日本将帮助泰国收复丧失给英国的领土。

泰国是与日本保持紧密同盟关系的唯一一个东南亚国家。泰国政府宣布日本是“伟大的盟友”，要求泰国人协助日军。抵抗或攻击日军的所有行为都被施以处罚，甚至被处以死刑。于1941年12月21日，泰国与日本签署“日泰同盟条约”，根据同盟条约，日军将派遣约15万名到泰国，在曼谷等主要地区成立日军总部，以边境地区为中心，在泰国各地区设置军营。而且，日军获得在泰国建设铁路的批准，用以将兵力、粮食、武器运输到缅甸，这一政策让日本在泰国与缅甸的接壤地区——北碧府建成了两条铁路。

有关日军性奴隶的历史档案揭露了什么？

有关日军性奴隶的档案证明在泰国设置慰安所和慰安妇的事实，揭露慰安妇受害者所处的残忍环境。通过解释与比较档案与资料，需要确保正确的信息。

泰国最高司令部的文献为7894卷，总共247309页，涉及到1926至1968年的记录。包括有关日军性奴隶的档案有：第一卷，泰国最高司令部记录(Series No. 1: Thailand Supreme Command Headquarters' Affairs)；第二卷，同盟协调部 (Series No. 2: Department of Ally Coordination)；第三卷，和平行政处(Series No. 3: The Peace Administration Unit)。

有关亚洲妇女的移动与迁移的信息

根据泰国军档案，日军约15万名被派遣到泰国。在曼谷与主要地区成立日军总部，在泰国以边境地区为中心的各地设置军营；局部日军在到达泰国之后，不仅在泰国驻屯，而且派遣到缅甸、老挝、柬埔寨、越南以及马来西亚等周边国家；日军获得建设铁路的许可，该铁路经过泰国，将兵力、粮食、武器运输到缅甸，并在泰国与缅甸之间接壤地区——北碧府建设两条铁路。亚洲妇女究竟通过什么渠道到达泰国的信息几乎没有，据日军在Chumphon的动态报告书中一个段落的分量指出前往 Chumphon 春蓬府的日军火车有亚洲妇女乘坐，在Ratchaburi看到随军前往 Kanchaburi 移动的亚洲妇女。

日军驻屯在泰国各个地区。据军事文献与当地情报员的信息，日军驻屯地都有慰安所与亚洲妇女，如曼谷、北碧府（Kanchanaburi），叻丕府（Ratchaburi），乌汶府（Ubon Ratchathani），春蓬府（Chumphon），普吉岛宋卡（Phuket Songkhla）和拉廊（Ranong province）等地。

慰安所目录

号码	地点/情况	类型	来源	实地调查结果
	曼谷			
1	日军作为军队卖淫所“Tru Ri Ya”而使用的 Wireless Road 是国王之祖母居住的，Wireless Road 的住宅在 24 号家户附近	军队卖淫所	2.6.5/23, 2.6.5/97	发现卖淫场所
2	Chulalongkorn 大学校园里的卖淫所	军队卖淫所	2.8/137	发现卖淫场所
3	Suriwong Road 的 Lue-umrung 之家	娱乐地点	2.6.5/97	未发现卖淫场所
4	位于 Si Phraya，Cha Lerm Dej 桥的 Sa-nga Loa-hakaen 之家	军队卖淫所	2.6.5/97	发现卖淫场所
5	“艺妓”之楼着火	卖淫所	2.7.3/121	
6	Ha gu un so, Suriwong Road	餐厅	2.7/234	未发现卖淫场所
7	Ni ga gu so, Suriwong Road	餐厅	2.7/234	未发现卖淫场所
8	Fu Yee Kit Cha, Charuengrung Road	酒楼	2.7/234	未发现卖淫场所
9	Nan Eng, Charuengrung Road	酒楼以及俱乐部	2.7/234	未发现卖淫场所
10	Chin Wa Riew	普通士兵使用的俱乐部	2.7/234	未发现卖淫场所
11	Su ru ya, Withyu Road	餐厅	2.7/234	未发现卖淫场所
12	Ni gu gu, Sathorn Road	俱乐部	2.7/234	未发现卖淫场所
13	Ta ke no ya, Sri Phraya Road	俱乐部	2.7/234	未发现卖淫场所
14	Mae Num Hotel, Suriwong Road	宾馆	2.7/234	发现卖淫场所
15	Cho Wa Riew, Suriwong Road	宾馆	2.7/234	未发现卖淫场所
16	Shi Ngu Sa, Sri Phraya Road	俱乐部	2.7/234	未发现卖淫场所
17	Fu Ta Ba, Sri Phraya Road	俱乐部	2.7/234	未发现卖淫场所
18	Ya Yo Ei, Payathai Road	俱乐部	2.7/234	未发现卖淫场所
19	位于 Si Phraya 的住宅成为军队卖淫所，在日本人的监管之下，由泰国人经营	军队卖淫所	2.6.5/97	未发现卖淫场所
20	Thailand Hotel, Satorn district	宾馆	2.7/234	未发现卖淫场所
21	Ha gu un so, Suriwong Road	餐厅	2.7/234	未发现卖淫场所
22	Kirin Beer(麒麟啤酒) Hall, Sri Phraya Road	酒楼	2.7/234	未发现卖淫场所
23	Kirin Beer(札幌啤酒) Hall, Sri Phraya Road	酒楼	2.7/234	未发现卖淫场所
24	Tro Ga De Ro, Suriwong Raod	可以招来妇女的酒店	2.7/234	-
25	House no. 730 Payathai Road	军队卖淫所	2.8/137	发现卖淫场所
26	谁在“艺妓”之楼放火，Nia Khunsombat 之家也被烧。	“艺妓”之楼	2.7.3/121	未发现卖淫场所
	Kanchaburi		2.7.3/27	未发现卖淫场所

号码	地点/情况	类型	来源	实地调查结果
27	Pak Prak Road, Ban Nue, n.46-47	餐厅	2.7.3/27	未发现卖淫场所
28	在 Kanchanaburi 发现日军“性卖淫从业者”		2.7.3/27	未发现卖淫场所
29	Pak Park Road, Ban Nue, n. 45	军队卖淫所	1.13/60	未发现卖淫场所
30	Road Number 18, Ban Tai., n. 8	军队卖淫所	1.13/60	未发现卖淫场所
31	n. 164 (与 Kwaie Yai river, Ban nue 相连的道路对面)	军队卖淫所	1.13/60	发现卖淫场所
32	Pak Prak Road, Ban Nue, n. 4-5-6	咖啡厅	1.13/60	未发现卖淫场所
	春蓬府(Chumphon)			
33	泰军与日军在 Chumphon 的卖淫所打仗	卖淫所	2.7.3.2/47	未发现卖淫场所
	叻丕府(Ratchaburi)			
34	在 Ratchaburi, 日军对“卖淫从业者”犯下轻罪	卖淫所	2.7.3/31	未发现卖淫场所
35	Ban Pong District	卖淫所	1.13/69	未发现卖淫场所
	宋卡(Songkhla)			
36	Jung Ngian Wattana Hotel 与二楼建筑	军队卖淫所	2.5.2/8	未发现卖淫场所
	普吉岛(Phuket)			
37	位于原海军俱乐部的 Krabi Road 角落的 3 层宾馆由日军租借	军人俱乐部	2.5/7	发现卖淫场所
	拉廊(Ranong)			
38	在 Ranong, Kraburi District, Mamu Sub-district 的日军军营, 当地人看到亚洲女性	军营	当地人	发现卖淫场所

在泰国的日军性奴隶受害者所处的环境

揭露有关日军性奴隶受害者在泰国所处的环境尚未发掘准确信息和档案。尽管如此，笔者主张为了解她们因充当慰安妇而受到的精神压力、忧郁症、攻击性，需要对驻屯在泰国的日军进行研究。第一，泰国是日本的同盟国，相对于前线、占领国的日军，得益于日本与泰国之间的关系，驻屯在泰国的日军享受更加安逸的生活，生活更方便和安全；第二，驻屯在泰国的日军大部分从事铁路建设与资源筹措，泰国作为东南亚地区（尤其是缅甸、印度支那以及马来半岛）的枢纽扮演领导角色；第三，大部分日军在军营以外的地方享受个人生活。

另外，泰国给日军提供“休息与娱乐区域”，有关档案显示在泰国有很多俱乐部、夜总会、餐厅、酒店等设施，由日本与泰国民间人经营，而且日军要求泰国道知事多边支持日军募集泰国女性，让她们充当“卖淫从业者”给日军服务。因此，“女性”在军人的占比与前线和战场的慰安妇不相上下。泰国的日军可以离开军营自由外出，由此可见，我们可以推测在泰国日军通过另外的方式对待亚洲妇女。

遣送

有关在第二次世界大战期间亚洲女性的泰国入境过程信息并不多，但是亚洲女性被遣送回国的信息相当丰富，这些信息包括亚洲女性被送进收容所之前滞留的地区、亚洲民间人被遣送回国的船舶名称等。

在第二次世界大战结束后，在联合陆军（由英国军指挥）的领导之下，泰国军在大城（Ayutthaya province）的军队基地建立收容所，收容所主要接纳韩国与泰国的民间人，日军和日本人滞留在别的地方。对此，我们应该关注有关公文使用“慰安妇（comfort girls）”的词汇。在韩国与台湾被解放时，暹罗的联合陆军(Allied Land Force)寄来的书函有“慰安妇（以泰国语‘Nang Bum Rer’来标识）、护士或者军队有关的朝鲜人、台湾人安排在大城收容所”内容；也有计划民间人、慰安妇、护士或者与日军有关的朝鲜人、台湾人女性全部安排到大城收容所的内容。（该内容以泰国语来编写，备注：原始档案以英文编写，由军队人士进行英泰笔译）

朝鲜人以及泰国人女性和她们子女名簿告诉我们重要的信息，该名簿记载职位、姓名、年龄、国籍、所属、到达收容所的日期以及备注（逃走日期）、性别（限为儿童）和年龄等内容。根据该名簿，在收容所儿童为18名、朝鲜人妇女为291名、泰国人妇女为10名，有4名儿童在收容所出生；记载所有妇女以日本医务部队(Japanese Medical Battalion)所属的辅助护士身份；7名妇女从收容所逃生。她们都通过在1946年5月11日到达曼谷的SS SARAH BACHE 号并被遣送回国。

总结

保存在泰国的日军性奴隶档案对证明日军慰安所制度非常重要，而且这份档案反映了日军运营和管理慰安妇制度的内容。通过该档案，我们可以进一步扩大有关慰安妇的知识范围。为了解组织性的、文化性的暴力、由谁允许日军任意虐待女性，需要对驻屯在其他国家的日军进行互相比较，而且需要对派遣到泰国的日军的角色与责任进行深入研究。笔者相信这些研究会为预防对女性的性暴力、防止军队以性服务为目的而掠夺女性人权以一臂之力。

1

토론문

공준환

(서울대)

<한국, 일본, 미국, 태국 자료의 현황과 과제> 토론문

| 공준환 (서울대)

1. '위안부' 관련 자료와 연구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들은 1990년대 이후 여러 가지 형태로 수집되고 공개되어 왔다. 그 중에서 '위안부' 제도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자료는 생존자들의 증언일 것이다. 그리고 증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은 일본, 미국, 영국 또는 태국과 같은 국가들이 생산한 각종 공문서들이다. 일본군'위안부'의 실체를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랜 운동의 과정은 증언과 관련 자료들을 모으는 것과 궤적을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여태까지 밝혀진 많은 '위안부' 관련 자료의 양에 비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으며 공개된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많이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의 '위안부' 제도에 관한 연구와 관점들을 획기적으로 뒤집을 '새로운 자료'가 등장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언론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작업은 기존의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연구하

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새롭게 공개되는 자료들도 그 맥락을 기존 자료들과 잘 연결시켜 파악하는 것이 ‘위안부’ 연구를 차근차근 축적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전에도 ‘위안부’ 관련 자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공개되어 왔으나 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약, 언어의 문제, 맥락을 알 수 없는 자료 공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들조차 ‘위안부’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이전보다는 훨씬 쉽고 간편해지고 있다. WAM과 같이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언제든지 원문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기도 하고, 접근하기 힘든 기존의 일본 자료집들을 번역하여 출판하고 있기도 하며, 국사편찬위원회와 서울대 연구팀의 자료집은 영문 자료를 수집·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각종 ‘위안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작성한 목록집 또한 이런 자료들을 접근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을 얼마나 연구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될 것이다. 자료들을 중심으로 놓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 미국자료의 현황과 연구의 방향성

‘위안부’ 관계 미국자료는 주로 미국 국립기록문서관리청(NARA)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로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연합군이 생산한 공문서들을 의미한다. NARA에서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2차 세계대전 자료의 분량에 비하면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위안부’ 관련 자료라 할지라도 문서의 전체 내용에 비해 ‘위안부’나 위안소가 언급되는 부분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발표자의 ‘이중적 희박함’이란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일본 포로들의 심문 보고서, 심리전과 첩보 부서의 문서들로 한정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위안부’나 위안소라는 주제는 그 내용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문서에서 언급되고 있고, 또 일본군을 심문하거나 일본군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꼭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연합군이 파악한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관한 정보는 제한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위안부’에 대한 단편적인 소문이나 정보는 미군 사이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 ‘위안부’ 관련 내용이 있는 각종 보고서들의 배포선(Distribution) 또한 정보가 거의 모든 첩보기관에 전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생산한 공문서들은 주로 ‘위안부’ 제도나 위안소를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많고, 그 자체로 ‘위안부’ 제도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합군이 생산한 자료는 보통 심문이나 첩보를 통해 얻은 정보들이 많고, 일본군의 문서를 노획하여 획득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때문에 위안소 방문 경험이 없거나, 위안소의 존재를 모른다거나 하는 식의 가치가 낮은 정보들도 자료 속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심문 보고서속의 이야기는 보다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본군들이 ‘위안부’나 위안소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예컨대 위안소 방문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하는지 혹은 부끄러운 주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위안소를 이용한 병사와 그렇지 않은 병사의 태도의 차이라던가, 이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이나 문제점들이 자료들 속에서 포착된다. 말하자면 ‘위안부’ 제도의 현실이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단편적인 의견이나 감정들을 연구로 엮어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자료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자료의 맥락을 더 세밀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

미국자료를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위안부’ 관련 자료를 비교적 많이 생산한 ATIS, NEFIS, SEATIC, OWI, OSS 등 여러 첩보기관의 보고서들을 종합해 보면 각 기관마다 서술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생산 기관과 생산 주체의 목적이나 인물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각 첩보기관의 관할지역이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더 크다. 즉, 위안소가 설치된 지역에 따라서 연합군이 얻은 정보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 ‘위안부’의 국적이 어떠한지, 위안소의 규모나 형태가 어떠한지에 주목한다면 ‘식민지 위안소’와 ‘점령지 위안소’, ‘일본 내 위안소’뿐만 아니라 점령지도 각 국가별로 ‘위안부’ 제도가 어떻게 다르게 운용되었는지 구분하여 특징을 밝혀낼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범위와 경계에 대한 연구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각 지역별 특징에 주목하면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자료들은 좁은 의미의 ‘위안부’와 위안소 관련 내용을 넘어 폭 넓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연구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위안부’ 관련 자료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의 생산기관이나 생산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쟁에서의 첩보나 심리전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주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미국의 정보수집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위안부’ 관련 자료가 어

면 위상과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자료를 통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쟁사 일반에 대한 연구와 반드시 결합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출간되고 있는 ‘위안부’ 관련 미국 자료들은 전쟁에 대한 흥미롭고 광범위한 내용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ATIS자료집의 경우 ‘위안부’ 관계 내용뿐만이 아니라 보고서 전체를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전체 번역에는 전투, 부대의 구성과 이동, 무기, 보급상황 등 당시 일본군의 상황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러한 일본군과 전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그것과 함께 있는 ‘위안부’ 관련 내용의 해석도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일본, 미국, 태국 자료의 현황과 과제> 토론문

| 김윤미 (부경대)

위안부에 관한 많은 문헌들은 위안소와 위안부의 존재 및 동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군과 일본정부, 개인의 기록이 계속 발굴되고 있고, 미군과 연합군이 생산한 자료도 세상에 소개되고 있다. 향후 러시아의 기록도 활발히 수집되기를 기대한다. 이 학술회의는 선행되었던 자료수집 활동과 연구를 총망라해서 소개하는 자리이지만, 토론자는 이중 낮은 개념을 발표한 글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식민지 위안소’에 관한 연구인 <북한 ‘위안소’ 관련 자료> 발표에 몇 가지 고견을 청한다.

현재까지 ‘식민지 위안소’에 대해서 부산, 해산, 옹기, 은덕, 청진, 인천, 창원, 목포 등으로 동원된 6명의 피해자 증언이 있다. 이 중 ‘유진’의 위안소 증언을 기반으로 한 현장답사와 연구는 선구적이다. 위안부 증언이 남아있는 지역 이외에도 조선에는 일본군이 주둔하며 군사적인 성격이 강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도 계속되어지길 바란다.

1. ‘식민지 위안소’ 개념의 제안과 의미

2002년부터 조선의 위안소 연구를 시작한 발표자는 수년 전부터 ‘식민지 위안소’라는 개념을 학계에 제시하였다. 그 간의 연구 대부분은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것이었고, 일부 ‘기업위안부’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위안소’라는 것은 조선이 전장이 아니었기에 존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어 관심과 논의 대상에서 떨어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이 자리에서 다시 ‘식민지 위안소’의 개념을 제안하고 역사화하는 장이 열렸다. 일본군‘위안부’ 연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식민지 조선의 지배 기반이 군사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발표문에서 ‘식민지 위안소’의 개념 규정을 일본군 위안소의 정의와 다른 시각에서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식민지 위안소’에 대한 향후 연구의 진행은 어떻게 길을 잡아야 할 것인가?

2. 조선에 주둔한 지역의 군대와 지역사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유진은 나진이라는 지역과 관계를 가진다. 나진이라는 지역의 역사, 나진 주둔 일본군에 관한 연구가 진전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자료 발굴이 진행될 것이다. 나진은 1930년대 일본군의 주도로 새롭게 설립된 도시였고, 나진항은 러시아와 접하고 있는 만주 동북부의 군사수송을 위한 항구였다. 전장은 아니었으나, 수많은 군대와 물자를 일본과 대륙으로 실어나르는 공간이었다. 나진항을 통한 병력과 물자수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날은 하루 수백에서 수천명의 군인, 혹은 수십에서 수백마리의 군마를 수송 혹은 숙영(*숙박)을 시켰다.

군사수송은 총괄을 맡은 병참부와 수송부대 및 헌병대 등의 일본군, 나진의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위안소의 존재와 운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군대와 지역사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나진 주둔 일본군 관련 자료의 발굴과 분석

‘위안소’는 일본군의 군사시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군의 파견과 전장에 설치되었던 ‘위안소’에 관한 기록들을 일본군 병참부와 파견 부대의 일지, 헌병대 보고서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나진에 주둔했던 일본 해군의 부대를 확인하고, 유진에 설치되었던 위안소 존재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참고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 공개된 자료 중 1942년 조선경리부의 특별회계 처리 문서가 있다. 나진헌병대, 육군운수부나진출장소, 신안동 제1숙사, 신안동 제2숙사, 신안동 제3숙사, 나진중포병연대, 육군축성본부 나진출장소 등의 일본군 시설 구축과 관련한 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나진 주둔 일본군에 관한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증언을 기반으로 해서 병참부, 헌병대 등의 기록이 발견된다면 구체적인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일본, 미국, 태국 자료의 현황과 과제> 토론문

|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네 분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의 발표 가운데 안자코 유카 선생님과 Patporn Phoothong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안자코 선생님은 김영선생님과의 공저로 2010년 발표하신 『咸鏡北道の軍都と『慰安所』・『遊廓』』에서부터 2016년 전국역사학대회, 그리고 오늘의 학술회의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위안소’라는 개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일제시기 조선에 있었던 성매매 시설 중에 민간 경영 성매매시설과 분명히 다른 군인 전용 성매매 시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것을 식민지 ‘위안소’라고 새롭게 분류함으로써 식민지배와 ‘위안부’제도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풍해루·은월루처럼 민간인이 경영한 군인 전용 성매매 시설을 요시미 요시아키가 분류한 제 2유형의 ‘위안소’ - 형식 상 민간업자가 경영하지만 군이 관리·통제한 군인·군속 전용의 위안소-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본군이 풍해루·은월루를 관리·통제한 증거가 부족하여 그렇다면, 차후 이와 관련된 증

거가 나온다면 이것들을 식민지 ‘위안소’가 아닌 제2유형의 ‘위안소’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또 식민지 ‘위안소’라는 새로운 분류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제도가 깊게 관계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atporn Phoothongnim은 Discovering the intolerance of Thai society : case study of Thai “comfort women”(2009)이라는 석사논문을 통해 타이국립공문서관 소장 ‘위안부’ 관련 자료의 존재를 국내에 최초로 알렸습니다. 저 역시 이 논문을 근거로 2011년 타이 국립공문서관에서 자료를 조사·수집했기 때문에, 자료의 소재를 확인하고 공개한 발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 5쪽의 위안소 목록과 관련하여 2번과 25번, 5번과 26번, 6번과 21번은 각각 위치와 출처가 같아 동일 사례로 추정됩니다. 저는 2번과 25번 위안소의 출처로 제시되어 있는 2.8/137번의 문서에서, 쭈랑롱퐁 대학교 구내에 있는 매춘소의 주소를 파야타이길 730번지로, 대학과 집주인의 요청으로 여기서 옮겨간 위치는 싸턴길 룽디록 골목 60번지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과 혹시 싸턴길 룽디록 골목의 위안소와 관련한 현장 조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 명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발표문에 언급되고 있는 명부는 태국어로 된 명부로 보입니다. 이 명부는 1945년 10월부터 1946년 1월까지 아우타야 수용소에 입소한 한국인 및 대만인에 대해 임무, 이름, 나이, 국적, 소속, 수용소 입소 날짜, 비교 등의 항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조선인 여성 291명이 일본군 참모부 소속 보조여간호사로 기재되어 있고, 1-5세까지의 조선인 어린이 18명(남자 10명, 여자 8명)도 있으며 이 중 4명은 포로수용소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대만인 여성 10명이 거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만인 여성 9명과 3세의 어린이 1명으로 파악했는데,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1. 명부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이국립공문서관에서는 타이어로 된 명부 이외에 영어로 된 명부도 존재합니다. 한국인 여성 287명과 어린이(1-8세) 18명이 기재되어 있는 이 명단을 앞의 타이어로 된 명단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중복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양측 명부에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연령을 통해 영어 명부가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외, 명부의 성격, 작성 목적 등에 대해서는 분석 중입니다. 이 두 명부의 성격이나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태국 내 '위안소'와 일본군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일본군이 태국 도지사들에게 '성매매종사자'-영어 원문에서는 'sex worker'로 표현-로서 일본군을 위해 봉사할 태국 현지 여성을 모집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일본군이 '위안부' 여성을 동원하는데 직접 개입했음을 방증하는 자료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외 일본군 '위안소' 설치와 운영,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중국 일본군‘위안부’ 자료 현황과 과제

중국자료의 전반적인 개요

윤명숙(역사연구가)

상하이 지역 일본군‘위안소’

蘇智良(상하이사범대)

중앙당안관 자료

李莉娜(중국 중앙당안관)

헤이룽장성당안관 자료

聂博馨(헤이룽장성당안관)

2

1. 중국자료의 전반적인 개요

윤명숙
(역사연구가)

중국 당안관 자료 현황과 자료 해제 - 일본군‘위안부’ 자료를 중심으로

| 윤명숙 (역사연구가)

I. 머리말

지금까지 공개된 일본군‘위안소’와 ‘위안부’ 관련 자료 중에 중국 당안관(档案馆)¹⁾ 자료는 의외로 많은 편은 아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중국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 남경 대학살을 계기로 일본군위안소가 대량으로 설치되었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소재 일본군 관련 자료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공개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더군다나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1932년 상해사변 때 상해에는 이미 군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문헌자료가 밝히고 있으니 중요한 자료가 묻혀 있을 것 이란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선총독부가 그러했듯이 중국에서도 일본군이

1) 한국의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에 해당한다. 해방 이전의 역사자료는 대전기록관, 서울기록관(성남), 부산기록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는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어디에 가든 열람 가능하다. 또 서울기록정보센터나 광주기록정보센터에서 디지털 자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중국 당안관은 행정 단위로 구분되어 소재한다. 그래서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는 성급(省级) 당안관만 20여 개가 넘고 각 성에 두 자리 수가 넘는 현(县) 혹은 시(市), 구(区)급 당안관이 있다. 소장 자료는 급과는 상관없이 당안관마다 다르다. 2017년 현재 당안관 자료 열람은 주요성 당안관의 경우 상당히 디지털화가 진척되어 자료를 이미지로 공개하고 있다. 다만 시급 당안관의 경우는 지역마다 일정하지 않다.

패전 직전에 대부분의 자료를 소각, 폐기하였다. 현재 공개된 주요 자료는 동북지역 당안관이 공개한 자료이다. 이들은 일본군이 소련 참전에 밀려 급하게 후퇴하면서 전부 소각하지 못한 채 남겨진 자료들이다. 길림성 당안관이나 흑룡강성 당안관 등이 공개한 소장 자료가 그 예다. 게다가 중국 당안관은 오랫동안 폐쇄적이었고 또 자료를 공개한다 해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중일 양국의 정치·외교관계 등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II장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중국 자료를 개괄하기로 한다. 즉 중국 정부가 공개한 ‘위안소’·‘위안부’²⁾ 관련 자료와 국내 수집 현황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화 지역과 시대 배경을 개관한다. IV장에서는 새롭게 발굴한 자료 「진화성구 근황표」가 국내에 ‘진화계림회 명부’로 알려진 자료의 교차 분석을 통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중국 당안관 공개 자료와 국내 수집 현황

먼저 중국 당안관 측이 공개한 위안소·위안부 관련 자료 현황을 살펴보자.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소개하면, 중국 정부가 승전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8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당안국 중앙 당안관(中华人民共和国国家档案局中央档案馆) 홈페이지에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자료선[档案选](이하 ‘자료선’)³⁾이라는 이름의 링크를 달아 공개한 자료가 있다.³⁾ 이곳에 공개된 자료는 길림성 당안관을 비롯해서 중앙 당안관, 남경시 당안관, 상해시 당안관, 흑룡강성 당안관, 랴오닝성(辽宁省) 내 몽고자치구 당안관, 허베이성(河北省) 친황따오시(秦皇岛市) 당안관 등에서 그간 발굴된 것이다. 이들 자료는 일부를 제외하고 국내에 수집되어 있다. 당안관 소재 지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화둥지구, 상해시 당안관과 난징시 당안관 자료는 2013년에 동북아역사재단

2) 위안부나 위안소라는 용어는 역사용으로 사용한다. ‘위안’이라는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생략한다.

3) 중앙 당안관 홈페이지 <http://www.saac.gov.cn/>,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자료선 링크 <http://www.saac.gov.cn/waf/waf.html>.

이 재단 외 전문가 등 자료조사팀을 꾸려서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수집하였다.⁴⁾

둘째, 동북지구. 길림성 당안관 자료는 2014년 6월에 동북아역사재단이 전문가 등 자료조사팀을 꾸려서 해당 당안관을 방문하여 디지털화된 자료를 열람하였다. 길림성 당안관 자료는 『철증여산-지린성 신 발굴 일본의 중국침략 자료 연구(铁证如山-吉林省新发掘日本侵华档案研究)』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고 이를제공받았다.⁵⁾ 동북지방 당안관 자료는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발굴한 것이어서 소각과 습기 등으로 보존 상태가 썩 좋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상태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서 자료 내용이 단편적인 것도 적지 않다. 귀국 후 자료조사팀 이 공동으로 자료 해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자료 발표회를 가졌다. 2014년 방문을 계기로 동북아역사재단은 길림성 당안관과 자료 교류 등의 MOU를 체결하고 이후 당안관 소장 위안부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한다.⁶⁾

흑룡강성 당안관 자료 역시 중국 측에서 먼저 공개하였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수집하였다. 중국이 오랫동안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었는데 길림성 당안관과 흑룡강성 당안관 자료를 각각 2014, 2015년에 대대적으로 공개하였다. 이는 2013년 3월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고 난 이후 시작했을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사업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4년 6월 10일 중국 외무성이 정례회견에서 남경대학살 자료와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기록유산등재 신청했다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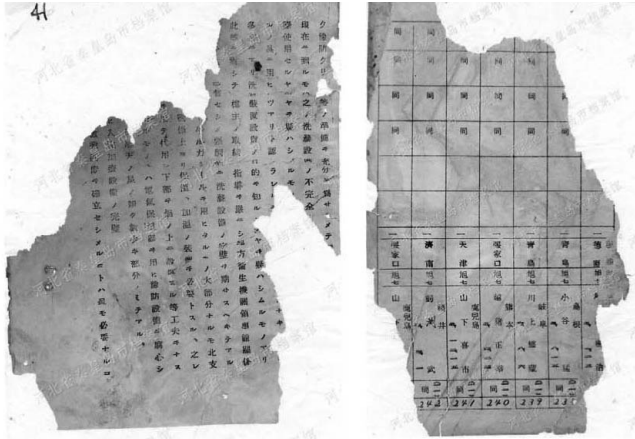
중양 당안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 중에 국내에 수집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내몽고자치구와 친황따오시 당안관 자료 등이다.⁷⁾ <그림 1>에서 보듯이 이들 자료도 소각으로 훼손된 상태가 확인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당안관 측이 중요하다고 여긴 페이지가 부분적으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내에 수집되지 않은 당안관 소장 자료는 앞으로 직접 추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4) 제 2 역사 당안관 (난징시 소재) 에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위안소·위안부와 직접 관련된 자료라기보다 일본 패전 직후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지의 조선인, 대만인, 일본인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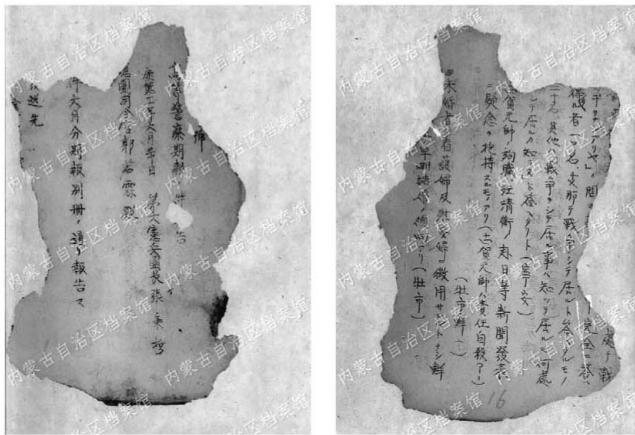
5) 卞양옌 (庄严) 편집, 116~187 쪽, 지린 출판 그룹 유한책임회사 (吉林出版集团有限责任公司), 2014. 이 자료 집은 길림성 당안관이 『불멸의 증거 - 지린성에서 새로 발굴한 일본의 침략서류 연구』 로도 번역 (한국어), 출간하였다. 서지사항은 동북아역사자료실 (<https://hflib.kr/#/search/detail/210081>) 참조.

6) 길림성 당안관 측은 총 10 만 건에 달하는 문건이 소장되어 있고 이들 중에 2014 년 검토한 자료 중에 일부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14 년 6 월 방문당시 자료 열람은 기본적으로 당안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컴퓨터에서 열람하는 방식이었다.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는 자료를 인식하기 힘들 경우 예외적으로 원본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원칙적으로 컴퓨터 열람만이 허락되었다. 이후 길림성 당안관은 5 개년 계획으로 자료 검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중양 당안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자료가 국내 수집 자료 내역과 전부 일치하지는 않는다.



허베이성 칭황따오시 당안관



랴오닝성 내몽고자치구 당안관

그림 1 중국 중앙 당안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내 미수집 자료 예시

중국의 공개된 자료 중에 자료집으로 발간된 자료는 이미 언급한 길림성 당안관 자료 이외에 중앙 당안관 자료가 있다. 중앙 당안관 자료는 여타 자료와 달리 일본군 전범 자필 진술서이다. 그중 일부가 국가당안국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 <일본 중국침략 전범 자필 진술서선(日本侵华战犯笔供选)>(이하, '진술서선') 서문에 자료 설명이 있다. 중화 인민공화국 성립 후 1950년부터 1956년까지 후순(抚顺)과 타이위안(太原) 두 곳에 일본 전범자가 압송되었다. 그들은 1945년부터 해방전쟁 기간 중에 체포된 140명과 1945년 8월에 소련 홍군에게 중국 동북지방에서 체포되었다가 1950년 7월 중국 정부에 이관된

969명으로 총 1,109명이다. 일본 전범 용의자들은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 중 전쟁범죄자 처리에 관한 결정(关于处理在押日本侵略中国战争中战争犯罪分子的决定)>에 따른 혁명인도주의정신이라는 관대한 처리 방침에 따라 처분받았다.⁸⁾ 1951년부터 1956년 6월 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최고인민 검찰서(후에 검찰원으로 개칭)에서 조사받고, 1956년 6월과 7월에 1,109명 중 도중에 사망한 47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소가 면제되고 죄행이 엄격한 45명만이 선양(沈阳)과 타이위안에 설치된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 법원 특별군사법정에서 공개재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자료를 중앙 당안관이 보존하고 있다.⁹⁾ 중앙 당안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일본 전범 자필진술서는 이들 자료 중에서 ‘자료선’에 9건이 공개되어 있다, 이와 별개로 ‘진술서선’에도 31명의 전범 자필진술서가 공개되어 있는데,¹⁰⁾ 중국이나 조선 부녀를 강간한 범죄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전범의 자필진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외에 2015년 8월에 『중앙당안관 소장 일본의 중국 침략 전범 자필 진술서 선편(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50권)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으로 출간되었다. 2년 후 2017년 7월에 70권이 추가로 출간되어 총 120권 발간에 842명의 자필진술서가 수록되어 있다.¹¹⁾ 120권 안에 ‘위안부’ 관련 진술이 200여 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자료집 120권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입하여 2017년 12월 현재 정리 중이며 정리를 마치는 대로 공개될 것이다.

덧붙여서 후인핑(胡銀平) 논문에 따르면 “텐진(天津), 산시(山西) 등지의 당안관”에도 관련 자료가 있다고 한다.¹²⁾ 텐진 당안관 자료는 1990년대에 일본 거주 중국인 연구자가 발굴한 것인데, 쑤즈량 교수에 따르면 중앙 당안관에서 출간되었다고 한다.¹³⁾

8) 1956년 4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56년 전범재판의 한계에 관해서 이선이 논문(『중일전쟁시기 덩링[丁玲]의 일본군 성폭력재현과 1956년 전범재판 그리고 피해자 증언의 의미』, 『중국학보』 제 80집, 2017년 5월) 참조.

9) 일본 중국침략 전범 자필 진술서선(日本侵华战犯笔供选)의 서문(<http://www.saac.gov.cn/zt/zfbg/qy.htm>);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处理在押日本侵略中国战争中战争犯罪分子的决定(http://www.110.com/fagui/law_6974.html) 참조.

10) <일본 중국침략 전범 자필 진술서선> <http://www.saac.gov.cn/zt/zfbg/index.htm>.

11) 『《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120册出齐』(『인민망(人民网)』, 2017.7.21)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7-07/21/content_1792301.htm.

12) 胡銀平, 2004, 「中国 ‘慰安妇’ 问题研究综述」, 『周口师范学院学报』, 제 24 권 제 1 기, 2004년 1월.

13) 텐진 당안관 자료집 제목은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한국에는 수집되어 있지 않고 일본에서는 WAM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① 저장성(浙江省, 별표 표시)



② 진화(金华, 동그라미 표시)



③ 지도의 맨 위 화살표시가 시야면(下杨) 우이현(武义县, 네모 표시), 진화현(동그라미 표시)

그림 2 저장성 및 진화시, 우이현 지도

III . 자료 이해를 위한 지역과 시대 배경 개관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저장성, 진화, 우이현 등 자료에 나오는 지리를 먼저 확인하도록하겠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지도 ①은 저장성 위치이다. 지도에서처럼 중부지역 오른쪽 끝에 있다. 상하이에서 출발하면 남서방향으로 조금 내려온 지점에 저장성 진화시가 있다. 지도 ②에 보면 저장성 가운데쯤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다. 자료를 발굴한 우이현은 지도 ③에서 보면 진화시보다 약간 동남쪽 아래(네모 표시)에 있다. 둘째, 진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일본군이 진화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과 목적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래 일본군이 진화현과 우이현을 점령한 것은 약 5년 후의 일이다. 즉 1942년 5월 일본군이 진화 지역을 점령하였는데 우이현을 비롯한 금화지역이 일본에게 중요했던 것은 형석(불화칼슘)이라는 광물 자원 때문이었다.

형석은 “제철 과정이나 비철 제련 과정 등에서 광석이나 고철 등의 용해를 촉진하기 위한 용제(融劑)로 사용”하는 천연광석이다.¹⁴⁾ 자외선을 쬐면 형광으로 빛을 발해서 ‘호타루이시(螢石)’라고 했었는데 중국에서도 이 일본 한자 이름으로 불린다. 진화를 가운데 두고 주위를 둘러싸듯이 위치해 있는 이우현(义乌市)이나 우이현 등지에 매장되어 있던 형석은 일본의 철강 산업에 매우 중요한 광석이었다. 특히 우이현은 ‘형석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였다.¹⁵⁾ 1931년 이전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국에서 21개 현 80여 곳에 형석 채광구가 있었는데 이 중 40개소가 우이현에 있었고 생산량의 58%를 넘게 차지하였다. 당시 중국은 아직 산업이 발전되지 못해서 채굴한 형석은 주로 상해에 있는 무역회사인 三义洋行(洋行), 黒木양행, 小林양행에서 사들여 일본 하치망(八幡)제철소(1901년조업 개시, 설립 당시 농상무성 관할)에 공급하고 있었다.

일본이 중국의 형석을 수입한 것은 1914년부터 개인 무역상에 의해서였다고 한다. 이후 1931년 만주사변 발발을 계기로 중국의 “민족대의”에 따라 채굴이 중지되었다가 이듬해 6월 우이현의 장화불광회사(璋华氟矿公司)를 통해 연간 4천~5천 톤의 형석을 어렵게 다시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중단되었다.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위를 차지하고나서 일본은 저장성 Ningbo시(宁波市) 시양산현(象山县)에서 형석을 수탈하였다. 그러나 채광의 규모가 작아서 국내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이현의 대규모 형석의 수탈을 도모하게 되었다. 1941년 흥아원 화중연락부 경

14) 「보고서 용어 정의」, 3 쪽 [『平成 24 年度中小企業支援調査(フッ素(螢石)の安定供給確保に向けた課題の調査)報告書』2012. 2, 경제산업성 제조사업국 화학과 발행; 미쓰비시(三菱)UFJ 리서치 & 컨설팅 주식회사 위탁].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3fy/E003423.pdf#search=%27%E8%9B%8D%E7%9F%B3+%E4%B8%AD%E5%9B%BD%27.

15) 陈祖南·徐瑛·胡彬·赖耀卿, 「萤乡血泪」(『今日武义』, 신문 7면, 2010. 9. 15). http://jrwy.zjol.com.cn/html/2010-09/15/content_7_1.htm.

제 제1국과 70사단은 군의 명령에 따라 우이, 진화, 동양, 이우, 주지(諸暨), 성(嵗), 신창(新昌) 등 7개 현에 정보원을 잠입시켜 형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우현 50만톤, 우이현 170만 톤, 진화 5만 톤의 형석이 매장되어 있으며 그중 우이의 매장량이 동아시아에서 최고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곳은 함락 지역이 아니어서 입산이 곤란하다고 보고되었다.¹⁶⁾ 또한 제13군 작전명령 강제184호에 따르면, 제70사단이 수차례 조사한 결과 우이, 진화, 이우 일대에 형석 매장량이 350만톤에 달하며 그중 우이현에 약 90%가 매장되어 있는데다 품위가 80%에 달할만큼 양질의 광석이었다. 일본은 1942년 6월부터 1945년 3월 우이현에서 철수할 때까지 약 33개월 동안 40만 톤이 넘는 형석을 채굴해갔다고 한다.¹⁷⁾ 일본군은 1942년 5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3개월이 넘는 절공작전에 14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투입하였다. 우이현은 5월 23일에, 진화는 5월 28일 함락되었다.¹⁸⁾

진화현과 우이현은 인접해 있는 현이지만 1942년에는 아직 두 현 사이에 직통으로 연결된 철로가 놓여져 있지 않았다. 철로는 1943년 3월에 시공하고 9월에 완공하여 1944년 4월 26일부터 정식으로 운행이 개시되었다.¹⁹⁾ 앞서 서술한 대로 진화 지역은 1942년 5월 이전에는 일본군 점령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인(조선인 포함)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서 서술한 대로 1930년대 형석 무역도 상해에 거점을 둔 무역회사가 거래를 했으므로 진화지역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일본인이나 조선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942년 5월 중 일본군이 이 지역을 점령한 직후였을 것이다. 우이가 5월 23일, 진화가 28일에 함락되었으니 아마도 이때 이후가 될 것이며 대체로 6월 전후로 보편될 듯하다.

저장성 당안관 소장 자료 중 1940년대 진화 일대 인구 자료는 검색되지 않았다. 아마도 1945년 8월 이전 인구통계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것인데 그 이유 중에는 비공개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화현지』나 『우이현지』 등을 보면 단편적이거나 마인구에 관한 서술이 있기 때문이다. 진화의 경우 『진화현지』에 1941년 인구 통계가 있는데 진화현 총인구는 318,941명이고 이중에 남성은 181,614명, 여성은 137,327명이다. 직

16) 형석에 관한 기술은 다음 두 편의 글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陈祖南·周祖华·赖耀卿, 「萤乡血史」, 228~236 쪽; 陈南山, 「日军武力掠夺我县萤石资源的内幕」, 236~237 쪽 (中华明招文化研究院 편, 2016, 『萤乡蒙难暨抗战实录』, 인민일보출판사).

17) 《武义敌伪采砾石(萤石)地点及大工调查》(앞의 기사「萤乡血泪」(7면)에서 재인용).

18) 위의 陈南山·周祖华·赖耀卿의 글.

19) 「掠夺萤石的吸血管」246 쪽 (中华明招文化研究院 편, 2016, 『萤乡蒙难暨抗战实录』, 인민일보출판사).

업 분포도를 보면, 농업 74,947명, 공업 10,156명, 상업 13,609명, 어업 74명, 교통운수 1,805명, 의료업 545명, 기술자 218명, ‘프리랜서[自由职业]’ 1,235명, 당(党) 262명, 정(정치 공무원, 관료 포함) 3,232명, 군 6,942명, 경(警) 634명, 가사 관리[家务管理](집사나 가정부 등)²⁰⁾ 58,958명, 총 172,617명이다. 통계에는 취학자와 무직자, 실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진화 거주 소수민족 인구 통계에 조선족 인구는 1964년 2명, 1982년 6명이 확인되지만 이들이 해방 이전부터 거주했던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²¹⁾ 일본군 점령 기간 동안의 인구 통계 자료는 없어서 인구 변동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다만 1947년 진화현 총인구 242,579명과 1941년 인구수를 비교하면 76,362명이 감소되어 있다. 인구 감소 원인에 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우이현의 경우 『우이현지(武义县志)』(1990)에서는 1941년 총 183,337명, 1942년 167,426명으로 15,911명 감소하였는데 감소 이유가 일본군이 태우고, 죽이고, 빼앗아서 마을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²⁾

IV. 자료 「진화(金華)성구 근황표」와 ‘진화(金華)계림회 명부’

여기서 소개할 자료는 한국에 ‘진화계림회 명부’로 이미 알려진 자료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료이다. 2017년 8월 저장성(浙江省) 우이현(武义县) 당안관에서 발굴한 위안소 자료로 처음 공개하는 자료이다.²³⁾ 「진화성구 근황표(金華城區近況表) 三二年六月二〇日」은 『公職候選人檢覈卷宗』(우이현정부, 1945년)이라는 문서철에 들어있으며 총 8쪽이다. 이 자료에 일본군이 책임 관장하고 있는 위안소와 군인클럽 소재지와 건물명, 책임관장[主 持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진화성구 근황표(金華城區近況表)」에는 야탕가(雅堂街)와 산파이팡(三牌坊) 두 곳의 위안소가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자료가 유의미한 이유는 「진화계림회 명부(金華鷄林會會則及名簿, 이하 ‘명부’)」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분

20) 중국어 家务管理에 전업주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1) 『진화현지(金華县志)』, 절강인민출판사, 1992, 93~95 쪽.

22) 『우이현지(武义县志)』, 절강인민출판사, 1990, 91~9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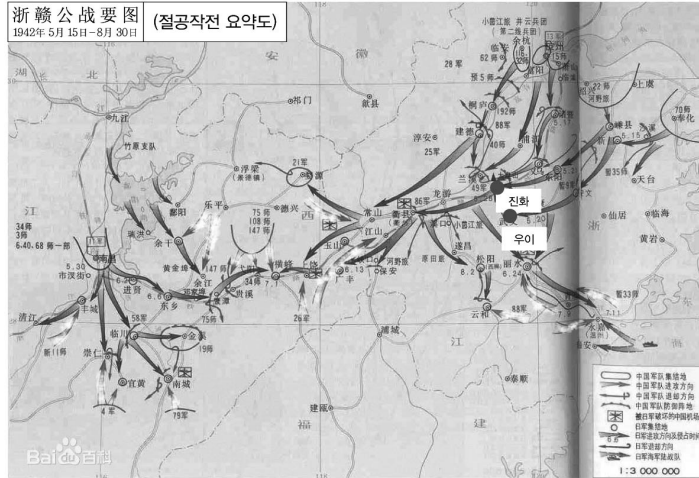
23) 우이현 당안관에서 위안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천주난(陈祖南), 라이야오칭(赖耀卿) 두 분 덕택이다. 두 분은 앞의 주 15에서 인용한 글 「螢乡血泪」의 저자이다. 특히 천주난 선생님 덕택에 여타 당안관과 달리 이들 동안 제약없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²⁴⁾ 앞서 일본군이 진화 일대를 점령한 목적이 형식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일본군 점령과 함께 이주해온 조선인과 일본인은 주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부류일 것이다. 즉 형식 채광 관련 인력, 운반에 필요한 인력, 일본으로 보내는 일련의 ‘무역업’ 관련자 등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외에는 여느 지역처럼 ‘위안업’과 같이 군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었을 것이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재진화 조선인 형성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재지반도인명록』(제4판)을 보자.²⁵⁾ ‘명부’에서 먼저 진화현에 소재하는 조선인의 직업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接客업 관련업자는 뒤에서 「진화성구 근황표」와 『재지반도인명록』(4판)과 교차 비교하기로 하고 먼저接客업 이외의 업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직업별로 분류하면 대체로 5종류로 구분될 수 있겠다. 첫째, 사진업자(滄口사진관, 金岡사진관, 사진업), 둘째, 대외무역 외국인 회사 익민양행(益民洋行), 환일양행(丸一洋行) 사원, 셋째, 회사이름에 업종이 명확한 것으로는 화중운수회사(華中運輸會社)·해성공업사(海星工業社), 넷째, 상세한 업무는 알수 없지만, 유흥업이 아닌 회사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절공물산회사(浙贛物產公司)·합리회사(合利公司)·흥남회사(興南公司)·원등상사(遠藤商社)·삼하흥업(三河興業)·삼익사(三益社)·백양사(白洋社) 등이다. 다섯째, 형식을 채광하는 인력업과 관련 있을 것 같은 곳으로는 대택조(大澤組)·능등조(能登組)·소서조(小西組) 등이다.²⁶⁾

24) ‘진화계림회 명부’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박정애, 2017, 「중국 저장성(浙江省) 진화(金華)의 위안소와 조선인 ‘위안부’ - 진화계림회 명부(金華 鷄林會 名簿) 분석을 중심으로」(『페미니즘연구』 제 17 권 1 호)가 있다. 이보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Ⅱ)』 이인선·황정임·양애경·김동식·강정숙·조윤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에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실려 있다. 박정애는 이 논문에서 각 위안소의 상황과 위안부의 실태 및 귀국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25) 이 글에서는 『재지반도인명부』(제 4 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전 판본은 금화일대가 함락되기 이전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지사항을 언급해두면 다음과 같다. 제 1 판은 1940년 12월 31일 발행되었고 정식 명칭은 『화중반도인명록(華中半島人名錄)』이다. 제 2 판 이후는 『재지반도인명록』(기념호)이고 1941년 12월 26일 발행. 조사기간은 중지판 표제지에만 명시되어 있는데, 1941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백천양행(白川洋行) 인명록계가 조사하였다. 제 3 판은 1942년 11월 5일에 발행. 4 판은 조선징병제도 실시 기념호이고 1944년 2월 5일 발행. 덧붙여 『재지반도인명록』 국내 소장처는 박정애의 선행 논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2 판부터 4 판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을 통해 볼 수 있다. 박정애는 선행 연구에서 진화계림회 명부 분석에 『재지반도인명록』과 『지나재류방인인명록(支那在留邦人人名錄)』을 교차 분석하였다. 나는 후자인 『支那在留邦人人名錄(日文)』(194109) 원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상해 체재 중(2015. 9~2016. 1 및 2016. 9~2017. 8)에 상해당안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했으나 디지털화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자료는 1941년에 발간된 자료이므로 제외해도 1942년 이후 진화 분석에는 지장이 없음을 밝혀둔다.

26) 중국에 있던 회사 이름이 당지에서 중국식으로 불렸는지 일본식으로 불렸는지 알수 없다. 따라서 본문에서 편의상, 한국 한자 이름으로 표기한다.



절공작전에서 굵고 진한 색 화살표 방향이 일본군의 진로, 위쪽 파란 점이 진화현, 아래쪽 파란 점이 우이현

그림 3 절공작전 요약도

사진업은 일본군 점령지에는 어디에나 있는 직종이다. 그 외 나머지 업종은 지역적 특성이 있을 테지만 명부만으로 상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는 『재지반도 인명록』(제4판, 진화편)과 교차 비교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명부’에 회사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조선인의 구체적인 직업을 밝히도록 한다. 먼저, 화중운수회사(華中運輸公司) 소속은 5명이다. 이 중에 나카노 기준(中野基淳)은 사원이고 도미타 토모미(富田致巳)²⁷⁾와 리 무라 타케오(李村武夫)²⁸⁾는 운전수이다. 두 번째, 절공물산회사라는 동일 회사에 가장 많은 조선인이 소속되어 있다. 진화계림회 회장 기시지마 코미네²⁹⁾(岸島子峰, 28세)가 절공물산회사 소속이다.³⁰⁾ 『재지반도인명록』 4판 진화편에서 그는 진화계림회 이사장으로 소

27) 『재지반도인명록』(4판)에 실린 조선인은 거의 창씨개명한 성명이다. 창씨개명은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와 제20호에 따라 6개월 이내로 모든 조선인이 씨를 새로이 만들고 이름 변경은 허가제로 한 황민화 정책이다. 이에 따른 조선인의 창씨개명 방식은 크게 세 종류이다. 성만 일본식 성으로 바꾸거나 성과 이름 모두를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어 부윤이나 읍면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거나, 새로운 씨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선 성을 그대로 일본 한자 발음으로 부르는 방식이었다. 이 글에서는 창씨개명한 성명을 표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읽히는 한자명으로 표기하였다. 일본 성씨는 같은 한자 성씨라도 읽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성씨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 성씨는 『일본성씨대사전』(1997)에 따르면 291,129 개라고 한다.

28) 李村武夫는 진화계림회명부에는 李村載夫라고 되어 있지만 본적과 현주소가 일치하므로 동일인물이다.

29) 子峰라는 일본인 이름은 일본야후 검색 결과 인명한자사전(kanji.reader.bz)에서는 검색물이 없고, 페이스북 사용자 사이트(齊藤)라는 사람이 한 건 검색되었지만 한자발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읽어 표기하였다.

30) 박정애가 앞의 논문에서 “명부 자체에는 계림회 회장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61쪽)한 것은 오류임을 밝혀둔다.

개되어 있고 회사도 같다. 그런데 절공물산회사 소재지가 두 군데인데 허우가(後街) 55호와 난시가(南市街) 32호이다. 먼저 허우가 55호에 소재한 절공물산회사 소속으로 4명이 더 있다. 이 중에서 가나자와 히데키치(金澤秀吉, 28세)는 『재지반도인명록』 제4판에서는 절공물산회사 이사장이고 이름이 가나자와 히데오[金澤秀雄, 창씨 이전 김경재(金璟載)]이며 상해에 거주하고 있다. 이름 끝자리가 다르지만, 가나자와는 둘 다 황주군으로 본적이 같다. 『재지반도인명록』 제4판은 1943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6개월 동안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고 ‘명부’는 1944년 4월 현재 상황이니 그는 1943년에는 상해에 거주하다가 1944년 4월 현재 진화에 이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선인의 이동 경로는 <그림3>의 일본군의 진로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일본군은 5월 20일부터 동으로는 항저우(杭州)에서 서로는 난창(南昌) 방면에서 양쪽으로 진격해 내려오기 시작해서 동양(东阳), 이우, 용강(永康), 우이, 탕시(汤溪), 란시(兰溪) 등 계속 점령하면서 5월 28일 진화성구까지 입성한다. 여기서는 상해에서 진화로 이동한 조선인이 하나 확인되었지만 그 외는 앞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진화성구 근황표」에 관한 자료 설명으로 돌아가서 이 자료는 황자오핑(黃肇峰)³¹⁾이라는 자가 국민당 우이현 현장 차이이밍(蔡一鳴)³²⁾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내용은 1943년 6월 20일자 진화 성구(城区)의 최근 현황에 대해서이다. 일본군이 진화를 점령하고 약 1년이 지난 시기이다. 황자오핑은 「진화성구근황표」를 보내면서 일본군이 진화성구를 점령한 이래 상업 부문이 이미 적과적을 이롭게 하는 무치한 무리(친일 중국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진화성구 근황표」에는 진화 시내에 있는 일본군 군사 시설과 주요 시설물에 관해서 소재지, 원 건물명과 현재 사용처(명칭), 책임관장이 친일세력인지 일본군인지를 구별해서 정리하고 있다. 일본군 시설로는 22사단부, 22사단 참모처, 7934연대부, 헌병대, 병기고 등이 있고, 그 외 일본군이 책임관장하고 있는 주요 시설로는 화중철도회사, 화중광업회사(華中壙業公司) 진화출장소 창고, 백목회사(白木公司) 등이 있다. 또 “위안소(慰安所)”와 “군인클럽(軍人俱樂部)”이 일본군이 책임관장하고 있는 주요 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위안소는 야탕가에 있는 전화국과 후

31) 황자오핑은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보고하는 지역이 란시시(兰溪市) 근교 시아양(下杨)이다. 본문 <그림 2>의 ③ 지도는 현재 행정명이지만 동일한 지명으로 판단된다. 진화시 당안관에는 일본군 점령시기 지도는 없고 1958년도 진화현 지도 4종류가 남아 있다.

32) 자료에는 서류 형식상 우이현장의 성(姓)만 기재되어 있어서 이름을 앞의 글 「螢乡血泪」(앞 신문 8면)에서 보완하였다.

(胡○○) 변호사 주택에 설치하였고 군인클럽은 산파이팡(三牌坊)에 있는 승리반점(勝利飯店)을 접수하였다. 문제는 두 곳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위안소’와 두 곳이 겹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홍지아상(洪加祥)·황쯔지(黃子奇) 글(이하, 홍·황 글)에 따르면 진화 소재 위안소 5곳보다 “장교 클럽 위안소”가 조금 늦게 생겼다고 한다.³³⁾ “장교 클럽 위안소”가 「진화성구 근황표」에 있는 ‘군인클럽’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지적에 따르면 적어도 ‘명부’의 ‘군인클럽’과는 겹치지 않는다.³⁴⁾

다만 문제는 야탕가의 전화국과 변호사 주택을 이용한 위안소와 ‘명부’의 5곳 위안소의 소재지가 겹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야탕가 소재 전화국과 변호사 주택의 번지수를 파악해야 하는데 제반 사정상 아직 소재 파악이 어렵다.³⁵⁾

교차 비교에 앞서 일단 앞서 얘기한 ‘명부’에 나오는 위안소를 정리하면 모두 5곳이다. 진화에서 위안소가 개설된 곳은 야탕가이다.³⁶⁾ ① 야탕가 20호³⁷⁾에 기쿠스이(菊水) 위안소가 있다. 홍·황 글에 따르면 1993년 11월 현지 조사 당시 건물 문 위에 “菊水”라는 검은 글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하석환(河錫煥)이 경영자이고 히야마 덕진(檜山德晋)³⁸⁾은 ‘관리자’로 보인다. 같은 주소에 17명의 여성 이름이 있다. ② 야탕가 31호

33) 홍지아상(洪加祥)·황쯔지(黃子奇), 「저장 일본군 ‘위안소’ 비문(浙江日军“慰安所”秘闻)」, 376 쪽 [구싱웨이(顧行偉) 편집, 1994, 『당대 사회 포커스 사진 - 《노동보》 특집 기사 정선(当代社会热点写真 - 《劳动报》大特写精选)』, 중국공인출판사(中国工人出版社)]. ‘진화계림회 명부’가 처음 발굴된 것은 1993년 11월경으로 국내에 알려진 것보다 꽤 이른 시기이다. 두 필자가 진화 일대의 위안소를 조사하면서 진화시 당안관에서 ‘진화계림회 명부’를 발견하였고 이때 조사한 내용, 즉 ‘진화계림회 명부’와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한 위안소 실태 조사가 상기 서적에 실려 있다. 나는 이 글 복사본을 2015년 11월 왕쑤옌(王选)에게서 제공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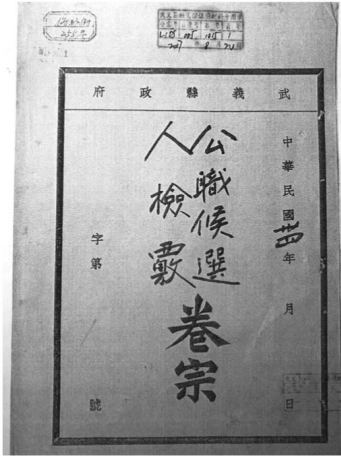
34) 홍·황 글에서 언급된 “장교 클럽”은 야탕가의 “西湖飯店(현재 城关法庭)”에 개설되었으며 일본 여성이 위안부였다고 한다(376 쪽).

35) 일본군 점령시기의 야탕가 지도가 남아 있지 않은데다 중국은 행정구역이 상당히 바뀌어서 1940년대 지번을 현대의 것과 비교하여 찾기 어렵다. 따라서 전화국과 변호사 주택 소재지를 아직 찾지 못하였다. 또한 산파이팡도 현재 남아 있지 않아서 군인클럽의 정확한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진화 성곽은 1990년대 재개발로 없어지고 지명에 일부 흔적만 남았다고 한다. 2015년 12월 방문했을 때 주민의 말에 따르면 야탕가 주변이 이미 상당히 변화했으며 조만간 재개발이 더욱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장소 확인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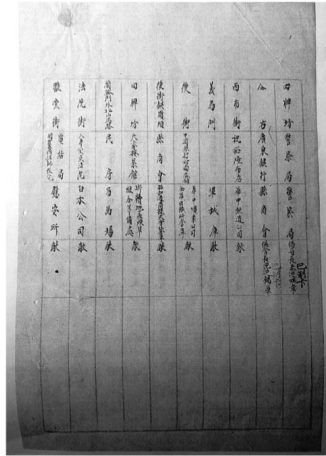
36) 중국 자료이긴 하지만, 위안소는 일본군과 군속이 이용하는 곳이었으므로 일본어 발음으로 불렀을 것이다. 따라서 위안소 이름은 일본어 표기로 하겠다.

37) 주소의 후수는 ‘명부’ 자료에 있는 당시의 것이다.

38) 진화계림회 명부에서는 원자료는 이미지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아서 성이 檜山인 중국 당안관 자료 현황과 자료 해제 -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중심으로 | 249



문서철 표지



위안소 부분 발췌

그림 4 「진화성구 근황표(金華城區近況表)」 (우이현 당안관 소장)

(현재 진화5중학교 기숙사)³⁹⁾에 긴센칸(金泉館)⁴⁰⁾이라는 위안소가 있다. 기가와 창현(木川昌賢)⁴¹⁾이 주인이고 도요시마(豊島英澤)가 관리인으로 보인다. 17명의 여성 이름이 있다. ③ 야탕가 38호(현재 21호)에는 하나니쿠즈키(花肉月)⁴²⁾라는 위안소가 있다. ‘명부’에는 위안소 이름과 업자 이름이 없지만, 『재지반도인명록』 제4판 진화편에는 가네모토(金本一成, 본적 평북 철산군)가 야탕가 38호에서 하나니쿠즈키를 하고 있다. ‘명부’는 1944년 4월 현재 상황이고 제4판은 1943년 6~11월 상황이므로 ‘명부’에 경영자 이름이 없는 것은 누락되었거나 경영자가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 바뀌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곳에는 28명의 여성 이름이 있다.⁴³⁾ ④ 야지 檜山인지 명확하지 않다. 추후 당안관 원본과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필사본에는 한자가 檜小德푸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지

39) 야탕가 위안소 5 곳 중에 4 곳에 괄호 안 현재 주소 기준은 1993년 11월 홍·황의 조사 당시이다.

40) 속칭 팡유엔(芳園)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앞의 홍·황 글, 375 쪽.

41) 『재지반도인명록』 제 4 판 진화편에는 기가와 창현 이외에 기가와 창서(木川昌瑞)가 있는데, 창현과 본적(평양)도 같고 현주소도 동일하다. 이름으로 보아 친형제거나 사촌형제로 추정된다. 1943년 6~11월 사이에는 창서와 창현이 긴센칸에 같이 있었는데 1944년 4월 현재 창현이 주인으로 남아 있다. 창서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가와는 창씨만 하고 일본어 개명은 하지 않은 듯하다. 당시 이름을 조선어로 발음했는지 일본음으로 발음했는지 알 수 없어 여기서는 조선어 표기로 해둔다.

42) 홍·황 글에 따르면 기쿠즈키(菊月) 혹은 우지앙로우(婺江樓) 위안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다고 한다. 여러 이름으로 불린 이유는 알 수 없다.

43) 28명의 이름 중에 최상두(崔相斗)라는 이름은 여자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나머지는 명백하게 여자 이름이다.

반도인명록』 제4판 진화편에서 檜山貞治라고 되어 있다. 둘 다 본적이 해주군인 것으로 보아 동일인물로 추정되지만 히야마는 사다하루(貞治)라는 이름이 시기적으로 먼저 나온다. 다만 貞治가 ‘사다하루’가 아니라 개명하기 전의 ‘정치’라는 이름일 수 있다. 또 德晋은 일본인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 조합이므로 현재로서는 동일인물인지의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재지반도인명록』(2~4판)을 분석한 결과 창씨개명하면서 처음엔 성만 바꿨다가 나중에 이름까지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부기해 둔다.

탕가 39호(현 12호)에는 긴카로(金華樓)⁴⁴⁾라는 이름의 위안소가 있다. 흥·황 조사에서⁴⁵⁾ 문 위에는 “安所”라는 두 글자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임도준(林道濬)이 업주이고 12명의 여성이 있다. ⑤ 야탕가 66호(현재 인민 육실 일대)에는 여성 이름만 9명이 있다. 업자가 일본인일 수도 있고 야탕가 39호 경우처럼 조선인이지만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⁴⁶⁾ 20호 기쿠스이와 39호 긴카로 위안소는 『진화현 문사(文史)자료』 제5집에서도 위안소로 파악하고 있다.⁴⁷⁾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인 연구자의 1990년대 초 조사 결과와 ‘명부’에 근거하여 진화에 조선인 업자가 운영했던 위안소 현황이 밝혀졌다. 이에 더하여 자료 「진화성구 근황표」 발굴에 따라 명확해진 점은 적어도 1943년 6월 진화에서 일본군이 책임관장으로 운영했던 위안소와 장교용 오락시설(위안소 포함)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V. 맺음말

몇 가지 과제도 남아 있다. 첫째, ‘명부’의 위안소와 ‘근황표’의 위안소 소재지를 밝혀 두 자료에 명기된 위안소가 별개의 것인지 혹은 중첩되는지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둘째, 중국인 연구자 흥·황 글과 당의 글에서 언급한 장교클럽 “시후호텔(西湖飯店)”과 「진화성구 근황표」의 성리호텔(勝利飯店)에 개설한 군인클럽이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도 소재

44) 이곳은 “가게쓰(花月) 위안소” 라고도 불리었다고 한다. 흥·황 글, 375 쪽.

45) 1993년 흥·황 글과 1992년 당상지 글을 교차 비교하니 동일한 이름의 위안소인데 현주소가 다르거나 현주소가 같은데 위안소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다.

46) 1942년 11월 5일 발행한 『재지반도인명록』 제3판 편집후기에 보면 등록을 위해 자진 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가 마감이고 이 시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누락되었다고 한다.

47) 당상지(唐桑梓), 「함락시기 진화의 위안소와 위안부」(금화현 정협 문사자료 편찬위원회, 金華縣政协文史資料工作委員會) 편, 1992, 『진화현문사자료(제5집)』.

지 파악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 중국 당안관 소장 자료는 앞으로 더욱 발굴에 힘써야 하며 조사 대상은 위안소제도·위안부와 직접 관련된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 내용까지로 범위를 넓혀 자료 발굴과 연구가 동시에 심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이나 미국 등지와 달리 중국 자료 수집은 한중 정치외교 관계와 밀접하고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또 중국 당안관은 자료 열람 조건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도 하다.

일례로 개인 외국인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려고 할 때 중국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안관에 따라서는 대학 외사과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⁴⁸⁾ 조사 여건 자체가 까다롭긴 하지만 앞으로 중국 자료 발굴은 좀 더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자료 조사는 위안소·위안부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일본군과의 전투지역이나 점령지역 소재 당안관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동북지역 당안관은 해당 당안관에서 직접 자료 조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 열람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해당 당안관과의 교류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 중국 중부 및 이남 지역에 소재한 당안관에는 민국 시기(1912~1949) 중국어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⁴⁹⁾ 자료 조사에 중국어만 능하다고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위안소나 위안부라는 검색어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 조사 경험상 위안소제도·위안부 연구자와 중국어 가능자를 조사팀으로 꾸려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또 지금까지 중국에서 한국 정부기관(외교부)의 협조하에 자료를 수집해본 적도 있고 개인 연구자로서 수집해 본 경험에서 말하자면 한국정부기관의 현지 협조가 매우 유효하였다. 자료 수집비 등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국에서는 특히 한중 정부차원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자료 수집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정부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외에 국사편찬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프로젝트 수행 기관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의 상호 협조하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후세대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제공 시스템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48) 외사과 추천서는 대학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 등 대학 추천서보다 자격과 결재 등이 까다롭다.

49) 중국 정부가 민국시기 자료 공개 범주를 선별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2015~2017년의 경험에 따르면, 외국인 연구자가 일본군 범죄행위나 위안부 관련 자료 열람을 신청하면 매우 까다롭게 대응하고 있었다. 다만 방문할 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꾸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2. 상하이 지역 일본군 '위안소'

쑤즈량 蘇智良
(상하이사범대)

문헌, 구술과 연구: 일본군‘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의 재건

| 쑤즈량 (상하이 사범대학)

[개요] 1991년 이후, 아시아 각 지역의 학자들은 자료의 연구 분석, 생존자 방문을 통해서 일본군‘위안부’-성노예 제도-의 역사적 사실을 재건했다. 국제 사회도 위안부 제도는 대규모로 자행된 인권을 침해한 전쟁 폭력이며 일본은 마땅히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침략 책임을 부인하는 관점이 주류를 이룬다.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폭력 역사를 교과서에 반영,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 신청, 영상물을 제작, 박물관, 기념관 등을 건립 등의 활동은 이 역사적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위안부’의 성격, 규모, 기록에 관해 아시아 각국과 일본간 여전히 많은 의견차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키워드]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위안소, 역사 기억

1991년 8월 14일,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성노예 폭행 증언 이후,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라는 반인류적인 범죄 행위를 알게 되었다. 각국의 역사학계, 법학계 등은 이 문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

왔고 국제 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2차 세계 대전이 남긴 역사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제 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세계 역사학계의 관심도 측면에서 보면 2차 세계 대전의 역사 연구와 교육적인 부분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본고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연구와 성과를 다시 돌아보고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일본군‘위안부’ 역사의 재건

1948년 11월 4일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판결서에 ‘구이린(桂林) 점령 기간, 일본군은 강간과 약탈 등의 폭행을 일삼았고, 공장을 설립한다는 구실로 여공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여공은 일본군의 창기(娼妓)로 강제 동원되었다¹⁾’고 기록하여 ‘위안부’ 내용이 일부 거론되긴 했지만 당시 재판에서 촉박한 시간, 입증의 어려움과 일본 당국의 은폐 행위 등의 여러가지 요인으로 ‘위안부’를 범죄 유형으로 따로 분류하지 못한 채 그 책임을 묻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쳤다.

1991년 이후, 일본군‘위안부’ 역사의 조사 연구는 매우 험난하고 힘겨운 복원 과정을 거쳤다. 복원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전쟁에서 패한 일본이 당시 대량의 문서를 소각했기 때문이며 둘째, 피해자와 피해국의 경우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일들을 꺼내기 쉽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국가의 ‘위안부’ 생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을 하고 각 지역의 인권 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 기관도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와 법학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험난한 현장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다양한 역사 문헌이 수집되고 공개되었다. 이로써 전쟁 당시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실체가 서서히 그 베일을 벗기 시작한 것이다.

1) 장사오린(張效林) 譯 : <극동 국제 군사 재판 판결서 (遠東國際軍事法庭判決書)>, 군중출판사(群衆出版社), 1986년 출판, 490p

일본중앙대학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의 연구팀은 문서를 찾고, 자료집을 출판하고, 학술 연구를 추진했다.²⁾ 마쓰오카 다마키(松岡環), 니시노 루미코(西野瑠美子) 선생 등은 일본 노병을 방문하고 그들의 일기를 수집 분석했다.³⁾ 가와타 후미코(川田文子) 선생 등은 일본 ‘위안부’ 조사를 했고, 센다 가코(千田夏光), 마쓰이 야오리(松井耶依), 김일면(金壹勉), 스즈키 유코(鈴木裕子), 김부자(金富子), 나가하라 미치코(中原道子) 등 선생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와 위안부 문제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 설립을 통해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여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2015년 12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를 신속하게 체결하였으나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성의와 진심이 결여된 이 합의는 생존자와 한국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한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현재 보류 상태에 놓여있다.

한국에서는 민간 단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생존자를 조사하고 물심양면 지원 활동을 하며 ‘나눔의 집’이라는 양로 시설도 세웠다.⁴⁾ 1992년 1월 8일 이후, 매주 수요일에 서울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가 26년째 꾸준히 열리고 있다. 수요 집회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이다. 수요 집회의 목적은 일본 정부에게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이 강제 동원한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2011년 12월 14일 제1000회 수요 집회가 열린 날, 일본 대사관 앞의 수요 집회 장소의 도로명칭은 ‘평화로’로 변경되었고,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이후 한국의 국내와 해외에서 ‘위

-
- 2) 요시미 요시아키의 ‘위안부’ 관련 주요 작품: <중군위안부자료집>(오오스키 서점 1992년), <중군위안부>(이와나미 서점, 1995년), <일본군 위안부 공동 연구>(하야시 히로후미와 공동 편찬, 오오스키 서점 1995년) 등
 - 3) 일본 학자 마쓰오카 다마키는 100여 종의 일본군 노병의 일기를 수집했다. 난징을 중심으로 일본군에 의해 강제 징집 당한 중국 부녀자와 위안소 설치에 관한 일부 사실을 밝혔다. 주요 저서로는 마쓰오카 다마키 著, 新内如, 全美英, 李建雲 譯: <난징 전쟁·폐쇄된 기억을 찾아서 - 중국 침략 일본군 사병 102명의 증언>(상하이서출판사(上海辭書出版社), 2002년), 마쓰오카 다마키 著, 沈維藩 譯: <난징 전쟁·갈라피 찢긴 피해자의 영혼 - 난징 대학살 피해자 120인의 증언(南京戰·尋找被封印的記憶——侵華日軍原士兵 102人的證言)>(上海辭書出版社, 2005년). 작가와 조사자인 니시노 루미코는 중국 하이난, 윈난, 난징, 상하이 등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중군 위안부>(아카시 서점, 1992년), <중군 위안부의 15년 전쟁>(아카시 서점, 1993년 출판), <여성 국제 전범 법정 의 모든 기록>(공동 편찬, 로크후 출판사, 2002년), <戰場の“慰安婦”——拉孟全滅戰を生き延びた朴永心の軌跡(전장의 “위안부” - 라모 전멸전에서 살아남은 박영심의 궤적(가역))>(아카시 서점, 2003년)
 - 4) 나눔의 집은 한국 자선가가 토지를 기증하고 민간 모금 및 한국 불교 조계종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995년 12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자리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생존자들의 양로원이면서 위안부 역사 박물관이다.

안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추진되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⁵⁾ 여성가족부, 정신대연구협의회 등 민간 단체와 각 대학들이 '위안부' 피해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사회, 학계가 긴밀하게 협력을 진행했다.

중국 역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생존자를 찾아 사실을 확인하고 특히 일본 점령군의 문서, 전시 신문 등의 역사 자료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중앙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군 서면 자백서 선편(中央檔案館藏日本侵華戰犯筆供選編)>⁶⁾ 120권이 출판되었는데, 그 안에는 일본 정부군이 아시아 각 지역에서 부녀자를 납치하고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린성당안관은 관동군 자료⁷⁾를 공개했는데 그 안에는 '위안부' 관련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위안부 연구(慰安婦研究)>, <일본군 성노예(日軍性奴隸)>, <일본군'위안부' 제도 비판(日軍“慰安婦”制度批判)>, <포루 속의 여인- 산서 일본 성노예 조사 실록(炮樓裏的女人——山西日軍性奴隸調查實錄)>, <'위안부' 와 성폭력(“慰安婦”與性暴力)>, <증거: 상하이 172개 일본군 위안소의 비밀을 벗기다(證據: 上海172個日軍慰安所揭秘)>, <난징 일본군 위안소 실록(南京日軍慰安所實錄)>, Chinese Comfort Women: Testimonies from Imperial Japan's Sexual Slaves 등이 있다.⁸⁾

-
- 5) 위안부 소녀상은 캐나다, 미국, 중국, 호주, 독일 등에 세워졌다. 필리핀 위안부 소녀상은 2018년 이전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웹사이트 제작 위원회가 공동 편찬한 <평화의 소녀상은 왜 계속 되는가? (平和少女像 > はなばな座り續けるのか)> (세오리 소보 (世織書房), 2016년) 을 참조
- 6) <중앙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 전범 서면 자백서 선편 (中央檔案館藏日本侵華戰犯筆供選編)>, 120 권, 중화서국 (中華書局) 2015-2016년
- 7) 지린성 당안관 :<철정여산 - 지린성의 새로 발견한 일본군 중국 침략 문서 연구 (鐵證如山——吉林省新發掘日軍侵華檔案研究)>, 제 1 권, 지린성출판그룹 (吉林省出版集團), 2014년
- 8) 쑤즈량 : <위안부 연구 (慰安婦研究)>(상해서점, 1999년), 쑤즈량 :<일본군성노예 (日軍性奴隸)>(인민출판사 2000년), 천리페이(陳麗菲):<일본군 위안부 제도 비판 (日軍“慰安婦”制度批判)>(중화서국, 2007년), 장쌍빙(張雙兵) :<포루 속의 여인 - 산서 일본군 성노예 조사 실록 (炮樓裏的女人——山西日軍性奴隸調查實錄)>(강소인민출판사 江蘇人民出版社 2011년), 쑤즈량, 천리페이 :<위안부와 성폭력 (“慰安婦”與性暴力)>(산둥화보출판사 (山東畫報出版社), 2015년), 쑤즈량, 천리페이, 야오페이 (姚霏) :<증거: 상해 172개 일본군 위안소 비밀을 벗기다 (證據: 上海 172 個日軍慰安所揭秘)>(상해교통대학출판사, 2018년), 쑤즈량, 장젠진 (張建軍) 주관 :<남경일본군위안소실록 (南京日軍慰安所實錄)>(남경출판사, 2018년), 치우페이페이 (丘培培), 쑤즈량, 천리페이 : Chinese Comfort Women: Testimonies from Imperial Japan's Sexual Slaves.(캐나다 UBC 출판사, 2013년,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2014년, 홍콩대학출판사 2013년) 등

2. 일본군‘위안부’ 역사의 몇 가지 핵심

1) 시간과 공간

일본군‘위안부’ 역사는 1932년 1월 상하이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 상하이해군 특별육전대(上海海軍特別陸戰隊) 사령부는 일본 교민이 설치한 풍속점(風俗店)을 해군 지정 위안소로 지정하였다. 풍속점에는 대일 살롱(大一沙龍), 삼호관(三好館), 소송정(小松亭)과 영락관(永樂館) 등이 포함되었다. 동보흥로(東寶興路) 125 룡(弄)에 위치한 ‘대일 살롱’ 해군 위안소는 1932년 1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운영된,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된 일본군 위안소로 현재 5개 동이 잘 보존되어 있다.⁹⁾ 1932년 1월 28일 일본 해군이 ‘128 사변(상해 사변)’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 전쟁 규모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는 상하이 파견군을 조직하여 지원을 한다. 일본 정부군이 전쟁 지역 부녀자를 강간하는 일들이 수차례 발생하면서 중국과 각국의 여론이 악화되고 맹렬한 비난에 직면하자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 상하이 파견군 부참모장은 일본 부녀자를 모집하고 일본군을 위한 성접대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진행을 담당하는 이는 파견군의 고급 참모인 오카베 나오사부로(岡部直三郎)로 그가 3월 14일에 쓴 일지에는 ‘사병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부녀자들을 찾아내고, 도덕적으로 풍기 문란을 일으킨 소식들이 끝없이 들려왔다. 사병들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¹⁰⁾

오카베 나오사부로와 주로 나가미(永見俊德)는 ‘위안부’ 시설을 검토한 후 오카무라 야스지에게 위안부 설치 시행 보고를 올렸다. 오카무라 야스지는 나가사키현 지사에게 ‘위안부단’을 모집해 상하이 일본 점령지로 위안부를 보내 위안소를 신속히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¹¹⁾

9) ‘대일 살롱’은 처음에는 ‘大一’로 불렸으며, 상하이 일본 교포가 초창기에 만든 일본식 ‘대좌부(貧座敷)’이다. 소위 ‘대좌부’는 일본식 풍속 영업점으로, 고객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여성 접대부를 제공했다. 접대 고객은 국적은 상관없다고 했으나 사실상 일본인 위주로, 일본 사병과 일본 교민이 주를 이루었다. ‘大一’의 이름은 1920년 <상해일본교민명록>에 기록되어 있었고, 처음에 일본 교민 시라카와(白川)가 경영하였으며, 보산로(寶山路)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후에 동보흥로(東寶興路)로 이전했다.

10) 【日】오카베 나오사부로(岡部直三郎): <오카베나오사부로의 일기>, 1932년 3월 14일, 후요쇼보(芙蓉書房) 1982년, 23p

11) 쉰즈량, 천리페이, 야오페이: <상하이 172명 위안소의 비밀을 벗기다> 참고, 상해교통대학출판사, 2018년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변 이후,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고위층도 위안소 설치를 신속히 추진했다. 헤이룽장에서 하이난다오, 랴오닝에서 원난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는 모두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지린, 산시, 후베이, 광둥, 광시 등 22개 성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었다.

1941년 12월 7일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태평양과 동남아 각지역의 점령지, 오키나와, 조선반도, 대만 식민지 등 일본군 점령지에 모두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정리하면 시간상으로 일본군‘위안부’는 1932년 1월에서 1945년 8월 전쟁 종식때까지 존재했고, 공간상으로는 일본군 점령지, 주둔지 거의 대부분 지역에 위안소 또는 변형된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2) 일본 정부와 군대의 관련

일본군 부대를 위한 ‘위안부’ 배치와 위안소 설치는 2차 세계 대전 기간 일본 군대의 기본적인 제도였다. ‘전쟁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라는 구호 속에 일본 정부의 외무성, 법무성, 내무성, 경찰, 각 도부현(道府縣)과 육군성, 해군성이 적극적으로 가담 협조하여 위안소의 설치, 운영 관리를 허가하고 편의를 제공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은 위안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성노예 제도의 산파 역할을 했다.

외무성을 예를 들면, 외무성은 일본과 조선으로 파견한 ‘위안부’를 중국 등지로 보내는 증명서를 발급했다. 1938년 가을 우한회전(武漢會戰) 시기, 일본 외무부와 군은 이미 우한 위안소 설치를 공모 중이었다. 9월 28일 고토 아치(後藤味) 상하이 일본 총영사가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외무 대신에게 보낸 〈한커우 점령 후 이방인 진출에 관한 응급 처리 강요(對於漢口占領後邦人進出的應急處理要綱)〉에는 ‘거류민 이외의 사람이 한커우에 올 경우 수송능력과 신청인의 개업 상황을 고려한다. 하지만 군인 위안소 설치에 관한 경우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²⁾ 그리고 영사관을 파견해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를 예의주시했다. 1939년 2월 3일, 하나와 요시타카(花輪義敬) 한커

12) 【日】 요시미 요시아키 : <중군위안부 자료집>, 오오스키 서점, 1992년, 116p

우 일본 총영사가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 외무대신에게 보낸 〈한커우 도항자 관리에 관한 문건(關於管理去漢口渡航者の文件)〉에는 ‘군대 위안소는 이미 20여 곳이 있다(병참, 헌병대, 본 총영사관에서 허가한 위안소 포함)’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¹³⁾.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은 1930년대 중반 위안소 조사에 개입했다. 난징에서는 1938년 4월 16일, 일본 영사관과 일본 육군, 해군이 연석 회의를 열고, 난징 위안소 관리를 협의했고, ‘군대에 위안소를 설치할 경우 위안부의 본적, 주소, 성명, 나이, 출생과 사망 등 변동 상황은 영사관에 즉시 통보한다’¹⁴⁾ 등의 내용을 정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은 ‘위안부’ 제도를 시행한 주체이며,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전방위적으로 위안소 설치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1938년 3월 4일, 일본 대본영(大本營)은 화베이방면군(華北方面軍), 화중방면군(華中方面軍) 참모장에 [육지밀 745호 (陸支密745號)] 기밀 문서를 발송했는데 그 내용은 다름아닌 ‘위안부’ 모집 및 위안소 설치에 관한 것이다. ‘위안부 모집 활동은 파견군 1급이 ‘통제(統制)’하는 것으로 하고 각 군은 적합한 담당자를 파견해 이 일을 맡긴다. 여성을 모집할 때 현지 경찰과 헌병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¹⁵⁾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문서는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육군성 차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 공식 문서는 육군 외에도 정부 경찰과 헌병 기관 역시 ‘위안부’ 제도의 마련과 시행에 개입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일본 육군성이 정부 군사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 군사 ‘위안부’ 제도의 시행의 지도자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1940년 9월 19일, 육군성이 각 부대에 하달한 교육 참고 자료 〈중국 사변의 경험으로 보는 군기 진작 대책(從中國事變的經驗來看振作軍紀的對策)〉은 일본군의 ‘약탈, 강간, 방화, 포로 살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 ‘성적 위안소가 사변(事變)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위안소 설치를 주도면밀히 검토해야 한다’¹⁶⁾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군대 고위층은 위안소가 사기 진작, 군기 유지, 강간 예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⁷⁾. 이 기록은 일본 정부와 군대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1940년 동북 지역을 시찰한 미키 요시히데(三木良英)

13) 【日】가와타 후미코 : <황군위안소의 여자들 (皇軍慰安所の女たち)>, 치쿠마 쇼보, 1993년, 222p

14) 【日】요시미 요시아키 : <중군위안부 자료집> 오오스키 서점, 1992년, 179p

15) 【日】요시미 요시아키 : <중군위안부 자료집> 오오스키 서점, 1992년, 105p

16) 【日】요시미 요시아키 : <중군위안부 자료집> 오오스키 서점, 1992년, 168p

17) 【日】요시미 요시아키 : <중군위안부>, 이와나미 서점, 1995년, 37p

육군성 의무국장은 <시찰소견(視察所見)>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중국 부대 전방의 생활이 대부분 좋지 않다. 정부군의 정신 위안을 고려하고 이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부대장은 불분명한 원인으로 인한 도망, 폭행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그들에게 정신적인 안식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이하라 겐지(土肥原賢二) 사단장은 ‘위안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경 수비대는 3년 동안 외출한 적도 없다. 군대 위문단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¹⁸⁾

1942년 9월 3일 육군성 과장 회의에서 은상(恩賞) 과장은 ‘현재의 위안소를 기반으로 장교관 이하급의 위안 시설을 마련하며, 다음의 규모로 진행을 한다. 화베이 100곳, 화중 140곳, 화난(華南) 40곳, 난팡(南方) 100곳, 난하이(南海) 10곳, 사할린섬 10곳, 모두 400곳으로 한다’¹⁹⁾는 내용을 제시한다.

1937년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 발발한 후, 상하이 파견군, 화중방면군 등 핵심 기관은 위안소 설치를 직접 진두 지휘했다. 당시 화중방면군 총사령관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참모장은 츠카다 오사무(塚田攻) 였다. 늦어도 1937년 12월 11일에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이누마 마모루(飯沼守) 일본군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은 이 날 일기에 ‘화중 방면군에서 위안 시설 설치에 관한 문서를 받았다’²⁰⁾고 기록했다. 이를 통해 난징 점령 전에 화중방면군은 이미 상하이 파견군에게 위안소 설치 명령을 하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상하이 진산웨이(金山衛)에 상륙한 제10군 역시 같은 명령을 받았다. 이군의 참모인 테라다 마사오(寺田雅雄) 중좌(中佐)는 후저우에서 현병대의 현지 여성 모집 활동을 은밀하게 지휘하고 12월 18일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했다.²¹⁾ 상하이 지역에 하루 빨리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상하이 파견군 참모부는 이 참모부 제2과 과장 조 이사무(長勇) 중좌에게 이 일을 전담하도록 한다. 12월 19일 이이누마 마모루는 ‘조

18) 【日】 육상 자위대 위생학교 (陸上自衛隊衛生學校) 소장 : <육군성 업무 일지 (陸軍省業務日誌)>

19) 【日】 육상 자위대 위생학교 (陸上自衛隊衛生學校) 소장 : <육군성 업무 일지 (陸軍省業務日誌)>

20) 【日】 남경전사편집위원회 (南京戰史編集委員會) : <남경전사자료집 (南京戰史資料集)>, 가이코샤, 1989년, 211p

21) 남경전사편집위원회 (南京戰史編集委員會) : <남경전사자료집 (南京戰史資料集)>, 가이코샤, 1989년, 411p

이사무(長勇) 중좌에게 ‘여랑옥(女郎屋)’ 설치를 위임했다²²⁾ 고 기록했다. 같은 달 28일 그는 ‘일본군의 위법 행위가 날로 심각해져 제2과에서 각 부대 책임자를 소집해 참모장의 훈계령(訓誡令)을 전달했다’²³⁾ 고 기록했다.

지린(吉林)에서 발견한 2건의 역사 문서는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 설치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주 중앙 은행 문서는 이 은행 자금부 외자과(外資科)의 전화 기록으로 강덕 12년(1945년) 3월 30일 작성된 것이다. 그 내용은 쉬저우(徐州)의 일본군 7990부대가 관동 제4과의 승인을 받아 만주 중앙 은행 화이하이성(淮海省) 연락부를 통해 이 은행 안산(鞍山)지점 경리에게 25만 2천 엔을 송금해 ‘위안부’ 마련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돈의 수령인은 ‘안산성리사령부(鞍山聖理司令部)’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주 중앙 은행 안산 지점의 경리일 것으로 추정되며, ‘사령부’ 라는 세 글자는 연문(衍文)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문서는 ‘실제 수령인은 안산의 요네하마 쓰루(米山鶴)이다’, ‘상술한 금액은 표면적으로는 공금 형식이다’, ‘큰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점의 정기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비록 정기 계좌는 한도 제한이 있으나 이 돈은 아마도 면제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군용 공금 명목으로 처리를 허가한다’ 이렇게 ‘군용 공금 명목으로 처리를 허가한다’ 고 명확히 한 후 마지막에 ‘본 건은 관동군 제4과에서 발급을 증명한다’ 라고 추가 문구가 들어가 있다. 다음으로 ‘1944년 11월 17일, 5만엔, 12월 16일 15만엔, 1945년 1월 24일 8만엔²⁴⁾ 등 3건의 송금 기록이 있다. 4건의 송금까지 합치면 53만 2천 엔에 이른다. 불과 4개월 남짓 기간 동안 7990 부대는 ‘위안부 마련(구입)’을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는 일본군이 군비로 추진한 ‘위안부’ 제도는 당시 일본군 내부에서도 합법이었으며 일본 정부와 군대는 성노예 제도 시행의 추진자였음을 보여준다. 이 돈은 주로 중국과 한국의 일본 경찰 기관의 ‘위안부’ 징집 및 운송, 일본 공병부대의 위안소 설치, 군대 내 신체 검사 체계 마련, 위안소 경계 등의 용도에 사용되었다.²⁵⁾ ‘위안

22) 【日】 남경전사편집위원회 (南京戰史編集委員會) : < 남경전사자료집 (南京戰史資料集) >, 가이코샤, 1989년, 220p

23) 【日】 남경전사편집위원회 (南京戰史編集委員會) : < 남경전사자료집 (南京戰史資料集) >, 가이코샤, 1989년, 220p

24) < 만주 중앙은행 안산지점 ‘위안부’ 마련 자금 전화 기록 (滿洲中央銀行鞍山支店 “慰安婦” 採購資金電話記錄) >, 강덕 12년 (1945년) 3월 30일, 지린성 당안관 소장.

25) 【日】 아소 데츠오 (麻生 徹男) : < 상하이에서 상하이로 (上海より上海へ) > (세키후샤, 1993년), 센다 나스코 (千田夏光) : < 종군위안부 (從軍慰安婦) > (후타바샤 (雙葉社) 1973년, 니시노 루미코 : < 종군위안부의 15년 전쟁 (從軍慰安婦之十五年戰爭) > (아카시 쇼텐 (明石書店) 1993년) 참고

부 마련' 자금은 '위안부'에게 지급이 된 것이 아니었다. 중국, 한국, 북한의 조사 과정에서 '위안부' 생존자들은 자신의 생명조차 보호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했다.

사료에서도 일본군은 군 1급 기관에 위안소 설치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군관(직위)를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참모부, 군의부, 관리부가 공동으로 위안부 업무를 책임지고, 주보부(酒保部) 또는 병참 산하에 위안소 전담 관리 기구를 두고 'OO과'라고 하기도 하고, '위안소과', '위안부고(慰安婦股)'라고도 명명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관동군의 경우 사령부 참모 제3과가 위안소를 책임졌다. 상하이에 주둔한 제7331부대는 위안소과를 따로 마련했다.²⁶⁾ 우한(武漢)의 일본군 제11군 병참도 위안소과를 두고 군관 2명, 하사관 2명, 사병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의 직책은 '위안부' 관리, 위안소 운영 감독이었다. 사료는 '위안부'가 민간 운영 위안소에 도착할 때마다 병참 위안소과는 위안소 주인과 함께 '위안부'의 사진, 호적 필사본, 경찰 허가서, 지방정부에서 발급한 신분 증명서, 병력 등을 검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⁷⁾

3) 위안소의 유형

일본군 위안소는 통상적으로 군대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안소, 일본계 외국인이 운영하는 위안소, 조선인이 운영하는 위안소와 괴뢰 정권의 일본군 협력자가 설치한 위안소 등이 있는데, 그 중 일본군이 직접 운영하는 위안소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성노예 제도를 실시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상부에서 하부 조직으로 명령을 내려 조직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있고, 중대, 대대 등 부대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례도 있다.

그 외에도 원래는 기생집이었으나 일본군과 괴뢰 정권이 일본 정부군을 접대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비록 위안소라고 따로 간판을 달지 않았지만 변형된 일본군 전용 위안소도 있었다.

26) 요시미 요시아키 : <중군위안부 자료집>, 오오스키 서점, 1992년, 271p

27) 【日】 야마다 세이키치 (山田清吉) : <무한병참 (武漢兵站)>, 도서출판사 1978년, 상세 참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위안소에서만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며 중국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전범 아키타 마쓰요시(秋田松吉)는 ‘1940년 2월부터 1941년 5월까지 제 43대대 제 3중대 산둥성 장치우현(章丘縣) 난차오관(南曹範) 특파대 대장 야마네 신지(山根信次) 오장 등 15명이 난차오관 주둔 했다. 나는 이 부대 일등병 보조였다. 야마네 신지 오장은 위촌公所(僞村公所, 괴뢰정부의 마을 사무소)를 통해 강제로 끌고 온 5명의 중국인 부녀자를 ‘위안부’로 만들었다. 우리 15명은 중국인 부녀자 5명을 1년 5개월동안 유린했다’²⁸⁾ 고 자백했다. 산시의 70여 명의 생존자들도 대부분 포루로 끌려와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4)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규모

오랜 기간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규모는 우리가 이전에 예측하고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만 최소 172곳의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난징 최소 70여 곳, 하이난다오 최소 67곳, 우한에도 수십 여 곳의 위안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밝혀진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저장성 진화시당안관 소장 일본어관 <진화 계림회 회칙 및 명부(金口林會會及名簿)>는 1944년 4월 조선인 동향회 명부로 중국 정보원이 획득한 것이다. 200여 명 남짓의 명단이지만 일본군이 진화 지역에 ‘위안부’ 성노예 제도를 만들었다는 정보가 많이 숨어있다. 문헌 연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명부에 11개 위안소, 위안소 주인 8명, 관리인 7명, ‘위안부’는 126명으로 위안부 숫자는 진화 계림회 조선인의 60%, 최연소 위안부는 17세 등 기록을 확인하였다. 위안소 관계자 모두 141명으로 진화 계림회 조선인의 67.19%를 차지해²⁹⁾ 그 비율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는 전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가 보편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반영한다.

28) 【日】 <아키타 마쓰요시 1953년 자백서(秋田松吉 1954년 年呈供自述)>, 중앙 당안관 소장

29) 진화시 당안관 소장 <진화계림회 회칙 및 명부의 사본을 상급 관청에 제출(抄呈金華雞林會會則及名簿文)> 1945년 1월 30일, 문서 번호 L001-001-636-020

5)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것인가 아니면 생계를 위한 것인가

오랫동안, 일본 국내 우익 세력은 마치 ‘누가 누가 더 우익인가’를 겨루듯 황당한 모습을 연출하며 일본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해왔다. 2007년 3월 5일 미국 하원이 일본의 전시 성노예 제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기가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 의회의 결의안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비록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우리는 절대로 사죄할 수 없다. 좁은 의미에서 강제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그 일을 증명할 증언도 없다. 또한 중군 ‘위안부’는 본인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길이다. 물론 일부 업자들이 강제 동원한 정황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반 가정집으로 난입해 사람들을 끌고 나온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³⁰⁾. 2013년 5월 하시모토(長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공공연하게 “전시 상황에서 위안부 제도는 필요한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주일 미군도 일본의 윤락 시설을 잘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4년 1월, 모미이 가쓰토(籾井勝人) 일본 NHK 신임 회장은 ‘위안부 문제는 어느 국가에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³¹⁾

일본 정부와 군부가 전쟁 기기(일본군)를 잘 돌리기 위해 ‘위안부’제도를 실시한 후 대규모 외국인 여성과 식민지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고, 특히 중국, 조선, 동남아 각지역의 부녀자들에게 집중되었다. 아시아 각 지역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료들과 증언이 이들 여성이 강제 동원되어 유린당하고 ‘위안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그녀들은 자유를 박탈당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산시 명현(孟縣), 우상(武鄉) 등 지역에서 일본군은 팔로군과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농촌 부녀자들을 잡아 포루에 가두었다. 포루는 ‘합법적인 강간 센터’가 되었다. 오랜 시간 조사 끝에 현지에서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용기 내어 증언한 피해자가 적어도 70여 명에 이른다. 하이난의 수많은 지역에서도 일본군은 여성을 마음대로 군대 거점지로 끌고 와 성노예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청마이현(澄迈)에서는

30) [한국] 한국위안부문제대책협의회 < 잊을 수 없는 역사, 일본군 위안부 >, 중문판 (판권 없는 페이지), 68p

31) <산케이 신문> 2014년 1월 27일

‘조금이라도 예쁜 여성은 군부대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어 그들의 노리개가 되었다. 일본군의 모든 중대에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진강(金江) 중대 ‘위안소’는 러산탕(樂善堂) 근처 천귀중(陳國宗)의 집에 설치되었고, 총 30여 명의 위안부가 있었다. 천귀중 일가는 다른 집으로 쫓겨났고, 위아래 층의 수백 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집 전체가 ‘위안부’ 거주 공간으로 제공되었다. 사방은 철망으로 둘러싸였으며 전담 관리인이 지키고 있었으며, 집안의 ‘위안부’는 도망칠 수 없었고, 외부인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다. 스푸(石浮) 중대의 ‘위안소’는 스푸링(石浮嶺)의 군부 안에 설치되었고 모두 20여 명의 위안부가 있었다³²⁾. 마찬가지로 철망에 둘러싸였으며 전담 관리인이 이를 관리하고 감시했다. 강제 징용과 무차별적으로 끌려온 중국인 여성은 일본군 성노예로 전락했는데 중국내 일본군 점령지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위안부’는 유린당해 죽기도 했고,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한 후 인육으로 먹힌 경우도 있다. 일본군 제59사단 제54여단 제111대대 기관총 중대 하사관 에바토 츠요시(繪鳩毅, 원래 이름 이시와타리 츠요시(石渡毅))은 산둥성의 쉬거좡(索格莊)에서 여성 전쟁 포로 1명을 하사관의 ‘위안부’로 만들었다고 자백했다. 쉬거좡에서 장기간 주둔하면서 음식물 공급이 날로 어려워지자 하사관은 그녀를 죽인 후 그녀의 인육을 먹었다. 그는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중대 대원들에게 대대본부에서 보내온 고기라며 모든 중대원들이 먹게끔 거짓말을 했다.³³⁾

일본 헌병은 일본군 위안소 관리에 참여했는데, 위안소 출입 정부군의 숫자를 집계하고 이를 관리했다. 지린성당안관에서는 일본군 문서 2개가 발견되었는데 1938년 2월 오오끼(大木繁) 일본군 화중 파견헌병대 사령관이 군참모부에 올린 보고로 난징, 샤관(下關), 진강(金江), 쥐룽(句容), 진탄(金壇), 창저우(常州), 단양(丹陽), 우후(蕪湖)와 닝궈(寧國) 등 9개 지역의 위안소 상황을 집계했다. 교통 두절로 인해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닝궈를 제외하고, 그 외 8개 지역은 이미 위안소가 설치되었다고 적혀 있다. 그

32) 주용저(朱永澤) 구술, 레이딩화(雷丁華) 정리, <진강, 스푸 위안소 견문(金江、石浮“慰安所”見聞)>, 푸허지(符和積) 편집장 : <군대 폭력 속 피비린내나는 눈비 - 일본군 하이난다오 침략 실록(鐵蹄下的腥風雪雨——日軍侵瓊暴行實錄) 속편, 해남(海南) 출판사, 1996년, 99p

33) <전범 에바토 츠요시의 자백 :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및 살인, 인육(戰犯繪鳩毅自述 : 日軍強征慰安婦並殺掉吃肉)>, 인민일보, 2014년 9월 5일

리고 ‘우후에서 위안부가 상순(上旬)보다 84명이 증가했다. 이 지역 109명 위안부 중 일본 여성 48명, 조선인 여성 36명, 중국인 여성 25명이다’ 고 기록되어 있다. 진장의 109명 위안부는 15000명의 사병을 상대해야 했는데 1명당 평균 137명의 사병을 상대한 것이다. 보고서의 명확한 기록을 재확인한 결과 2월 중순의 10일 간 8929명의 일본군인이 진장의 일본군 위안소를 출입했는데 지난 10일간 보다 3195명이나 증가한 규모다. 이 지역에서 위안부 1명이 10일 동안 82명의 정부군을 상대했다. 단양에서는 위안부가 한때 6명에 불과한 적이 있었는데 위안부 숫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에 대해 보고서는 ‘현지에서 모집해 위안부로 삼아야 한다’ 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³⁴⁾. 오오끼의 또 다른 보고에서도 후저우의 위안소에 중국인 여성 11명, 조선인 여성 29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쌍명여단(桑名旅團)이 후저우에 진입할 때 일본군의 숫자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특종위안소(特種慰安所)’ 한 곳이 더 생겼다. 우시도 그 즈음에 위안부 20명이 증가했다.³⁵⁾

3. 위안부 역사,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20여 년이 넘게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동티모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각국은 길고도 지난한 피해자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³⁶⁾. 현재 확인 가능한 피해자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 239명, 북한 209명, 중국 250명, 대만 50명, 인도네시아 수백명, 필리핀 100여명, 동티모르 수십 명, 일본 10명 내외이며, 네덜란드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증언을 했다.

중국에서 위안부 생존자가 발견된 곳은 헤이룽장, 지린, 베이징, 허베이, 허난, 산둥, 산시, 안휘이, 장쑤, 상하이, 저장, 후베이, 후난, 광시, 윈난, 하이난(黑龍江,吉林,北京,河北,河南,山東,山西,安徽,江蘇,上海,浙江,湖北,湖南,廣西,雲南,海南) 등 지역이다. 광시

34) 화중 파견군 헌병대 사령관 오오끼(華中派遣軍憲兵隊司令官大木繁): <남경 헌병대 관할 구역 치안 회복 상황 조서의 건(통첩)(關於南京憲兵隊轄區治安恢復狀況調查之件(通牒))>, 쇼와 13년(1938년) 2월 28일, 지린성 당안관 소장

35) 화중 파견군 헌병대 사령관 오오끼(華中派遣軍憲兵隊司令官大木繁): <남경 헌병대 관할 구역 치안 회복 상황 조서의 건(통첩)(關於南京憲兵隊轄區治安恢復狀況調查之件(通牒))>, <중지헌고 제 241호(中支憲高第二四一號)>, 쇼와 13년(1938년) 2월 19일, 지린성 당안관 소장

36) 일본군 위안부 제도 피해지역에는 미안마도 있으나 거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廣西) 리푸(荔浦)의 웨이사오란(韋紹蘭)은 전시 일본군에 의해 마링(馬嶺) 위안소로 끌려 갔다가 임신이 된 후 집으로 도망쳐왔고 ‘일본인 사생아’인 뤼산쉐(羅善學)를 낳았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상하이, 난징, 도쿄, 오사카 등을 다니며 증언을 했고, 지금도 두 모자는 산기슭에서 살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생존자들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재 중국에 14명³⁷⁾, 대만에는 2명, 한국에는 30명, 네덜란드는 1명(라푸 여사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다), 필리핀 수십 명, 인도네시아 수백명 등이 남아있다.

1) 국제 사회의 공감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해 국제 사회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1996년 유엔 인권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별도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4월 1일 유엔 법률 전문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전시의 군사적 성노예〉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에 다음의 내용을 건의했다. 1. 국제법을 위반하고 위안소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성노예 피해자 모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3.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 4.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죄한다, 5.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반영한다, 6. 전쟁 범죄는 처벌한다.³⁸⁾

마찬가지로 국제노동기구, 국제법학회도 일본의 성노예 제도를 규탄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93년 조사를 실시 후 발간한 보고서에서 사과, 배상, 국제법원 설립안 등 내용의 7개 건의를 제시했다. 2007년 이후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EU, 필리핀, 한국 등 국회(의회)도 결의안을 통과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을 규탄했다.

중국, 한국, 캐나다, 미국 등 점점 더 많은 국가와 정부가 반인도적인 역사를 교과서

37) 그녀들은 주로 하이난, 광시, 후난, 저장, 산시 등지에 있다.

38) Ms. Radhika Coomaraswam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6, UN Doc.E/CN.4/1996/53

에 신고 교실에서 관련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등학교 역사 과목에 일부 내용이 실려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 수준은 90년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

2) 비참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한 8월 14일은 ‘위안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매년 ‘8월 14일’에 각국 도시에서 위안부 기념 행사가 열린다. 각국의 신문사들과 영화인도 ‘위안부’를 소재로 다룬 작품과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의 ‘귀향’, 중국의 ‘22(二十二)’³⁹⁾, 대만의 ‘엄마의 비밀(阿媽的秘密)’, ‘갈대의 노래(芦苇之歌)’, 중국 CCTV의 ‘위안소의 떠남과 머무름(一座慰安所的去与留)’⁴⁰⁾ 등이 대표적이다. ‘22’ 같은 다큐멘터리는 중국인의 뜨거운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위안부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역사 박물관 설립 목적은 기억을 보존하고 이어기기 위함이다. 2017년 4월 도쿄에서 제1회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업무 회의가 열렸다. 위안부 박물관은 한국,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 네덜란드에 이미 설립되었다. 중국은 헤이룽장 손오관동군(孫吳關東軍) ‘군인회관’ 진열관(黑龍江孫吳關東軍“軍人會館”陳列館, 2009), 윈난룽링둥자거우위안소 유적 진열관(雲南龍陵董家溝慰安所舊址陳列館, 2010), 난징 리지샹위안소유적 진열관(南京利濟巷慰安所舊址陳列館, 2015), 상하이사범대학 중국위안부역사 박물관(上海師範大學中國“慰安婦”歷史博物館, 2016) 등이 있다. 리지샹 진열관은 일본군 위안소 유적지 위에 세워졌고 총 8개 동이 있다. 북한의 박영심(朴永心) 위안부 피해자도 2003년 직접 증언을 했다⁴¹⁾. 미국, 캐나다 역시 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했다.

39) 귀커(郭柯) 감독, 쑤즈량(徐子良)이 고문을 맡은 <22>는 2017년 8월 14일 위안부 기념일에 중국 각 지역 극장에서 상영되었고 한 달 동안 600만이 넘는 관객이 관람하였다. 박스오피스 1억 7천만 위안을 기록, 중국 다큐멘터리 영화 박스오피스 역사상 신기록을 달성했다.

40) 2016년 12월 17일 중국 CCTV는 <위안소의 떠남과 머무름(一座慰安所的去与留)>를 방송하고 상하이 위안소 ‘하이나이자(海乃家)’를 유지해야 하는 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정부, 시민, 학생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41) 제 2회 위안부 박물관 세미나가 2019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 세계 기록 문화 유산 등재 신청을 둘러싼 힘겨루기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은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2014년 중국은 유네스코에 ‘난징 대학살 자료’와 ‘위안부 자료’ 두 건의 등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위안부 자료’ 등재는 성공하지 못했다. 유네스코는 위안부 관련 다른 피해국들의 공동 등재를 권고했다. 그리하여 2016년 5월 31일 중국과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일본, 네덜란드, 영국, 호주, 미국 및 대만 등 11개 국가와 지역의 민간 단체가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세계 기록 유산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에 공동 등재를 신청한 자료는 총 2744건에 이르며, 위안부 역사자료와 위안부 조사 및 항쟁 활동 문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서는 비록 빠진 부분도 많고 손상도 많이 되었으나 유일하고 진실한 자료로서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계 기록 유산의 요건에 부합한다.

하지만, 일본 우익도 ‘일본군 규율’을 신청해 일본군의 군기가 매우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위안부의 목소리’ 등재 저지를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심지어 ‘위안부의 목소리’가 통과되면 일본은 유네스코를 탈퇴할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일본의 갖은 압력에 밀려 2017년 10월 유네스코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에 대해 대화를 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우리의 국제 등재 신청 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들은 전쟁 폭력이 어떻게 평가되고 기억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투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잘 보여준다.

역사학자의 연구는 가치 중립이 필요하다. 역사학자는 냉정한 자세로 평가와 비판을 하고 진지하게 글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학자는 또한 선악을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범죄 행위를 규탄하고, 사람들이 선을 향한 책임과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군사 성노예의 전쟁 범죄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일본의 난징 대학살은 모두 20세기 반인도주의적 전쟁 폭력으로 인류는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 이 같은 폭력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Study on literature and oral history: Rebuild the history of Japanese ‘comfort women’

Abstract: Asian scholars has basically rebuilt the history of Japanese ‘comfort women’, or the sexual slavery system by analyzing materials and visiting survivors since 1991. The global society

has agreed that it is the wartime atrocities violating human rights and Japan should apology for its actions. However, many Japanese still deny their act of aggression. We spare no effort to pass down this historical memory to the younger generations through writing it to textbook, applying for the world memory list, making a film as well as building museum and memorial hall. The rest countries of Asian still fight against Japanese government over the nature, scale and name of 'comfort women'.

Key words: 'comfort women'; Japanese sexual slaves ;comfort station; historical memory

文献、口述与研究： 重建日军“慰安妇”的历史事实

| 蘇智良 (上海師範大學)

[提要]1991年以来，亚洲各地学者通过探析资料、寻访幸存者，基本重建了日军“慰安妇”——性奴隶制度的历史事实，国际社会也已形成共识，这是一个大规模的侵犯人权的战争暴行，日本应该谢罪并道歉。但在日本，否认侵略责任的观点仍在蔓延。将日军“慰安妇”——性奴隶这一暴行写入教科书，申请世界记忆名录，拍摄影视剧，或者建立博物馆、纪念馆等，将这一历史事件记忆并传诸后人。但围绕着“慰安妇”的性质、规模和书写，亚洲各国与日本之间仍在激烈较量。

[关键词]“慰安妇”；日军性奴隶；慰安所；历史记忆

自1991年8月14日，韩国金学顺女士指证日军性奴隶暴行以来，已过去27年，日军“慰安妇”——性奴隶的反人类罪行，日益被人们所知晓。各国的史学界、法学界等为此付出艰辛的努力，国际社会也基本达成了共识。但要真正弄清这一重大历史事件的真相并解决这个二战历史遗留问题，还需要国际社会的共同努力。就世界史学界的关注程度而言，笔者以为“慰安妇”问题在二战历史研究、教学中仍未得到充分的重视。本文拟总结回顾日军“慰安妇”问题的研究过程与成果，并就几个重要问题进行阐述。

一、重建日军“慰安妇”的历史

尽管东京远东军事法庭审判中稍微涉及到“慰安妇”这个概念，1948年11月4日的东京远东军事法庭判决书指出：“在占领桂林时期中，日军犯下了强奸和抢劫之类的一切种类的暴行，他们以设立工厂为口实招募女工，如此被招募的妇女，被强迫为日军作娼妓……”¹⁾但由于时间仓促、取证困难加之日本当局刻意隐瞒等原因，因此“慰安妇”没能列为专门的犯罪类型，并予以追究和判决。

1991年以来，日军“慰安妇”历史的调查研究经历了非常艰难而曲折的复原历程。复原的困难在于，其一，战败时日本销毁了大量的文献。其二，在受害者和受害国方面，性伤害的事情难以启齿，且大部分受害者已离开人世了。

尽管困难重重，但在韩国、中国大陆和台湾、菲律宾、东帝汶、印度尼西亚、荷兰等地“慰安妇”幸存者勇敢作证引导下，各地人权组织的推动下，联合国人权委员会等国际组织旗帜鲜明的决议下，还得益于历史学家、法学家等深入、艰难的田野调查取证，各类历史文献的搜集与公布。从而逐渐揭露出战时日军“慰安妇”制度的内幕。

日本中央大学吉见义明教授团队寻找档案文献，出版资料集，推进学术研究。²⁾松冈环、西野瑠美子等对日本老兵的访问和日记的搜集评估，³⁾川田文子等对日本“慰安妇”的调查，千田夏光、松井耶依、金一勉、铃木裕子、金富子、中原道子等均付出了极大的努力。日本政府方面，于1993年发表“河野谈话”，承认政府与此有关联，并进行反省。但日本政府又企图依靠建立女性亚洲国民基金的办法来避开国家责任问题，从而遭到了亚洲各国的抵制。2015年12月，日本政府与韩国政府迅速达成“不可逆”的“慰安妇”协议，但由于缺少诚意，遭到幸存者和韩国民众的强烈反

1) 张效林译：《远东国际军事法庭判决书》，群众出版社 1986 年版，第 490 页。

2) 吉见义明关于“慰安妇”的主要作品有《從軍慰安婦資料集》(大月書店 1992 年版)、《隨軍慰安婦》(岩波書店 1995 年版)、《共同研究日本軍慰安婦》(与林博史合编，大月書店 1995 年版)等。

3) 日本学者松冈环搜集了百余种日军老兵的日记等，以南京为中心，展示了日军强征中国妇女、建立慰安所的部分事实，主要著作有：松冈环著，新内如、全美英、李建云译：《南京战·寻找被封闭的记忆——侵华日军原士兵 102 人的证言》(上海辞书出版社 2002 年版)；松冈环著，沈维藩译：《南京战·被割裂的受害者之魂——南京大屠杀受害者 120 人的证言》(上海辞书出版社 2005 年版)。作家和调查者西野瑠美子曾在中国海南、云南、南京、上海等地调查，主要著作有《從軍慰安婦》(明石書店 1992 年版)、《從軍慰安婦と十五年戦争》(明石書店 1993 年版)、《女性国際戦犯法廷全記録》(合编，绿風出版社 2002 年版)、《戦場の“慰安婦”——拉孟全滅戦を生き延びた朴永心の軌跡》(明石書店 2003 年版)。

对，加之韩国政府的更迭，现在处于搁置状态。

在韩国，民间社会在政府的积极支持下，调查幸存者并进行援助，建立“分享之家”的养老公寓；⁴⁾自1992年1月8日以来，每个星期三在首尔日本大使馆前的抗议活动，已坚持26年。周三集会全名“为解决日军‘慰安妇’问题的日本驻韩国大使馆前每周三定期和平集会”，目的是要求日本在太平洋战争时期强制动员“慰安妇”等问题上进行真相究明、对受害者正式道歉以及进行法律赔偿。在2011年12月14日第1000次周三集会时，将日本大使馆前的周三集会场所所在道路命名为“和平路”，并在此设立了和平少女像，此后在韩国国内和国外推广建立“慰安妇”和平少女像，已卓有成效。⁵⁾女性家族部、挺身队研究协议会等民间团体及各所大学共同推进了日军“慰安妇”受害调查，政府与社会、学界有着良好的互动。

中国方便也作了多方努力。寻找幸存者确认事实，查询历史资料，尤其是日本占领军的文献、战时报刊等。如出版120册《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⁶⁾，其中有日军官兵供认在亚洲各地抢掠妇女、设立慰安所的大量事实。吉林省档案馆公布了关东军的资料⁷⁾，有不少与“慰安妇”相关。前后出版的著作有《慰安妇研究》、《日军性奴隶》、《日军“慰安妇”制度批判》、《炮楼里的女人——山西日军性奴隶调查实录》、《“慰安妇”与性暴力》、《证据：上海172个日军慰安所揭秘》、《南京日军慰安所实录》、*Chinese Comfort Women: Testimonies from Imperial Japan's Sexual Slaves*等。⁸⁾

-
- 4) 分享之家是通过韩国的慈善家捐赠土地、民建募集资金以及韩国佛教曹溪宗等参与方式，于1995年12月定居在京畿道广州市退村面，它既是“慰安妇”幸存者的养老院，也是一个“慰安妇”历史博物馆。
 - 5) 树立“慰安妇”雕像的有加拿大、美国、中国、澳大利亚、德国等。菲律宾的“慰安妇”像2018年被移除。可参见【日】日本軍“慰安婦”問題 web サイト制作委員会編：《<平和少女像>はなぜ座り続けるのか》，世織書房2016年版。
 - 6) 《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120册，中华书局2015-2016年版。
 - 7) 吉林省档案馆：《铁证如山——吉林省新发掘日军侵华档案研究》，第1册，吉林省出版集团2014年版。
 - 8) 苏智良：《慰安妇研究》（上海书店1999年版）、苏智良：《日军性奴隶》（人民出版社2000年版）、陈丽菲：《日军“慰安妇”制度批判》（中华书局2007年版）、张双兵：《炮楼里的女人——山西日军性奴隶调查实录》（江苏人民出版社2011年版）、苏智良、陈丽菲：《“慰安妇”与性暴力》（山东画报出版社2015年版）、苏智良、陈丽菲、姚霏：《证据：上海172个日军慰安所揭秘》（上海交通大学出版社2018年版）、苏智良、张建军主编：《南京日军慰安所实录》（南京出版社2018年版）、丘培培、苏智良、陈丽菲：Chinese Comfort Women: Testimonies from Imperial Japan's Sexual Slaves.（加拿大UBC出版社2013年版、牛津大学出版社2014年版、香港大学出版社2013年版）等。

二、日军“慰安妇”历史的几个关键点

1、时间与空间

日军“慰安妇”历史的起始点是1932年1月的上海。当时日本上海海军特别陆战队司令部指定一批日侨开设的风俗店为海军指定慰安所，包括大一沙龙、三好馆、小松亭和永乐馆等4个。东宝兴路125弄的“大一沙龙”海军慰安所，从1932年1月到1945年8月，是世界上存在时间最长的日军慰安所，目前5幢房屋完好保存。⁹⁾1932年1月28日，日本海军发动“一二八”事变。此后，战事扩大，日本政府组建上海派遣军增援。由于日军官兵发生多起强奸战地妇女的事件，引起中国和各国舆论的严厉谴责，上海派遣军副参谋长冈村宁次为此决定征募日本妇女建立一些专为日军官兵提供性服务的场所。具体操办者是该派遣军高级参谋冈部直三郎，冈部在3月14日的日记中记载：“这时，传来士兵们千方百计搜索女人、道德败坏的各种传闻，为了解决士兵的性问题，就着手积极建立这种设施。”¹⁰⁾于是，冈部与永见俊德中佐论证了“慰安妇”问题后，向冈村宁次递交了实施报告。冈村宁次立即电请长崎县知事，迅速征召女性组织“慰安妇团”，运至上海的日军占领区，建立慰安所。¹¹⁾

1937年7月7日卢沟桥事变之后，全面侵华战争爆发，日军高层也迅速推广慰安所。从黑龙江到海南岛，从辽宁到云南，日军在占领地广泛设立慰安所，范围涉及吉林、山西、湖北、广东、湖北、广西等22个省。

1941年12月7日，太平洋战争爆发后，慰安所遍及日军在太平洋和东南亚各占领地，冲绳、朝鲜半岛和台湾殖民地均设有慰安所。

概而言之，日军“慰安妇”出现的时间是从1932年1月到1945年8月战争结束，空间上看，几乎所有日军的占领地、驻屯地均设有慰安所，或变相的慰安所。

9) “大一沙龙”最早称“大一”，是上海日侨较早建立的日本式“贷座敷”。所谓的“贷座敷”，是一种日本式的风俗营业店，除了向客人提供餐饮外，也提供女子供客人玩乐。其接待的客人，虽然说不分国籍，但实际上以日本人为主，有日本士兵，也有日本普通侨民。“大一”的名字在1920年的《上海日侨人名录》上已有记载，初由日本侨民白川经营，初设立于宝山路，后迁至东宝兴路。

10) 【日】岡部直三郎：《岡部直三郎大将の日記》，1932年3月14日，芙蓉書房1982年版，第23页。

11) 参见苏智良、陈丽菲、姚霏：《证据上海172个慰安所揭秘》，上海交通大学出版社2018年版。

2、日本政府与军队的关联

为日军部队配备“慰安妇”、设立慰安所是二战期间日本军队的一项基本制度。因此，在“战争高于一切”的口号下，日本政府的外务省、法务省、内务省、警察系统、各都道府县与陆军省、海军省积极合作，均为慰安所的设置、管理提供了便利条件和许可。所以，日本政府和日军与慰安所之间不仅有着千丝万缕的联系，更是这一性奴隶制度的助产婆。

以外务省系统为例，开具了派遣日本、朝鲜“慰安妇”前往中国等地的证明。1938年秋当武汉会战还在进行时，日本外交部门与军方已在合谋设立武汉慰安所的事宜了。9月28日，日本驻上海总领事后藤味在致外务大臣宇垣一成的《对于汉口占领后邦人进出的应急处理要纲》中已提出：“居留民以外的人来汉口，将根据输送能力和申请人的开业情况来考虑，但建立军队慰安所没有限制”¹²⁾。派出领事馆关注慰安所的建立和管理。1939年2月3日，日本驻汉口总领事花轮义敬在致外务大臣有田八郎的《关于管理去汉口渡航者的文件》中称：“军队慰安所已有20家（包括兵站、宪兵队和本馆批准的慰安所）”。¹³⁾日本驻沪总领事馆在30年代中期就开始介入慰安所的调查。在南京，1938年4月16日，日总领事馆与日本陆军、海军举行联席会议，协商对南京慰安所的管理，规定：“军队开设慰安所时，需将慰安妇的原籍、住所、姓名、年龄、出生及死亡等变动情况及时通报给领事馆。”¹⁴⁾

毫无疑问，日军是推行“慰安妇”制度的主体，他们自上而下又自下而上参与设立慰安所。

1938年3月4日，日本大本营给华北方面军、华中方面军参谋长发送[陆支密745号]秘密文件，内容就是募集“慰安妇”、建立慰安所。规定“慰安妇”的征募工作一律由派遣军一级进行“统制”；各军要选派合适的专门人选来担任此事；征募女性时要与当地警宪取得联络。¹⁵⁾这一文件得到陆军省次官梅津美治郎的批准。这一正式文件明白无误地揭示了除军方之外，政府的警宪系统也加入到“慰安妇”制度的建立与实施中。也集中体现了日本陆军省作为政府军事最高领导机构在推行军事“慰安妇”

12) 【日】吉見義明編：《從軍慰安婦資料集》，大月書店 1992 年版，第 116 頁。

13) 【日】川田文子：《皇軍慰安所の女たち》，筑摩書房 1993 年版，第 222 頁。

14) 【日】吉見義明編：《從軍慰安婦資料集》，大月書店 1992 年版，第 179 頁。

15) 【日】吉見義明編：《從軍慰安婦資料集》，大月書店 1992 年版，第 105 頁。

制度中的领导者角色。1940年9月19日，陆军省颁发给各部队的教育参考资料《从中国事变的经验来看振作军纪的对策》，针对日军出现的“掠夺、强奸、放火、杀戮俘虏”行为，认为“性的慰安所给予事变精神的影响非常大”，所以要求“对慰安设施有周到的考虑”。¹⁶⁾在日本政府和军队高层看来，慰安所承担了振奋士气、维持军纪、预防强奸等多项功能。¹⁷⁾这一记录进一步表明，日本政府、军方设立慰安所系统，完全是有计划有步骤的。

1940年，视察东北后的陆军省医务局长三木良英在《视察所见》中的记载道：“在中国部队前线生活普遍不太好。接下来要考虑官兵的精神慰安以及给养。听部队长说，不明原因的逃亡、暴行接二连三发生，需要给他们建立一个精神家园。土肥原师团长要求派遣‘慰安团’。尤其是国境守备队3年都没外出过。督促恤兵部尽快采取有效措施。”¹⁸⁾1942年9月3日在陆军省科长会议上，恩赏课长指出要在现有慰安所的基础上，追加“将校军官以下的慰安设施，拟按以下规模：华北100所，华中140所，华南40所，南方100所，南海10所，库页岛10所，共400所。”¹⁹⁾

1937年全面侵华战争爆发后，上海派遣军、华中方面军中枢机构直接指挥建立慰安所。当时的华中方面军总司令是松井石根，参谋长是塚田攻。这项命令的下达，至迟在1937年12月11日。日本上海派遣军参谋长饭沼守在该日的日记里写道：“从（华中）方面军那里收到关于建立慰安设施的文件”²⁰⁾，由此可知，在占领南京前，华中方面军就已向上海派遣军下达设立慰安所的命令。另外，在上海金山卫登陆的第10军，随后也收到了同样的命令。该军参谋寺田雅雄中佐在湖州指挥宪兵队秘密征集当地女性，并于12月18日设立了日军慰安所。²¹⁾为了保证在上海地区尽快开设日军慰安所，上海派遣军参谋部要求该参谋部第二课长长勇中佐专门负责此事。12月19日，饭沼守写道：“委托长中佐迅速开设‘女郎屋’。”²²⁾同月28日他又记载，“日本军的违

16) 【日】吉見義明編：《從軍慰安婦資料集》，大月書店 1992 年版，第 168 頁。

17) 【日】吉見義明：《從軍慰安婦》，岩波書店 1995 年版，第 37 頁。

18) 【日】陸上自衛隊衛生學校藏：《陸軍省業務日誌》。

19) 【日】陸上自衛隊衛生學校藏：《陸軍省業務日誌》。

20) 【日】南京戰史編集委員會：《南京戰史資料集》，偕行社 1989 年版，第 211 頁。

21) 【日】南京戰史編集委員會：《南京戰史資料集》，偕行社 1989 年版，第 411 頁。

22) 【日】南京戰史編集委員會：《南京戰史資料集》，偕行社 1989 年版，第 220 頁。

法行为愈演愈烈，由第二课召集各部队负责人，传达参谋长的训诫令”²³⁾。

在吉林发现的两个历史文件表明，日军建立“慰安妇”制度支付的费用非常巨大。一份满洲中央银行的档案，是该行资金部外资料的电话记录，时间是康德十二年（1945）3月30日，内容是在徐州的日军7990部队，经关东军第四科批准，通过满洲中央银行淮海省联络部向该行鞍山支行经理汇款252 000日元，用于采购“慰安妇”。这笔款项的受领人写着“鞍山圣理司令部”，估计应是满洲央行鞍山支行的经理，而“司令部”三字推测应是衍文。然后该件明确记载，“实际受领人是在鞍山的米山鹤”，“上述金额表面是公款形式”，“需要用大额汇款的形式存入支店的定期户头，虽然有这种存款限制，但推测可以免除其限制，允许其以军用公款的科目处理”。这种使用明确是“允许其以军用公款的科目处理”的，最后附加“本件需持关东军第四科证明办理”。下面还记载了3笔已经汇送的经费：1944年11月17日，50 000日元；12月16日，150000日元；1945年1月24日，80000日元。²⁴⁾4笔汇款相加达532000万日元。在短短的4个多月中，这个7990部队为“采购慰安妇”汇付了如此大笔的钱款。这表明，日军用军费来推行“慰安妇”制度是当时日军内合法的事情，也就表明了日本政府和军队是建立性奴隶制度的推手。这些钱款，主要用于日本在华、在韩的警察系统征用“慰安妇”，运输“慰安妇”，日本工兵部队修建慰安所建筑，建立军医体检体系，慰安所警戒等用途。²⁵⁾所谓的“采购慰安妇”的资金并不是支付给“慰安妇”的，在中国、韩国、朝鲜的调查中，这些国家的“慰安妇”幸存者连生命也没有任何保障，根本就没有报酬。

从史料中可见，日军基本在军一级机构设置管理慰安所的机构或军官（岗职）。通常由参谋部、军医部、管理部共同负责慰安所事宜，也有在酒保部或兵站下面设立专门管理慰安所的机构，有的称之为“某某科”，有的则直接命名为“慰安所科”、“慰安妇股”。如在关东军里是由司令部参谋第三课负责慰安所事宜。驻屯上海的第7331部队，则专门设有慰安所科。²⁶⁾在武汉的日军第11军兵站也设有慰安所科，由军官2人、下士官2人、士兵4人共8人组成；其职责是管理“慰安妇”、监督慰安所运

23) 【日】南京战史编集委员会：《南京戦史資料集》，偕行社 1989年版，第228页。

24) 《满洲中央银行鞍山支店“慰安妇”采购资金电话记录》，康德12年（1945）3月30日，吉林省档案馆藏。

25) 可参见【日】麻生徹男：《上海より上海へ》（石风社1993年版）、千田夏光：《從軍慰安婦》（双葉社1973年版）、西野瑠美子：《從軍慰安婦と十五年戦争》（明石書店1993年版）等。

26) 【日】吉見義明編：《從軍慰安婦資料集》，大月書店1992年版，第271页。

营。史料记载，每逢“慰安妇”到达民营慰安所时，兵站慰安所科即协同慰安所的老板一起，查验“慰安妇”的照片、户籍抄写本、警察的许可书、地方政府颁发的身份证明书、病历等。²⁷⁾

3、慰安所的类型

日军慰安所通常有军队自己设立的慰安所、日侨经营的慰安所、朝鲜人经营的慰安所，以及傀儡政权日军合作者设立的慰安所，其中日军直营的慰安所最能体现日本国家实施性奴隶制度的本质，其中既有自上而下有计划设立的，也有中队、大队等部队自行设置的。

还有一些原本是妓院，但被日军和傀儡政权指定接待日军官兵，往往不挂慰安所的牌子，但却是变相的日军专用慰安所。

也有不少受害者并不是在正式的慰安所受害的，在中国这一现象较为普遍。战犯秋田松吉供认：自1940年2月至1941年5月，第43大队第3中队山东省章丘县南曹范分遣队长山根信次伍长一下15名在南曹范盘踞期间，我任该队一等兵步哨。山根伍长通过伪村公所强制带来5名中国妇女作“慰安妇”。我们15人对该5名中国妇女进行了一年零五个月时间的淫污。²⁸⁾山西约70位幸存者作证，她们大多是被抓到炮楼受害的。

4、日军“慰安妇”制度的规模

经过长期的调查和研究，事实表明，日军“慰安妇”制度的规模远远超过我们此前的估计和想象。例如在上海，可以确定至少存在过172个日军慰安所，南京至少有70个日军慰安所，海南岛的慰安所有67个，武汉也有数十个慰安所。当然这些只是冰山之一角。

浙江省金华市档案馆藏有日文版《金华鸡林会会则及名簿》，这本成于1944年4月的朝鲜人同乡会名簿，是中国情报人员获得的。在这份短短的二百余人的名单中，隐藏着不少日军在金华地区建立“慰安妇”——性奴隶制度的信息。经文献研究与实地

27) 详见【日】山田清吉：《武漢兵站》，图书出版社1978年版。

28) 【日】《秋田松吉1954年呈供自述》，中央档案馆藏。

调查确认，名簿记有11个慰安所，慰安所老板为8人，管理人员7人，而“慰安妇”竟高达126人，占金华鸡林会朝鲜人总数的60%，最年轻的只有17岁；慰安所相关人员共计141名，占金华鸡林会朝鲜人总数的67.19%；²⁹⁾比例之大是非常惊人的。这从一个侧面反映了战时日军推行性奴隶制度的普遍性。

5、“慰安妇”是被强迫的，还是生意

长期以来，日本国内的右翼势力似乎正在进行一场“谁比谁更右”的荒唐游戏，以吸引日本民众的眼球，来谋求各种政治利益。2007年3月5日，针对美国众议院通过谴责日本战时推行性奴隶制度的决议，当时的日本首相安倍晋三竟说，“美国议会的决议案不基于事实。虽然得到通过，但我不会谢罪。从狭义看，没有证明强制性的根据。也没有能证明那些的证词。也许不会有从军‘慰安妇’自己愿意走那条路，的确有业者在中间强征的情况。可是，没有官员冲进屋子里、把人带走的那种强征性”³⁰⁾。2013年5月，大阪市长桥下彻公然声称，在战时的情况下，“慰安妇制度是必要的存在”；他甚至建议，驻日美军官兵可充分利用日本的色情场所。2014年1月，新上任的日本NHK电视台新任会长舩井胜人竟然胡说，慰安妇问题“在任何一个国家都存在”³¹⁾。

当日本政府和军部为确保战争机器的运转而实施“慰安妇”制度后，大量的外国女性和殖民地女性被强征为“慰安妇”，其中主要是中国、朝鲜半岛和东南亚各地的妇女。在亚洲各地留下了数以万千计的资料和证言，证明这些女性是被强征或诱骗，被迫充当“慰安妇”，她们失去人生自由，苦不堪言，生不如死。

在山西孟县、武乡等地，日军在与八路军对峙的艰苦环境中，时常将抓到的农村妇女控制在炮楼里，那里就成为了“合法的强奸中心”。经过长期的调查所知，当地愿意站出来指证日军新奴隶制暴行的受害者至少有70人。在海南许多地方，日军也是任意将女性抓入军队据点作为性奴隶使用。如在澄迈，“一发现稍有姿色的女青年都抓到军部里充当‘慰安妇’，专供其玩乐。日军每个中队都设有一所‘慰安所’。

29) 金华市档案馆藏：《抄呈金华鸡林会会则及名簿文》，1945年1月30日，档案号L001-001-636-020。

30) 【韩】韩国慰安妇问题对策协议会：《不可擦掉的历史，日军“慰安妇”》，中文版（无版权页），第68页。

31) 《産經新聞》2014年1月27日。

驻金江中队‘慰安所’，设在今江乐善堂旁边陈国宗的家里，全所有‘慰安妇’30余人；陈国宗一家被驱逐到别家居住，楼上楼下几百平方米全部供“慰安妇”居住，四周用铁丝网团团围住，并设专人管理，关在里面的‘慰安妇’是无法逃跑的，外人也无法进去；驻石浮中队的‘慰安所’设在石浮岭的军部里。全所有‘慰安妇’20余人。也是用铁丝网围住，派专人看守和管理。”³²⁾强制征用和随意抓捕中国女性作为日军的性奴隶使用，在中国的日军占领区，是非常普遍的现象。

有些“慰安妇”被凌辱而亡，甚至被日军杀死吃掉。日军第59师团第54旅团第111大队机关枪中队下士官绘鸠毅（原名石渡毅）供认，在山东省的索格庄，日军强逼一名女战俘做一下士官的“慰安妇”。因在索格庄长期驻扎，食物供给越来越困难，下士官竟把她杀了，然后吃了她的肉。而且不仅自己吃，还对中队的人谎称，大队本部送来了肉，让全中队的人都吃了。³³⁾

日本宪兵参与对日军慰安所的管理，例如统计进出慰安所官兵的人数，并进行管理。在吉林省档案馆发现了两份日军档案，是1938年2月日军华中派遣宪兵队司令官大木繁给该军参谋部的报告，其中统计了南京、下关、镇江、句容、金坛、常州、丹阳、芜湖和宁国等9个地区的慰安所情况，除了宁国因交通杜绝情况不明外，其他8地均已设立慰安所。档案记载，在芜湖，“慰安妇”比上一旬增加了84人；在该地的109名“慰安妇”中，日本女性48人，朝鲜女性36人，中国女性25人。在镇江的109名“慰安妇”，要面对15000名士兵，平均1名女性要对付137名士兵。再确认报告明确记载，在2月中旬的10天之中，有8929名日军官兵进入了镇江的日军慰安所，竟比前一旬增加了3195人次；在该地，平均1名“慰安妇”10天中接待了82名官兵。在丹阳，因为“慰安妇”暂时只有6人，严重不足，因此报告中明确写上要“就地征募当地慰安妇”³⁴⁾。在大木繁的另一份报告中记载，湖州的慰安所里，有中国女性11人，朝鲜女性29人；当桑名旅团开到湖州时，日军数量已有所减少，但仍增开了一家“特种慰安所”。无锡最近也要增加20名“慰安妇”。³⁵⁾

32) 朱永泽口述雷丁华整理，《金江、石浮“慰安所”见闻》，符和积主编：《铁蹄下的腥风雷雨——日军侵琼暴行实录》续册，海南出版社1996年版，第99页。

33) 《战犯绘鸠毅自述：日军强征慰安妇并杀掉吃肉》，《人民日报》2014年9月5日。

34) 【日】华中派遣军宪兵队司令官大木繁：《关于南京宪兵队辖区治安恢复状况调查之件（通牒）》，昭和十三年（1938年）二月二十八日，吉林省档案馆藏。

35) 【日】华中派遣军宪兵队司令官大木繁：《关于南京宪兵队辖区治安恢复状况的调查之件（通牒）》，《中支宪高第二四一号》，昭和十三年（1938年）二月十九日，吉林省档案馆藏。

三、“慰安妇”历史如何记忆

20多年来，各国展开了漫长而艰难的受害者调查，包括韩国、朝鲜、中国大陆、台湾地区、菲律宾、东帝汶、荷兰、印度尼西亚。³⁶⁾能确认的受害幸存者情况：韩国239人，朝鲜209人，中国大陆250人，台湾50人左右，印度尼西亚发现数百人，菲律宾100多人，东帝汶数十人，日本10人以内，荷兰也有多名受害者指证。

中国大陆发现“慰安妇”幸存者的省市，涉及黑龙江、吉林、北京、河北、河南、山东、山西、安徽、江苏、上海、浙江、湖北、湖南、广西、云南、海南等。广西荔浦的韦绍兰战时被日军抓到马岭慰安所，被迫怀孕，逃回家后，生下“日本仔”罗善学。近年来，他们曾到上海、南京、东京、大阪等地作证，至今母子俩仍生活在大山脚下。

岁月流逝，幸存者日益凋零，目前中国大陆还有14位，³⁷⁾中国台湾只剩下2位，韩国还有30位，荷兰只有1位（拉芙女士生活在澳大利亚），菲律宾有数十人，印度尼西亚还有上百人。

1、国际社会的基本共识

在日军“慰安妇”问题上，国际社会基本形成了共识。早在1996年联合国人权委员会就专门就“慰安妇”问题进行独立调查，并发表了报告。是年4月1日，联合国法律专家库马拉斯瓦米（Radhika Coomaraswamy）向联合国人权委员会提交了《关于战时军事性奴隶》的报告。报告认定，日本政府需要负起相关责任，并建议日本政府：1、应当对违背国际法设立慰安所的行为负法律责任；2、应当对被作为性奴隶受害的每个人予以赔偿；3、应当公布一切有关资料；4、正式向受害者谢罪；5、在教科书中正确反映这一历史事实；6、对于战争犯罪进行惩罚。³⁸⁾

同样，国际劳工组织、国际法学会等均作出了谴责日本实施性奴隶制度的报告。

36) 日军“慰安妇”制度受害地还有缅甸，但缅甸似乎没有进行调查。

37) 他们分布在海南、广西、湖南、浙江、山西等地。

38) Ms. Radhika Coomaraswam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stwomen, itscauses and consequences*.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6, UN Doc.E/CN.4/1996/53.

国际法学家委员会 (ICJ) 于1993年调查后发布报告, 提出道歉、赔偿、国际法院立案等7条建议。2007年以来, 美国、加拿大、荷兰、欧盟、菲律宾、韩国等国会 (议会) 通过决议, 谴责日本政府否认历史责任。

越来越多的国家政府将这段反人道的历史写入教科书, 在课堂上讲述。如中国、韩国、加拿大、美国等; 日本的高中历史中保留了一些内容, 但比90年代已有明显的倒退。

2、悲惨的历史如何记忆

金学顺揭发日军暴行的日子8月14日, 正在成为“慰安妇纪念日”, 每年的“八一四”, 各国都会举行各种纪念“慰安妇”的活动。各国新闻工作者和电影人参与拍摄“慰安妇”题材的故事片和纪录片, 如韩国的故事片《鬼乡》, 中国大陆的《三十二》《二十二》纪录片³⁹⁾, 台湾的《阿妈的秘密》《芦苇之歌》, 中国中央电视台的《一座慰安所的去与留》等⁴⁰⁾。通过观看《二十二》等纪录片, 引发了中国公民的议论和关注, 也完成了“慰安妇”问题的知识启蒙。

设立历史博物馆的目的是为了保存和延续记忆。2017年4月, 在东京举行了第一届日军“慰安妇”博物馆工作会议, “慰安妇”博物馆已出现在韩国、中国大陆、台湾地区、日本、菲律宾、荷兰等地。在中国大陆, 有黑龙江孙吴关东军“军人会馆”陈列馆 (2009)、云南龙陵董家沟慰安所旧址陈列馆 (2010)、南京利济巷慰安所旧址陈列馆 (2015)、上海师范大学中国“慰安妇”历史博物馆 (2016) 等。利济巷陈列馆是在日军慰安所旧址上建立的, 有8幢旧房, 且有朝鲜“慰安妇”朴永心于2003年亲临作证。⁴¹⁾美国、加拿大也在建立“慰安妇”博物馆。

39) 郭柯导演、苏智良顾问的《二十二》于2017年8月14日“慰安妇”纪念日在中国各地院线上演, 一个月中有600多万人参看, 票房1.7亿元, 创造中国纪录片票房的新记录。

40) 2016年12月17日中国中央电视台新闻频道播放《一座慰安所的去与留》, 讲述了上海慰安所“海乃家”的建筑是否值得保留的故事, 官员、市民、学生的反应截然不同, 从而引起了社会广泛关注。

41) 第二届“慰安妇”博物馆研讨会将于2019年在中国举行。

3、申请世界记忆目录的较量

联合国教科文组织发起的世界记忆名录活动，是保存人类记忆的绝好方式。2014年中国向教科文组织提出了“南京大屠杀资料”和“慰安妇资料”两个项目，由于日本政府的反对，“慰安妇资料”申遗未能成功。教科文组织的意见是：考虑到“慰安妇”关联的还有其他国家，建议联合申请。于是2016年5月31日，中国与韩国、菲律宾、印尼、东帝汶、日本、荷兰、英国、澳大利亚、美国以及中国台湾地区共11个国家和地区的民间团体或机构一起，递交世界记忆名录的申请，名称为“‘慰安妇’的声音”。这次联合申遗的资料非常丰富，共计2744件，主要包括两个部分，即“慰安妇”历史资料和“慰安妇”调查及抗争活动的文献。这些文献尽管存在残缺性、破损性等缺陷，但确实是真实的、唯一的，这恰恰符合联合国教科文组织关于世界记忆遗产名录的要求。但日本右翼等也申报了“日军的纪律”的项目，宣称日军的军纪非常严明，企图混淆视听。在审核之时，日本政府甚至扬言，“慰安妇的声音”如获通过，日本将退出教科文组织。在压力之下，2017年10月教科文组织审定结论是，建议两个“慰安妇”相关项目展开对话。目前，我们的国际申遗委员会已致函教科文组织总干事，愿意对话。事实表明，关于战争暴行如何评价和如何记忆，斗争是非常激烈的。历史学者的研究需要价值中立，冷静评判，谨慎落笔。但历史学家也承担着判断善恶，鞭挞罪行，指引人们向善的责任和使命。日军“慰安妇”——军事性奴隶的战争罪行与纳粹对犹太人的种族灭绝、日军南京大屠杀等一道，是20世纪反人道的战争暴行，人类应该深刻记忆并汲取教训，以制止类似暴行的重演。

Literature, Oral Statement and Research: Reconstruction of the Historical Fact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 Zhiliang Su (Shanghai Normal University)

[Introduction]

Since 1991, scholars in Asia have reconstructed the historical fact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sexual slavery—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f materials and visits to survivo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so reached a consensus that the comfort women system is a war violence that infringed human rights on a massive scale and that Japan should make an apology and beg forgiveness. In Japan, however, the view of denying responsibility for invasion is still the mainstream. Activities, such as reflecting the history of violence i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extbooks, applying for entries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producing videos, building museums and memorials, are being conducted in order to forever remember this historical event and convey it to future generation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differences of opinions and conflicts between Asian countries and Japan regarding the nature, scale, and records of comfort women.

[Keywords] comfort women, Japanese military sex slaves, comfort facilities, historical memory

Since Kim Hak-sun testified about the Japanese military's violence against sex slaves on August 14, 1991, 27 years have passed. Now many people have become aware of the anti-human crime called comfort women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The historical, academic and legal circles of countries have not spared much effort for this issu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ormed a consensus on this issue. However, in order to clarify the truth of this significant historical event and solve the historical problems left by the Second World War, joint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necessa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est of the global historical circle on this issue, this author believes that there is still a lack of interest in the comfort women issue in terms of historical research and education of the Second World War. This paper will review the research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ir achievements as well as discuss some issues.

1. Reconstruction of histor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statemen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of the Far East issued on November 4, 1948, says that when occupying Guilin, the Japanese military perpetrated assaults such as rapes and plunders and recruited female workers under the pretext of building factories. Some details on the comfort women were mentioned and recorded in the trial that those female workers recruited like this were forcibly mobilized as prostitutes for the Japanese military. However, the trial only made a ruling of holding Japan accountable for comfort women without classifying comfort women as a separate type of crime due to tight schedule of the trial, difficulties in verification, and Japanese authorities' efforts to hide facts.

Since 1991,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s undergone a very tough and difficult restoration process. The reasons behind those difficulties in restoration are as follows. First, Japan, which was defeated in the war, destroyed a large quantity of documents. Second, victims and damaged countries were not able to bring up sexual abuses they endured and most of the victims passed away.

As comfort women survivors in Korea, China, Taiwan, the Philippines, East Timor, Indonesia and the Netherlands testified despite difficulties with courage and human rights groups of each region worked active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adopted a resolution on the comfort women issue. In addition, evidence was able to be obtained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tough field investigations

The research team led by Yoshiaki Yoshimi, professor at the Chuo University of Japan, searched for documents, published sourcebooks and conducted academic research. Tamaki Matsuoka and Rumiko Nishino visited Japanese veterans and collected and analyzed their diaries. Fumiko Kawata carried out surveys on the Japanese comfort women, while Kako Senda, Yaori Matsui, Kim Il-myeon, Yuko Suzuki, Kim Bu-ja and Michiko Nagahara made great efforts for related research. The Japanese government issued the Kono Statement in 1993 and admitted and regretted that it had been related with the comfort women issue. The government, however, attempted to avoid nation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n Women's Fund, receiving harsh criticism from Asian nations. In December 2015, Seoul and Tokyo swiftly concluded an "irreversible" comfort women agreement, but the agreement, which lacked the sincer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solve the issue, faced strong opposition from survivors and Koreans. The agreement is now in pending state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changed.

In Korea, private organizations found the survivors under the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supported them financially and emotionally, and at the same time, established a nursing house called "House of Sharing." Since January 8, 1992, a Wednesday rally has been held every Wednesday for the past 26 years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The official name of the Wednesday rally is "Regular Wednesday Rally for Re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ry Issue." The rally aims to clarify the truth of comfort women whom Japan forcibly mobilized during the Pacific War and call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officially apologize to the victims and pay legal compensation. When the 1,000th rally was held on December 14, 2011, the road of the rally place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was renamed "Peace Road" and the "Statue of Peace" was established there. Since then, the establishment of "Statues of Peace" for comfort women have been attempted in Korea and abroad, and many achievements have been mad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lleges and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the Council for Comfort Women Research have conducted joint research on the damage of the comfort women and closely worked with the government, society, and academia.

China is also making efforts in various ways. It found survivors and confirmed facts and especially carried out investigations of historic materials, including documents of the Japanese occupation forces and newspapers during the war. For example, the Selection of Written Confessions by Japanese Soldiers Who Invaded China, Housed by the Central Archive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as published in 120 volumes. The book includes a lot of matters admitt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forces kidnapped women and established comfort facilities in Asian areas.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disclosed the materials of the Kwantung Army, which contained considerable contents related to comfort women. In addition to them,

there are also many materials, including Research on Comfort Women; Japanese Military Sex Slaves; Criticism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A Woman in the Bastion—Records on the Investigation of Japan's Sex Slaves in Shanxi; Comfort Women and Sexual Violence; Evidence: Discover the Secret of 172 Japanese Comfort Facilities in Shanghai; Records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Facilities in Nanjing; and Chinese Comfort Women: Testimonies from Imperial Japan's Sexual Slaves.

2. Some key points of the histor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1. Time and space

The histor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began in Shanghai in January 1932. At that time, the Japanese headquarters of the Shanghai Navy Special Landing Force designated a brothel established by a Japanese resident in the region as the Navy designated brothel. The facility also included Dai Salon, Sanhao Hall, Xiaosong Gazebo, and Yongle Hall. The Dai Salon, a naval comfort facility located on 125 Dong Bao Xing Road, was operated from January 1932 to August 1945,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among Japanese military comfort facilities in the world, and five buildings of the facility are still well preserved. The Japanese Navy caused the January 28 Incidents in 1932, and later, as the scale of the warfare was expanded, the Japanese government organized the Shanghai Expeditionary Force to support the navy.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troops raped women in the war zone several times, public opinions in China and other nations deteriorated, leading the Japanese armed forces to face fierce criticism. Yasuji Okamura, Deputy Commander-in-chief of the Shanghai Expeditionary Force, decided to recruit Japanese women and establish facilities to provide sexual favors to Japanese soldiers.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oceeding was Naosaburo Okabe, a senior staff officer of the expeditionary force. He wrote in his journal on March 14 that "news endlessly came that soldiers were using all kinds of means and methods to find women and offended public morals. We've decided to set up such a facility to address soldiers' sexual problems."

Okabe Naosaburo and Nagami juro examined comfort facilities and briefed Yasuji Okamura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facility. Okamura asked the Governor of Nagasaki Prefecture to recruit and deploy "comfort women corps" to the Japanese occupied area in Shanghai and promptly construct a comfort facility.

As the Japanese invasion war began in earnest after the Marco Polo Bridge Incident on

July 7, 1937, Japanese high-ranking officials also rushed to construct comfort facilities. Those facilities were built in all areas occupied by the Japanese military, ranging from Heilongjiang to Hainan Dao, from Liaoning to Yunnan, as well as 22 provinces including Jilin, Shanxi, Hubei, Guangdong and Guangxi.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on December 7, 1941, comfort facilities were also set up in all areas occupied by the Japanese military, including the Pacific and Southeast Asian regions, Okinawa, the Korean peninsula, and colonized Taiwan.

In summary,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existed from January 1932 until the end of the war in August 1945, and comfort facilities, or modified ones, were established in most areas occupied or stationed by the Japanese armed forces.

2. Relations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ilitary

The deployment of comfort women and the establishment of comfort facilities for Japanese troops were the basic system of the Japanese arm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ith a slogan, “War is put ahead of everyth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Justice, the Home Ministry, the police, municip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the Army, and the Ministry of the Navy joined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comfort facilities.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military were closely connected with comfort facilities and played the role of a midwife of the sex slavery syste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 instance, issued a certificate to send comfort women, who had been dispatched to Japan and Korea, to China. During the Battle of Wuhan in the fall of 1938, the ministry and the military were already colluding the establishment of comfort facilities in Wuhan. The “Key Urgent Measures for Allowing Foreigners to Enter Hankow After the Occupation of the Region,” sent by Japanese Consulate General to Shanghai Koto Achi t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azushige Ugaki on September 28, says, “If one who is not a resident enters Hankou, his/her transportation capability and the state of busines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entrance. However,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comfort facilitie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lso closely watched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comfort facilities by opening the Consulate. The Document on the Management of Travelers to Hankou,” sent by Yoshitaka Hanawa, Japanese Consulate General in Hankou to Hachiro Harat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ays, “There are already about 20 military comfort facilities (including facilities for logistics units and the military police and facilities approved by this Consulate).” The Japanese Consulate General in Shanghai intervened

in the investigation of the comfort facilities in the mid-1930s. In Nanjing, on April 16, 1938, the Consulate, the Army and the Navy of Japan held a joint meeting and agreed with the management of Nanjing comfort facilities. They decided that “When comfort facilities are installed in the military, any changes in the domicile, address, name, age, birth and death of comfort women should be immediately informed to the Consulate.”

Obviously, Japan was the subject that implemented the comfort women system, and the upper and lower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mfort facilities all around by organically cooperating with each other. On March 4, 1938,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sent a confidential document, “Army Confidential No. 745,” to chiefs of staff of the Japanese Northern China Area Army and the Central China Area Army. The document was about the recruitment of comfort women and the establishment of comfort facilities. The document says, “The recruitment activities of comfort women should be controlled by the 1st grade of the expeditionary troops, and each service chief dispatches an appropriate person to do this work. When recruiting women, recruiters should contact the local police and the military police.” This document was approved by Umezu Yoshihiro, deputy Minister of the Army. This official document clearly shows that besides the army, the government police and the military police also intervened in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mfort women system. It also signifies that the Japanese Ministry of the Army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as the top military guidance agency. The “Measures to Raise the Morals of the Military Earned from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n educational reference issued by the Army on September 19, 1940 to each unit, argues that “facilities for sexual comfort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morals in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comfortable facilities should be examined thoroughl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Japanese military believed that comfort facilities were able to perform various functions such as raising the morals, maintaining military disciplines and preventing rapes. This record explicitly demonstrate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have systematically and intentionally set up comfort facilities. Yoshihide Miki, Medical Director of the Ministry of the Army, who inspected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in 1940, wrote in the “Inspection Findings” as follows.

The overall environment in the front units in China is not good. The comfort of the mind of the government army should be considered and satisfied. The commander said that escapes and assaults take place for uncertain reasons, and the resting place for their mind should be prepared. Division Commander Kenji Doihara asked me to dispatch comfort women corps. In particular, the border guards didn't even go out of the base for the past three years. The military consolation should take measures as soon as possible.

On September 3, 1942, the Army Director General, Director Onsho suggested at the meeting of the army ministry directors that “based on current comfort facilities, those for comportsing soldiers lower than officials should be prepared, and the scale is as followed: a total of 400 facilities including 100 in Huabei, 140 in the Central China, 40 in Hua Nan, 100 in Nanfang, 10 in Nankai and 10 in Sakhalin Islan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China broke out in 1937, key agencies such as the Shanghai Expeditionary Force and the Central China Area Army directly led the construction of comfort facilities. At that time, the Commander-in-chief of the Central China Area Army was Iwane Matsui and the Chief of Staff was Osamu Tsukada. At no later than December 11, 1937, the order was issued. Mamoru Iinuma, a Japanese Chief of Staff of the Shanghai Expeditionary Force, wrote in the diary that he received a document on the establishment of a comfort facility in the Central China Area Army. This shows that the Central China Area Army had already issued the order to the Shanghai Expeditionary Force to build comfort facilities before occupying Nanjing. The 10th unit, which landed in Jinshanwei, Shanghai, also received the same order. Lieutenant Colonel Masao Terada, advisor to the forces, secretly ordered the military police to recruit women in Fuzhou and set up a comfort facility for the Japanese military brothel on December 18. In order to establish a comfort facility in Shanghai as soon as possible, the staff of the Shanghai Expeditionary Force ordered Lieutenant Colonel Isamu Jo, the Director of the 2nd Department of the staff to take full charge of the task. Mamoru Iinuma recorded that [the military authorities] entrusted Lieutenant Colonel Isamu Jo with the establishment of Nulang Hall. On the 28th of the same month, he also recorded that as illegal acts of Japanese armed forces have become even severer day by day, the 2nd Department convened persons in charge of each unit and delivered a disciplinary order of the chief of staff.

Two historical documents found in Jilin show that the Japanese military spent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on the construction of the comfort women system. The document written by the Central Bank of Manchou on March 30 of the 12th reign of Manchukuo Kant (1945) is the telephone records of the bank’s overseas finance department. The document shows that the 7990 units of the Japanese army in Xuzhou remitted 252,000 yen for the preparation of comfort women to a bookkeeper of the bank’s Anshan branch by the approval of the 4th Department of Kwangtung via the bank’s Huai-Hai liaison department. The recipient of this money is recorded as the Anshan Shengli Command, which is presumed to be the bookkeeper of the bank’s Anshan branch, and the three letters in Chinese meaning “headquarters” are assumed to be miswritten. This document clearly mentions that “the actual recipient of this document is Tsuru Yonehama in Anshan,” “The amount mentioned above is public money on the surface,” “The money should be remitted to a regular account of the branch in such a way that a large amount is

remitted. Though the regular account has a cap, this money may be exempted from the cap and the treatment of the money is approved. Even though there is a limit on regular accounts, this money is probably exempted, and it is allowed to be treated under the name of public money for military use.” At the end of the document, there is also additional sentence, “This issuance is approved by the 4th Department of the Kwantung Army. Next are three remittance records, including "50,000 yen on November 17, 1944; 150,000 yen on December 16, and 80,000 yen on January 24, 1945.” For about four months alone, the 7990 unit spent such a large amount of money preparing (purchasing) comfort women. This shows that the comfort women system, was implemented by the Japanese military with its budget was legitimate within the military at the time, an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actually pushed forwar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is money was mainly used for the conscription and transportation of comfort women by the Japanese police agencies in China and Sou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comfort facilities for Japanese engineer units, the preparation of the physical inspection system in the military, and the patrolling of comfort facilities. The funds for the “preparation of comfort women” were not paid to the comfort women.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by Chin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fort women survivors did not have their own lives protected as well as did not even receive any payment for their work.

Historical materials demonstrate that the Japanese military also had an agency or officer (position) in charge of the establishment of comfort facilities within its first-class institutions. Generally, the staff, the medical department, and the executive department jointly take responsibility for tasks on comfort women. It also had an agency in full charge of comfort facilities under the logistics corps and called “OO Department,” “Comfort Facility Department”, or “Comfort Women Department.” (Comfort women).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Kwantung Army, the 3rd department of the staff assumed responsibility of comfort facilities. The 7331 unit which stationed in Shanghai established a separate comfort facility. The 11th Army logistics unit in Wuhan had the comfort facility department consisting of a total of eight persons—two military officers, two non-commissioned officer, and four soldiers. Their positions were comfort women management and comfort facility operation and supervision. The materials record that whenever comfort women arrived at comfort facilities operated by civilians, the comfort facility department worked with the owner of the facility to inspect the photos, manuscripts, police licenses, local government-issued ID cards, and medical history of comfort women.

3. Types of comfort facilities

Japanese military comfort facilities are divided into those established by the military on its own; those operated by foreigners of Japanese descent, those operated by Koreans and those by

dummy government officials cooperating with the Japanese military. Among them, the facilities directly operated by the Japanese military demonstrates that Japan implemented the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n some cases, such facilities were built upon orders given from the upper to the subordinate organizations, and there were also cases in which units such as their companies or battalions construct facilities by themselves.

In addition, there were modified forms of comfort facilities exclusively for the Japanese military that were originally normal brothels but designated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the puppet government to entertain Japanese government troops, though they had no sign of comfort facilities.

The places where a large number of victims were harassed were not limited to official comfort facilities, and in China, the damage was even worse. War criminal Matsuyoshi Akita confessed that "from February 1940 to May 1941, 15 people including General shinji Yamane who led the special detached unit of the 43rd Battalion of the 3rd Company to Nan Cao Fan, Zhangqiu Xian, Shandong, were stationed in the region. I was a private first class and the guard of the unit. General Shinji brought five Chinese women by force from the village office and made them comfort women. We violated five Chinese women for a year and five months." Most of some 70 survivors of Shaanxi also testified that they were trafficked as prisoner and experienced sufferings.

4. Scal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Through years of research and studies, it is that the scale of the Japanese comfort women system was more than anticipated and imagined before. For example, at least 172 comfort facilities were established in Shanghai alone, and there were at least 70 in Nanjing, at least 67 in Hainan Dao, and dozens in Wuhan. Of course, the revealed scale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The Rule and Register of Jilin Society in Jinhua is a register of Korean gathering of those who came from the same place of April 1944, acquired by a Chinese intelligence agent. It is a list of some 200 people, but there is a lot of hidden information that the Japanese military created the comfort women sex slavery in the Jinhua area. Literature survey and field studies show that the register records 11 comfort facilities, and eight owners, seven managers, and 126 comfort women of such facilities. These comfort women accounted for 60% of the gathering and the youngest comfort woman was a 17-year-old girl. A total of 141 people related to those facilities record a surprisingly high ratio of 67.19% of the gathering members. This reflects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ry was universally promoted.

5. Were comfort women forcibly mobilized or did they do that for living?

For a long time, the Japanese right-wing forces have drawn attention of the Japanese people and pursued political interests by making an absurd appearance as if they were trying to compete “who is more right?’ On March 5, 2007, when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a resolution condemning Japan's sex slavery of wartime. Prime Minister Shinzo Abe said, "The resolution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is not based on facts. Although the resolution has been passed, we can never apologize. There is no evidence to prove coercion in the narrow sense, and there are no testimonies to prove it. In addition, comfort women was the route they chose for themselves. Of course, there are cases in which some contractors forcibly mobilized women, but at the government level, there was no compulsion of entering general home and pulling out women." On May 2013, Osaka Mayor Hashimoto publicly stated that "the comfort women system was necessary in the wartime." He even said, "I hope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Japan will also make a good use of entertainment facilities in Japan." In January 2014, Katsuto Momiya, NHK's new chairman, employed sophistry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in every country."

After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implemented the comfort women system in order to well facilitate the war machine (Japanese army), they forced foreign and colonial women to work as comfort women on a massive scale, especially with such violation concentrated on women in China, Korea and Southeast Asia. An uncountable number of materials and testimonies of each Asian region are proving the history that these women were forcibly mobilized to live as comfort women in torture. They were deprived of liberty, suffered from untold suffering, and lived a life less than death.

In areas such as Shanxi, Yu, and Wusiang, Japanese troops captured rural women and held them in bastions, even in dangerous situations where they were confronted with the Eighth Route Army. Bastions became a “legitimate rape center.” After long time of investigation, at the local level, at least 70 victims testified with courage that they were assaulted by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ry. In many areas of Hainan, the Japanese army dragged women into military bases at will and used them as sexual slaves. For example, in Cheongmai County, "Women a little bit of pretty were taken to the army and became comfort women. Comfort facilities were installed at all companies of the Japanese military. The comfort facility in Jinjiang Company was set up in the house of Chen Quojong near Lok Sin Tong, and there were 30 comfort women there. The Chen family was expelled out to other house, and the entire house with to stories of millions of square meters were provided as a residential place of comfort women. The four sides were surrounded by wire meshes, and guarded by a dedicated manager, so comfort women never

escaped and outsiders could not intrude into the facility. The facility in the Shifu Company was installed in the military base in Shifuling with a total of 20 comfort women. Likewise, it was surrounded by wire meshes, which was supervised and monitored by a dedicated manager. Chinese women who were forcibly and indiscriminately mobilized fell into sex slavery for the Japanese military, which took place routinely in Japanese occupied territories in China.

The comfort women were killed in violence, and even killed and eaten by the Japanese army. Tsuyoshi Ebato (original name was Tsuyoshi Ishiwatari), noncommissioned officer of a machine gun company at the 59th Division of the 59th Brigade of the 111th Battalion, The Tsuyoshi Ebata (Tsuyoshi Ebata, originally named Tsuyoshi Ishiwatari), confessed that he made a female prisoner of war comfort women for him in Shigezhuang, Shandong. As the supply of foods worsened day by day due to a long stay in the region, he killed her and ate her flesh. did not only ate it himself, but also lied company members that the meat was sent from the headquarters of a battalion so that they could eat it.

The Japanese military police participated in the management of the comfort facilities, which counted and managed the number of government troops entering facilities. Two documents of the Japanese military were found in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One of them was a report submitted by the Ooki, Chief of Staff of the Japanese detached military police to Central China to the staff of the military in February 1938. The document counted the situation of comfort facilities in nine areas including Nanjing, the commander of the Japanese military dispatched to the Japanese Army in February 1938 sent a report to the army chief of the army. In Nanjing, Siaguan, Jinjiang, Jurong, Jintan, Changzhou, Danyang, Wuhu and Ningguo. Except Ningguo, where the situation has not been well monitored due to traffic disruption, the document records that comfort facilities were already installed in the other 8 areas. The document states that "Comfort women' in Wuhu increased by 84 compared to earlier this month. Among the 109 comfort women in the area, 48 are Japanese, 36 Korean and 25 Chinese." The 109 comfort women in Jinjiang had to deal with 15,000 soldiers, an average of 137 soldiers per person everyday. After reaffirming the clear record of the report, a total of 8,929 Japanese soldiers entered the facility in Jinjiang for 10 days in mid-February, up by 3,195 from the previous 10 days. This means that in this region, a comfort woman treated 82 military soldiers for 10 days. In Danyang, there were once only six comfort women there, and the report clearly states in regard to the severe lack of comfort women that women should be recruited on the spot to become comfort women. Another report by Ooki also records that states that there are 11 Chinese and 29 Korean women in the facility of Huzhou. When the Sangming Brigade entered Huzhou, the number of Japanese soldiers was slightly reduced, but a special comfort facility was established. Around that time, Wuxi had 20 more comfort women.

3. How to remember the history of the comfort wome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Taiwan, the Philippines, East Timor, the Netherlands and Indonesia have conducted time-consuming investigations of victims over the past 20 years. The current situation of victims that can be confirmed is as follows: South Korea has 239 victims, North Korea 209, China 250, Taiwan 50, Indonesia hundreds, Philippines around 100, East Timor dozens, Japan less than 10, and many victims testified in the Netherlands.

In China, survivors of comfort women were found in Heilongjiang, Jilin, Beijing, Hebei, Henan, Shandong, Shanxi, Anhui, Jiangsu, Shanghai, Zhejiang, Hubei, Hunan, Guangxi, Yunnan, Hainan. Wei Shaolan of Lipu, Guangxi, was taken by the Japanese army to the comfort facility in Maling and became pregnant before fleeing to home and giving birth to Luo shanxue, a Japanese illegitimate child. Over the last few years, they have testified in Shanghai, Nanjing, Tokyo, and Osaka, and now the two live in the foothills.

As time goes by, the number of survivors is decreasing. Currently, there are 14 people in China, 2 in Taiwan, 30 in Korea, and 1 in the Netherlands (Mrs. Ruff resides in Australia), dozens in the Philippines and hundreds of Indonesia.

1.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ready reached a considerable consensus on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1996,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 individually investigated the comfort women issue and published a report. On April 1, UN legal expert Radhika Coomaraswamy presented to the UNCHR a report titled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The report emphasiz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take responsibility and suggested the following to the Japanese government: 1. Japan must be held legally accountable for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establishment of brothels; 2. Japan must pay compensation to all victims of sexual slavery; 3. Japan should disclose all materials; 4. Japan should formally apologize to the victims; 5. Japan accurately reflects historical facts in textbooks; 6. Japan should punish war crimes.

Likewise,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Law Society have also produced a report denouncing Japan's sex slavery system.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esented seven proposals, including an apology, compens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ourt, in a report published after the 1993 investigation. Since 2007, national assemblies of the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Netherlands, European Union,

and the Philippines also passed a resolution and condemned the Japanese government for denying its historical responsibility.

More and more countries and governments, including China, South Kore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re putting anti-humanitarian histories into textbooks and teaching related histories in the classroom. In Japan, part of the histories is included i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but its contents and level have retreated considerably compared to the 1990s.

2. How to remember the tragic history

August 14, the day when Kim Hak-soon disclosed the Japanese military's atrocities, was designated as "Comfort Women Commemoration Day," and ceremonies are held to memorialize them on that day every year. Newspapers and filmmakers from all over the world are making films and documentaries on comfort women, including Korea's "Return Home," China's "Twenty Two," Taiwan's "Mother's Secret" and "Song of the Reed," China-based CCTV's "Leaving and Staying at a Comfort Facility." Documentaries, like "Twenty Two" drew roaring attention from and stirred controversies among Chinese, as well 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member and raise awareness of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history museum is to preserve memories and hand over them to next generations. In April 2017, the first meeting for comfort women tasks of museums was held in Tokyo. The comfort women museums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in South Korea, China, Taiwan, Japan, the Philippines and the Netherlands. Museums in China include the Military Hall Museum of the Kwantung Army in Heilongjiang (2009); the Museum of Comfort Facilities in Dongjiagou, Longling, Yunnan (2015); the Nanjing Comfort Stations Liji Lane Site Museum (2015); and Museum of Chinese Comfort Women of Shanghai Normal University (2016). The Liji Lane Site Museum is established on the former sit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facility and has a total of eight buildings. North Korean comfort women victim Park Yeong-sim also testified in person in 2003.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built a comfort women museum as well.

3. Conflict over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Memory of the World

UNESCO Memory of the World is the best way to preserve the memory of human beings. In 2014, China applied to UNESCO for the entry of two kinds of materials on the Nanjing Massacre and comfort women. However, China failed to register materials on comfort women due to the oppos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UNESCO recommended the co-registration

of materials with other victimized countries in regard to the comfort women issue. On May 31, 2016, 11 countries, including China, South Korea, the Philippines, Indonesia, East Timor, Japan, the Netherland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as well as private organizations in those regions, submitted an application under the name of "Voice of Comfort Women." The materials submitted for the joint registration amount to a total of 2,744 copies, and consist of historical materials on and survey results of comfort women, and documents on opposition activities. Although these documents have much missing and damaged, they are the only true documents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UNESCO Memory of the World.

However, the right wing of Japan is making all-out efforts to prevent the "Voice of Comfort Women from being registered by applying for the "discipline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arguing that its discipline is very strict. During the screening process, the Japanese government even put pressure that Japan would withdraw from UNESCO if the "Voice of Comfort Women" passes. Due to the pressure of Japan, UNESCO recommended in October 2017 parties concerned talk about those records. At present, the Korean Commission on Registration Applications has issued a letter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ESCO to express Korea's intention to have a dialogue. These facts show how violence is assessed and remembered, and how fierce related struggling is

Historian's research needs value neutrality. historians should evaluate and criticize in a calm manner and write seriously. But historians also have a responsibility to tell right from wrong. They should condemn criminal acts and lead people to have responsibility and mission toward goo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ar crimes against military sex slaves, Nazis' massacre of the Jewish people, and Japan's Nanjing Massacre are all anti-humanist war crimes of the 20th century that human beings should remember and learn lessons to prevent such acts of violence from happening again.

Study on literature and oral history: Rebuild the history of Japanese 'comfort women'

Abstract: Asian scholars has basically rebuilt the history of Japanese 'comfort women', or the sexual slavery system by analyzing materials and visiting survivors since 1991. The global society has agreed that it is the wartime atrocities violating human rights and Japan should apology for its actions. However, many Japanese still deny their act of aggression. We spare no effort to pass down this historical memory to the younger generations through writing it to textbook, applying for the world memory list, making a film as well as building museum and memorial hall. The rest countries of Asian still fight against Japanese government over the nature, scale and name of 'comfort women'.

Key words: 'comfort women'; Japanese sexual slaves ;comfort station; historical memory

3. 중앙당안관 자료

리리나 李莉娜
(중국 중앙당안관)

중국 중앙당안관 소장 ‘위안부’ 문서 현황 소개

<중앙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서면 자백서 선집>을 사례로

| 리리나 李莉娜 (중국 중앙당안관)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킨 후 1945년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14년에 걸친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은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며 중국인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중국 중앙당안관은 중국인의 항일 전쟁을 담은 방대한 역사적 문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중앙당안관은 지난 몇 년에 걸쳐 이 자료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동영상, 도서, 신문 연재, 전시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사회에 다량의 문서 자료를 공개해왔다. <중앙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서면 자백서 선집 (中央檔案館藏日本侵華戰犯筆供選編)>(이하 ‘자백서 선집’으로 약칭)은 지난 몇 년 간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1. <중앙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서면 자백서 선집>의 내용

<자백서 선집>은 중앙당안관이 편찬하고 중화서국(中華書局)이 출판하였다. 제1집(輯)과 제2집(輯)으로 나뉘고 전권 120권으로, 2015년 8월과 2017년 7월에 각각 출판되었다. <자백서 선집>에 수록된 문서는 모두 중앙당안관이 소장한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의 재판 문서에서 선정하였다.

<자백서 선집>은 일본군 전범의 서면 자백 문서를 수록하였다. 자백서 문서의 영인본(影印本) 외에도 전범의 사진과 자백 내용의 중문 및 영문 요약문도 포함되었다. 자백서에는 나이, 본적, 가족, 개인 이력, 범죄 행위, 전후 사상 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대부분이 최초 공개된 내용이다. 직접 중문으로 작성된 것 외에도 모든 전범의 서면 자백에는 당시 중문 번역문과 일본어 원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어 원문은 모두 전범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것이다.(일부는 타인이 대필을 하기도 했으나 서명은 자필 서명이다) 우리는 전범의 서면 자백 내용을 요약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으며, 시간이나 자백서 페이지 정렬 등 문서 자체의 일부 오류에 대해서도 바로잡거나 설명을 달지 않고 원문을 최대한 보존하였다. 하지만 일본군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부녀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영인본으로 출판한 경우 피해자의 실명과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동시에 독자들의 가독성을 위해 모든 전범의 자백서 중 중요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요약문을 달고 영문으로 번역해 해당 자백서 앞에 배치했다.

2. 중국 중앙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문서의 특징

1950년부터 1956년까지 중국은 푸순(撫順), 타이위안(太原) 등 지역에서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1109명을 구금했다. 1951년부터 1956년 6월까지,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檢察院)은 수감된 일본인 전범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기소 및 재판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관련 문서는 모두 중국 중앙당안관에 보관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전범의 자백서, 구술 기록, 심문 기록, 현장 조사 기록, 전범 검거 자료, 조사 기록 등이 포함되어 20여 만 페이지에 이른다.

중국 중앙당안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문서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가 방대하고 완성도가 높다. 이 문서는 그 양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전범 재판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전범에 대한 모든 심문 과정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의 범죄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뒷받침이 되는 근거다.

둘째, 문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신뢰성이 높다.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문서는 재판 자료로서 남아있는데 그 중 서면 자백, 구술 기록 등은 전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조사 자료는 모두 수차례 반복적으로 논증을 거쳐 사실성이 매우 높고, 절차 상으로도 자료의 진실성을 갖추었다. 구술 내용을 통해서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의 범죄 행위 종류가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 특히 민간인 학살, 가스전, 세균전, 위안소 설치,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내용은 하나의 사례가 아닌 여러 명의 전범의 자백서에서 골고루 등장하고 있어 해당 내용이 상호 검증이 가능하여, 내용적인 면에서도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문서의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 전쟁에 패하고 후퇴하면서 일본군은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 대량의 문서 자료를 태워버렸고 그 결과 현존하는 ‘남경 대학살’과 ‘위안부’ 등 문서 자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하나의 완성된 자료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발견된 문서에서 관련 정보를 발굴할 수 있었다. ‘위안부’ 문서를 예를 들면 일본 정부 문서, 당시 신문 보도 자료, 피해자 구술 기록, 범죄자 본인의 서면 자백 등 기존에 발견된 자료들이 상호 보완이 가능하여 ‘위안부’ 제도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특히 일본군, 일본 장교와 사병의 문서 자료는 위안부 강제 동원 범죄 행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폭로하고 증명하고 있다.

3. <중앙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의 서면 자백서 선집> 중 ‘위안부’ 관련 자료

〈자백서 선집〉에는 ‘위안부’, ‘위안소’ 관련 자료들이 많은데, 그 중 일부 사례를 소개하겠다.

스즈키 카이긴(鈴木啟久)의 서면 자백: 일본군이 점거한 지역에 ‘모두 위안소를 설치하라’는 명령하고, 수많은 중국 부녀자들을 ‘위안부’로 유인하였다

사사키 노스케(佐佐真之助)의 서면 자백: 1943년 12월 네덜란드령 동인도 암본섬에서 ‘인도네시아 부녀자 십 여 명을 강제 동원해 위안소를 설치하고 이들을 일본 사병에게 제공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부녀자를 심각하게 모독한 행위이다’, ‘우리 사단이 후베이성에 주둔했을 때 당양(當陽)에서 예전에 설치된 일본인이 운영하는 위안소는 일본군에 위안 대상으로 제공되고, 사단은 운영을 지원했다. 이 위안소 안에 중국인 부녀자 십 여 명이 있었는데 모두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생활이 궁핍해지고 수용소로 끌려와 매춘에 강제 동원되었다. 나는 이창(宜昌), 징먼(荊門)에도 위안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나바 이사오(稻葉績)의 서면 자백: 1945년 3월 5일 산시성 판스현(繁峙縣)의 한 마을에서 중대장이 위안소 설치를 위해 17세에서 20세 사이의 여성 스무 명을 붙잡아오라고 명령했다.

아즈마 입페이(東壺兵)의 서면 자백: 1941년 8월, 무단장성(牡丹江省) 동녕현(東寧縣)에서 관동군 사령부의 명령을 받아 중국인의 가옥(200평방미터)을 강탈해 강제로 ‘위안소’로 만들었다.

사토 후쿠지(佐藤福次)의 서면 자백: 1942년 7월, 룡장현(龍江縣)에서 일본 침략 군인의 위안소를 만들기 위해 ‘임대’라는 명목으로 중국인 민간 가옥 3곳을 강제로 점거했다(모두 25칸)

다케우치 유카타(竹内丰)의 서면 자백: 1936년 12월, 양위안시(湯原市)에서 ‘경비 사령부가 무장 병력을 파견해 무력으로 중국인 가옥 30여 칸을 강제 점거하고, 일본군 전용 기생집으로 사용했다’

와타나베 마사오(渡邊雅夫)의 서면 자백: 스타 클럽은 지난(濟南) 최고사령부의 고급 부관(高級副官)이 운영하고 관리하며 제국주의 군대의 강간 행위를 공개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감금된 여성들은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 지난군인회관(濟南軍人會館)은 지난 최고사령부의 고급 부관이 관장을 맡았다.

후루카와 유이치(古川勇壺)의 서면 자백: 1938년 12월, 일본 헌병대는 푸산시(佛山市)에 거주하는 생활이 궁핍한 중국인 부녀자 약 50여 명을 납치해 ‘일본군 사병 위안소’에 감금했다.

발표 분량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지만,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위안소 설치에 일본군대의 지원을 받았다.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관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스즈키 카이긴, 사사키 노스케, 아즈마 임페이 등 사병들의 서면 자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둘째, 위안소 용도의 가옥은 폭력을 통해 강제 점거되었다. 사토 후쿠지, 다케우치 유카타 등의 서면 자백에서도 이 점이 언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빌린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임대료가 극도로 낮아 이는 강제 점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셋째, 위안소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일본군이 있는 곳에는 모두 위안소가 있었다. 수많은 전범들의 서면 자백에서도 위안소 분포 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베이징, 허베이, 후베이, 산둥, 허난, 광둥 등 지역으로 위안소가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있고, 일본군이 점령한 네덜란드령 동인도 암본섬까지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위안부’들이 대부분 중국과 조선 출신이다.

넷째, 폭력과 강탈은 ‘위안부’를 동원한 방식 중 하나이다. 이나바 이사오, 후루카와 유이치 등의 서면 자백에서 보여주듯이 일본군이 폭력과 강탈을 통해 평민 부녀자를 ‘위

안부'로 강제 동원하였고, 이는 해당 부녀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를 언급할 때 많은 전범이 '일본군의 권력 아래 감금된', '일본 군국주의의 철저한 구속에 의해 위안 도구로 쓰여진' 등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부녀자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하여 갖은 유린과 학대를 당했음을 보여준다.

4. 중국 침략 일본군의 범죄행위를 담은 자료 발굴을 위한 중앙당안관의 노력

중국 중앙당안관은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우리는 <항일전쟁문서회편(抗日戰爭檔案匯編)>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항일전쟁문서회편>은 중국 국가당안관이 구성하고 전국의 종합 당안관이 공동 참여하여 영인본으로 출판된다. 수록한 문서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인의 14년 항전의 전 과정과 문서, 전보, 전단, 공문서, 일기, 일지, 사진, 문장, 악보, 사진과 그림, 서적, 친필 원고 등 형식들이 포함하고 있어, 항일 전쟁 문서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문서 내용은 끈질기게 저항한 중국인의 모습 외에도 일본의 침략과 그로 인한 손실도 담겨있다. 우리는 특히 그 중 '남경 대학살'과 '위안부' 제도, 가스전, 세균전 등 내용의 문서 자료 공개에 심혈을 기울였고, 일반 대중이 역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수많은 역사적 사실 앞에서 일본의 우익 세력은 여전히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범죄 행위를 부인하며, '위안부' 제도를 부정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과 아시아 국가 국민의 마음을 무시한 행위이며 더 나아가 역사와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인의 염원을 무시한 행위이다. 중국 중앙당안관의 항일 전쟁 문서 발굴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우리의 선열들의 목숨과 맞바꾼 평화를 함께 수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中国中央档案馆馆藏“慰安妇” 档案情况介绍

——以《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为例

丨 李莉娜 (中国中央档案馆)

从1931年发动九一八事变起，到1945年宣布无条件投降，日本对中国进行了长达14年的侵略战争，犯下了滔天罪行，给中国人民带来了无尽痛苦，造成了巨大损失。中国中央档案馆保存了大量反映中国人民抗日战争历史的档案资料，我们在持续多年的发掘整理过程中，先后通过网络视频、图书、报刊连载、展览等多种形式向社会公布了一大批档案资料，《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以下简称《笔供选编》）就是近几年的重要成果之一。

一、《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的内容

《笔供选编》由中央档案馆编辑、中华书局出版，共两辑120册，分别于2015年8月、2017年7月正式出版，选用档案全部来自本馆所保管的日本侵华战犯的审判档案。

《笔供选编》收录了上述部分战犯的笔供档案，除笔供档案影印件外，还配有每名战犯的照片及笔供中英文提要。笔供内容涵盖年龄、籍贯、家庭、个人经历、罪

行、战后思想转变等，数量之多、内容之巨为历次之最，而且绝大部分供述为首次公布。除个别直接以中文写成的以外，每名战犯的笔供均包括当时的中文译文及日文原文，日文原文均为战犯本人书写并签名（个别他人代写，但本人签名）。我们未对战犯笔供内容进行删节和修改，对于档案中原有的一些错误，如时间、笔供页码编排等，均不作改动或说明，最大限度地保持了档案原貌。但为保护受日军侵害妇女的隐私，在影印出版时，我们将个别的人名或相关文字作了虚化处理。同时，为方便读者阅读，我们将每名战犯笔供中的重要罪行做成提要，并翻译成英文，排在相应笔供之前。

二、中国中央档案馆保管的日本侵华战犯档案的特点

1950年至1956年间，中国先后在抚顺、太原两地关押了日本侵华战犯1109名。1951年至1956年6月，最高人民检察院对在押的日本侵华战犯的罪行进行了调查，并会同有关机关进行起诉、审判的准备工作，相关档案都保存在中国中央档案馆。这部分档案内容包括了战犯笔供、口供、审讯记录、现场勘察记录、战犯检举材料、调查记录等，数量达20多万页。

总体来看，中国中央档案馆保管的日本侵华战犯档案有以下几个特点：

一是数量庞大材料完整。这部分档案数量巨大，完整展现了战犯审判的全过程。从中可以看出，对于战犯的整个审讯过程是严谨的、科学的，这些材料为研究日本侵华罪行提供了有力支撑。

二是档案内容真实可信。日本侵华战犯档案是作为审判材料留存下来的，其中的笔供、口供均是由战犯本人供述，调查材料均经过反复论证，真实度较高，从程序上保证了材料的真实性。从供述内容来看，日本侵华战犯所犯罪行的种类具有普遍性，特别是虐杀平民、毒气战、细菌战、设置慰安所、强征“慰安妇”等，绝非个例，而是分散存在于多名战犯的供述材料中，这些内容可以相互印证，从内容上保证了材料的真实性。

三是档案研究价值很高。日军战败撤退时，为掩盖罪行，烧毁了大量档案资料，导致现存的“南京大屠杀”“慰安妇”等档案资料比较零散，不成系统。尽管如此，我们还是可以从已被发现的档案中发掘到相关信息，以“慰安妇”档案为例，已经发现的材料有日本官方文件、有当时报刊相关报道、有受害人口述、有犯罪者本人供

述，这些材料相互补充，让“慰安妇”制度越来越清晰地呈现在公众面前，特别是日本军方、日本官兵形成的档案资料，更是对这一罪行最直接的揭露和佐证。

三、《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中有关“慰安妇”的材料

《笔供选编》中有很多涉及到“慰安妇”、“慰安所”的材料，现选取一些例子：

据铃木启久笔供，其下令日军盘踞地区“皆设有慰安所”，并引诱多名中国妇女任“慰安妇”。

据佐佐真之助笔供，1943年12月，在荷兰领属东印度安汶岛，“强制的使用印度尼西亚妇女十数名，设立一个慰安所，供给日本兵士之用，这是对印度尼西亚妇女重大的侮辱行为”。他的笔供中还提到，“师团于湖北省驻防期间，在当阳从以前就设立的日本人经营之慰安所，使之供给日本军队慰安，师团对此经营予以支持。该慰安所里有中国妇女十数名，都是因日本帝国主义之侵略战争，而陷于生活困苦，被强制的收容从事贱业。我想在宜昌、荆门也有和这同样的慰安所”。

据稻叶绩笔供，1945年3月5日，在山西省繁峙县某村，中队长命令将为了设立中队慰安所所逮捕的妇女中年龄在17岁到20岁的20名带走。

据东一兵笔供，1941年8月，在牡丹江省东宁县，奉关东军司令部之命令，掠夺中国人民之房屋（200平方公尺）作“慰安所”。

据佐藤福次笔供，1942年7月，在龙江县，为设置日本侵略军人慰安所，以租借之借口，掠夺强占中国人民宅3处（总间数为25间）。

据竹内丰笔供，1936年12月，在汤原市，“警备司令部派遣武装兵力，以武力恫吓强占中国人之房30间，充当日本军专用妓馆”。

据渡边雅夫笔供，星俱乐部“是在济南最高司令部的高级副官经营管理的，做为帝国主义军队的公开强奸而设立的，同时被监禁的妇女无论在物资上、精神上、健康上都是遭受到在人间上最大的痛苦”。济南军人会馆“是济南最高司令部的高级副官充当馆长的”。据古川勇一笔供，1938年12月，日本宪兵队“拉捕了居住在佛山市内，生活困苦的中国妇女约50数名，监禁于‘日军士兵慰安所’”。

限于篇幅，无法一一列举。综观以上材料，可以得出如下结论：

第一，设置慰安所得到日本军方支持，慰安所的设置、管理等是有计划、有组织的。铃木启久、佐佐真之助、东一兵等人的笔供中清楚地说明了这一点。

第二，暴力强占是慰安所所用房屋的重要来源。佐藤福次、竹内丰等人的笔供中说明了此点，而且，即使打着租借的旗号，所给租金极低，与强占无异。

第三，慰安所分布很广，遍及日军所到之处。多名战犯的笔供显示，慰安所分布范围很广，不仅涉及中国北京、河北、湖北、山东、河南、广东等多地，还涉及被日军占领的荷属东印度安汶岛，“慰安妇”则大多来自于中国、朝鲜半岛。

第四，暴力抢夺是“慰安妇”来源之一。从稻叶绩、古川勇一等人的笔供中可以看出，日军通过暴力抢夺等方式强迫平民妇女充当“慰安妇”，完全违背了妇女意愿。而且，在提到“慰安妇”时，很多战犯使用了“在日本军的权力之下被监禁的”“被日本军国主义铁锁束缚而作为一个慰安工具的”等字样，说明这些妇女失去自由，沦为日军的“性奴隶”，备受摧残。

四、中国中央档案馆在发掘日本侵华罪行材料上所做的工作

中国中央档案馆一直在努力收集整理日本侵华战争的相关材料。目前，我们正在进行《抗日战争档案汇编》编纂工作，《抗日战争档案汇编》由中国国家档案局组织，全国各级综合档案馆共同参与，影印出版，收录的档案从时间上涵盖了1931-1945年中国人民14年抗战的全过程，从形式上包括了文件、电报、传单、文告、日记、日志、照片、文章、曲谱、图画及书籍手稿等，以全面立体地呈现出抗日战争档案全貌。档案内容除反映中国人民的坚决抵抗之外，还包括日本的侵略及其造成的损失，其中，我们也将着重公布关于“南京大屠杀”“慰安妇”制度、毒气战、细菌战等内容的档案资料，为公众研究历史、了解历史提供依据。

但是，在大量事实面前，日本右翼势力仍然不能正视历史，依然在否认罪行，否认“慰安妇”制度，美化侵略战争，这不仅是无视受害人的感情，无视中国和亚洲被日本侵略国家人民的感情，更是无视历史，无视全世界所有热爱和平的人们的感情。中国中央档案馆开发抗日战争档案，不是要延续仇恨，而是希望人们牢记历史，珍爱和平，反对战争，共同维护我们的先烈用鲜血和生命换来的和平局面。

Current State of Documents on Comfort Women Housed in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By the case of Collection of Written Confessions by Japanese War Criminals
Who Invaded China Possessed by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 LI Lina (Chinese Central Archives)

Japanese invasion of China, which continued for 14 years between 1931 when Japan provoked the Manchurian incident and 1945 when the country declared an unconditional surrender, was an atrocious criminal act, caused indelible pains and sufferings to the Chinese people, and brought huge losses to China.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houses a vast collection of historical documents about the Chinese war against Japan. In the process of unearthing and organizing these materials over the past few years,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has released a large amount of documents to society in various formats, such as online videos, books, newspaper publications, and exhibitions. Collection of Written Confessions by Japanese War Criminals Who Invaded China Possessed by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llection of Written Confessions”) is one of its important achievements of the last few years.

1. Contents of Collection of Written Confessions

Collection of Written Confessions was compiled by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and published by Zhonghua Book Company. It consists of the 1st and 2nd selections, which are published in a total of 120 volumes in August 2015 and July 2017, respectively. All documents included in the Collection of Written Confessions were chosen from trial documents of Japanese war criminals who had invaded China, which were possessed by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The collection contains confessions written by Japanese war criminals. In addition to the facsimile edition of those documents, the Chinese version of the photographs and confessions of the war criminals and the English abstract were also included. Since the collection contains their age, domicile of origin, family members, personal history, criminal records, and ideological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war, it achieves the highest level in terms of contents and quantity and most of the contents are disclos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As for all written confessions of the war criminals excluding those directly recorded in Chinese, their original version in Japanese and translation in Chinese were included, while all of confessions in Japanese were written and signed by the war criminals themselves. (Some of them were recorded by others but the signatures were put by the criminals themselves.) We did not summarize or modify their confessions, nor did we correct or add explanations to the errors in the documents themselves, such as the time or page alignment, in order to preserve the original texts as much as possible. However, in order to protect the privacy of women abused by the Japanese, the victims' real names and personal information were not directly disclosed when the facsimile edition of the documents were published. At the same time, for the readability, important criminal acts recorded in all confessions of the war criminals were summarized, translated into English, and placed in front of each confession.

2. Characteristics of Collection of Written Confessions

From 1950 to 1956 in Fushun and Taiyuan areas, China detained 1,109 Japanese war criminals who invaded China. From 1951 to June 1956,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of China thoroughly investigated criminal activities of the imprisoned Japanese and worked together with related organizations to prepare for the prosecution and trials, while keeping all

related documents in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These documents amount to about 200,000 pages that are composed of war criminals' written confessions, oral records, interrogation and field investigation records, materials on appreciation of war criminals, and inquiry recor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cuments on Japanese war criminals housed in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are in large as follows.

First, the documents have large volume and high quality. The documents not only consist of a great volume of materials but also record the entire process of the trials against war crimes. This shows that all the interrogation procedures for the war criminals were conducted in strict and systematic manners. The documents serve as important grounds to prove the criminal acts of the Japanese war criminals who invaded China.

Second,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correspond with facts and are highly reliable. The documents about the Japanese war criminals are kept as trial records, among which confessions and oral records were all written by the war criminals themselves. All the inquiry records were repeated several times, proven to be highly realistic, and verified in procedural terms. The oral records demonstrate that their contents have authenticity in that the types of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invaders have universality, in particular, the contents can be mutually verified since civilian massacres, gas and germ warfare, the establishment of comfort facilities and the forced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are seen not in a single case but in confessions written by several war criminals.

Third, the documents have a very high research value. While retreating after having lost the war, the Japanese military burned a large amount of documents in order to hide their criminal activities. As a result, currently existing documents such as those on the “Nanjing Massacre” and “comfort women” were scattered without being left as complete data. However, we were able to find relevant information in the documents that had already been found. For example, as for documents on “comfort women,” those previously found documents, such as Japanese government documents, newspaper reports, oral records of victims, and confessions directly written by criminals, were supplemented to each other, so many people were able to be informed of the existence of the “comfort women” system. In particular, the documents drafted by the Japanese military including Japanese officers and soldiers are the most direct exposure and demonstration of that criminal act—forced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3. Documents related to “comfort women” included in the Collection of Written Confessions

Collection of Written Confessions has many documents related to “comfort women” and “comfort facilities,” and some of them are as follows.

A written confession by Kaigin Suzuki: The Japanese military ordered to establish “comfort facilities in all areas” in which it was occupying, and lured many Chinese women to the “comfort facilities.”

A written confession by Nosuke Sasaki: In December 1943 in Ambon Island of the Dutch East Indies, “the Japanese military forcibly mobilized a dozen Indonesian women to set up comfort facilities and provided them to Japanese soldiers. This is a serious insult of Indonesian women.” “When our division was stationed in Hubei, China, the comfort facilities which were previously established in Dangyang and operated by a Japanese were provided to the Japanese military for comfort and the division supported the operation. In these facilities, there were about ten Chinese women, all of whom had become impoverished because of the Japanese imperialist aggression and been drawn to prison camps before being forced into prostitution. I think such brothels were located in Yichang and Jingmen as well.”

A written confession by Isao Inaba: On March 5, 1945, a company commander ordered to capture 20 women aged between 17 and 20 in a village of Fanshi County, Shanxi, to set up comfort facilities.

A written confession by Ippe Azuma: In August 1941, we robbed a Chinese house (200 square meters) to establish “comfort facilities” in Dongning County, Heilongjiang, under the command of the headquarters of the Kwandung Army.

A written confession by Fukuji Sato: In July 1942, we forcibly occupied three Chinese private houses (with a total of 25 rooms) in Longjiang County under the name of “rent,” in order to build a brothel for Japanese soldiers.

A written confession by Yukata Takeuchi: In December 1936 in the city of Tangyuan, “the Garrison Command dispatched the armed forces, occupied about 30 rooms of Chinese houses by force and used them as brothels exclusively for the Japanese military.”

A written confession by Masao Watanabe: The Star Club was operated and managed by an adjutant general of the Supreme Command in Jinan after having been established to publicly cooperate for the rape of Japanese imperialist army. Detained women suffered the most terrible agony that human beings were hardly able to tolerate in material, mental and physical terms. The Jinan Military Assembly Hall was headed by an adjutant general of the Supreme Command in Jinan.

A written confession by Yuichi Furukawa: In December 1938, the Japanese military police kidnapped about 50 Chinese women living in poor conditions in the city of Foshan and detained them in the "comfort facilities for Japanese soldiers."

Due to limitations in the volume of the presentation, not all cases can be listed one by one, but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above confessions.

First, the establishment of comfort facilities was supported by the Japanese military. The facilities were installed, operated and managed intentionally and systematically. This is clearly mentioned in the confessions written by the soldiers, including Kaigin Suzuki, Nosuke Sasaki, and Ippei Azuma.

Second, houses used for such facilities were occupied by force. This point is also mentioned in the written confessions of Fukuji Sato and Yukata Takeuchi. In addition, as for houses that were recorded to be borrowed, the rent was extremely low to the extent that it was not different from forced occupation.

Third, such facilities were widely distributed, and located in every area where Japanese troops stationed. The confessions of a number of war criminals also reveal a very wide range of distribution of such facilities. Those brothels were widely distributed in areas such as Beijing, Hebei, Hubei, Shandong, Henan, and Guangdong in China, and were established even in Ambon Island of the Dutch East Indies occupied by the Japanese military, while most of “comfort women” were Chinese and Koreans.

Fourth, violence and robbery is one of the ways of mobilizing “comfort women.” As shown

in the written confessions of Isao Inaba and Yuichi Furukawa, the Japanese military forcibly mobilized ordinary women as “comfort women” through violence and robbery,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women concerned. In addition, when referring to “comfort women,” many war criminals used expressions such as “detained under the power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used them as a means of comfort by strict restraint of Japanese militarism.” This shows that the women forced into comfort women were deprived of their liberty, became "sex slaves" of the Japanese army and suffered various abuses.

4. Efforts of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to discover materials about criminal acts of Japanese armed forces that invaded China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has made great efforts to collect and organize materials on Japan's war of invasion against China. Currently, we are working on the compilation of The Collection of Document about Chinese War against Japan. The collection is composed by the State Archives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ublished in facsimile edition while general archives nationwide jointly participate in its publication. The documents include the entire process of Chinese resistance of 14 years from 1931 to 1945 and a variety of formats of materials such as documents, telegrams, flyers, official documents, diaries, daily logs, photographs and paintings, sentences, music scores, books, and handwritten manuscripts, displaying those materials on anti-Japanese war in a comprehensive way from various aspects. The documents contains not only the persistent resistance of the Chinese but also the Japanese invasion and consequent losses it caused to China. We have especially focused on making public the documents on the Nanjing Massacre, comfort women, and gas and germ warfare, and strive to provide an important basis for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and study history.

However, in the face of so many historical facts, the Japanese right-wing forces still deny criminal acts without squarely looking at history, disapprove the "comfort women" system, and glorify its war of aggression. Such acts are equivalent to ignoring the feelings of the victims, disregarding the minds of the Chinese people and the peoples of Asia who had been invaded by Japan, and by extension, neglecting the desire of the world for history and peace. The discovery of the anti-Japanese war documents by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is not aimed at revenge but aimed for people to remember history, love peace, oppose war, and join forces to protect the peace earned in return for the lives of our patriots who sacrificed their lives.

2

4. 헤이룽장성당안관 자료

니에보신 聶博馨
(헤이룽장성당안관)

중국 헤이룽장성 당안관 소장 ‘위안부’ 문서의 가치

| 니에보신 聶博馨 (중국 헤이룽장성 당안관)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서는 헤이룽장성당안관이 소장한 국경경찰대와 일위(日偽, 일제와 위만주국) 헌병대(단)의 모든 문서 자료를 정리하고 발굴한 것으로 위만주국 무단장성 수이양현(綏陽縣) 수이양국경경찰대(綏陽國境警察隊)가 현지 일본군이 설치한 위안소 현황 조사 보고 등의 내용이다. ‘위안부’는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군대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일본 군인에게 성접대를 제공하고 성노예로 동원된 부녀자를 말한다. 위안부제도는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 정부가 각국의 부녀자를 일본 사병의 성노예로 강제 동원하고, 계획적으로 일본군에 성노예를 배치한 제도다. 이는 일본 파시즘의 반인도주의 행위이며, 양성평등과 전쟁 규칙을 위반한 제도로 반박불가한 정부 범죄 행위이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위안부’ 문서는 중국 침략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의 역사 기록이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 당안관 소장 ‘위안부’ 문서는 중국 침략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한 사실을 밝히는 확실한 증거

헤이룽장성당안관 소장 문서 중 중국 침략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 문서는 일본군의 ‘성노예제도’ 운영을 폭로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다.

첫째, ‘위안부’ 문서는 현지 일본군 위안소 설립 현황을 기록하기 위해 수이양국경경찰대 본대(本隊), 수이양국경경찰대 수이펀허대(綏芬河隊), 수이양국경경찰대 한충허대(寒蔥河隊) 간 주고받은 공문으로 구성된 원본 문서이다. 문서는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으며 펜으로 수기 작성되었다. 국경경찰대의 표준 공문용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 이 문서의 진실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둘째, ‘위안부’ 문서 원본에 수이양국경경찰대 본대(本隊), 수이양국경경찰대 수이펀허대, 수이양국경경찰대 한충허대가 문서를 처리하며 날인한 도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먼저, 이 도장은 국경경찰대 공식 도장으로, 수이양국경경찰대 수이펀허대는 푸른색 원형의 공문 날인란에 공문 접수 시간, 문서 번호를 명확히 기록했다. 그리고, 국경경찰대 한충허대 대장 다카하시(高橋) 등 국경경찰대의 문서 담당자가 찍은 원형의 개인 도장이 있다. 다음으로, ‘문서를 제출하여 보기 바란다, 요지를 처리하라(呈覽、處理要旨)’ 등의 푸른색 글자가 각인된 직사각형 형태의 문서에도 도장이 찍혀 있는데, 대장, 주임, 담당자의 붉은색 도장이 순서대로 찍혀 있다. 이는 이 문서의 심사 처리 과정을 표시한 것이며, 그 외에도 ‘기밀(秘)’ ‘통제(控)’ 등 글자가 각인된 원형 도장이 찍혀 있다. 이는 문서 처리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로서 문서의 원시성(原始性)을 충분히 보여준다.

셋째, 문서는 중국 침략 일본군이 수이양현(수이양진)(綏陽縣)에서 ‘군인 전용 위안소’ 를 설치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다. 1941년 12월 11일 수이양국경경찰대 한충허대 대장이 수이양국경대 수이펀허 대장에게 보낸 ‘수국경수한비 제1064호(綏國警綏寒秘第一零六四號)’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강덕(康德) 8년 10월 20일 수국경수한특비 제890호(綏國警綏寒特秘第八九零號) 보고서처럼 일본군 전용 요리점(위안소)가 12월 9일 설치되었고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시기: 1941년 12월 9일, 2. 설치 장소: 수이양현 한충허구(寒蔥河區) 난텐먼(南天門) 제 2632부대 관사, 3. 위안소 관리자: 이와무라 시게노리(巖村憲繁). 본적은 조선 마산부(馬山附) 수정(壽釘) 68, 현 거주지는 수이양현 한충허구 난텐먼, 4. 위안소 부녀자: 총 13명'

이 문서의 내용을 통해서 '위안소는 일본군인 전용 시설이며, 주소지는 부대 숙소'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안부 문서'는 가장 최초로 작성된 것이며 사실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군이 중국 헤이룽장성 수이양현(현재는 수이양진)에서 위안소를 설치했고, 특수한 목적에 의해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위안소 설치를 추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위안부는 상업적 행위이며, 일본 정부와 군대와 무관하다'는 일본 우익의 궤변을 반박하기에 충분하다.

2. '위안부' 문서는 일본군이 중국 동북 국경 지대에서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 발표 이후, 일본은 전쟁에 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도 면밀히 각종 문서와 자료들을 소각했다. 중국 헤이룽장성당안관 소장 '위안부' 문서는 중국 침략 일본 관동헌병대가 확보하지 못하거나 미처 소각하지 못한 문서들이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일본의 중국 침략 역사, 특히 일본군이 중국 동북 국경지대에서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위안부 역사 연구는 좀 더 깊이 있게 발전할 수 있었다.

첫째, '위안부' 문서에는 일본군이 수이양 일대에 위안소를 설치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1941년 수이양현(수이양진)에 일본군 전용 조선인 요리점(위안소)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수이양 국경경찰대와 관할하는 수이펀허경찰대와 한충허대 간의 오고 간 공문을 통해 이 지역에 '군용 위안소'가 설치된 전말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한 문서는 수이양국경경찰대 한충허대 대장 다카하시가 수이양국경경찰대 수이펀허 대장에게 보낸 '수국경수한특비 제890호 (綏國警綏寒特秘第八九零號)'(1941년 10월 20일)에 다음의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난텐먼 대장의 보고에 따라 현재 난텐먼에 일본군 전용 조선인 요리점(위안소)을 설치할 계획이다. 영업장소는 군의 농경 이민단 숙소 25개 동 중 2개 동을 활용할 것이고, 여성 초

대 인원은 조선에서 모집한 일본군 중국 대륙 파견 부대 전용 위안부 2000명 중 약 10명을 난텐먼으로 소집시킬 계획이다. 감독 기관은 난텐먼 주둔 화전(花田)부대이다.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다. 하사관과 사병은 30분, 장교는 1시간,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정한다'

수이양국경경찰대 수이편허 대장이 수이양 국경경찰대 본대장에게 보낸 '수국경특비 제 1288호의 1 (綏國警特秘第一二八八號之一)' 보고서(1941년 10월 28일)에는 한충허대 대장 다카하시에게 전달한 내용 외에도 '그 외에 한 가지 더 보충할 사항은, 수이편허 다통제(大通街)의 기존 군인 전용 숙소에 위안소를 설치했고, 여성 접대 인원은 10명이 있다' 등의 추가 내용이 있다.

이 문서는 수이양 난텐먼 외에도 수이편허 다통제에도 위안소가 설치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수국경수한비 제1064호 (綏國警綏寒秘第一零六四號)' (1941년 12월 11일) 보고에서는 위안소가 이미 설치되었다는 소식과 시간, 장소, 운영자 개인 정보, '위안소' 인원 명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수이양, 수이편허대, 한충허대 간의 오고 간 3건의 공문은 일본군이 수이양에 '위안소'를 설치했으며 위안소 설치 계획부터 정식 운영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국경경찰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국경 지역 주민의 주거 증명서과 여행 증명서 업무를 관리하는 한 편 상시 검사와 관리 감독을 하며 소련 간첩의 중국 국내 잠입과 중국인인이 소련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했다. 그 이유는 일본군도 위안소 설치가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위안소와 군대와의 관련성을 최대한 피하기 군이 감독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군이 제3자에게 위안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등 은밀하게 위안소 설치를 추진했다. 그래서 조선인이 도착하면 국경경찰대의 감시와 조사를 받았고,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과정과 규모 등의 내용도 기록되었다. 이 문서 내용은 매우 상세하여 일본군이 중국 동북 국경 지대에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 '위안부' 문서는 일본군이 중국 각지에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것을 연구할 중요한 증거 자료다. '노구교 사변' 이후 일본군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침략하고, 화베이, 화중, 화난 지역을 신속하게 점령했다. 일본군은 무력 공격을 하면서 각 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군내 내부 계획과 비율에 따라 위안부를 배치했다. 1938년 6월, 오카베 나오사부로(岡部直三郎) 화베이방면군(華北方面軍) 참모장은 관할 내 화베이 일본군 각 부대에 신속히 위안소를 설치하라는 통지문을 보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일 정서가 이렇게 확산되는 원인은 각 지역에서 일본 군인이 일으킨 강간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반일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군인의 개인 행동을 엄격히 통제 관리하는 한편 최대한 빨리 위안 시설을 설치하여 관련 시설 미비로 인해 규율을 어기는 자들이 생기는 것을 처음부터 막는 것이 시급하다.’

군대의 조직적인 움직임 속에 일본군은 점령지에 수많은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헤이룽장의 중국과 소련 국경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윈난과 하이난에 이르는, 중국 내 일본군이 점령한 곳이라면 모두 위안소가 있었다. 이런 상황들은 문서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수이양 일대만 해도 문서에 기록된 위안소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수이편허 다통제의 군용 숙소, 다른 하나는 수이양현 한충허구의 난텐먼 제2632 부대 숙소다. 이미 설치된 두 개의 위안소에는 각각 10명과 13명의 위안부가 있었고, 그 외에는 설치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영업 예정 장소로 수이편허 썬우제(三友街), 운영자 ‘시라카와 아무개(白川OO)’라는 기록이 있었다. 수이양국경경찰대 한충허대 대장 다카하시 가 국경경찰대 수이편허 대장에게 보낸 ‘수국경수한특비 제890호(綏國警綏寒特秘第八九零號)’ 보고서에서는 여성 접대부를 조선에서 모집한 일본군 대륙 파견 부대 전용 ‘위안부’ 2000명 중에서 차출하고 감독 기관은 ‘난텐먼 주둔 화전 부대’ 라고 기록하였다. 조선에서 ‘모집’한 위안부가 모두 2000명에 이른다는 부분은 그 숫자도 놀랍지만 군대가 관리 감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는 이미 일본군이 군대 안에서 계획적으로 비율에 따라 위안부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잘 알려준다.

3. ‘위안부’ 문서는 일본의 중국 침략 역사, 성노예 제도 실시 연구에 새로운 증거 자료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세계 전쟁 사상 유일한 성노예 제도로,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국가와 지역에서 수많은 부녀자들을 참혹하게 유린하고 그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위안부 역사는 세계 여성 역사 상 전대 미문의 가장 끔찍한 노예 역사이다. 이 제도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위해 필요로 한 군사 부대 시설 제도로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위안소는 사실상 일본군 부대 시설이었다.

중국 헤이룽장성당안관 소장 '위안부' 문서는 일본군 내에서 '위안부' 제도가 아주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1942년 6월, 동안헌병분대(東安憲兵分隊)가 군대 기풍과 군기, 복무, 내무, 교육 등 상황과 관할 지역 내 군대 내 직원의 사상 동향, 민심 동향 등 상황을 정리한 종합 보고서에도 군사 경찰 설치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군사 경찰은 주로 군사 기밀 보호를 담당하고 군대의 특수 위안소, 군인 회관 등 관계자의 신분 증명서와 발급 업무를 철저히 관리했고, '군대 특수 위안 시설' 관련 업무 전문적으로 담당했다. 보고서 원문에서는 '특별 지역 규정에 따라 각종 증명서 발급 문제는 군대의 요구에 따라 동안(東安) 군인 회관, 군대 특수 위안소, 전보전화국 관계자 신분 증명서와 군사 공사 도급자의 여행 증명서 발급 업무를 엄격히 관리한다' 고 기록되어 있다.

동안헌병분대(東安憲兵分隊)는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경찰을 설치했다. 군사 경찰은 주로 불법 범죄를 예방하고, 군사 계획 및 기밀을 보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군사 계획 및 기밀 보호 대상은 주로 군부대 관련 상인, 전화전신공사, 일반 부대의 내부, 철도 철로 및 특수 위안소 관계자 등이다. '특수 위안부 시설은 군대가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헌병대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이 진행되면서 이미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복무(服務)는 여러가지 폐단을 낳았다. 그리하여 준위 1명이 경계와 방범 직무를 수행하고 위법 행위를 주시한다' 원문의 동안헌병분대의 업무 문장표에는 '히비노(日比野) 준위가 특수 위안시설 관련 사항을 책임지고, 마쓰이(松井) 오장(伍長)의 업무에 군대의 특수 위안 시설 관련 사항 및 지문 관련 업무와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이 포함된다'

이 문서는 다음의 사항을 증명한다.

1. 군대 부대 시설로서 군대 안에 특수 위안소가 분명히 설치되었다, 2. 군대 특수 위안소 관계자에게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서 특수 위안부 관계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

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군대가 특수 위안부 시설을 시급 요청한 것은 주둔 부대 병력이 늘수록, 위안부 숫자도 늘어났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4. 위안소의 복무(접대)가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군인의 위법 행위들이 속속 발생하여 전문 관리인을 두었다.

이 문서의 핵심은 바로 중국 침략 일본군이 자체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했으며, 군대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이를 관리했고, 주둔군 숫자가 늘면서 수요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군대 안에 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본질을 가장 확실히 보여준다.

1942년 초, 중국과 소련 국경의 방대한 소련 극동군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은 동남아 부대를 중국 동북 지역으로 배치해 관동군의 병력 강화에 주력했다. 그래서 주둔군의 숫자가 늘었고, 군대는 특수 위안부 시설 설치가 시급했다. 일본군 위안소는 통상적으로 군대가 직접 설치한 자체 위안소, 일본 교민이 운영하는 위안소, 일본군 지정 민간 기생집 형태의 위안소, 군대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이동식 위안소 등이 있는데, 그 중 일본군이 직접 설치한 위안소는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일본 정부와 군대가 국가 기관을 이용해 ‘위안부’ 제도를 추진했다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 문서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원시 자료로서 유일성(唯一性)과 본원성(本源性)을 잘 보여주며, 성노예 제도를 실시한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한 새로운 증거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실시한 ‘위안부’ 제도는 전쟁 중에 발생하곤 했던 강간 사건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위안부’ 제도가 시행되면서 침략국의 수많은 피해 여성은 모두 강제로 또는 속아서 동원이 된 것이며, 인간으로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매일 끔찍하게 유린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한 것 외에도 그녀들은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 일본군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일본 정부가 국가 기관의 힘을 동원해 여성 특히 외국인 여성의 육체를 희생시켜 살인 병기로서 일본군의 병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추진하고 보호했다. 헤이룽장성당안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서 자료가 공개되면서 일본 군대가 2차 세계 대전 기간에 수많은 아시아 국가의 부녀자들을 강제로 동원한 사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부녀자들이 강제로 성노예로 동원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 다시 입증되었다.

2014년 지린성당안관이 발표한 일본 관동헌병대 ‘위안부’ 문서에는 동북 지역, 화북, 화중 지역 및 광 등지에 일본군이 위안소를 광범위하게 설치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015년 헤이룽장성당안관은 일본군이 동북 국경 지대에 ‘위안부’ 를 설치했다는 문서를 공개했는데 이들 문서는 상호 교차 증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위안부’ 문제에 ‘증거가 없다’ 및 ‘사실이 아니다’ 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일본 국내 우익 학자와 내각 각료들 주장을 확실히 반박하는 자료이다. 역사는 쉽게 말살되지 않는다. 헤이룽장성당안관의 일본 관동군 헌병대의 ‘위안부’ 문서는 역사의 본원성과 유일성의 측면에서 일본군이 성노예제도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中国黑龙江省档案馆馆藏 “慰安妇”档案的价值

| 聂博馨 (中国黑龙江省档案馆)

侵华日军慰安妇性奴档案是从黑龙江省档案馆馆藏国境警察队和日伪宪兵(团)队全宗中整理发掘而来。涉及伪牡丹江省绥阳县绥阳国境警察队对当地日军设立慰安所情况的系列调查报告等内容。“慰安妇”是指因日本政府或军队之命令,被强迫为日本军人提供性服务、充当性奴隶的妇女;慰安妇制度是二战时期日本政府强迫各国妇女充当日军士兵的性奴隶,并有计划地为日军配备性奴隶的制度,是日本法西斯违反人道主义、违反两性伦理、违反战争常规的制度化了的、无可辩驳的政府犯罪行为。鲜为人知的“慰安妇”档案,是侵华日军“性奴隶制度”的历史记录,具有独特的重要价值。

一、馆藏“慰安妇”档案是揭露侵华日军开设“慰安所”的铁证

黑龙江省档案馆馆藏档案中保存的侵华日军开设“慰安所”档案,为揭露侵华日军“性奴隶制度”提供了有力的铁证。第一,“慰安妇”档案是绥阳国境警察队本

队、绥阳国境警察队绥芬河队、绥阳国境警察队寒葱河队之间为记载当地日军设立慰安所情况往来行文而形成的原始档案；档案全部用日文书写，钢笔手书，记录在国境警察队标准公文用纸，充分反映档案真实性。第二，“慰安妇”档案原件上清楚地标着绥阳国境警察队本队、绥阳国境警察队绥芬河队、绥阳国境警察队寒葱河队办理文件过程中留下的印记。一是载有国境警察队官方印记。如绥阳国境警察队绥芬河队在蓝色圆形收文章上清晰记载了收文时间、文件编号。二是载有国境警察队办理文书人员加盖的圆形私人印章。如国境警察队寒葱河队长高桥等。三是载有“呈览、处理要旨”蓝色字样的长方形文件处理印记，队长、主任、承办人依次加盖红色印章，标识该文件已阅办的过程，此外还有“秘”、“控”字样的圆形印记。所有这些都是文件处理过程中自然形成的，充分反映档案的原始性。第三，档案真实记录了侵华日军在绥阳县（绥阳镇）开设“军用慰安所”的史实。如1941年12月11日，绥阳国境警察队寒葱河队队长给绥阳国境警察队绥芬河队长的“绥国警绥寒秘第一零六四号”报告，报告中记载道：“正如康德八年十月二十日绥国警绥寒特秘第八九零号所报告，日军专用料理店（慰安所），终于在12月9日开设。具体情况如下：一、开设日期：1941年12月9日；二、开设场所：绥阳县寒葱河区南天门第二六三二部队官舍内；三、慰安所经营者：岩村宪繁，原籍朝鲜马山附寿町六八，现住所绥阳县寒葱河区南天门；四、慰安所妇女人数：十三名。”从这份档案可以明确看出：“慰安所为日军专用，且地址就在部队宿舍”。“慰安妇档案”具有最原始、最真实的特点，揭露了侵华日军在中国黑龙江省绥阳县（现绥阳镇）设立慰安所的历史真相，证实了慰安所的开设是有目的有计划的日本军方行为，有力回击了日本右翼势力有关“慰安妇是商业行为，与日本政府及军队无关”的谎言。

二、“慰安妇”档案为研究日军在中国东北边境地带设立慰安所的史实提供了第一手资料

1945年7月，《波茨坦公告》发布后，日本自知败局已定，便自上而下地发动了一场销毁档案文献的国家行动。中国黑龙江省档案馆馆藏的“慰安妇”档案是侵华日军关东宪兵队未来得及销毁的档案。此档案的公布，为研究日本侵华史、特别是研究日军在中国东北边境地带设立慰安所的史实提供了第一手资料，将进一步推动历史研

究的深入发展。

第一，“慰安妇”档案详细记载了日军在绥阳一代设立慰安所的过程。从绥阳国境警察队及其辖下绥芬河警察队和寒葱河队之间，就1941年关于在绥阳县（绥阳镇）开设日军专用朝鲜人料理店（慰安所）一事的往来文件中可窥探该地区设置“军用慰安所”的始末。其中一份文件是绥阳国境警察队寒葱河队长高桥给绥阳国境警察队绥芬河队长的“绥国警绥寒特秘第八九零号”（1941年10月20日）的报告，文件上清晰记录着“根据南天门队长的报告，现计划在南天门开设日军专用朝鲜人料理店（慰安所）”，并详细记载“营业场所计划从二十五栋军农耕移民团宿舍中借用两栋房间，女招待员从朝鲜募集的二千名日军大陆派遣部队专用慰安妇中调集约十人到南天门，监督机关是南天门驻屯花田部队，经营方针：下士官及士兵可娱乐三十分钟，将校则为一小时，营业时间截止到夜间十二时止”。在另一份绥阳国境警察队绥芬河队长给绥阳国境警察队总队长的“绥国警特秘第一二八八号之一”报告（1941年10月28日）中，除了转报寒葱河队长高桥的报告内容外，还特别补充一点：“此外，补充说明一事，绥芬河大通街原军用宿舍开设慰安所，有女招待十名。”在这份档案里明确指出，除绥阳县南天门外，在绥芬河大通街也设有慰安所。而上文中提到的“绥国警绥寒秘第一零六四号”（1941年12月11日）报告中，更是明确记载了慰安所已经开设，并记录了时间、地点、经营者详情、“慰安妇”人数等信息，这三份来自于绥阳、绥芬河、寒葱河国境警察队之间往来的档案记载了日军在绥阳县开设“慰安所”，从计划开设到正式开设的全过程。国境警察队一项重要职能就是负责管理国境地区居民的居住证明书和旅行证明书工作，经常检查和监督，以防止苏联间谍潜入和中国人去苏联。因为日本军方对开办慰安所自知并非好事，竭力摆脱与军方的关系，因此采取秘密手段，以军督民办的形式，由军方委托他人经营，因此朝鲜人的到来受到了国境警察队的监视和调查，形成了这些调查报告，同时也记录了慰安所的设立过程和规模等内容。这些档案内容翔实，是研究侵华日军在中国东北边境地区设立“慰安所”的第一手资料。

第二，“慰安妇”档案为研究侵华日军在中国各地设置慰安所提供佐证。“七七事变”后，日军开始全面侵华，很快占领了华北、华中、华南等地。日军在武力进攻的同时，开始在各地建立军队慰安设施，并在军队内有计划、按比例地配备慰安妇。1938年6月，日本华北方面军参谋长冈部直三郎向所属的华北日军各部发出了迅速设置慰安设施的通知，称：“根据各种情报显示，激起如此的反日意识的原因，是由于

日本军人在各地的强奸事件已全面的传播开来，而酿成令人料想不到的严重的反日情节……如上所言，除了严厉管制军人个人行为以外，另一方面要尽速设置慰安设施，以根绝因为未是事项设施而有非故意犯禁者之情事发生，此为当前之急务。”在军方统一组织下，日军在占领地开设了大量的慰安所，在中国的日军占领区，从黑龙江的中苏边境，到南方的云南、海南，只要是日军占领区，就有慰安所的设置。这些情况在档案里，得到了清晰的印证。仅在绥阳一带，档案中明确记载设立了两个慰安所，一个在绥芬河大通街原军用宿舍，一个在绥阳县寒葱河区南天门第二六三二部队官舍内。已设立的两家慰安所分别有女招待10人和13人，此外还有一个不知是否设立，预定营业场所为绥芬河三友街，经营者为“白川某”。而在绥阳国境警察队寒葱河队长高桥给绥阳国境警察队绥芬河队长的“绥国警绥寒特秘第八九零号”报告中，提到女招待员是从朝鲜募集的二千名日军大陆派遣部队专用“慰安妇”中调集开的，监督机关为“南天门驻屯花田部队”，透露出这批从朝鲜“募集”的慰安妇共计2000人，数目惊人且由军队监督管理。这些史料记载足以证明，日军在军队内是有计划、按比例地配备“慰安妇”。

三、“慰安妇”档案为研究日本侵华史、实施性奴隶制度提供了新证据

日军“慰安妇”制度是世界战争史上是唯一的性奴隶制度，使亚洲及欧美等国家和地区难以计数的妇女惨遭蹂躏，蒙受巨大的侮辱和伤痛。慰安妇的历史也是世界妇女史上空前的、最为惨痛的被奴役记录。该制度是日军基于侵略战争的需要而建立的一种军事附属制度，因而带有鲜明的军事性质，慰安所实际上已经成为日军重要的军事附属设施。中国黑龙江省档案馆保存的“慰安妇”档案进一步证实日军确实普遍推行了“慰安妇”制度。1942年6月，在东安宪兵分队有关于队内军风军纪、服务、内务、教育等方面的情况以及管辖区域内军中职员思想动向、民心动向等情况的总结报告中，提及了设立军事警察，主要负责军机保护，严格管理对军中特殊慰安所、军人会馆等相关人员的身份证明书的发放工作，并设立专人负责“军中特殊慰安设施”相关事务等内容。报告原文提到“根据特别地区规定，对于各类证明书的发放问题，按照军部的要求，严格管理对东安军人会馆、军中特殊慰安所、电报电话局相关人员的

身份证明书及军事工程承包业者的旅行证明书的发放工作”。东安宪兵分队为加强服务职能，设立了军事警察，军事警察主要负责是警戒预防非法犯罪、保护军机等工作事务。保护军机方面主要针对和军部相关的商人、电话电信公司、一般部队内部、铁路沿线及特殊慰安所相关人员等。“对于特殊慰安妇的设施，在军方迫切要求的基础上，交由宪兵队负责，在积极地监督指导下已取得了很好的成果。但是这种服务很容易带来各种弊病，鉴于此，专设一名准尉来执行警戒防范，关注各种违法行为”。原文中东安宪兵分队业务分担表上，确切写明“由日比野准尉主要负责特殊慰安设施相关事务、松井伍长负责的业务包括军中特殊慰安设施的相关事项，指纹相关业务及各类证明书的发放工作。”这份档案可以证明：一、作为军事附属设施，军中确有直接设立的特殊慰安妇所；二、从给军中特殊慰安所相关人员发放证明书事情上，可以看出对特殊慰安妇所人员实施严格管理；三、军方急需特殊慰安妇的设施说明驻屯部队数量在增加，所需慰安妇数量也在增大；四、慰安所的服务会带来各种问题，容易出现军人违法行为，设专人管理。本档案最关键地方在于证明了侵华日军确实自己设立了慰安所，军队还专门安排人员管理，且随着驻军增加，需求变得迫切，军中自设慰安所最能体现日军性奴隶制度的本质。事实上，1942年初，为了牵制中苏边境更为庞大的苏联远东军，日本将东南亚的部队调往中国东北加强关东军力量，因此，随着驻屯军数量增加，军方要求建立特殊慰安妇设施迫切性在增加。日军慰安所通常有军队直接设立的固定的慰安所，日侨民营的慰安所，日军指定使用的民间妓院形态的慰安所，军队或民间经营的流动式慰安所，其中日军直设的慰安所最能体现日军性奴隶制度的本质。日本政府及其军队运用国家机器推行“慰安妇”制度，是无可辩驳的事实。这些档案弥足珍贵，体现了原始资料的本原性和唯一性，是揭露日军实施性奴隶制度等暴行的新证据。

综上所述，日本军队在二战时期实行的“慰安妇”制度，与战争中偶发的强奸案性质完全不同。在“慰安妇”制度下，受侵略国的绝大多数受害妇女是被强逼或欺骗，失去人身自由，充当日军的性奴隶，除了遭受整日的侮辱，她们随时还可能失去生命。而日本兵之所以能为所欲为，正是当时的日本政府运用国家机器的力量，不惜牺牲女性尤其外国女性的血肉之躯，以最大程度地激发他们作为杀人机器的能量，制度化地推进和维护了“慰安妇”制度。随着黑龙江省档案馆侵华日军“慰安妇”档案资料的公布，再次证明了日本军队在第二次世界大战期间曾强迫数以万计的亚洲国家妇女，主要是韩国和中国妇女，充当性奴隶是一个毫无疑问的事实。

2014年，吉林省档案馆公布的日本关东宪兵队“慰安妇”档案记载日军在东北各地、华北、华中地区以及爪哇等地普遍设立慰安所，2015年，黑龙江省档案馆公布侵华日军在东北边境地带设立“慰安妇”档案与之相互印证。这些史实有力地驳斥了日本国内一些右翼学者和内阁阁员宣扬“慰安妇”问题是“没有证据”和“未被证实”的说法，历史是不容抹杀的，黑龙江省档案馆保存的侵华日军关东军宪兵队“慰安妇”档案，从历史的本源和唯一性方面，揭露了日军实施性奴隶制度的事实。

The Value of Documents on Comfort women Housed by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China

| Nie Boxin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China)

The documents on the comfort women by the Imperial Japanese Army possessed by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organized and reviewed all written data of the border police and military police of the Empire of Japan and Manchukuo and include status reports on comfort station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Army documented by researched by Suiyang border police in Suiyang, Mudanjiang. “Comfort women” refers to women who were forced to be sex slaves of Japanese soldiers by the Empire of Japan or the Imperial Japanese Army. The Comfort women system was established by the Empire of Japan during World War II. The empire compulsorily drafted women from various countries to work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soldiers and systemically dispatched the women in the Japanese Army. It is an anti-humanitarian act of Japanese fascism, and an undisputed governmental crime that violated the equality of the sexes and conventional rules of war. This documents on comfort women that are relatively new

to public are highly valuable historical records about the Japanese Army that invaded China.

1. Files related to comfort women housed by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are confident evidences revealing the fact that the Imperial Japanese Army in China established the comfort stations.

Among many documents possessed by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thos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comfort stations” in China by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provide crucial evidence of the operation of the sex slavery system.

First, the documents are original copies comprise official documents exchanged by the main unit of Suiyang border police, Suifenhe unit of Suiyang border police, Hanconghe of Suiyang border police to record the situation of establishment of comfort stations. All the documents were handwritten in Japanese. They were recorded on the border police’s standard form for official paper, which verify the files’ veracity.

Second, the original documents were officially signed and sealed by the main unit of Suiyang border police, Suifenhe unit and Hanconghe unit of Suiyang border police. First of all, the official seal of the border police was affixed, and the Suifenhe unit of Suiyang border police recorded the time of receipt, document number in blue circle that was for seal affixture. In addition, Takahashi, the captain of Hanconghe unit of Suiyang border police and other persons in charge of documenting affixed their seals. Moreover, a document, where the Chinese characters, “呈覽、處理要旨 (Document for examination. Handle the gist)” were stamped on, was also affixed with red seals of a captain, a manager and a person in charge in order. It shows the process of deliberation of the document. In addition, other circular stamps with the inscription “Confidential” and “Restrict” were placed. These are general procedure of processing a document and show aboriginality of the document.

Third, the document tells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Japanese Army in China established the military brothels in Suiyang. The following is from the report, *Suiguojingsuihanmi* No. 1064, which was sent from the captain of Hanconghe unit to the captain of Suifenhe unit of border police on December 11, 1941:

A Japanese military exclusive restaurant (comfort station), which was a similar one reported on *Suiguojingsuihanmi* No. 890 on October 20, eighth year of Kande, was established on December 9. The details are as follows:

1. Date of establishment: December 9, 1941
2. Location: Official residence of No. 2632 army of Nantianmen, Hanconghe, Suiyang
3. Operator of the comfort station: Shigenori Iwamura. Place of his family register is 68 Sujeong, Masan, Joseon (Korea). Current address is 4 Nantianmen, Hancoghe, Suiyang
4. Number of comfort women: Total of 13

According to the document, the comfort place was only for Japanese soldiers and located in the official residence of a unit. This historical document, which is one of the oldest of the kind, shows that the Japanese Armed Forces set up a comforting place in Suiyang, Heilongjiang in China and systemically established it with special purpose. It is an enough evidence to refute the sophistic argument of the right-wing forces in Japan who insist that comfort women worked for money and were unrelated to Japanese government or the army.

2. The documents on comfort women is the most crucial data on studying the historical fact that Japanese armed force established comfort station on the border area of the northeast of China

After Potsdam Declaration in July of 1945, Japan realized that they lost the war and carefully destroyed various files and data. These documents on comfort women kept in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are material Japanese military police in the Kwantung Army failed to secure or to burn. As the files were unveiled, the history of Japanese invasion to China, especially historical fact that proves the Japanese Army set up comfort stations on the border area of the Northeastern China, making a footstep for further research on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system.

First of all, the document described the process of the army establishing a comfort stations in Suiyang in detail. Official documents exchanged among the main unit of Suiyang border police and Suifenhe unit and Hanconghe units of Suiyang border police discussing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restaurant (comfort station) reveal the whole story of the setting up process of the military brothels in the area. Among a few, the document, *Suiguojingsuihanmi* No. 890 on October 20 sent from the Takahashi, the captain of Hanconghe unit to the captain of Suifenhe unit is recorded as follows:

Considering the report by the captain of Nantianmen, a Korean restaurant (comfort station) for Japanese military is planned to be set up in Nantianmen. Two of 25 accommodations of military agricultural units will be selected as the business location. Ten of 2000 comfort women who only serve Japanese Army dispatched to China will be called up to Nantianmen for the service. The operation policy is as follow: Thirty minutes for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soldier, one hour for commissioned officers. Operating until midnight.

The report, *Suiguojingsuihanmi* No. 1288-1 on October 28, 1941, sent from the captain of Suifenhe unit of Suiyang border police to the captain of the main unit of Suiyang border police included some new information along with what was mentioned report: A comfort station was set up at the existing military accommodation in Datongjie in Suifenhe, and there were ten comfort women.

The Document clearly shows that there was a comfort station not only in Nantianmen but also in Datongjie. *Suiguojingsuihanmi* No. 1064 (December 11, 1941) that was mentioned above reported that a comfort station was finished setting up and the information of the date of its establishment, the loc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of operator, and the number of comfort women at the place. The three official documents exchanged among Suiyang border police, Suifenhe unit of Suiyang border police, Hanconghe unit of Suiyang border police recorded the whole process of Japanese Armed Force setting up comfort places in Suiyang, from planning to operating.

It was important for the border police to manage residence certificates and travel certificates for the local residents on the border area and to monitor and control the Soviet Union's espionage agents entering China and Chinese entering the Soviet Union. Because the Japanese military force also knew operating military brothels was wrong, they tried not to make relevancy between the army and the comfort places, by only supervising the brothels but letting civilians operate the places. So when a Korean arrived at the area, the border police monitored and investigated the person and wrote a report. That was the why the process of setting up comfort stations and their size along with other information were documented in detail. These reports are the most important data for studying on the Japanese army's establishment of comfort places in Chinese northeast border.

Second, the documents on comfort women are the significant data for studying on the Japanese Armed forces establishing military brothels in various places in China. After the Lugou Bridge incident, Japan attacked China in all directions and rapidly occupied the Northern, Central, and Southern China. During the military attacks, the Imperial Japanese Army set up comfort places in each area and dispatched comfort women there after military internal planning and measuring the size of units. In June of 1938, Naosaburo Okabe, who was the chief of staff of the Japanese Army in the Northern China, sent a notice to each unit and urged to set up comfort stations as follows:

As sex crimes by Japanese soldiers became know to each area, severe anti-Japanese sentiment is emerging. Therefore, we should control soldiers' behavior as well as establish comfort places to prevent soldiers going against the rules due to the lack of proper facility.

The Japanese army systemically set up numerous military brothels in occupied areas. From the border of the Soviet Union and Heilongjiang to Yuinnan and the Southern China, every occupied area in China had comfort places. The situation is seen through documents. Suiyang, for example, according to records, had two comfort places: one at military accommodations in Datongjie in Suifenhe; the other at Official residence of No. 2632 army of Nantianmen, Hanconghe in Suiyang. Ten and 13 comfort women were in the places, respectively. Other than the two, there is another document says that Sanyoujie was an expected place for setting up a comfort place, and a man whose family name was Shirakawa was going to be the operator,

although whether the comfort station was actually set up was unknown. According to the document, *Suiguojingsuihanmi* No. 890 on October 20 sent from the Takahashi, the captain of Hanconghe unit to the captain of Suifenhe unit, the comfort women for the newly established comfort place were going to be called up among 2000 comfort women who only serve the Japanese army dispatched to China, and the supervising organization was an occupation unit in Nantianmen. It is surprising that the number of comfort women “recruited” from Korea was about 2000, but the fact that those women were supervised by the army also should be noticed. These historical sources tell us that the Japanese army systemically planned and operated the comfort women system by the size of occupying troops.

3. The documents on comfort women are new evidence for studying on the history of Japanese invasion to China and the sex slavery system

The Japanese Armed Force’s comfort women system was a unique sex slavery system in the history of wars in the world. It brutally violated numerous women in many areas including Asian and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and cause unforgettable pain.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is one of the most horrifying history of slavery targeting women. A comfort station was set up on a significant military purpose and served as a subsidiary facility to help Japan’s aggression.

The comfort women related data housed by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prove that comfort women system was common in the Japanese Army. A comprehensive report of Dongan Military Police Squad that including information about military ethos, discipline, service, barrack discipline also mentioned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police corps. The purposes of the corps were to protect military secrets, special military brothels, and military centers, to identify the persons concerned of the Army and to issue various certificates. Moreover, it also dealt with tasks related to “the military facilities for special comfort.” In the original copy of the report, it says, “By the request of the army, the military police will severely manage the matters related to issuing various certificates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persons concerned of military

centers, special military comfort places and telephone companies, and the travel certificates for military constructor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work, Dongan Military Police Squad established a military police corps. The military police mainly worked for preventing crimes and protecting military plans and secrets. The objects of protection for military plans and secrets were mainly merchants doing businesses near military camps, telephone companies, workers in military camps and the persons concerned of railroads and special comfort stations. The report says, “As the military force needed special comfort facilities, the military police corps took responsibility for and actively managed and supervised the matter, which led to good results. However, the comforting service caused many negative effects as well. Therefore, one warrant officer will stay alert, perform anti-crime measures and monitor related illegal act.” The work responsibility schedule of Dongan Military Police Squad says, “Warrant officer Hibino will be in charge of matters related to special comfort facilities, Corporal Matsui will do his original tasks along with the matters related to military special comfort facilities and fingerprinting and issuing various certificates.”

The document demonstrates that:

- 1.Special comfort stations were clearly set up in military camps as subsidiary facilities.
- 2.The persons concerned of military special comfort women were severely monitored and managed by issuing certificates.
- 3.the urgent request of setting up comfort places by the military force explains that the size of occupying troop and the number of comfort women were proportional.
- 4.The service of comfort stations occasionally caused troubles and there were illegal acts conducted by soldiers, so that professional personnel was dispatched to manage the problems.

The key points of this document are that the Japanese army set up comfort places in China for their own needs, that the army deployed professional personnel for the management and that the more the number of soldiers, the more the comfort women were demanded. Establishment

of comfort stations within military camps most definitely show the essence of sex slavery system of the Japanese Army.

In the early 1942, in order to keep the massive army of the Soviet Unions in check on the border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Japan deployed the troops that had invaded the Southeast Asia to the Northeast China for strengthening the Kwantung Army. The more the number of occupation forces increased, and the more the army's need for setting up special comfort facilities grew. There were a few kinds of Japanese Army's comfort stations: The stations established by the army, the station operated by Japanese, the private brothels designated by the Japanese Army and the movable stations operated by the army or civilians. Among them, the stations established by the army show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sex slavery system of the Japanese Army.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Armed Forces carried out the comfort women system using governmental organization. It is an irrefutable fact. These archives are highly valuable aboriginal data that contain uniqueness and originality and new evidence exposing the brutality of the Japanese Armed Forces.

Meanwhile, the comfort women system conducted by the Imperial Japanese Army during World War II was wholly different from usual sex crimes occurred during wars. The victims of the system were forcefully drafted or deceived to work as sex slaves, deprived of their rights as human being. Not only infringed and insulted on a daily basis, they would have in a situation where they could lose their lives at any time. The reason the military force could have power over the women was that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institutionally promoted and protect the comfort women system to raise the strength of their army by scarifying women, especially foreign women.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disclosure of the documents on the Japanese Army's comfort women system re-verified that the Japanese Army forced numerous women, especially women from Korea and China, to be sex slaves.

In 2014,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revealed materials on the comfort women written by the Kwantung Military Police, which documented that the Japanese Armed Forces extensively set up comfort places around the Northeastern, Northern and Central China and Guam. In 2015,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exposed the document which proves the Japanese Army established comfort stations on the border of the Northeastern China and the Soviet Unions.

Those documents can cross-check their validity. These historical facts are certain data that can rebut the Japanese right-wing scholars and cabinet members who repeatedly say that the comfort women issues have no evidence and are not true. History is hard to erase. The Kwantung Military Police's record on the comfort women system, housed by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prove the Japanese Army implemented the sex slavery system in the aspect of originality and uniqueness of history.

2

토론문

공준환
(서울대)

<중국 일본군‘위안부’ 자료 현황과 과제> 토론문

| 공준환 (서울대)

1. 윤명숙 선생님 논문에 대한 질문

윤명숙 선생님은 최근까지 중국에서 중국 내 ‘위안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당안관을 찾아가 직접 자료를 발굴해왔다. 특히 저장성 진화지역은 현 당안관에 가서 직접 당안 자료를 발굴하여 진화지역 ‘위안부’ 상황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논문에서 이미 밝혔다시피 중국 지역 당안관의 상황과 자료 공개 현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중국 지역 당안관의 ‘위안부’ 관련 자료 발굴·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우선적으로 조사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2. 쑤즈량 선생님 논문에 대한 질문

1) 난징시 당안관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한 작업을 작년부턴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 작업의 진척 현황과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2) 위안부는 일본군 주둔지역을 따라 중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었다. ‘위안부’ 관련 자료는 당안관 뿐만 아니라 각 지역 〈文史資料〉에도 일부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각 시·현의 지방지 판공실(辦公室)의 지방지 관련 자료에서 ‘위안부’ 관련 자료를 발굴할 가능성은 없는가? 또한 향후 중국에서 당안관 자료나 증언 녹취 등 어떤 종류의 새로운 ‘위안부’ 관련 자료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다.

3) 중국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가? 일본정부에 대한 정책과 ‘위안부’ 생존자에 대한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해주기 바란다.

3. 리리나 선생님 논문에 대한 질문

중앙당안관의 자료 가운데 항일전쟁 관련 자료 이외에 ‘위안부’ 관련 자료를 발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면 한지엔(漢姪) 재판 관련 자료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이러한 자료에서 ‘위안부’ 관련 자료를 발굴할 가능성은 없는지?

4. 니에보신 선생님 논문에 대한 질문

흑룡강성 지역은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 외에 흑룡강성 당안관이나 지방 당안관에서 또 다른 자료의 발굴 가능성은 어떠한가? 아울러 흑룡강성에서 생존 ‘위안부’에 대한 증언 녹취나 독자적인 자료 발굴 사업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다.

<중국 일본군‘위안부’ 자료 현황과 과제> 토론문

| 이선이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중국 당안관 자료현황과 자료해제－일본군위안부 자료를 중심으로」(윤명숙)

「문헌, 구술과 연구 ;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의 재건」(쑤즈량)

「중국 중앙당안관 소장 위안부 문서 현황 소개」(리리나)

「중국 헤이룽장성 당안관 소장 위안부 문서의 가치」(니에보신)

무엇보다도 우선 오늘 이렇게 훌륭한 연구자분들의 토론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4개 글의 토론을 일일이 진행하기 보다는 글들을 읽으면서 들었던 저의 짧은 소견과 질문을 엮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하 존칭생략)

윤명숙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 남경대학살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소가 대량으로 설치되었던 지역이다”. 때문에 “중국 소재 일본군 관련 자료”는 상당한 양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전후 중국(타이완 포함)과 일본 두 나라 사이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 문제는 적어도 중국에서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었다.

중국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 가능한 주제로 떠오른 것은 역시나 한국의 피해자들의 운동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3월 제 7차 전국인민대회 5차 회의에서 “일본국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의안”을 인민대회 대표자 38명의 서명으로 선정하면서 부터였다. 오늘의 발표자 중 한분으로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관련 연구자인 쑤즈량교수 역시도 1992년 일본의 한 연구자로부터 상하이의 일본군 ‘위안소’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이에 답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천착해왔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논의 가능한 주제로 떠오르면서 풍부한 자료를 중국 정부가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늘 네 분의 발표는 풍부한 중국사료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일본군은 중국 각 곳을 전쟁터로 만들었으며 일단 점령하면 괴뢰정부(조직)를 두었다. 일본군이 가는 곳에는 ‘위안소’ 혹은 강간센터가 만들어졌으며 전쟁터와 점령지에서의 양상은 각각 달랐다. 그렇게 만들어진 ‘위안소’는 중국 곳곳에 산재했으며 당연히 ‘위안소’를 둘러싼 무수한 ‘역사자료’를 파생시켰을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하여 세계적 이슈로 만들어 낸 한국의 연구는 식민지 피해자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강제연행(forced transporttion)’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였다. 중국의 자료들은 “여성들이 동원, 이송되고 간헐 조건들은 크게 달라서 단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결코 전체로서의 체계를 기술하기 위해 일반화 될 수 없다(테사, 조시현역)”는 피해 스펙트럼의 광범위함을 보여준다.

니에보신의 헤이룽장성 당안관 소장 자료(牧丹江省 綏陽縣 綏陽 국경경찰대의 ‘위안소(軍人專用料理店)’ 설치 현황조사보고서)는 만주국 ‘위안소’ 경우이다. 리리나의 「중앙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서면 자백서 선집」의 경우는 후베이, 산시, 무단장성, 헤이룽장성, 허베이성, 광둥성, 산둥성 등 점령지 곳곳에서 일본 군인이 자행한 ‘위안소’ 설립에 대한 자백을 다룬다. 운명숙의 저장성 진화 우이현「진화성구군황표 32년 6월 20일」의 경우는 형석을 얻고자 점령한 지역에서의 ‘위안소’ 설치 동향을 보여준다. 특히 운명숙의 치밀한 교차 대조분석은 사료를 읽는 역사연구의 전형을 보고 있는 듯 한 느낌을 준다. 이 세 개의 자료는 괴뢰국의 경우와 점령지에서의 양상의 차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서 비교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안을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다.

여기서 우선 니에보신의 자료는 만주국 일본 경찰의 일본어자료이고 운명숙의 자료는 중국인의 동향보고 자료인데 일본어 자료에서 ‘위안소’를 지칭하는 용어가 ‘군인전용

요리점'이었는지 '위안소'이었는지 궁금하다. 윤명숙의 자료에서는 '위안소'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근황표의 용어 그대로 인지 알고 싶다. 만약 일본군은 '군인전용요리점'이라고 표기하고 중국인은 '위안소'라고 표기했다면 왜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리리나가 소개하고 있는 일본군 자백서의 경우는 1956년 전범재판에서 다른 내용들이다 그런데 당시 여성에 대한 폭력이 특별하게 문제되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를 내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엮어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윤명숙과 니에보신의 자료에서 일본군 '위안소'의 경영자는 조선인이다(혹은 조선인으로 추정된다, 하석환, 히야마 덕진, 이와무라시게노리). 중국의 자료는 한국 사회에서 피해여성의 시각에서 제기했던 많은 문제의 틀의 전환을 요구하는 자료들이 아닐까 싶다. 이 자료가 가리키고 파생시키고 있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요구는 아닐까, 혹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든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명숙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중국으로부터(혹은 중국의 풍부한 자료로부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테사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래 70년, 우리에게서 일본군 '위안부' 제고의 역사를 여성에 대한 군대 성학대(sexual abuse)의 세계사 속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중국으로부터 혹은 중국의 방대한 자료로부터 고민한다는 것은 테사가 말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중국 공산군(정부)은 적어도 '군대매춘'을 뿌리 뽑고 '매춘부' 출신 여성들에게 훈련과 대대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던 경험이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중국공산군의 여성에 대한 반듯한 품행'에 대한 증언은 자주 보인다. 이 역사적 전통과 아울러 중국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를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아닐까? 쭈즈량 이하 발표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다.

<중앙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서면 자백서 선집> 의 출판에 관한 감상 토론문

| 저우위원 周玉文 (중국중앙당안관)

<중앙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서면 자백서 선집 (中央檔案館藏日本侵華戰犯筆供選編)>(이하 ‘자백서 선집’으로 약칭) 은 중앙당안관이 편찬하고 중화서국(中華書局)이 출판하였다. 전권 120권으로, 2015년 8월과 2017년 7월에 각각 출판되었다. <자백서 선집>에 수록된 문서는 모두 중앙당안관이 소장한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의 재판 문서들이다. 이 문서는 일본군 전범의 조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작성된 원문 기록이다.

1. 원문 자술서, 일본 전범 문서의 기본적인 특징을 사실대로 복원하다.

일본군 전범 문서는 일본군 전범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원문으로, 조사에 필요한 법률 문서, 범죄 행위 인정 자료와 증거로 구성되어 있어, 자료의 원시성(原始性)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재판 당시 작성된 문서로서 서면 자백 원본은 대부분 전범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것이며, 검거 자료, 기소 자료 및 반복 논증 등 조사 자료는 하나의 완벽한 입증 자료이다.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의 범죄 행위 종류는 보편성을 가진다. 살해, 체포, 노예화 등 중국인을 해치는 만행과 더불어 위안소 설치, 위안부 강제 동원 등 범죄 행위는 실제로 범죄 행위를 자행한 다수의 전범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상호 비교 및 검증이 가능하고, 증언도 충분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침략 과정을 그대로 복원한 자료로 진실성과 신뢰성이 높아, 반박 불가한 역사적 사실의 증거이다. <자백서 선집>은 일본의 중국 침략 범죄 행위 역사를 연구하는데 충분한 사료적 뒷받침을 해 준다.

2. 원시성(原始性)은 <중앙 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서면 자백서 선집> 편찬의 철학을 보여준다

<자백서 선집>에 수록된 문서는 모두 중앙 당안관이 소장한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의 재판 문서를 출처로 한다. 편찬 과정에서 가장 중시한 점은 문서 원본을 그대로 복원하는 점이다. 전권 120권에 6만 여 페이지에 이르는 <자백서 선집>에 수록된 문서는 그 분량과 내용적인 면에서 역대 최고를 자랑한다. 최대한 문서의 원본을 보존하고 문서의 원시성(原始性)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백서 선집>은 영인본 형식으로 출판했다. 전범의 서면 자백 내용을 요약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으며, 시간이나 자백서 페이지 정렬 등 문서 자체의 일부 오류에 대해서도 바로잡거나 설명을 달지 않고 원문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출판했다.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본군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부녀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영인본 상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했다.

수록된 전범 자백서 문서 중 중문으로 그대로 작성된 것 외, 모든 전범의 자백서 모두 당시의 중문 번역본과 일본어 원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일본어 원문은 전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것이다(간혹 타인이 대필한 경우도 있으나, 서명은 본인이 직접 작

성). 문서 영인본 외에도 전범의 중요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요약문을 달고 영문으로 번역해 해당 자백서 앞에 배치하여 독자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앙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인 전범 서면 자백서 선집>은 ‘위안부’ 문제 연구를 위한 확실한 증거이다

〈자백서 선집〉 중 ‘위안부’ 및 ‘위안소’ 관련 사례들을 취합하였다. 이들 자료는 일본인 전범이 직접 구술한 것이며, 모든 사례들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사안이 아니라 상호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료의 진실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서는 일본의 전쟁 기간에 시행한 군대 성노예 제도, 위안부 강제 동원, 위안소 설치 등 역사적 사실을 재차 검증하며,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직접적으로 폭로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기존에 발굴된 ‘위안부 문서’를 보완해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안소 설치하는 군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위안부 제도는 하나의 조직 계통으로서, 일본 군대의 명령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2. 군대의 장기간 주둔 또는 임시 임무(방어 임무) 교대 시에도 모두 위안소가 설치되고, 일반인의 주거지도 약탈해 위안소로 만들었다
3. 위안소의 설치 범위는 광범위한데 일본군이 있는 곳에 모두 설치되었다. 심지어 일본군 점령지인 네덜란드령 동인도 암본섬에도 설치되었으며 중국, 조선 등에서 ‘위안부’를 동원되었다. 각 지역 위안소의 설치와 사용을 통해 위안소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는 일본군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4. 폭력을 통한 강제 동원은 ‘위안부’ 모집의 주요 방식으로,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무차별하게 이들을 유린했다.

전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숨기고 역사적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 이 문

서는 일본군이 점령지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각국의 부녀자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헌도 포함되었는데 이런 문헌들은 다각도로 ‘위안부’ 제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며, ‘위안부 문서’를 보완하고, 위안부 역사 연구의 심화를 위한 사료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4. 일본의 중국 침략 범죄 행위를 심도 있게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다년간, 중국의 항전 연구가 거둔 성과와 사료의 발굴과 정리 그리고 출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항일 전쟁 연구를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중앙 당안관은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 관련 자료들의 수집과 정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 중국 국가 당안관은 <항일전쟁문서회편 (抗日戰爭檔案匯編)> 편찬 작업을 시작해, 전국의 종합 당안관도 영인본 형식의 <항일전쟁문서회편> 시리즈를 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수룩한 문서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인의 14년 항전의 전 과정과 문서, 전보, 전단, 공문서, 일기, 일지, 사진, 문장, 악보, 그림, 서적, 친필 원고 등 형식들이 포함되어 있어, 항일 전쟁 문서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항일전쟁문서회편>은 <중앙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군 전범 서면 자백서 선편>의 뒤를 이어 역사를 비춰주는 또 하나의 역작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이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3

종합토론 :
재단의 일본군‘위안부’
자료집 및
목록 사업을 중심으로

〈재단의 일본군‘위안부’ 자료집 및 목록 사업을 중심으로〉 토론문

| 윤지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1. 재단의 일본군‘위안부’ 자료집 및 목록사업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는 단순히 과거사 기록인 아닌 인권기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활동이 있다. 기록을 발굴하고 드러내는 것은 과거사의 해결과 함께 동일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하는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군‘위안부’ 기록은 3가지 형식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①주로 공문서로 이루어진 사료적 성격의 1차자료, ②진상조사를 위한 피해자기록(증언포함), ③해결운동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기록(재판기록, 시위활동 및 시민운동, 외교적 입장 등)이다.

그러나 본 학술대회는 내용적으로 1차사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단의 활동의

한 축인 국내외 NGO 지원사업만 보더라도¹⁾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경로의 진상조사와, 해결운동의 기록까지를 포함해야만 기록으로서 보다 유용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1차사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러한 기록을 포괄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2. 기록에 대한 접근성 확보

실제 발굴된 관련 공식문서는 많지 않음에도 자료 발굴을 위한 중복된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자료 이해에 대한 혼란을 가중한다. 공공기관의 사업지원에 의존하여 자료수집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어떤 기관이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쉽게 알 수 없으며 비공개 기록이 많다. 기록전문집단은 인권옹호를 위해 정보접근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대중적 관심은 고조되고 해외에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기념비건립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익히는데에 기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조차 여러곳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식으로 기록이 관리되는지 알 수 없고 접근 또한 쉽지 않다.

기록의 접근을 위한 단일한 경로가 필요하다. 특히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용이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아카이브가 필요하다. 디지털아카이브는 단순히 목록과 이미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것의 생산맥락과 유통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김상규선생님의 지적하신 국민기금자료집의 문제점에서도 드러남) 일반적으로 디지털아카이브는 종이기록관리체계보다는 쉽고 비용이 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내용과 프로그램 구축,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의 공개와 접근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 2013년도 한일 과거청산 시민운동 보고대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증언투어, 미주 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홍보 사업, 일본군 '위안부' 문제 WEB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일본), 제 12 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증언 여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원예작 품전시회와평화인권네트워크구축,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제문서 모음집 제작, 광복 70 년, 미완의 70 년 - 사건과 증언으로 보는 일제강제동원, 제 14 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학술 회의, 일제강점기 과거사 청산 과제와 해결 방안 모색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 해결 과 아시아평화를 위한 국제 청소년대회 (한국, 대만, 일본), 일본군성노예제 아시아피해자 조사 및 아시아지역 대표 자 워크숍, 동북아근대인권침해교육전시물개발, 강연 및 전시회

〈재단의 일본군‘위안부’자료집 및 목록 사업을 중심으로〉 토론문

| 하종문 (한신대)

***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자료의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
이 개요**

사사 신노스케(佐佐真之助)의 서면 자백: 1943년 12월 네덜란드령 동인도 암본섬에서 ‘인도네시아 부녀자 십 여 명을 강제 동원해 위안소를 설치하고 이들을 일본 사병에게 제공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부녀자를 심각하게 모독한 행위이다’, ‘우리 사단이 후베이성에 주둔했을 때 당양(當陽)에서 예전에 설치된 일본인이 운영하는 위안소는 일본군에 위안 대상으로 제공되고, 사단은 운영을 지원했다. 이 위안소 안에 중국인 부녀자 십 여 명이 있었는데 모두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생활이 궁핍해지고 수용소로 끌려와 매춘에 강제 동원되었다. 나는 이창(宜昌), 징먼(荊門)에도 위안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리나 발표문 3쪽)

우리 사단 -> ?사단 + 시기

當陽에 주둔했던 독립산포병 제3연대의 위안소 기록과 대조 가능

수이양국경경찰대 본대(本隊), 수이양국경결찰대 수이판허대(綏芬河隊), 수이양국경경찰대 한충허대(寒蔥河隊) 간 주고받은 공문으로 구성된 원본 문서 중에서 “조선에서 모집한 일본군 중국 대륙 파견 부대 전용 위안부 2000명 중 약 10명” (니에보신 발표문 3쪽)

1941년 7월 이후 이른바 ‘관동군특종연습’에 동원된 2만 명의 조선인 ‘위안부’ 기록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국경경찰대의 관여는 만주국 내의 지역이라는 특성 외에 어떤 명령 계통에서 작동했는가?

☞ 개별 문서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묶은 새로운 ‘자료집’ 간행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 ‘외연’은 ‘부대’와 ‘지역’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부대 : 중대-대대-연대-여단-사단-군-방면군의 체계 속에서 위안소의 기획·설치·운영의 틀을 찾아내는 것

지역 : 상하이, 난징, 우한, 싱가포르 등과 같이 군 이상의 사령부가 주둔하던 대도시가 전형적이듯이 지역에 불박이로 존재하던 위안소와 통제 시스템의 분석 (『武漢兵站』 등의 자료는 매우 시사적)

* ‘위안부’의 이동과 연관된 ‘도항’ 체계와 일본 정부의 관여도 중요한 테마 중 하나
아시아·태평양전쟁 이전의 중국 전선은 전쟁이 아닌 ‘사변’이므로 ‘위안부’의 이동과 관련하여 외무성 영사경찰과 헌병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

< 东北亚历史财团的日军“慰安妇” 资料集与目录事业 > 讲评稿

| 周玉文 (中国中央档案馆)

《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以下简称《笔供选编》)由中央档案馆编辑、中华书局出版,共两辑120册,分别于2015年8月、2017年7月正式出版,收录的档案全部来自中央档案馆保管的日本侵华战犯的审判档案。这部分档案是在侦查、起诉、审判日本战犯过程中形成的原始记录。

一、原始自述,真实还原是日本战犯档案的基本特征

日本战犯档案是侦查处理日本战犯过程中形成的原始记录,由侦查的法律文书及认定案犯罪行的材料和证据组成,其原始性无可质疑。

作为审判时形成的档案,其中的笔供原件绝大多数为由战犯本人手书,与检举材料、控诉材料及反复论证的调查材料构成了完整的证据链。

日本侵华战犯所犯罪行的种类具有普遍性，肆意屠杀，抓捕、奴役和毒化中国人民，建立慰安所、强征慰安妇等，这些内容分别在参与实施罪行的多名战犯的材料中都有供述，可以相互印证，证言充足、证据确凿。真实还原了当年的侵略行径，内容真实可信，是不可抗拒的史实证据。《笔供选编》为研究日本侵华罪行的历史提供丰富的史料支撑。

二、原始性的呈现是《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的编辑理念

《笔供选编》选用档案全部来自中央档案馆所保管的日本侵华战犯的审判档案。编辑理念最重要的是还原档案原貌。此次收录的档案数量之多、内容之巨堪为历次之最，全书120册，达60000页。为了能够最大限度地保持档案原貌，呈现档案的原始性，《笔供选编》采用原始档案影印的方式刊出，未对战犯笔供内容进行删节和修改，对于档案中原有的一些错误，如时间、笔供页码编排等，均保持档案原貌，不作改动或说明，严格根据档案原件刊印。出于人道主义考虑，为了保护受日军侵害的妇女隐私，在出版影印时，将个别的人名及文字作了虚化处理。

收录的战犯笔供档案除个别直接以中文写成的以外，每名战犯的笔供均包括当时的中文译文及日文原文，日文原文均为战犯本人书写并签名（个别他人代写，但本人签名）。除笔供档案影印件外，还将每名战犯的重要罪行进行了摘编，形成笔供中英文提要，排在相应笔供之前，方便查阅。

三、《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是研究“慰安妇”问题的有力证据

从《笔供选编》中选取部分涉及到“慰安妇”、“慰安所”的一些例子，这些材料都是由日本战犯亲自供述，所有案例均非个案，能够互相印证，真实性不容质疑。档案再次印证了日本战时实施军队性奴隶制度、强征慰安妇、开设慰安所的历史事实，是对这一罪行最直接的揭露和佐证，是对已有“慰安妇档案”的补充。大体包括

以下几个方面：

- 1、慰安所的设置是军方有计划有组织的行为，慰安妇制度有着完整的组织系统，是日本军方指令实施。
- 2、军队长期盘踞或临时换防均设立慰安所，并掠夺强占民房作为场所。
- 3、慰安所分布很广，遍及日军所到之处。还涉及被日军占领的荷属东印度安汶岛，“慰安妇”则大多来自于中国、朝鲜半岛。从各地慰安所的设置使用情况可以看出，慰安所有等级之分，证明是日本军方直接策划和参与管理的。
- 4、暴力抢夺是“慰安妇”征召的主要方式，遭受非人境遇任由摧残。

战后日本政府对慰安妇问题讳莫如深，回避历史事实。这部分档案中涉及日军在占领区设立慰安所及强征各国妇女充当“慰安妇”罪行的文献从多个角度证明了“慰安妇”制度真实存在，是对已有“慰安妇档案”的补充，也为进一步研究提供史料依据。

四、深度发掘，统筹整合日本侵华罪行材料

多年来，中国抗战研究取得的成果与史料的发掘整理出版工作密不可分。为了能够深化拓展中国抗日战争的研究，中央档案馆一直在努力收集整理日本侵华战争的相关材料。自2016年起，中国国家档案局发起《抗日战争档案汇编》的编辑出版工作，组织全国各级综合档案馆影印出版《抗日战争档案汇编》系列丛书。该系列收录的档案从时间上涉及广，涵盖了1931-1945年中国人民14年抗战的全过程。收录的档案形式包括文件、电报、传单、文告、日记、日志、照片、文章、曲谱、图画及书籍手稿等，以全面立体地呈现出抗日战争档案全貌。编纂的《抗日战争档案汇编》一书必将是继《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之后的又一鉴史力作，为公众研究历史、了解历史提供依据。

memo

memo

memo
